

우리 제품 문화의 산업디자인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 고유성 발견과 적용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최종보고서)

1999. 4.

주관기관 (주)212 디자인

산업자원부

제 출 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 제품 문화의 산업디자인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 고유성 발견과 적용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사업기간 : 1997. 9. 1. ~ 1999. 2. 28.)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9 . 4 . 30 .

주관기관명 : (주)212디자인

총괄책임자 : 은 병 수

연 구 원 : 은 병 수

” : 김 선 경

” : 김 소 미

” : 김 진 화

” : 손 영 배

” : Ben Herath

” : 김 병 관

” : 윤 세 민

” : 박 경 화

” : 김 효 정

” : 윤 혜 란

” : 이 용 호

” : 최 지 나

” : 최 현 주

요 약 서 (초 록)

사 업 명	우리 제품 문화의 산업디자인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 고유성 발견과 적용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주 관 기 관	(주)212 디자인	총괄책임자	은 병 수
총 사업기간	1997. 9. 1. ~ 1999. 2. 28. (1.5년)		
총 개발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 102,022 민감부담금 : 51,516 계 : 153,538		
참 여 기 관			
주 제 어 (6 ~ 10 개)	제품 문화, 시대적 조사, 장르별 조사, 산업디자인 조사, 분석, 체계화		

1. 최종(당해) 개발목표

우리의 제품과 관련 문화를 시대적, 장르별로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만의 고유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현대 산업디자인에 독창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 정책적 측면

- 향후 세계 단일 시장에서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 자료 역할.
- 연관 분야와 품목별 세부적인 응용 연구에 관한 기본틀 제공.
- 성공과제로서 기초 연구 정책 입안에 기준을 제공하며, 우리 독자 고유 디자인 정책의 방향 제시.

2) 기술·경제 및 산업발전 촉진 측면

- 우리만의 고유성이 있는 제품 개발의 기본 데이터가 되며, 고부가 상품, 고유 모델로서의 위치 확보에 일조.
- 우리만의 합리적 제품 이론 발견으로 생산 관리, 인간공학, 재료 활용 등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 활용.
-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하여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의 소량 다품종 시대에 대비한 제품 경쟁력 확충.

3) 기타

- 기초 연구 분야의 결과에 대한 DB망과의 연결로 연구 성과 활용에 전기를 마련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1 단계 ————— 기본 조사

- 국내 연구 사례 조사
- 해외 연구 사례 조사

- 우리나라 고유 제품의 장르별 분류에 따른 조사 아이템 추출
(생활용품류 : 가구, 문방구, 생활소품, 주방용구, 도구, 신변잡화 등)
- 시대별 제품 분류
(예;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등)
- 국내 조사 출처 파악 및 조사
- 산업디자인적 접근을 위한 분석 항목 및 방법 도출
(예; 제품 배경, 조형성, 기능성, 제작성 등)

2) 2 단계 ————— 분석

- 도출된 분석 항목에 의한 분석
- 고유성 파악
- 디자인 특징 분석
- 추가 조사
- 정립

3) 3 단계 ————— 적용 방안 연구

- 분석 결과 리뷰
- 적용 방안 연구
- 현대 적용 가능 상품 예측
- 정립

4) 4 단계 ————— 연구 결과의 체계화

- 연구 보고서 작성
- 참고 도판 (그림 및 사진)의 CD-Rom化
- KIDP DB에 자료 제공
- 발표 계획 확정

* 발표

4. 연구개발 결과

1) 연구 조사 분석 자료의 체계적 Report化 및 간이 Data Base化.

- 연구 내용 Computerize
- 필요 도판의 CD-Rom化
- 향후 구축 예정인 KIDP DB System에 자료 제공함으로써 공공 DB化

5. 기대효과

- 1) 산·학·연 관련인들의 연구 과정의 참여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결과에 대하여 관심 확산
- 2) 최종 결과물의 출판(연구 보고서)을 통한 정보의 공유
- 3) 세미나를 통한 의견 교환으로 향후 2차 연구에 대한 동기 유발
- 4) 최근 구축 준비중인 KIDP DB망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관련 학·업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5) 전문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도 우리의 독자적인 상품 개발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매체를 통한 홍보
 - 산업디자인지, 월간 디자인지, 디자인 신문
 - 일반 일간지, 방송사
 - 기타 관련 매체

목 차

제 1 장 개요

제 1 절	서론	3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5
제 3 절	연구의 내용	8
제 4 절	국내외 현황 분석	11

제 2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분석 방법	19
제 2 절	분석	26
	A. 가구	27
	B.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레용구	71
	C. 생활소품	111
	D. 기(器) 및 주방용구	189
	E. 도구	301
	F. 신변잡화	329
	G. 기타	401

제 3 장 조사 방법 및 내용

제 1 절	국내 조사	427
제 2 절	해외 조사	446
제 3 절	자료 출처 목록	456

부 록 사진 자료

제 1 장 개 요

제 1 절 서론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제 3 절 연구의 내용

제 4 절 국내외 현황 분석

제 1 절 서론

‘우리 제품 문화의 산업디자인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 고유성 발견과 적용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행된 우리 전통 제품에 관한 현대 디자인적 시각의 접근이었다. 과거 우리의 제품과 관련 문화를 시대적, 장르별로 현대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만의 고유성과 지혜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현대 산업디자인에 독창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약 18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의 약 1천5백여 점의 대상을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비교적 디자인적인 가치를 확연히 인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향후 활용 가능한 모티브와 고유성 (Originality) 등을 가지고 있는 4백여 점을 선정, 분석하여 수록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각 아이템별 분석 항목에는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정보와 조형적, 기능적인 분석, 제작 방법 추론, 디자인 특징, 활용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든 자료의 출처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 해당 제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통합적인 디렉토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베이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에 기획하였던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첫째, 우리 전통 제품에 대한 산업디자인적 연구의 최초 사례로서, 향후 우리 것에 대한 연구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우리만의 고유성과 제품 이론 발견으로, 우리 제품 문화 정립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발견된 고유성(Originality)과 방법론 등을 현대 제품에 적용하여 가치를 높이며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핵심적 사항에 더불어 산업디자인 외 타분야와의 연구 결과 접목 등을 통해 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번 1차 연구는 우리 전통 제품의 디자인적 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된 계기였다. 향후 2차, 3차의 지속된 연구를 통하여 미발굴된 아이템의 확충, 내용의 깊이, 사용성(기능성)에 대한 분석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제품 문화 연구의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고유의 제품 문화 형성으로 우리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정부, 학계, 기업계의 관심과 인식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가. 정책적 측면

(1)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상실

최근의 경제 환경은 각국의 주요 상품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시장 단일화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적, 구조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우리 경제 환경은 선진 고급 제품과 후발 국가들의 저가 상품의 홍수 속에서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경쟁력 상실의 현상은 우리 상품의 수출 증진에도 한계에 이르게 하여 더이상 일반적 특징이 없는 상품으로서 세계 시장에 나가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며, 더구나 각종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고비용 가격 구조로 후발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다.

(2) 디자인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산업 경제 구조의 개선 아래 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의 가치적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물론 이러한 방안 제시는 어느 한 분야만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개선과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우리 디자인 분야로서의 당면 과제는 바로 디자인으로서 제품의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가장 적은 투자와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전 산업계, 문화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나. 기술적 측면

(1) 우리의 고유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 개발이 관건

이러한 정책적 배경 아래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상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최근 최대의 문제 제기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 고유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의 개발이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서 꼭 시도되어야 할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더이상 모방만을 할 수도 없으며, 선진 제

품의 현대적 느낌을 어설피게 도입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2) 고유 디자인 창출을 위한 고유성 발견과 적용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유성을 살린 우리의 독특한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 문화에 대한 전반적 연구와 현대 제품 디자인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바, 바로 이러한 점이 본 연구 과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하고 시급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대부분 미술, 공예적 시각과 역사적 유물 가치의 확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우리 제품 문화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전통 문양 파악 등 단편적 참고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제품을 관련 문화와 더불어 장르별로 여러 아이টে에 관하여 과거 국가 초기 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조사, 분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형성과 제작기술, 재료, 인간공학적 측면 등 산업디자인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기초 자료화하고, 현대 산업디자인과의 접목 가능성 및 적용 방안에 관한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현 상태의 문제점

가.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지원 체계 미흡

최근 들어 본 과제와 같은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상당히 늦은 상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동안은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전반적 기초 조사와 더불어 분석 및 고유성 발견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구 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시도는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나. 역사적, 학술적 차원의 연구 일방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이 과거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가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발표되고 있는 대다수의 출판물들이 과거 우리 전통물들의 유물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우리 고유성의 세계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한 기초 연구의 부족으로 우리 고유성의 발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현대화의 과정도 미흡했다고 하나, 우리 디자인계 스스로가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화 추진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이러한 연구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이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기간(월)	단 계	내용 및 범위
7	1 단계 <hr/> 기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연구 사례 조사 - 해외 연구 사례 조사 - 우리나라 고유 제품의 장르별 분류에 따른 조사 아이템 추출 (예; 가구, 문방구, 생활소품, 주방용구, 도구, 신변잡화, 기타) - 시대별 제품 분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용품류</p> <p>가구, 문방구, 생활소품, 주방용구, 도구, 신변잡화, 기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사 출처 파악 및 조사 - 산업디자인적 접근을 위한 분석 항목 및 방법 도출 (예; 조형성, 제작성 (재료, 기술 측면), 경제성, 디자인 세부요소 (인간공학적 측면 등), 연관성 등)
7	2 단계 <hr/>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분석 항목에 의한 분석 - 고유성 파악 - 추가 조사 -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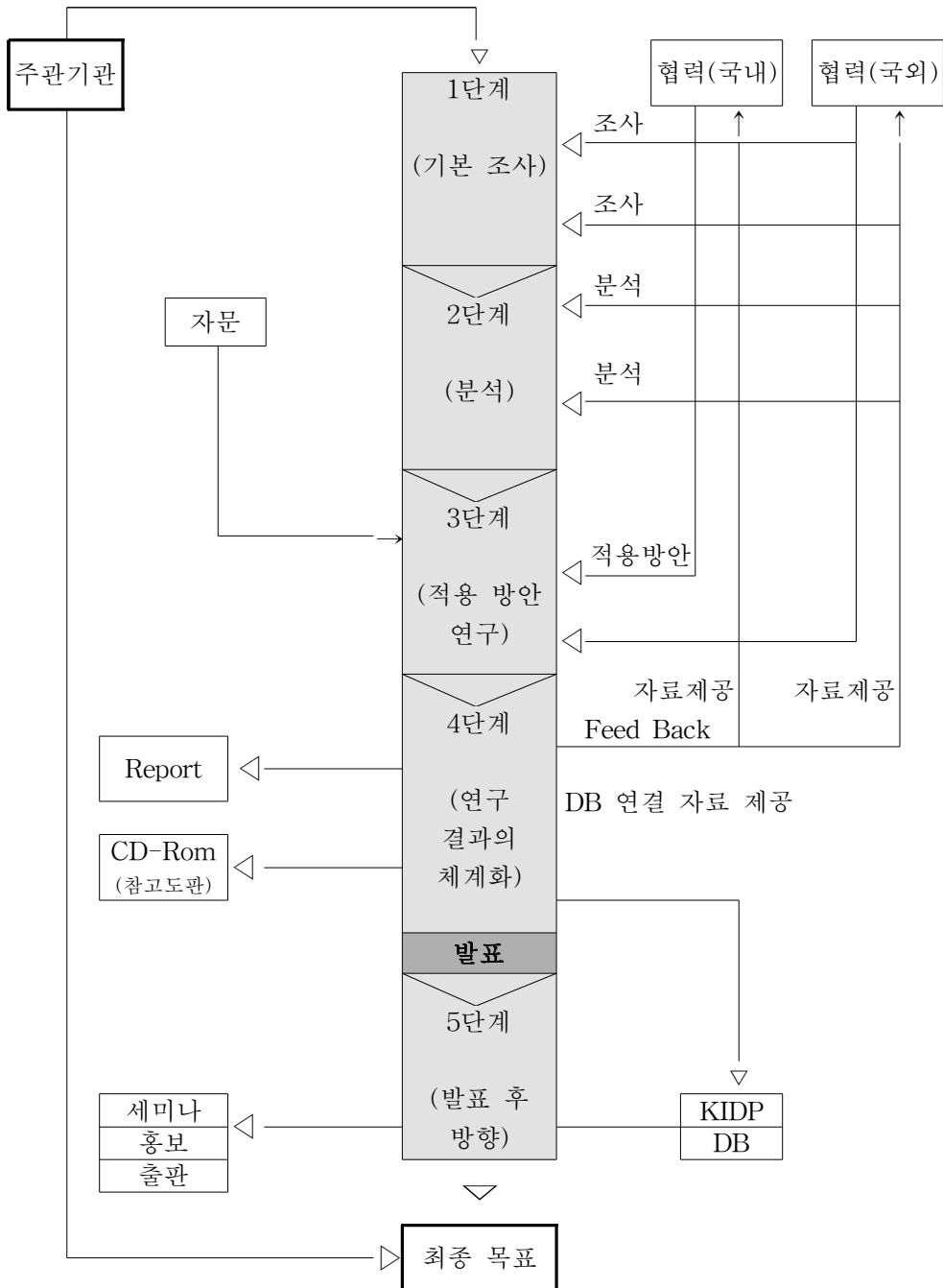
기간(월)	단 계	내용 및 범위
4	3 단계 ----- 적용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 리뷰 - 적용 방안 연구 - 현대 적용 가능 상품 예측 - 정립
2	4 단계 ----- 연구 결과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보고서 작성 - 참고 도판 (그림 및 사진)의 CD-Rom化 - KIDP DB에 자료 제공 - 발표 계획 확정
비 고		

2. 개발의 추진전략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문헌조사 - 출판물, 연구논문, 기타 미디어 - 인터넷 홈페이지 	<p>1단계 (기본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템 추출 및 분류 - 전반적 조사에 이어 제품군으로 압축 - 시대별/제품 장르별 분류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연구 사례 조사 - 해외 DB 연결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디자인적 분석 항목 - 기본 디자인 요소 도출 - 리스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 수행 인원 및 협력기관 동시 수행 - 고유성 발견을 위한 표본 작업 	<p>2단계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뷰 - 자문 및 협의 - 분석 결과 취합 	<p>3단계 (적용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방안 연구 - 현대화 정도 예측 - 기대 효과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작성 - 한글 및 중요 사항 영문 표기 - 도판 수록 - Computerize - 체계 있는 활용을 위한 Manual화 	<p>4단계 (연구 결과의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D-Rom화 - 도판 및 도형 위주 - 중요 사항 한/영 언급 - 매뉴얼과 상호 호환성 유지
발표		
	<p>5단계 (발표 후 방향)</p>	

▽
최종 목표

3. 단계별 개발 추진체계



제 3 절 국내외 현황 분석

1. 국내·외 기술현황

가. 국내·외 기술현황

(1) 국내 현황

· 우리 전통 문화와 관련, 포괄적 정리와 연구 진행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과거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고고학적 차원에서부터 유물에 대한 고증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연구가 각종 정부 지원 연구소 및 사립 단체, 학회, 개인 연구가 등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문화재관리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보 및 유물 자료 등을 총괄적으로 인터넷에 정리 수록하는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음악, 미술, 공예 등의 예술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각종 새로운 결과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 역사적, 학술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류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과거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학술 차원의 연구 성격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잇따라 출판되고 있는 각종 서적물들이 과거 우리 전통물들의 유물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전통 상품의 충실한 재현 시도

최근 전통 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역시 전통성에 근거한 형태와 제작 기법 등에 관한 것이며, 연구자 또는 계승자 역시 전통 상품을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에 제작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 상품이 과거 전통성에 충실하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전통 공예 상품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 각 분야에서 현대화를 전제로 한 전통에 관한 기초연구는 초기 단계

따라서 현대 산업디자인과의 접목을 전제로 한 기초 연구 단계는 이제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건축 분야에서 우리의 고건축을

연구하여 신건축에 적용하고자 함이나, 한국의 문양을 연구 정리하여 현대에 활용하고자 기진행되고 있는 연구 등이 바로 이러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 일부에서 부분적, 각론적 시도는 간간이 발표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덕수씨의 사물놀이와 서양 음악의 접목 시도라든가, 대중음악의 김영동, 신중현씨의 시도도 있었다. 이영희씨를 비롯한 패션 분야에서도 우리 전통 복식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현대 상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 **디자인 측면으로 분석된 전통 제품 분야 연구의 절대 부족**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고유성을 발견하고 이를 현대에 재창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야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연구의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가구, 식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저기술로 고부가 상품을 창출하고자 하는 최근 상황에 적합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연구의 결과로서는 다소 각론적이라 사료된다.

(2) 국외 현황

· **해외 정보 부재로 인한 현황 파악 미흡 - 본 연구의 해결 과제**

해외 정보의 부재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이러한 해외 연구 현황 파악도 본 연구의 과정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성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들의 자료에 조금씩 접근이 가능하나 종합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파악하기에는 더욱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멀티미디어의 활용 시점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충분한 DB화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진행 - 출판물 근거**

다만 국내에 수입된 각종 출판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송기기류, 가구류, 시계 등 생활용품류 등에 관한 서적들이 발명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형적인 비교를 한 내용 및 타국의

제품과 비교된 분석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과거 한 제품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대, 현대 제품에 이르기까지 사진과 분석된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GK디자인은 그들의 GK도구문화연구소 조직을 통하여 꾸준히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여 각종 채널로 발표를 하여 오고 있다.

또한 반드시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 공예, 엔지니어링 등의 관련 분야에서도 각종 학술 발표,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은 각국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덱스나 인터넷의 세부 리스트에서 타이틀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미 폭넓게 구축된 박물관으로부터의 인프라 - 미, 영, 불

메트로폴리탄, 대영, 루브르 등 서구의 대형 박물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그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각 연구 단체와 개인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출판 등의 미디어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원활히 전달되고 있다. 각 분야에 전달된 이러한 기초 연구 결과는 나름대로의 적용 방안을 통하여 현대 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대의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미 그들 문화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기초적 요소로서 자리잡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련 산업 현황

(1) 국내 현황

· 역사적 학술적 접근을 통한 포괄적 연구 진행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원을 둔 고고학적, 사적 연구를 토대로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풍습, 유물 등의 체계적 연구가 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옛일에 대한 가치 있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은 역사 연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건축, 복식 등 관련 파생 분야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 실험적 결과가 이미 발표되고 있는 관련 산업

- 음악, 패션, 건축

음악 분야의 경우 과거 10여 년 전부터 전통 국악과 양악의 조

화를 시도하는 연구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우리 국악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이해를 발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반 대중 음악에도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바, 작곡가 김영동, 김수철, 신중현씨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토속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영화에서도 이러한 시도의 영화음악을 발표하고 있는데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장선우 감독의 꽃잎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요즈음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복식 연구가들의 노력으로 우리 전통 복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의 기초 위에 이영희씨 등 몇몇 디자이너가 앞장서서 과거 우리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외국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발표된 출판 문헌상으로 볼 때 관련 산업 분야 중 가장 넓고 깊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장르 구별에 따른 연구뿐만 아니라 세부 공법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 연구 결과에 비하여 우리의 고유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와 현대 건축과의 접목 또는 재해석 등의 시도는 다소 시초 단계라 볼 수 있다.

(2) 국외 현황

국외 기술현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외의 관련 기술 분야 현황 역시 우리보다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서구 선진국 역시 산업디자인에 관한 한 근대적 의미로 볼 때 100여 년 남짓 역사를 가지고 있어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와의 차이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 산업 또는 관련 기초 연구 과제로 미루어 볼 때는 기록의 보존, 분석, 체계화 등의 개념이 우리의 근대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기초 위에 그들은 각 분야에서 그들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발견하는 작업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여 올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 와서 그들의 고유성을 계 시장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태리, 프랑스, 영국 등이 패션을 필두로 그들의 스타일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도는 가구 등의 제품 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 2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분석 방법

제 2 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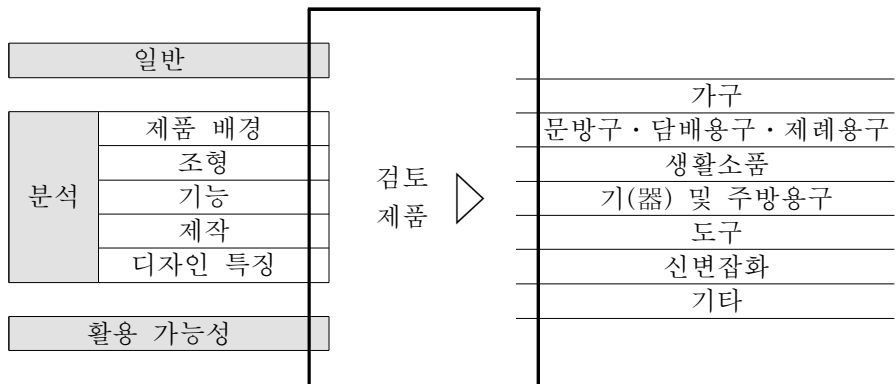
제 1 절 분석 방법

1. 대상 분류

가. 개요

조사된 참고 문헌, 도록, 웹 사이트에서 포괄적으로 대상을 파악하였다. 회화 및 탈것류, 취미용품 등 초기에 제외한 품목 외에는 모두 1차 대상으로 간주하여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품목을 결정하였다.

- 기능과 용도가 있는 제품
 - 단순히 감상을 위한 제품류는 제외
- 보편성을 지닌 제품
 - 의료용구나 약기류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제품 제외
- 현재의 대량 생산품과의 연계성 유무
 -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현재에도 우리 생활에 쓰여지고 있는 제품류
- 시대적 비중이 높았던 제품
 - 형태 및 기능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었지만 과거 시대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제품류



* 상기 기준에 근거, 본 연구 기간 동안 검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

나. 품목 분류

구분	분류	품목	비고
A	가구	1) 장 2) 사방탁자 3) 문갑 4) 평상 5) 서안, 경상 6) 연상 7) 소반	
B	문방구 담배용구 제례용구	1) 벼루 2) 연적, 필세 3) 붓, 필가 4) 서가, 서산 5) 먹통, 행연 6) 도장 7) 담배용구 8) 제례용구	
C	생활소품	1) 화장도구 2) 보관용구 3) 취침도구 4) 등축구 5) 바느질용구	
D	기(器) 및 주방용구	1) 식기 2) 제기 3) 병, 항아리 4) 주전자 5) 수저, 가위 6) 찬함, 주함 7) 화기 8) 주방용구	
E	도구	1) 농기구 2) 망태기, 다래끼 3) 축산용구 4) 목공연장	
F	신변잡화	1) 장신구 2) 시계, 저울 3) 안경, 안경집 4) 부채, 부채집 5) 지갑, 주머니 6) 관모, 갓집 7) 신발 8) 기타	
G	기타	1) 장식, 자물쇠 2) 창호 3) 벽돌	

다. 시대 분류

구분	시 대	참 고						
1	삼국 이전	<table border="1"> <tr> <td>신석기</td> <td rowspan="4">낙랑</td> <td rowspan="4">채집 수렵 원시농경 벼농사 국가 발생</td> </tr> <tr> <td>청동기</td> </tr> <tr> <td>초기철기</td> </tr> <tr> <td>원삼국</td> </tr> </table>	신석기	낙랑	채집 수렵 원시농경 벼농사 국가 발생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신석기	낙랑	채집 수렵 원시농경 벼농사 국가 발생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2	42 삼국	<table border="1"> <tr> <td>고구려</td> <td>백제</td> <td>신라</td> <td>가야</td> <td>철기 제작 본격화 각종 고분 관련</td> </tr> </table>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철기 제작 본격화 각종 고분 관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철기 제작 본격화 각종 고분 관련				
3	668 통일신라	도장무늬토기						
4	918 고려	청자 백자 금속활자 사용						
5	1392 조선	백자 측우기 거북선						
6	1910 근대							

다. 재질 분류

구분	분 류	품 목	비 고
1	금속(金屬)	금동(金銅), 금(金), 동합금(銅合金), 복합금속(複合金屬), 은(銀), 철(鐵)	
2	토제(土製)	경질(硬質), 연질(軟質), 와질(瓦質)	
3	자기(磁器)	녹유(綠釉), 백자(白磁), 청자(靑磁), 분청(粉靑), 청자(靑磁), 흑유(黑釉)	
4	석(石)	대리석, 사암, 석회암, 섬록암, 안산암, 응회암, 점판암, 편마암, 현무암, 혈암, 화강암	
5	유리/보석 (琉璃/寶石)	경옥(硬玉), 마노, 비취, 수정, 연옥(軟玉), 유리, 천하석, 호박	
6	초제(草製)	짚, 갈대, 띠, 왕골, 칩	
7	목제(木製)	가죽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대추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벗나무, 비자나무, 소나무, 싸리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참죽나무, 향나무, 호도나무	
8	골각패(骨角貝)	나전(螺鈿), 대모(玳瑁), 상아, 수각(獸角), 패각(貝殼), 화각(華角)	
9	지(紙)	마지(麻紙), 장지(壯紙), 한지(韓紙)	
10	피모(皮毛)	돈모(豚毛), 어피(魚皮), 우피(牛皮), 호피(虎皮), 황모(黃毛)	
11	사직(絲織)	견(絹), 마(麻), 면(綿), 저(苧)	

3. 분석 항목 도출

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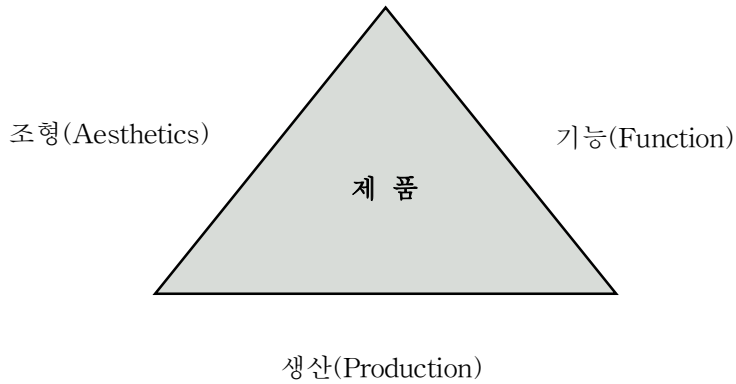
- (1) 분류번호 : ‘나. 품목 분류’의 분류 기준에 의한 번호 매김.
(예: A1-2의 경우, A는 분류의 가구, 1은 품목의 장, 2는 일련번호임.)
- (2) 품목명 : 고유명칭. (예: 책장(Bookshelf))
- (3) 분류 : 품목 분류, (예: 가구 / 장)
- (4) 시대 : ‘다. 시대 분류’의 분류 기준에 의한 지정.
(예: 조선 (19세기), 괄호 안은 연도나 세기 등 구체적인 시기 표시)
- (5) 출토지 : 출토지 명기. (예: 경북 경주 안압지)
- (6) 크기 : cm 기준의 높이 폭, 너비, 지름 등 명기.
- (7) 재료 : ‘다. 재질 분류’의 분류 기준에 의한 지정.
(예: 목제(木製)-오동나무)
- (8) 용도 : 쓰임새 명기. (예: 약 짜는 기구)
- (9) 지정사항 : 국보, 보물 등 지정사항 명기. (예: 보물 196호)
- (10) 소장처 : 소장되고 있는 장소 명기. (예: 국립중앙박물관)
- (11) 자료출처 : 도판이나 분석 내용에 대한 출처 명기.
(예: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나. 분석

(1) 제품배경

제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시대적인 배경, 제품의 의미, 출토 상황의 설명, 기타 제품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다.

(2) 조형 · 기능 · 제작



조형 (Aesthetics)	외형	전체 외부 형태에 대한 내용
	색상	주목할 만한 색채 감각
	디테일	세부 조형 요소
	특기	기타 조형적으로 특기할 만한 내용
기능 (Function)	적절성	인간공학적 요소 포함
	편의성	사용 관리, 보수
	특기	기능적인 특기 사항
제작 (Production)	재료	사용된 재료 및 재질
	제작기술	당시 기술 감안 검토
	특기	제작상의 특기 사항

* 현대 디자인 상품의 중요 요소인 Market (시장 상황) 관련 내용은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

(3) 디자인 특징

대상 제품의 디자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으로, 얼마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고유성(Originality)에 대한 내용과 제품의 특징적인 디자인 내용을 기술한다.

다. 활용 가능성

대상 제품을 통해 현대의 디자인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술하였다. 활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세부적인 언급을 피하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잡았다.

제 2 절 분석

구분	분류	품목	내역	수량
A	가구	1) 장 2) 사방탁자 3) 문갑 4) 평상 5) 서안, 경상 6) 연상 7) 소반	침장, 책장, 찬장 사방탁자 문갑 평상 서안, 경상 연상 소반	42
B	문방구 담배용구 제례용구	1) 벼루 2) 연적, 필세 3) 붓, 필가 4) 서가, 서산 5) 먹통, 행연 6) 도장 7) 담배용구 8) 제례용구	벼루 연적, 필세 붓, 필통, 필가, 필낭 서가, 서산, 종이통 먹통, 행연 도장 담배함, 재떨이, 담뱃대 걸이, 담배침 주독, 지방함	38
C	생활소품	1) 화장도구 2) 보관용구 3) 취침도구 4) 등촉구 5) 바느질용구	거울, 빗, 빗치개, 족집게, 화장술, 화장합 함, 갑·상자, 통 퇴침, 족부인 등촉구 실패, 실침, 색실함	76
D	기(器) 및 주방용구	1) 식기 2) 제기 3) 병, 향아리 4) 주전자 5) 수저, 가위 6) 찬합, 주합 7) 화기 8) 주방용구	대접, 접시, 잔, 표주박, 기타토기 토기, 합, 퇴주기, 잔, 제기 병, 호, 독, 장군 주전자 수저, 가위 찬합, 주합, 버들도시락 초두, 풍로, 화로, 배롱, 향로, 신선로 박, 안반, 다식판, 개수통, 수저통, 소쿠리, 한약도구	110
E	도구	1) 농기구 2) 망태기, 다래끼 3) 축산용구 4) 목공연장	따비, 가래, 호미, 용두레, 무자위, 홀태, 매통, 맷돌, 지게, 낫꽃이, 나락뒤주 망태기, 다래끼 담둥우리, 개집, 구유 먹줄, 대패	27
F	신변잡화	1) 장신구 2) 시계, 저울 3) 안경, 안경집 4) 부채, 부채집 5) 지갑, 주머니 6) 관모, 갓집 7) 신발 8) 기타	목걸이, 팔찌, 곡옥, 첩지, 머리장식, 갓장식, 노리개, 장도, 기타 장식구 시계, 손저울 안경, 안경집 부채, 부채집, 선추 지갑, 주머니 관모, 갓집, 갓끈, 갓솔 신발 등거리	71
G	기타	1) 장석, 자물쇠 2) 창호 3) 벽돌	장석, 자물쇠, 빗장걸이 창호 벽돌	22
				386

A. 가구

1. 장
2. 사방탁자
3. 문갑
4. 평상
5. 서안, 경상
6. 연상
7. 소반

일반	분류번호	A1-1
	품목명	금침장 (Cabinet for Quilt)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96.3×49.3cm, 높이 181cm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침장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개화 이후 양복의 보급과 더불어 발달된 옷장의 새로운 형태가 의결이이다. 이층 부분을 아래층보다 크게 만들어 옷을 걸도록 시설한 것이다. 즉 종래의 재래식 장과 놓이 옷을 개어 쌓는 형식임에 비하여 의결이 부분에서는 세워서 건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런 의결이의 형태를 그대로 응용한 것이 금침장(이불장)이다.
	조형	외형	금침장은 의결이와 형태가 유사하나 내부에 헛대가 없으며 일반장에 비해 옆폭이 약간 넓다. 하단에는 대부분 낮은 장이 부착되어 있다. 가는 띠살의 디테일이 완성미를 풍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불을 넣는 수납장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안으로 가는 띠살을 촘촘히 대고 안쪽으로 종이를 발랐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수직, 수평의 간결한 라인에 일체의 장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면부의 세로 띠살이 현대적인 우아함을 주고 있다. 중앙 고리 또한 사각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였다.	

활용 가능성	가구, 인테리어, A/V기기,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1-2
	품목명	책장 (Bookshelf)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용도	책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책을 넣어 간수하기 위한 장이 책장인데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선비의 서재용품 가운데 서장(書櫥)을 포함시켜 명기하였다. 그러나 책장에 관한 기록이 많은 것은 아니며, 간혹 서장과 서기(書度)가 일반적인 책장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이라고 하였음을 보게 된다. 서장이란 문짜를 열어 짓히게 된 장의 형태를 가리키고, 서기란 찬탁 모양으로 층층이 선반을 얹은 서가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형	외형	전체적으로 튀지 않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색상 또한 비슷하게 적용하였으나, 재질의 다른 느낌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책을 보관하기 위한 책장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중양 장식의 디자인이 뛰어나고, 사용된 장식이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고 있다. 재료의 각기 다른 재질감(표면의 매끈한 면과 결을 살린 면)을 잘 활용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1-3
	품목명	지장삼층책장 (紙裝三層冊幪) (Bookshelf)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말기)
	출토지	
	크기	96.5×47cm, 높이 122cm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책장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한국의 장>(1998/동인방)

분석	제품 배경		책은 대부분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었듯이 책을 담는 책장 또한 이들의 소유물이나 사용물이었기 때문에, 책장에는 양반 계층의 기호와 취향이 길게 배어 있다. 서가의 네 면을 두꺼운 종이로 바르고 문을 단 지장(紙裝)책장은 선비의 서재용품다운 고격을 보인다.
	조형	외형	전면(全面)이 문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비례는 좁고 높을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에는 층수가 많은 3, 4, 5층인 책장이 비교적 많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전면 각층이 개폐됨으로 한 눈에 전체를 식별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넣고 꺼냄에 있어 방해됨이 없는 이런 책장은 사용시 간편함을 취한 제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틀을 짜고 넓은 면에 종이를 배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나무 프레임과 종이의 면 분할이 시원스럽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종이 색상과 나무 색상의 대비로 나타나는 느낌은 현대 유럽 가구의 현대감에 못지 않는다. 심플한 자물쇠와 장식 또한 포인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1-4
	품목명	책장 (Bookshelf)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17세기)
	출토지	
	크기	가로 88cm, 세로 48.5cm, 높이 148.5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책장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 권옥연 소장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 13>(1974/동화출판공사), <한국의 장>(1998/동인방)

분석	제품 배경		책은 대부분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었듯이 책을 담는 책장 또한 이들의 소유물이나 사용물이었기 때문에, 책장에는 양반 계층의 기호와 취향이 길게 배어 있다. 서가의 네 면을 두꺼운 종이로 바르고 문을 단 지장(紙裝)책장은 선비의 서재용품다운 고격을 보인다.
	조형	외형	빗살문 두 짝이 전면을 통째로 차지한 시원한 책장이다. 앞면의 빗살창이 약간의 호사를 하였을 뿐 장식도 이마받이 두 귀를 기둥과 같이 감싸서 반불로초귀감잡이로 장식 보강하고 밑에는 대판과 기둥을 망두운문감잡이로 싸서 장식 보강하였다. 문짝은 기둥과 바로 연결하되 각기 세 개의 맺돌 돌쩌귀로 하였고, 문골 네 귀에 단순한 곡쇠가 붙고 약과자물쇠 앞바탕에 작은 문고리가 달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책을 보관하기 위한 책장이다.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기둥과 문골 등 모서리를 넓은 귀로 귀집이하였고, 위아래의 쇠목이 이마받이와 대판을 겸하고 높은 뿔받이에 족대를 붙여 안정감을 주었을 뿐 기능에 꼭 필요한 골격이다.
특기			
디자인 특징		빗살문의 패턴을 최대한 살려 특징으로 삼았다. 그외 요소는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하여 디자인 요소의 경중을 조절하였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1-5
	품목명	지장책장 (Bookshelf)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책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한국의 장>(1998/동인방)

분석	제품 배경		책은 대부분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었듯이 책을 담는 책장 또한 이들의 소유물이나 사용물이었기 때문에, 책장에는 양반 계층의 기호와 취향이 짙게 배어 있다. 서가의 네 면을 두꺼운 종이로 바르고 문을 단 지장(紙裝)책장은 선비의 서재용품다운 고격을 보인다.
	조형	외형	전통 창호의 기법을 가구에 적용하였다. 종이와 나무결과 장식의 한데 어우러져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책을 보관하기 위한 책장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틀을 만들고 종이를 배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동일하게 잘게 분할된 면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인식된다. 세 가지 재료의 표면과 색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1-6
	품목명	책탁자장(쌍) (Bookshelf)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용도	책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한국의 장>(1998/동인방),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옛 화첩에서 보는 책장은 몇 층 탁자와 같은 서가가 많다. 그것은 당시의 서책이 꽂는 형식이 아니라 엮어서 포개놓는 서책이기 때문이다.
	조형	외형	간결한 먼 분할로 기품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단층과 빈 공간의 두 하단층이 잘 조화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책 보관 및 장식품 진열을 위한 가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비례와 최소한의 장식에서 현대미를, 재료의 색상과 질감에서 전통미를 공유하고 있다. 세트 개념이 도입되었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1-7
	품목명	찬장 (Cupboard)
	분류	가구 / 장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용도	찬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한국의 장>(1998/동인방),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의 찬장은 그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틀로 발전 확립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찬장의 역할 중 일부는 찬광이 대신하기도 했고 위단이 궤인 그릇궤, 곡식궤 등을 통해 용도가 분리됨으로 찬장 자체의 발달은 부족한 점이 있다.
	조형	외형	찬장은 그 형태와 재료가 육중하고 둔탁하며 다리 부분이 높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부엌이나 찬방에 놓고 그릇을 보관하기 위한 찬장이다. 찬장이 일용기물을 넣는 데 반하여 특별한 기물들은 따로 목궤를 비치해 비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상례였다. 찬장은 문턱이 층널과 평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찬탁이 소나무, 잣나무를 사용하여 굵은 각목으로 기둥을 삼고 통널 역시 두꺼운 것이 특색인 것처럼, 찬장에 있어서도 견실하게 제작하기 마련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목재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디자인이다. 가로 세로의 기하학적 프레임 라인과 거칠고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전면이 대비를 이루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2-1
	품목명	사층사방탁자(四層四方卓子) (Four-tiered Shelf)
	분류	가구 / 사방탁자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49.5cm, 38.7×38.7cm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배나무
	용도	탁자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사방탁자는 네 개의 기둥과 층널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쓰임새에 따라 아래층에 서랍과 책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주로 정방형을 이룬 형태인데 흔히 쌍으로 사용하여 매우 다정하게 보이는 가구이다. 가느다란 판재만으로도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한 역학적 구조가 뛰어나며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외형은 조선시대 사랑방가구의 멋을 대표한다.
	조형	외형	간결하게 뺀 네 기둥에 네 개의 층을 만들었다. 각 층은 골격만으로 이루어져 공간이 확 트여 간결하고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기둥과 널빤지를 튼튼하게 맞짜임시켜 만들어진 각층 간 비례의 미는 두드러지게 아름다워 조선의 공예미를 대표한다는 평을 듣는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방탁자는 문방구류와 서책을 실내 분위기에 맞게 배치하며 감상품을 진열하는 용도로 쓰인다. 즉 사랑방에 두면 문방가구가 되고, 안방에서는 도자기 등 즐겨 감상하는 애완물을 올려놓는 장식가구의 역할을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골재는 배나무를 사용하였고, 층을 만들어 주는 널빤지인 층널은 오동나무로 짜여진 사방탁자이다. 사방탁자의 골재는 나무의 질이 견고하면서도 치밀한 재료를 쓰게 되는 반면, 층널은 가벼우면서도 나무쭰 등 해충과 습기를 제거해 주는 오동나무 판재를 흔히 사용하였다. 네 기둥에 알팍한 쇠목을 가로 대서 네 개의 층을 만들었는데, 쇠목은 기둥에 홈을 파서 끼워 물렸으며, 얇은 오동나무 판재는 쇠목에 반턱을 만들어 얹어 놓았다. 불에 그을리거나 재료 문질러 광택을 없애고 나뭇결을 살렸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방탁자는 마치 조각품의 공간 구성과 같아서 원근상하의 시각과 거리에 따라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 탁자의 경우 그러한 근대적 구성미를 실감하게 된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2-2
	품목명	사층 탁자(四層 卓子) (Four-tiered shelf)
	분류	가구 / 사방탁자
	시대	조선 (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163.5cm, 46×36.8cm
	재료	목재(木製)-배나무 · 화류나무 · 오동나무
	용도	탁자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분석	제품 배경		문갑이 수평적임에 반하여 이것은 수직적인 문방가구이다. 전체에 먼 막음이 없이 단순 간결하게 결구된 것이 있고, 여러 층널의 맨아래 한 단은 간을 막고 문을 달아 소규모의 장을 설치한 것이 보통이다. 간혹 삼층의 중간에 문을 달기도 하고 혹은 사층의 이, 사층에 문을 단 예도 있지만 흔치 않은 일이다. 사방탁자는 찬탁이나 서탁과는 별개로 도입된 것이며, 서재용품 가운데 가장 현대 감각을 지니고 있는 장식성 높은 가구이다.
	조형	외형	위로 세 개의 층은 기둥을 가늘게 하여 공간만 분할한 대담스러운 먼 분할이 특징이며, 아래층에는 책장과 서랍을 두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방탁자는 문방구류와 서책을 실내 분위기에 맞게 배치하며 감상품을 진열하는 용도로 쓰인다. 즉 사랑방에 두면 문방가구가 되고, 안방에서는 도자기 등 즐겨 감상하는 애원물을 올려놓는 장식가구의 역할을 하였다. 아래층에 책장과 서랍을 두어 용도를 다양화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배나무를 기둥으로, 화류·오동을 판재로 하였다. 사방탁자의 골재는 나무의 질이 견고하면서도 치밀한 재료를 쓰게 되는 반면, 층널은 가벼우면서도 나무즙 등 해충과 습기를 제거해 주는 오동나무 판재를 흔히 사용하였다. 기둥에 알팍한 쇠목을 가로 대서 층을 만들었는데, 쇠목은 기둥에 홈을 파서 끼워 물렸으며, 얇은 오동나무 판재는 쇠목에 반턱을 만들어 얹어 놓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구성미와 비례가 안정적이다. 기하학적 구조에 사실적 장식을 적용, 포인트화하였다.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를 세트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2-3
	품목명	사층 탁자(四層 卓子) (Four-tiered shelf)
	분류	가구 / 사방탁자
	시대	조선 (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175cm, 60.8×30.5cm
	재료	목재(木製)-화류나무·가래나무·오동나무
	용도	탁자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분석	제품 배경		사방탁자는 청대(清代) 가구에서 영향받은 것이고, 서구의 가구에도 삼층탁자 모양의 것이 있지만, 한국의 사방탁자처럼 간결하고 단순한 의장은 찾아볼 수 없다. 사방에 걸쳐 면 막음이 전혀 없고 높이와 폭의 비례가 매우 쾌적한 선적인 구조인 이런 가구일수록 각목의 뼈대가 가진 자연스러운 목리의 소박함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장식이나 그밖의 장식적 부재를 가급적 배제하기 마련이다.
	조형	외형	위로 세 개의 층은 기둥을 가늘게 하여 공간만 분할한 대담스러운 면 분할이 특징이며, 아래층에는 책장과 서랍을 두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방탁자는 문방구류와 서책을 실내 분위기에 맞게 배치하며 감상품을 진열하는 용도로 쓰인다. 즉 사랑방에 두면 문방가구가 되고, 안방에서는 도자기 등 즐겨 감상하는 애원물을 올려놓는 장식가구의 역할을 하였다. 아래층에 책장과 서랍을 두어 용도를 다양화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화류를 기둥으로, 가래나무와 오동나무를 판재로 하였다. 사방탁자의 골재는 나무의 질이 견고하면서도 치밀한 재료를 쓰게 되는 반면, 층널은 가벼우면서도 나무즙 등 해충과 습기를 제거해주는 오동나무 판재를 흔히 사용하였다. 기둥에 알파한 쇠목을 가로 대서 층을 만들었는데, 쇠목은 기둥에 홈을 파서 끼워 물렸으며, 얇은 오동나무 판재는 쇠목에 반턱을 만들어 얹어 놓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구성미와 비례가 안정적이며 경쾌한 느낌을 자아낸다. 전면부 목재의 색상을 대비시킨 점과 중앙의 여단이 문 장식이 강조되어 포인트가 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3-1
	품목명	쌍문갑(雙文匣) (Stationery Chest)
	분류	가구 / 문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90×32cm, 높이 42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문갑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문구갑(文具匣)의 준말인 문갑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갑이 발전된 것으로, 중국의 송, 명대에는 각종 문방 용품을 개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갑이 쓰였다. 문갑의 형태는 중국의 '강' 위에서 쓰였던 강문갑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명 병어리문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문갑은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되었다.
	조형	외형	문갑은 평좌 생활에 알맞은 책상 높이 또는 문지방 높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문방에 필요한 소품들을 넣기 위한 작은 서랍과 선반으로 이루어진 것과 서랍과 선반을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감춘 형태도 있다. 이와 같이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된 문갑을 병어리문갑이라고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각종 문방 용품과 문서 등을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서 벽면을 따라 길게 한 쌍을 놓고 사용한다. 천판(윗면) 위에는 필통, 연적, 수석, 난분 등을 늘어놓아 진열대의 구실도 한다. 문 하나를 떼어야 다른 문을 밀어서 열 수 있으므로 '병어리문갑' 또는 '두껍단이문갑'이라 하는데,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하지만 중요한 문서나 기물을 보관하는 데 적합하므로 널리 사용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 비율의 구성미와 전통적 재질과 색상이 조화되고 있다. 특히 전면 문 중앙의 나무결과 색상을 장식과 조화시킨 점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3-2
	품목명	문갑(文匣) (Stationery Chest)
	분류	가구 / 문갑
	시대	조선 (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102×27cm, 높이 33.5cm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배나무·물푸레나무·휘가사나무,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문갑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문갑이 사랑 및 서재용 가구로서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이유는 자질구레한 일상용품들이 구석구석 어지럽게 놓이는 것을 피하고 실내를 정갈하게 비워 두려는 선비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란스럽게 문양을 새길 필요가 없고, 배나무로 조촐하게 만들되, 문목(紋木)으로 문판을 짠다고 지시한 기록도 보인다.
	조형	외형	문갑은 평좌 생활에 알맞은 책상 높이 또는 문지방 높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문방에 필요한 소품들을 넣기 위한 작은 서랍과 선반으로 이루어진 것과 서랍과 선반을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감춘 형태도 있다. 이와 같이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된 문갑을 병어리문갑이라고 하며, 외형상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심에 단순한 원형 돌쩌귀 장식이 있어 단아한 멋을 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각종 문방 용품과 문서 등을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서 벽면을 따라 길게 한 쌍을 놓고 사용한다. 천판(윗면) 위에는 필통, 연적, 수석, 난분 등을 늘어놓아 진열대의 구실도 한다. 좌측에서 세 번째 문을 떼어내어야 다른 미닫이문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병어리문갑’ 또는 ‘두껍단이문갑’이라 하는데,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하지만 중요한 문서나 기물을 보관하는 데 적합하므로 널리 사용되었다. 내부에 7개의 서랍과 공간이 있어 유용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판과 옆널은 오동나무, 울거미는 배나무, 복판은 물푸레나무이며, 중심에 원형 돌쩌귀장식을 달았고, 내부에는 휘가사나무로 된 7개의 서랍과 공간이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 모듈화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모듈화로 인한 단조로움을 목재의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피하였고, 장식은 가장 단순하게 통일된 위치에 적용하였다.	

활용 가능성	가구, 가전제품, 문구용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3-3
	품목명	문갑(文匣) (Stationery Chest)
	분류	가구 / 문갑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6.2cm, 세로 140cm, 가로 22.2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문갑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 13>(1974/동화출판공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문갑은 앞 전면이 문짝으로 되거나, 혹은 서랍과 빈칸으로 노출시키는 등 면의 배치가 다양하다. 좁고 긴 장방형 문갑에 있어서 높이가 30센티미터 안팎인 것은 한옥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다. 즉 평좌식 생활에서의 동선 범위와 시선의 위치와 유관하며, 특히 창문의 문지방 높이를 넘지 않는 것이다.
	조형	외형	이것은 매우 긴 장방형의 문갑으로, 폭이 좁고 긴 판재 두 개의 양끝에 널을 대어 다리를 삼은 양식이며, 몸체는 5등분하여 중앙에 세 개의 서랍을 달았고, 주위는 공간으로 남겨 시원한 시각을 이루었다. 서랍은 전체의 문갑 기장과 좋은 비례를 이루고 있다. 판각 지면에는 여의두형 풍혈을 장식하여 몸체의 공간과 더불어 상큼한 높이의 다리와 조화를 이루어 간결 명쾌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서랍의 주석장식도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문갑은 각종 문방 용품과 문서 등을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서, 대개 벽면을 따라 한 쌍을 놓고 사용하나, 이것은 길게 하나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실용적이면서도 다분히 실내 공간 구성의 장식을 감안한 제품이다. 이러한 문갑은 대개 뒷마당으로 트여진 미닫이창 아래 놓여지고 옆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탁자가 놓여지는 것이 통례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폭이 좁고 얇은 판재로 짜여진 문갑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 콘솔 가구 개념을 지닌 특이한 형상이다. 현대미와 고전미(다리 부분)가 잘 조화되어 있다. 보통 문갑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3-4
	품목명	단문갑(單文匣) (Stationery Chest)
	분류	가구 / 문갑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가로 102.4cm, 세로 40.8cm, 높이 53cm
	재료	목재(木製)-참죽·느티나무
	용도	문갑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문구갑(文具匣)의 준말인 문갑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갑이 발진된 것으로, 중국의 송, 명대에는 각종 문방 용품을 개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갑이 쓰였다. 문갑의 형태는 중국의 '강' 위에서 쓰였던 강문갑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궁중에서는 중국의 강문갑 중 비교적 높은 형태의 문갑과 유사한 것을 쌍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반 민가에서는 높이가 높은 것은 단문갑인 경우가 많다.
	조형	외형	대개 외문갑이라 하는 형식으로 높이가 높고 개구부(開口部)와 서랍 등이 복잡하게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앞면 정 중앙부에 거의 정방형으로 작게 구획하여 칸을 만들고 여단이 문짝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위에는 긴 서랍, 또 그 좌우에는 귀벽간 모양을 구획해서 네모진 서랍을 두었고, 그 양편에는 서랍과 더불어 '口'자형과 'ㄴ'자형의 투공(透空)을 두었다. 네 기둥이 내려와 족대에 연결시켰고 앞면 밑에는 파상형(波狀形)의 운각(雲刻)으로 풍혈장식을 꾸몄다. 느티나무 판재의 목리(木理)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으며, 금구장식도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각종 문방 용품과 문서 등을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써, 크고 작은 서랍과 여단이 문 등이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口'자형과 'ㄴ'자형의 투공(透空)을 두어 베틀 등을 얹어 두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위에는 천판이 별개로 짜여져 울거미는 참죽으로 하고 판은 느티나무의 판재를 썼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손잡이와 장식으로 전면부를 장식하였으나, 각 요소의 간결함으로 장식이 오히려 돋보이고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4-1
	품목명	평상(平床) (Wooden Bed)
	분류	가구 / 평상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223×90cm, 높이 51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평상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여러 고분 벽화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평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명 와상(臥床) 또는 상榻(狀榻)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조 때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평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으나 궁중, 사찰, 사대부 및 선비 계층, 살림에서 손을 댄 노부인 등 상류 계층 사람들은 평상을 사용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평상은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양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형	외형	중국의 것은 주로 다리가 높고 바닥은 판재이며 3면이 난간으로 된 단평상(單平牀)이나 우리나라의 실내용 평상은 대체로 다리와 난간이 낮고 바닥은 목재의 띠살 또는 대쪽을 대었으며 두 개를 맞붙여 사용하도록 된 짝평상이 특징이다. 삼면(三面)을 살창같이 얇은 난간을 두르고 평판을 댄 것을 널평상이라 부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마루방이나 누마루 등에 놓고 앉거나 눕는 데 쓰이는 침상이다. 여름에는 띠살 사이로 통풍이 되어 시원하며 겨울에는 온돌의 온기가 띠살 사이로 올라와 따뜻하다. 평상 위에 여름에는 등자리를, 겨울에는 보료나 담요를 깔았으며, 겨울에는 방에, 여름에는 누마루에 두었고 때에 따라 밖에서도 사용하였다. 이 평상은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가장 한국적인 옥내외용 가구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축소 확장이 가능한 모듈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침실가구, 옥내외용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4-2
	품목명	평상(平床) (Wooden Bed)
	분류	가구 / 평상
	시대	조선 (19~20세기)
	출토지	
	크기	210.3×120.5cm, 높이 44.5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백동
	용도	평상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여러 고분 벽화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평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명 와상(臥床) 또는 상榻(狀榻)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조 때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평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으나 궁중, 사찰, 사대부 및 선비 계층, 살림에서 손을 떼지 않는 노부인 등 상류 계층 사람들은 평상을 사용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평상은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양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형	외형	중국의 것은 주로 다리가 높고 바닥은 판재이며 3면이 난간으로 된 단평상(單平牀)이나 우리나라의 실내용 평상은 대체로 다리와 난간이 낮고 바닥은 목재의 띠살 또는 대쪽을 대었으며 두 개를 맞붙여 사용하도록 된 짝평상이 특징이다. 이 조선 말 평상은 드물게 3등분되어 있다. 난간과 그 사이 조각의 꾸밈새, 금속장식들이 매우 화사한 느낌을 준다. 아(亞)자로 살로 된 난간은 한옥의 난간을 보는 듯하며, 네 귀와 각 모서리를 둘러싸며 여민 백동 장식은 화사한 효과와 함께 평상을 견고하게 만든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마루방이나 누마루 등에 놓고 앉거나 눕는 데 쓰이는 침상이다. 여름에는 띠살 사이로 통풍이 되어 시원하며 겨울에는 온돌의 온기가 띠살 사이로 올라와 따뜻하다. 평상 위에 여름에는 등자리를, 겨울에는 보료나 담요를 깔았으며, 겨울에는 방에, 여름에는 누마루에 두었고 때에 따라 밖에서도 사용하였다. 이 평상은 세 쪽으로 나뉘어져 이동하기에 편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가장 한국적인 옥내외용 가구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축소 확장이 가능한 모듈 디자인이다. 다소 장식이 많아 현대적 시각에서는 거슬리고 있다.	

활용 가능성	침실가구, 옥내외용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4-3
	품목명	평상(平床) (Wooden Bed)
	분류	가구 / 평상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190×88cm, 높이 18.5cm
	재료	목재(木製)-잣나무
	용도	평상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여러 고분 벽화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평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명 와상(臥床) 또는 상榻(狀榻)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조 때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평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으나 궁중, 사찰, 사대부 및 선비 계층, 살림에서 손을 떼지 않는 노부인 등 상류 계층 사람들은 평상을 사용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평상은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양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제품은 침상의 한가지로, 살평상에 속한다.
	조형	외형	거의 정방형에 가깝게 사면을 널빤지로 두텁게 상자를 짜고 그 윗면은 좁은 나무 오리로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서 쪽 박아 만든 평상이다. 옆널의 각 면에 금강저(金剛杵) 모양의 면상(眠象)을 2개씩 투공(透孔)하고 밑에는 운각(雲刻)으로 풍혈을 장식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보통 누마루에 놓아두고 의자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두 개를 맞붙여 침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름에는 띠살 사이로 통풍이 되어 시원하며 겨울에는 온돌의 온기가 띠살 사이로 올라와 따뜻하다. 평상 위에 여름에는 등자리를, 겨울에는 보료나 담요를 깔았으며, 겨울에는 방에, 여름에는 누마루에 두었다. 이 평상은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옆널을 잣나무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주 단순하고 간편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모듈화 개념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활용 가능성	옥내외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5-1
	품목명	서안(書案) (Writing desk)
	분류	가구 / 서안, 경상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89.3×26.6cm, 높이 29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책상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서안은 평좌용의 낮은 책상을 말하며, 한자로는 기(几), 서상(書床)이라고도 표기한다. 장소와 용도에 맞추어 독서용으로는 상판의 길이가 짧은 것을 사용하고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에는 긴 것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작은 방과 침실에는 작은 서안을 비치하였다.
	조형	외형	네 개의 판재로 만든 간결한 양식의 서안이다. 조선시대의 서안은 대개 선비의 청빈한 생활신조에 따라 장식이 거의 없이 간결하고 소박하게 제작되었다. 상판 아래에 선반을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실용성을 위주로 견고하고 간결하게 제작되었다. 서안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도 사용할 뿐 아니라, 윗사람이나 주인의 위치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느릅나무)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 느낌을 지니는 간결한 디자인이다. 다리 부분의 고전미가 조화를 이루며, 일체의 군더더기를 배제한 디자인 사례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5-2
	품목명	서안(書案) (Writing desk)
	분류	가구 / 서안, 경상
	시대	조선 (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78.6×35.6cm, 높이 34cm
	재료	목재(木製)-가래나무, 금속(金屬)-주석
	용도	책상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서안은 하장(下裝) 부분에 운각을 새기거나 붉게 칠하는 등의 번다한 치장을 피하고 소박하게 만들어졌다. 인두로 지지거나 향유로 닦아 고담하게 만드는 문방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고려 말기의 나한도나 조선시대 풍속화와 초상화 등에 보이는 책상들은 고격이 있는 제상, 향탁(香卓)과 매우 유사한 짜임새이다. 위판이 평판이고 다리의 붙임이 단순하다.
	조형	외형	이 서안은 상판 아래에 커다란 서랍을 갖고 있는 일반형이다. 주석으로 된 박쥐형 들쇠가 있으며, 양 측면에 만(卍)자가 양각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서안은 책을 펴 보거나 글씨를 쓰는 데 필요한 서실용의 평좌식 책상이다. 실용성을 위주로 견고하고 간결하게 제작되었으며, 기물을 넣을 수 있도록 커다란 서랍이 달렸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래나무로 제작되었고, 서랍에는 주석으로 된 들쇠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두께로부터 제품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함과 동시에 튀지 않는 아름다운 손잡이로써 디자인을 돋보이게 한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5-3
	품목명	서안(書案) (Writing desk)
	분류	가구 / 서안, 경상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47.9×25.7cm, 높이 27.6cm
	재료	목재(木製)-배나무·홍송·오동나무, 금속(金屬)-주석
	용도	책상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현존하는 서안의 유품은 대개 19세기 이후의 것들임에도 특정의 규격화된 것이 없이 다양각색이다. 그것은 재래 목공예품이 다 그러하듯이 조선시대 선비의 공통된 취향에 의해 제작되었던 가수품(家需品)이기 때문이다. 서랍의 면판에 새겨진 ‘篤學甚究 以開茅塞’은 ‘독실하게 학문을 닦을 때에 띠풀 같은 물욕에 가리운 마음이 열릴 것이다’라는 뜻이다.
	조형	외형	넓은 통판의 천판 아래에는 긴 서랍을 구성하고 중앙부에 반원형 고리를 달았으며, 해주반(海州盤)의 판각과 유사한 판각의 하단에는 풍혈(風穴)을 뚫어 주고 그 위에 쌍희(囍)자문을 전각 형태로 장식하였다. 서랍의 면판에는 ‘篤學甚究 以開茅塞’이라는 해서체의 음각명을 단정하게 새겨 넣었다. 모서리들은 모두 둥글려서 전체적으로 경직된 짜임구조를 한층 부드럽게 느끼도록 의도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실용성을 위주로 견고하고 간결하게 제작되었으며, 기물을 넣을 수 있도록 커다란 서랍이 달렸다. 서안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도 사용할 뿐 아니라, 윗사람이나 주인의 위치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판과 판각, 서랍의 면판 등은 배나무 판재를 사용하였고, 다른 부분은 홍송(紅松)과 오동나무 판재이다. 각 부재는 사개물림으로 짜여졌는데 모두 둥글려서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실용성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글자를 장식화하여 사용하였다. 옆면의 목재 투각 부위로 전체 디자인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5-4
	품목명	경상(經床) (Writing desk)
	분류	가구 / 서안, 경상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73.5×29cm, 높이 29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책상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경상은 원래 절에서 불경을 엮어놓고 읽는데 쓰였던 책상으로 일반적으로 둥근 두루마리 경(經)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판(윗면)의 양 귀가 들려있는데, 후에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였다. 경상은 중국의 당, 송 시대의 경상 양식에 영향을 입은 반곡(反曲)된 두루마리형 천판과 운당초형(雲唐草形)의 다리를 한 형태로서, 우리 민족의 기호와 생활양식에 따라 변화되어 중국의 것에 비해 날렵하고 세련된 맛이 난다.
	조형	외형	이 경상은 서안처럼 편평한 천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아 과도한 장식을 사용한 경상을 기피한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경상의 변형으로는 두루마리 상판에 끝은 다리를 가진 서안의 형태도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책상으로, 실용성을 위주로 견고하고 간결하게 제작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미와 고전미가 아주 잘 조화된 디자인으로, 간결한 면 분할과 중앙의 고리 장식이 세련미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6-1
	품목명	죽장 연상(竹張 硯床) (Inkstone Table)
	분류	가구 / 연상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39.5×25.2cm, 높이 31cm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배나무·대나무
	용도	벼루 및 문방구 보관용 상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연갑은 벼루만을 담도록 한 것이며, 연상은 벼루를 담되 그 크기에 여유가 있어 붓, 먹도 함께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연갑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조형	외형	네 발 위에 서랍을 만들고 그 위에 칸막이한 벼룻집이다. 목재로 짜여진 연상의 외부에 대나무를 붙여 장식한 것이 죽장연상으로, 둥근 대나무의 표면에 빛이 편광반사되어 항상 깨끗하고 윤기가 난다. 일반적으로는 대나무의 외피를 사용하는데, 이 연상은 내피 부분을 밖으로 보이게 붙였다. 외피에 비해 광택이 적고 부드러우며 특이한 곡선의 배치로 새롭게 보인다. 상판의 뚜껑에는 먹감나무와 밝은 색 나무로 선상감(線象嵌)을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벼루나 먹을 넣어 두거나 올려놓고 사용하도록 된 문방구로서 서안 옆에 놓아져 사랑방용품 중 가장 애용되는 가구이다. 처음에는 벼루만 넣는 연갑(硯匣)이었던 것이, 후대에 와서 다리를 달아 하단에 지필묵까지 간단하게 수장하는 연상으로 발전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살은 오동나무를 쓰고 배나무로 마구리를 단 다음, 대나무를 켜서 표면에 붙였다. 다리는 단단하고 결이 없이 매끄러운 배나무이고, 바닥판은 오동나무이다. 상판의 뚜껑에는 먹감나무와 밝은 색 나무로 선상감을 하고 배나무로 변자를 단정하게 대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대나무 재료의 특성을 다른 각도로 적용(내피를 외면으로)하여 독특한 외관을 구성한 디자인의 발상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문구류, 가정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6-2
	품목명	연상(硯床) (Inkstone Table)
	분류	가구 / 연상
	시대	조선 (19~20세기)
	출토지	
	크기	55×31.7cm, 높이 34.8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
	용도	벼루 및 문방구 보관용 상
	지정사항	
	소장처	김종학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남성들이 상투를 틀거나 의관을 가다듬을 때 거울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목침에 딸린 거울이나, 접어들 수 있는 거울을 사용했다. 그것은 거울을 자주 보는 것이 선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운데 거울을 달고, 서랍을 한층 더 두어 높고 널찍하여, 서안 옆에 놓아두던 일반 연상과는 달리 서안과 문갑 대응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형	외형	연상의 기본형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적인 23~28cm 정도의 연상 높이에 비하여 34cm를 넘을 만큼 높고 큰 독특한 구조이다. 가운데 거울을 넣는 칸을 더 만들고 서랍을 한층 더 두어 높고 널찍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벼루나 먹을 넣어 두거나 올려놓고 사용하도록 된 문방구로서 사랑방용품 중 가장 애용되는 가구이다. 상단에 위치한 두 개의 숨은 서랍은 거울이 있는 칸을 열고 중간 판을 들어올리면 그 안에 잠그는 빗장이 있어 좌측을 연 다음 우측을 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랍의 앞판이 엇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단의 긴 서랍은 아래 공간에서 들어 당겨 열도록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행자목판에 옷칠을 했고 거울이 있는 변자(邊子)에 가느다란 선의 버선코나 화장을 두른 것으로 보아 전라도의 나주, 혹은 보성 지방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다용도 기능을 최대한 컴팩트한 디자인에서 소화하고 있다. 간결 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문구류, 가정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
	품목명	호족반(虎足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9cm, 지름 42cm
	재료	목재(木製)-느티나무, 은행나무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구서경(具書慶)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사용하는 평좌식 식탁으로 현재는 상(床)이라고 한다. 호족반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의 긴 다리 형태를 보여 주는 소반인데, 이는 호랑이의 다리가 힘이 있고 미끈하게 잘 생겨 이름을 붙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소반 중에 호족반이 가장 많다.
	조형	외형	상 다리가 호랑이의 긴 다리 형태를 보여 주는 소반으로, 굳더더기 장식이 없는 단순한 다리 형태이다. 발 부분의 축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발은 족대에 사뿐히 얹혀 있다. 전형적인 12각 소반으로 천판(윗면) 둘레의 테두리는 끝 부분이 둥글게 굴러져 있으며, 안쪽에서 45°가량 경사지게 천판과 만나고, 바깥쪽 부분 중간에 굽은 선을 둘러 두꺼운 면이 얇게 보이도록 했는데, 이는 경상북도 예천 지방에서 제작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다리와 천판 사이에 있는 초엽은 각재로 이어져 아자문(亞字文)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소반으로 경쾌하게 느껴진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사용하는 평좌식 식탁이다. 느티나무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무거워 운반에 힘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단단하고 튼튼하므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리와 천판 사이에 있는 아자문(亞字文) 초엽(운각)은 다리를 견고하게 받쳐 주기 위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판은 느티나무로, 무늬결이 있는 나무의 뿌리나 혹은 부근을 판재로 사용할 경우 무늬가 마치 용이 영킨 듯해 이름 붙인 용목(龍木)을 사용했다. 천판 둘레의 테두리인 변죽은 천판을 파내어 만들었으며 끝 부분이 둥글게 굴러져 있다. 운각과 다리는 은행나무로 짜여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이동이 편한 소품가구로, 고전 디자인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12각 평면과 장식, 다리의 고전적인 라인이 잘 소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2
	품목명	12각 호족반(虎足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35.5cm, 지름 62.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소반>(1990/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사용하는 평좌식 식탁으로 현재는 상(床)이라고 한다. 호족반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의 긴 다리 형태를 보여 주는 소반인데, 이는 호랑이의 다리가 힘이 있고 미끈하게 잘 생겨 이름을 붙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소반 중에 호족반이 가장 많다.
	조형	외형	운각(雲刻)에 물린 다리의 종아리 부분은 바깥 선이 밖으로 튀어나온 곡선이고 안쪽은 직선을 이루어 힘있게 보이도록 했다. 발목은 잘록하여 발끝의 곡선으로 우아하게 매듭지는 전형적인 호족반이다. 박쥐풍 형식의 운각은 호족의 두부(頭部)를 곁으로 싸고돌면서 밑이 일부 다리에 물리워 있다. 호족은 단순하며 밑에 축꽃이가 각출(刻出)되고 그 밑에 족대가 있다. 상판은 일반적인 12각형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소반은 좌식생활에 맞추어 발달한 식탁이면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생활공간에서 음식을 나르는 운반기능을 겸한 생활용구이다. 1인 1반용으로, 대개 직경이 사람의 어깨너비를 넘지 않는 크기이고 높이는 앉은 사람의 가슴높이를 넘지 않아 음식을 운반하는 데 힘이 들지 않는 인체공학적 규격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목판에 변죽을 따로 만들어 가운데 홈을 파서 판을 물리어 판과 접합하였다.
특기			
디자인 특징		이동이 편한 소품가구로, 고전 디자인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12각 평면과 장식, 다리의 고전적인 라인이 잘 소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3
	품목명	해주반(海州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좌 : 높이 25cm, 32.4×28.8cm, 중 : 높이 16cm, 24.7×17cm, 우 : 높이 27.5cm, 44.5×33.7cm,
	재료	목재(木製)-은행나무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반>(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해주는 양주와 더불어 고려의 수도인 송도의 좌우보가 되었던 지역이므로 중앙 문화의 영향이 오래도록 전해오던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영향 때문인지 해주반은 연당초, 모란, 만(卍)자 등의 화려한 투조 장식이 많이 들어 있어 조선조의 단순 소박한 구성과는 달리 복잡하고 화려한 고려적 분위기가 배어 나온다.
	조형	외형	해주반은 양측에 만(卍), 희(喜), 꽃, 나비 등이 투각된 두 개의 넓은 판각(板脚)이 약간 외반되어 있고, 그 사이에 두 판각을 견고하게 받쳐 주고 천판의 힘을 보완해 주는 운각이 있다. 일반적인 해주반은 천판의 네 귀가 능형(菱形)으로 굴려져 있는 데 반해 이 반은 나주반과 같이 각이 쳐 있어 간결하게 보인다. 판각에는 만(卍)자를 투각하였으며, 양다리 사이의 폭이 좁아 오뎅하게 느껴진다. 두 판각을 연결하는 긴 축대를 사용하지 않고 짧게 축대를 댄 것이 여의두형 풍혈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해주반의 특징은 양쪽의 판각과 운각이 모두 투조의 조각판이라는 점인데, 장식성이 강하여서 기능적인 구조는 약해진 흠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은행나무 통판을 사용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모듈화 개념이 잘 적용된 디자인이다. 그러면서도 고전적인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4
	품목명	원반(圓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8.3 cm, 윗지름 32 cm, 밑지름 25
	재료	목재(木製)-은행나무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사용하는 평좌식 식탁으로 현재는 상(床)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차림은 1인 1상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상의 종류는 쓰임새에 따라 교자상, 다과상 등 다양하며, 상의 형태에 따라 천판(天板)이 둥글면 원반, 반달형이면 반월반, 다리의 형태가 개다리 모양이면 개다리 소반, 호랑이 다리면 호족반이라 하였다.
	조형	외형	원반은 천판이 둥근 형을 말하며, 이 원반의 천판은 접시형이고 하단은 여러 줄로 양각의 띠를 둘렀는데 저경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져 생동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소반은 좌식생활에 맞추어 발달한 식탁이면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생활공간에서 음식을 나르는 운반기능을 겸한 생활용구이다. 1인 1반용으로, 대개 직경이 사람의 어깨넓이를 넘지 않는 크기이고 높이는 앉은 사람의 가슴높이를 넘지 않아 음식을 운반하는 데 힘이 들지 않는 인체공학적 규격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강원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원반으로, 굵이 낮은 유형은 소나무와 피나무로 제작되고, 이 제품과 같이 굵이 높은 유형은 피나무와 은행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은행나무이다. 외형을 깎아 무게를 줄이고 이그러지거나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의 내부를 파낸다. 원반의 제작은 목재의 중심에 같이방이라는 재래식 회전물레의 축을 맞춘 후 돌려 파내는데 이 작업을 '같이질한다'고 부른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양각의 띠가 제품의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로써 훌륭하게 적용되었다. 이 요소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가정 생활용품, 주방 가구,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A7-5
	품목명	주흑칠 원반(朱黑漆 圓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9.5cm, 지름 48.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 석	제품 배경		일반적인 민가의 소반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궁중소반(宮中小盤)이다. 조선조 때는 궁중의 기물과 민간의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민간에서는 주칠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궁중의 규격은 민간의 것보다 반면이 넓고 높아 둔중한 구성으로 짜여졌다.
	조형	외형	주칠과 흑칠의 조화,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접시형 상판, 하단의 넓고 높으며 경사진 각도, 전면의 여의두형(如意頭形) 개창과 주변의 주칠 모두가 특이하다. 천판(윗면)은 주칠을 한 후 테두리에 흑칠을 해 붉은 색이 번지는 느낌을 막고 또 하단의 검정색과 통일성을 주고 있는데, 닳아서 지워진 검정색 아래로 붉은색이 보인다. 개창의 붉은 색 또한 상판과 통일성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와 검은 원통과의 경계가 뚜렷해진다. 낮은 접시 모양으로 살짝 들린 변죽(테두리)이 고식(古式)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궁중에서는 운반하는 반상으로 원반이 쓰였으며, 특히 궁중의 경사스러운 연회 때나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을 내릴 때 원반이 쓰였다고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여러 쪽의 판을 맞이음하여 등글게 한 후 안팎으로 깎아 원통형을 만들었다. 변죽이 낮은 접시형 반(盤) 전체에 주칠(朱漆)을 한 후 가장자리에는 다시 덧칠을 하였다. 투각한 여의두형(如意頭形) 창은 돌레를 살짝 파내어 주칠을 하였다. 상판의 밑부분을 파내고 원통형 다리를 끼운 후 고정시켜 견고하게 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형태의 단순함과 색상의 변화로써 그윽한 기품을 유지하고 있다. 머리에 이고 운반할 때 앞이 보일 수 있도록 투각하여 배려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이다. 기능상 투각된 면을 아름다운 장식으로 처리한 것도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6
	품목명	번상(番床)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5cm, 윗지름 40cm, 밑지름 32.5cm
	재료	목재(木製)-은행나무
	용도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상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소반>(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번상(番床)은 야외나 관청으로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갈 때 사용하는 소반으로 공고상(公故床)이라고도 한다. 공고상이 관리의 전용이기 때문에 그 생김새는 깔끔하며 재료도 대부분 행자목과 같은 고급 재질을 썼고 칠은 모두 상품의 생옷칠이다. 후에는 이 공고상의 형태가 일반화되어 널리 쓰이게 되자 판각의 높이가 높아져서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앞을 내다보기 위한 개구는 단순한 장식으로 변화했고 반가(班家)에서는 풍혈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형	외형	천판(윗면)의 변죽(테두리)이 높지 않고 자연스럽게 휘어진 접시형이다. 하단은 일반적인 번상의 벌어진 형식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렸으며, 앞을 내다보기 위한 망두형개창이 비교적 밑으로 작게 뚫려 있다. 주석의 고춧잎형거멸장식으로 장식성을 강조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구조는 머리에 이고 나르기에 편리하고 또 먹을 때 인체공학적 인 적당한 높이에 맞도록 하단이 길게 설계되었는데, 이곳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즉 개창(開窓)(일명 화두창(火頭窓))을 뚫고 양 측면에 손잡이 구멍을 만들었다. 이것은 앞을 내다보기 위한 망두형개창이 비교적 밑으로 작게 뚫려 있는데, 이는 머리 위의 띄리의 높이를 배려해 설계, 제작된 것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판(윗면)은 은행나무를 썼고, 각 판재의 연결은 맞짜임을 했으며 주석 장식으로 더욱 견고하게 잡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게 각진 하단 부분이 일반 다른 소반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장식으로 미적 기능과 구조 보강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7
	품목명	풍혈반(風穴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45.5×44.5×3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상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 소장
	자료출처	<가마와 소반>(1995/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소반>(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야외나 관청으로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를 때 사용하는 소반을 번상(番床), 혹은 공고상(公故床)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형되어 민간에서도 쓰였으며, 반가(班家)에서는 풍혈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공고상이 관리의 전용이기 때문에 그 생김새는 깔끔하며 재료도 대부분 행자목과 같은 고급 재질을 썼고 칠은 모두 상품의 생옷칠이다. 후에는 이 공고상의 형태가 일반화되어 널리 쓰이게 되자 판각의 높이가 높아져서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없게 되었으며, 앞을 내다보기 위한 개구는 단순한 장식으로 변화했다.
	조형	외형	12각의 상판에 다리(판각)가 바로 붙은 구조로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개창(開窓)(일명 화두창(火頭窓))을 뚫고 양 측면에 손잡이 구멍을 만들었다. 주석의 국수거멸감잡이 장식이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리의 네 귀퉁이에 만(卍)자로 투각 장식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구조는 머리에 이고 나르기에 편리하고 또 먹을 때 인체공학적인 적당한 높이에 맞도록 하단이 길게 설계되었는데, 이곳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즉 개창(開窓)(일명 화두창(火頭窓))을 뚫고 양 측면에 손잡이 구멍을 만들었다. 또한 젓가락이나 수저를 넣는 조그만 서랍을 달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각 판재의 연결은 맞짜임을 했으며 주석 장식으로 더욱 견고하게 잡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손잡이와 개창(開窓)이 적용된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이다. 별도의 서랍을 달아 다용도 기능을 소화하였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A7-8
	품목명	반월반(半月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28.4cm, 49.8×35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
	용도	보조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소반>(1990/대원사),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분 석	제품 배경		소반은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사용하는 평좌식 식탁으로 현재는 상(床)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차림은 1인 1상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상의 종류는 쓰임새에 따라 교자상, 다과상 등 다양하며, 상의 형태에 따라 윗면인 천판(天板)이 둥글면 원반, 반달형이면 반월반, 다리의 형태가 개다리 모양이면 개다리 소반, 호랑이 다리면 호족반이라 하였다.
	조형	외형	반면(盤面)을 반달형으로 하고 구부린 나무가 둘러 있으며, 편평한 판상(板狀)의 세 다리를 붙인 반월반이다. 다리 머리 양쪽에 제비초리운각을 붙여 보강 장식하였고, 밑에는 작은 족대를 달아 각기의 판각(板脚) 밑을 보호하고 단조로움을 덜어 주고 있으며, 외면에 창포(菖蒲) 한 가지씩을 반양각(半陽刻)으로 새겨 장식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대궐에서 상의 모서리나 방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장식반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행자목(杏子木)으로 판과 다리를 만들었다. 반월형 판에 좁은 판각(板脚) 셋을 대못으로 박아 붙이고, 다리 머리 양쪽에 제비초리운각을 붙여 보강 장식하였다. 전체에 생칠을 하였다. 산지는 전라북도 방면으로 추정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형태와 문양이 간소하여 아취가 흐른다. 독특한 비대칭형이 특징으로 디자인 차별화를 이룬다. 세트 개념으로 모듈화가 가능하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9
	품목명	향로상(香爐床) (Incense Burner 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9cm, 91.5×58.8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제례용 상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소반>(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용도별로 이름이 붙여지고 풍속에 따라 별칭이 있었다. 의식과 풍속에 따라 별도로 쓰이던 상으로는, 돌잔치의 차림상으로 쓰이는 큰 백완반이라는 돌상, 혼례식의 합환주상, 기러기상, 제례에 쓰이는 장방형 제상 등이 있다.
	조형	외형	천판의 긴 가로폭에 비해 세로폭이 짧으며, 들레의 변죽(테두리)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네모난 소반의 호족은 중심을 향해 네 모서리에 설치되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천판 하단에 낮은 운각을 두고 전후면을 향해 앞 뒤 두 개씩 네 개의 호족을 끼웠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천판(윗면) 아래의 낮은 운각으로 보아 다리와의 연결부위가 약해 많은 음식물을 올려놓을 수 없기에 일반 음식상으로 보기 어렵고, 향로, 향합, 향꽃이, 강신(降神)잔을 올리는 데 쓰이는 제례용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 천판(윗면)에다 변죽(테두리)은 각 면마다 따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전면 중심부에서 한 개의 긴 테두리를 자르지 않고 모서리를 깎아 가며 돌려 제작해 부드럽게 느껴진다. 다리는 운각에 끼워 맞췄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조가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경쾌한 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고전적 모티브로 현대의 접이식, 조립식 가구의 활용이 연상될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0
	품목명	교자상(交子床) (Dining 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8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9.7cm, 89.5×43.7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교자상
	지정사항	
	소장처	설원식(薛元植) 소장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쓰임새에 따라 개인용, 객용(客用), 주안상, 제상, 교자상, 돌상 등 각각의 형태와 크기로 발달하였고, 생산지에 따라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충주반, 안주반 등으로 기본 형태가 다르며, 사용 계층에 따라 궁중반 및 반가(班家)용과 일반 민수(民需)용이 구분되어 종류가 다양하다.
	조형	외형	귀목통판으로 된 판을 넓은 귀로 귀집이한 것 등을 보면 나주반형 같으나 풍혈(風穴)과 같은 잘 생긴 운각이 다리를 싸감지 아니하고 그 아래 중대와 같이 다리에 홈을 파서 끼웠으며 전후에는 중대가 없다. 크고 시원하고 잘 생긴 교자상 중의 으뜸이라 할 만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겸상 이상 여럿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잔치 때 쓰는 큰 상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귀목통판으로 된 판을 넓은 귀로 귀집이한 것 등을 보면 나주반형 같으나, 운각은 그 아래 중대와 같이 다리에 홈을 파서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가로 세로 비율이 평범하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A7-11
	품목명	주흑칠 원반(圓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좌 : 높이 17cm, 지름 63cm, 우 : 높이 11.8cm, 지름 51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궁중 연회용 개인 상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 소장
	자료출처	<가마와 소반>(1995/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분 석	제품 배경		원반이라 하면 비교적 상판이 넓고 다리는 낮은 둥근 판각으로 된 반을 말한다. 크게 궁중에서 쓰던 원반과 일반 서민들이 쓰던 막소반으로 대별되는데, 궁중용은 대개 민간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주칠을 가장자리에 하고 가운데는 흑칠을 하였다. 이에 비해 민간에서 쓰이던 원반은 대부분 통나무를 그대로 파내어 판재와 각재가 구분되지 않고, 자귀나 낫 등의 자귀가 그대로 남아 있어 투박한 원목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해 봄직한 정감이 가는 소반이다.
	조형	외형	내부가 비교적 편편한 바닥을 이루어 주연(周緣)의 전이 약간 상향하여 둘러졌는데, 목반 아래에는 나지막한 굽이 붙었다. 천판(윗면)의 가운데 부분에 둥글게 주칠을 하고 나머지는 흑칠을 한 원반으로 간결성이 돋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궁중에서 쓰이던 원반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연회를 베풀 때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 하사용으로 사용하고, 음식을 먹은 후 반(盤)은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다고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통판을 둥글게 깎고 천판의 가운데는 주칠을, 나머지는 흑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원반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치켜 올라가 기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천연칠을 이용한 색상의 적용이 세련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가전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2
	품목명	원반(圓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7.3cm, 윗지름 60cm, 아랫지름 46.8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가마와 소반>(1995/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원반이라 하면 비교적 상판이 넓고 다리는 낮은 둥근 관각으로 된 반을 말한다. 크게 궁중에서 쓰던 원반과 일반 서민들이 쓰던 막소반으로 대별되는데, 궁중용은 대개 민간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주칠을 가장자리에 하고 가운데는 흑칠을 하였다. 이에 비해 민간에서 쓰이던 원반은 대부분 통나무를 그대로 파내어 판재와 각재가 구분되지 않고, 자귀나 낫 등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투박한 원목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해 볼만한 정감이 가는 소반이다.
	조형	외형	대개의 원반 지름이 30~40cm 정도이나 이것은 지름이 60cm나 되는 초대형으로 상하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굽이 높은 흔치 않은 유형이다. 넓은 면에도 천판이 휘지 않고 바르며 소나무가 갖고 있는 정갈함을 갖고 있다. 같이방으로 깎은 천판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회전된 칼자국이 매끄러운 표면보다 더욱 부드럽게 느껴진다. 하단에는 붉은 석간주(石間朱)칠이 남아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소형 원반은 소반의 임시 대용이나 막소반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제작된 형식으로 보아 일상적인 소반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원반은 천판이 둥근 형을 말하는데 상판(천판)과 하단이 한 덩어리로 되거나 둘을 이어 붙여 만든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상하가 붙어 있는 것은 대개 소나무나 피나무를 사용하여 커다란 녹로인 같이방에 축을 맞추어 돌려 깎는데, 이 굽이 높은 흔치 않은 원반은 강원도와 근접한 경기도 일원에서 제작된 것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한 형태와 재료의 거친 마감 기법이 잘 조화되고 있는 디자인이다. 실용적이면서도 현대의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감각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오브제(장식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3
	품목명	원반(圓盤) (Tray-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11.8cm, 지름 44.5cm
	재료	목재(木製)-참피나무
	용도	상(평좌식 식탁)
	지정사항	
	소장처	경성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 소장
	자료출처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학고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가마와 소반>(1995/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원반이라 하면 비교적 상판이 넓고 다리는 낮은 둥근 판각으로 된 반을 말한다. 크게 궁중에서 쓰던 원반과 일반 서민들이 쓰던 막소반으로 대별되는데, 궁중용은 대개 민간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주칠을 가장자리에 하고 가운데는 흑칠을 하였다. 이에 비해 민간에서 쓰이던 원반은 대부분 통나무를 그대로 파내어 판재와 각재가 구분되지 않고, 자귀나 낫 등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투박한 원목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해 봄직한 정감이 가는 소반이다.
	조형	외형	접시형 천판에 둥근 원통형 다리로 간결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다리 부분의 홈이 현대적인 세련미를 자아낸다. 기름칠을 해 윤을 낸 것이 아주 길이 잘 들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보통 민간에서 사용하는 원반이며, 일상적인 소반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리 부분의 홈은 재료가 말라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 때에 일부러 절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큰 참피나무를 파내어 만든 것으로 반과 다리가 같은 재료이다. 맨 바탕에 기름을 칠해 윤을 내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변형을 염두에 두어 다리 부분을 절개하고, 이를 조형적으로 승화시킨 뛰어난 디자인이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에, 하단의 홈이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4
	품목명	잔상(盞床) (Cup 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좌 : 높이 10.3cm, 지름 17.2cm, 우 : 높이 10cm, 지름 17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잔을 놓는 상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반>(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쓰임새에 따라 개인용, 객용(客用), 주안상, 제상, 교자상, 돌상 등 각각의 형태와 크기로 발달하였고, 생산지에 따라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충주반, 안주반 등으로 기본 형태가 다르며, 사용 계층에 따라 궁중반 및 반가(班家)용과 일반 민수(民需)용이 구분되어 종류가 다양하다.
	조형	외형	천관의 중앙에 둥근 구멍을 내어 잔을 올려놓도록 한, 세 발이 달려 있는 작은 상이다. 족대가 없는 호족반 형식인데, 다리 형태가 독특하다. 천관은 원형과 12각형 두 가지이며, 변죽(테두리)에는 높은 전을 돌려 붙였다. 이러한 상은 흔히 볼 수 없는 모양을 보여 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잔을 나르거나 놓아 둘 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잔상이다. 큰 힘을 받지 않으므로 가느다란 세 개의 다리로 되어 있다. 호족은 연약하기만 하여 방바닥에 놓기보다는 상이나 탁자 위에 놓았을 직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소반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이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A7-15
	품목명	호족 6각반(虎足六角盤) (Tea 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12.5cm, 지름 21.7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다과상, 찻상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소반>(1990/대원사)

분 석	제품 배경		다과상, 약상 또는 간단한 술안주를 내가는 주안상 등의 소반은 규격도 작거니와 반면도 정방형, 6각형, 12각형, 연엽형 등 다양하며 다리도 그에 따라 조화되는 호족, 관각을 적절히 써서 변화 있게 제작하였다. 장식 무늬도 초룡, 당초, 모란, 십장생 등 다양하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품이 20세기초의 격동기 사회의 산물 이어서 그런지 과반류는 간혹 멋을 내거나 많은 장식을 한 것도 있다.
	조형	외형	반면이 6각인 점이 특이하며 변죽(테두리)에는 주칠을, 반면(盤面)에는 흑칠을 한 호화반이다. 짧은 다리는 호족의 형태를 갖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다과상이나 찻상으로 쓰인 낮은 반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소반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6각의 천판과 세 개의 다리가 일반 소반과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상부의 현대미와 하부의 고전미가 잘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전자제품,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A7-16
	품목명	주흑칠 다반(茶盤) (Tea Table)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9.3cm, 지름 35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다과상, 찻상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소반>(1990/대원사)

분 석	제품 배경		다과상, 약상 또는 간단한 술안주를 내가는 주안상 등의 소반은 규격도 작거니와 반면도 정방형, 6각형, 12각형, 연엽형 등 다양하며 다리도 그에 따라 조화되는 호족, 관각을 적절히 써서 변화 있게 제작하였다. 장식 무늬도 초룡, 당초, 모란, 십장생 등 다양하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품이 20세기초의 격동기 사회의 산물 이어서 그런지 과반류는 간혹 멋을 내거나 많은 장식을 한 것도 있다.
	조형	외형	등근 접시 모양의 원반으로 주변은 흑칠을, 내부는 주칠을 한 다반(茶盤)이다. 전이 높게 외반(外反)되었으며, 밑에는 세 개의 낮은 다리가 붙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다과상이나 찻상으로 쓰인 낮은 반(盤)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통판을 등글게 깎아 변죽(테두리)은 높고 움푹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옷칠을 입혔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Compact), 모듈(Module), 스톡(Stock)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장식이 많은 다른 소반과는 달리 소박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생활용품,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A7-17
	품목명	나전모란당초문능화형반(螺鈿牡丹唐草文菱花形盤) (Tray)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초기)
	출토지	
	크기	높이 4cm, 47×34.5cm
	재료	목재(木製), 골각패(骨角貝)-나전(螺鈿)
	용도	쟁반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소반>(1990/대원사)

분 석	제품 배경		다과상, 약상 또는 간단한 술안주를 내가는 주안상 등의 소반은 규격도 작거니와 반면도 정방형, 6각형, 12각형, 연엽형 등 다양하다. 장식 무늬도 초룡, 당초, 모란, 십장생 등 다양하다.
	조형	외형	화형반(花形盤)은 상판과 변죽(테두리)을 꽃 모양으로 만든 장식성이 강한 아름다운 소반이다. 내부에는 모란당초 무늬로 자개 장식하였고, 네 귀에는 그물 무늬를, 가장자리에는 점선으로 자개 장식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음식을 담아 두거나 나르는 용도로 쓰인 쟁반으로, 다과반으로 쓰였음직하다. 궁중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전 칠기로 장식한 자개반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꽃잎을 형상화한 외형과 새겨진 많은 나전 장식이 일체화되어 화려하게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장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8
	품목명	목반(木盤) (Tray)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말기)
	출토지	
	크기	높이 11.5cm, 지름 49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쟁반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목반(木盤)은 음식을 담아 두거나 나를 때 사용되는 넓고 편편한 바닥과 운두가 있는 그릇이다.
	조형	외형	이 목반(木盤)은 운두가 16각(角)으로 이루어졌다. 구연(口緣)에도 2단으로 밖으로 변죽(테두리)을 경쾌하게 내어 달고, 밑에도 주연에 둥근 귀(圓角)를 2단으로 돌려 구연과 대칭이 되며, 바닥에 낮은 2단의 둥근 귀받침을 돌려대어 이것이 굽이 되어 목판이 사뻐히 앉아 있는 듯 지면에서 조금 들려 있다. 목판 안쪽 전면에 주칠을 하였고 바깥면에 흑칠을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음식을 담아 두거나 나르는 용도로 쓰인 쟁반으로, 이것은 제작된 상태로 보아 궁중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수한 작품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편편한 바닥판에 16개의 널판을 사각(斜角)으로 세워 서로 사개물림하여 짜여졌다. 사개물림은 가장 튼튼하게 결구(結構)하는 방법인데, 연결하고자 하는 양면 모두를 요철로 잇갈리게 하면서 맞물리게 하는 것이다. 목판 안쪽 전면에 주칠을 하였고 바깥면에 흑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견고하고 단단한 스타일의 세련된 멋을 보여 주는 제품이다. 사변형의 측면이 연결되어 이루고 있는 형태와 공간감이 완벽히 현대적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소품 가구, 가전제품, 인테리어,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7-19
	품목명	김상(木盤) (Tray)
	분류	가구 / 소반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용도	김상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가마와 소반>(1995/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소반은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밥상과 주안상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그밖에 다과상, 약상, 다상, 교자상, 시루상, 과반, 제상, 혼례상, 공고상, 김상 등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다.
	조형	외형	테두리가 높게 올라온 장방형의 김상으로, 천판 밑에 서랍을 두었으며 서랍 가운데 고리형의 신주 손잡이가 포인트가 되고 있다. 나무의 거친 표면이 자연미를 더해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김을 썰 때 쓰던 김상으로, 서랍을 달아 쓰임새를 유용하게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반 목재 가구 제작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용도에 최적합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며, 재료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살린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가구 소품, 기타.
--------	------------------

B. 문방구
담배용구
제례용구

1. 벼루
2. 연적, 필세
3. 붓, 필가
4. 서가, 서산
5. 먹통, 행연
6. 도장
7. 담배용구
8. 제례용구

일 반	분류번호	B1-1
	품목명	해와 달무늬 벼루(山水文日月硯)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15~17세기)
	출토지	
	크기	10.5×17.6cm, 높이 1.8cm
	재료	석(石)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 석	제품 배경		문방구가 단순히 기능뿐 아니라 쓰는 이가 보고 즐기는 대상이 되었던 까닭에 겉모양에 예술성이 한껏 덧붙여졌다. 조각이 없이 담백한 네모꼴도 있으나 여러 형태에다 갖가지 무늬를 새긴 것이 널리 사랑을 받았다.
	조형	외형	산과 물의 바탕 위에 해와 달을 새긴 이 벼루의 조형미는 조선의 선비들이 지녔던 심미안을 보여 준다. 물을 담은 연지(硯池)와 먹을 가는 갈판이 두 개의 겹쳐진 원으로 부각되었다. 단순한 원형과 세밀한 조각의 디테일이 대비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먹을 갈아서 먹물을 낼 때 벼루가 있어야 한다. 좋은 벼루는 단단하면서도 다듬기 쉬운 재료로 만든다. 먹을 갈 때 소리가 나지 않고, 물을 담아 놓아도 물이 줄어들지 않으며, 끈적거리지 않으면서 먹이 잘 갈아지고 붓이 상하지 않는 벼루가 좋은 벼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좋은 벼루는 단단하면서도 다듬기 쉬운 재료로 만든다. 우리나라 벼루는 돌이 가장 많으나, 모과나무, 수정, 옥, 도자, 구리 등으로도 만들었다. 주요 산지는 남포(금사문석, 은사문석), 위원(청석), 고령(고령석), 평창(자석) 등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의 풍경을 기능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해와 달의 이미지로 적용한 연지(硯池)와 갈판의 기하학적 형상은 나머지 부분의 자연스러운 조각과 대비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가정 소품, 기념품, 가전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1-2
	품목명	국화문석거연(菊花文石渠硯)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중기)
	출토지	
	크기	18.5×18.5cm, 높이 1.5cm
	재료	석(石)-고산석(高山石)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벼루>(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의 벼루는 도자기로 구운 도연(陶硯)의 경우 백제와 통일신라, 가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돌벼루가 나타나는 시기는 출토되는 벼루로 미루어 고려 이후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벼루를 총칭해서 해동연(海東硯)이라 일컫기도 한다.
	조형	외형	정사각형의 벼루로, 네 귀퉁이에 국화 문양을 안배하고 물집을 벼루 바닥의 둘레에 홈으로 처리한 옹벽식이다. 간결한 조형이 되고 있다. 자줏빛이 나는 돌을 사용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고산석(高山石)으로 통칭되는 자줏빛 벼루는 돌결이 약간 거칠어 먹은 잘 갈리나 발묵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돌을 고산석으로 통칭하다 보니 더러는 돌빛이 단계석과 흡사하고 석질이 뛰어난 것도 섞여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평창과 안동 지방에서 생산되며 고산석(高山石)으로 통칭되는 자줏빛 돌로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사각형과 정원이 조화된, 간결하고 안정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물홈을 적용한 방식이 기능을 최대한 단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가정 소품, 기념품, 가전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1-3
	품목명	쌍지세엽화석연(雙池笹葉化石硯)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12.2×17.4cm, 높이 3.6cm
	재료	석(石)-남포석(藍浦石)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벼루>(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벼루라면 한국 사람은 우선 시꺼먼 벼루를 떠올릴 만큼 흔한 것이 보령 남포석(藍浦石) 벼루다. 조선조 이후 벼루 공급의 70% 정도를 차지해 온 남포석은 서당의 서당 벼루에서부터 조선조의 문화를 주도한 사대부의 문방 필수품으로서의 벼루를 공급해 왔으므로 조선의 문화는 남포석 벼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령 남포의 벼루돌을 캐내는 주산(主山)은 성주산이다.
	조형	외형	가는 대나무 화석을 한쪽 면에 그대로 살려 디자인 포인트로 하였다. 화석 면(面)을 살리기 위해 두 개의 물질 위에 벼루 바닥과 거의 맞먹는 면적으로 처리해 놓았다. 자연미가 살아 있는 제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화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벼루의 절반을 활애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벼루 바닥은 작아졌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 화석인 남포석(藍浦石)으로 제작되었다. 가는 대나무나 고사리 화석은 남포석의 주산지인 성주산이 속해 있는 차령산맥 일대에서 발견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화석)을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자연미와 인공미가 공존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가정 소품, 기념품, 가전제품,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1-4
	품목명	미초화석연(薇草化石硯)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9.3×19.5cm, 높이 2.2cm
	재료	석(石)-남포석(藍浦石)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벼루>(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벼루라면 한국 사람은 우선 시꺼먼 벼루를 떠올릴 만큼 혼한 것이 보령 남포석(藍浦石) 벼루다. 조선조 이후 벼루 공급의 70% 정도를 차지해 온 남포석은 서당의 서당 벼루에서부터 조선조의 문화를 주도한 사대부의 문방 필수품으로서의 벼루를 공급해 왔으므로 조선의 문화는 남포석 벼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령 남포의 벼루들을 캐내는 주산(主山)은 성주산이다.
	조형	외형	고사리 화석을 한쪽 면에 그대로 살려 디자인 포인트로 하였다. 화석 면(面)을 살리기 위해 한 개의 물집 위에 벼루 바닥과 거의 맞먹는 면적으로 처리해 놓았다. 물집은 신월(新月)형으로 처리했다. 자연미가 살아 있는 제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화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벼루의 절반을 활애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벼루 바닥은 작아졌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 화석인 남포석(藍浦石)으로 제작되었다. 가는 대나무나 고사리 화석은 남포석의 주산지인 성주산이 속해 있는 차령산맥 일대에서 발견된다. 물집을 낸 것 이외에는 거의 연장을 대지 않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화석)을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자연미와 인공미가 공존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가정 소품, 기념품, 가전제품,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B1-5
	품목명	일필연(一筆硯) (Inkstone)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전기)
	출토지	
	크기	9.8×20.5cm, 높이 2.3cm
	재료	석(石)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벼루>(1989/대원사)

분 석	제품 배경		출토품인 이 벼루는 부장품(副葬品)이다.
	조형	외형	얇은 팔죽색 바탕에 짙은 자줏빛 반점이 떨어져 있다. 벼루의 상하에 나뭇잎 한 잎씩을 새기고 비스듬히 붓 한 자루를 걸들었는데 이런 양식은 전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부장(副葬)용 벼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석질은 미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주 단순한 먼 처리에 얇은 조각이 적용되어 형태를 거스르지 않고 있다. 갈판 한쪽이 자연스럽게 다운(down)되어 기능을 소화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가정 소품, 기념품, 가전제품,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1-6
	품목명	열숙연(列宿硯)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17.3×18.9cm, 높이 2.4cm
	재료	석(石)-자석(紫石), 목재(木製)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궁중 유물(들)>(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궁중에서 쓰였던 유물 중 하나이다.
	조형	외형	목지에 9개의 돌기형 주문(珠文)과 벽면에 같은 형태의 주문을 6개 배치하여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듯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가장자리의 테두리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듯한 선으로 처리하여 자연미를 더하고 있다. 목재의 받침대가 끼워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궁중에서 쓰인 벼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벼루의 재질은 단계(端溪) 자석(紫石)이며, 목재로 벼루 받침대를 꼭 맞게 만들어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의 형상을 이미지화하여 적용한 자연친화적 디자인이다. 자연스럽게 배치된 돌기형 주문(珠文)이 제품의 느낌을 갖게 하는 감성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패션 소품, 문구류, 가전제품,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1-7
	품목명	포도문 원형벼루(葡萄文圓形硯)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벼루
	시대	조선 (17~18세기)
	출토지	
	크기	
	재료	석(石), 목재(木製)
	용도	벼루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문방구가 단순히 기능뿐 아니라 쓰는 이가 보고 즐기는 대상이 되었던 까닭에 겉모양에 예술성이 한껏 덧붙여졌다. 조각이 없이 담백한 네모꼴도 있으나 여러 형태에다 갖가지 무늬를 새긴 것이 널리 사랑을 받았다.
	조형	외형	원형의 벼루로, 가장자리 테두리에 포도 문양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고, 가운데 원형의 벼루 바닥과 포도 문양 사이에 골을 패어 물집을 내었다. 역시 둥근 원형의 목재로 간결하게 받침을 하고 뚜껑을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먹을 갈아서 먹물을 낼 때 벼루가 있어야 한다. 좋은 벼루는 단단하면서 다듬기 쉬운 재질로 만든다. 먹을 갈 때 소리가 나지 않고, 물을 담아 놓아도 물이 줄어들지 않으며, 끈적거리지 않으면서 먹이 잘 갈아지고 붓이 상하지 않는 벼루가 좋은 벼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좋은 벼루는 단단하면서 다듬기 쉬운 재료로 만든다. 우리나라 벼루는 돌이 가장 많으나, 모과나무, 수정, 옥, 도자, 구리 등으로도 만들었다. 주요 산지는 남포(금사문석, 은사문석), 위원(청석), 고령(고령석), 평창(자석) 등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간결한 디자인이다. 반면에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형태에 순응하는 장식을 조용히 사용하였다. 두 재료의 특성을 잘 조화시켰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신변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2-1
	품목명	청자 복숭아모양 연적(靑磁桃形硯滴) (Water Dropper)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연적, 필세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8.7cm, 폭 9.5×7.1cm
	재료	자기(磁器)-청자(靑磁)
	용도	연적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분석	제품 배경		연상(硯床)에 놓고 실용(實用)하기도 하지만, 문갑이나 사방탁자 위에 얹어 놓고 바라보는 상완품(賞玩品)으로서의 뜻이 강한 연적이다.
	조형	외형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손잡이로 장식한 유레가 드문 복숭아 모양의 연적이다.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수입구(水入口)를 만들고, 측면 한 곳에 나뭇잎 두 개를 등글게 맞붙여 장식한 수출구(水出口)를 달았다. 몸통의 뒷면 가운데에 길다란 홈을 내어 복숭아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으며, 나뭇가지와 잎 등의 표현도 매우 사실적인데, 손잡이와 주구에 장식된 나뭇잎에 가는 음각선으로 엽맥을 정교하게 나타내었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비색유가 고르게 시유되어 있고, 유(釉) 속에는 미세한 기포가 들어 있어 반짝거린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편의성	먹을 갈 때 물을 담아 따르는 연적이다.
		특기	
	제작	재료	청자(靑磁) 연적으로, 광택이 좋고 투명한 비색유를 고르게 시유하였으며, 바닥 일부에 유약이 두껍게 묻쳐 있고, 유(釉) 속에는 미세한 기포가 들어 있어 반짝거린다. 바닥은 대충 편평하게 깎았으며, 세 곳에 커다란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복숭아와 나뭇잎을 사실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식과 기능이 조화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 조명기구, 각종 그릇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2-2
	품목명	백자연적(白磁硯滴) (Water Dropper)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연적, 필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8.6cm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연적
	지정사항	
	소장처	경희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희대학교 박물관 도록>(1986/경희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는 문방취미(文房趣味)가 매우 숭상되어 선비들의 문방용(文房用) 백자(白磁) 연적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조형	외형	복숭아형의 백자 연적으로, 일반적인 복숭아 모양에서 선이 좀더 단순화되어 대칭적이며, 간결미가 돋보이면서도 소박하다. 귀때가 양증맞게 옆에 붙어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먹을 갈 때 물을 담아 따르는 연적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백자(白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물(복숭아)을 단순화한 라인과 형상이 완벽히 정리되고 있다. 표면 처리와 색상이 전체 형상과 잘 조화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 조명기구, 각종 그릇류, 가정용품, 전기 전자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2-3
	품목명	백자무릎형연적(白磁 무릎形硯滴) (Water Dropper)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연적, 필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11.2cm, 지름 13.2cm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연적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10>(1973/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백설같이 고운 살결을 지닌 여인의 무릎 같다 해서 무릎연적으로 불린다. 무릎 연적 가운데는 때로 파초나무를 음각하고 파초 앞에 앉은 청개구리 한 마리만을 청화로 칠하기도 하며, 태극무늬나 매화나무 한 그루를 담담하게 청화로 그려 넣은 것도 있다.
	조형	외형	아무런 장식도 없고 다만 둥그런 몸체와 흰 빛깔만으로 이루어진 연적이다. 이러한 연적은 그 맑은 흰 색과 너그러우면서도 단정한 둥근 모양 때문에 흔히 무릎 연적이라 불린다. 그 색과 모양에서 한 무릎을 세우고 앉은 젊은 여인의 무릎마루를 연상하는 까닭이다. 아랫도리는 약간 퍼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원의 둘레를 줄인 후 꼭대기를 평평잡하게 마무리한 담담한 형태는 흰빛과 더불어 보는 이의 마음에 더 없는 평안을 가져다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먹을 갈 때 물을 담아 따르는 연적이다. 대부분 중앙에 공기구멍이 있고 상부에 귀때가 있다.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푸른 기가 열게 도는 유약만을 씌운 백자로, 굽 밑을 올려 파낸 분원리(分院里) 가마 시기의 특징을 지녔고 모래 받침을 하여 구웠다.
특기			
디자인 특징		아주 단순한 조형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절제된 디자인이다. 재료(자기)의 특성이 형상에 잘 적용되었다.	

활용 가능성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 조명기구, 각종 그릇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2-4
	품목명	백자파리연적(白磁파리硯滴) (Water Dropper)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연적, 필세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연적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분석	제품 배경		18~19세기에는 문방취미(文房趣味)가 매우 숭상되어 선비들의 문방용(文房用) 백자(白磁) 연적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특히 연적은 각종 현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조형	외형	머리에 물건을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인 파리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연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먹을 갈 때 물을 담아 따르는 연적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백자(白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부드러운 링 모양은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 덩어리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기념품, 가정용품, 전기 전자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2-5
	품목명	백자필세(白磁筆洗) (Brush Washing Vessel)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연적, 필세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8.2cm, 몸지름 16.1cm, 밑지름 9.6cm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붓 세척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10>(1973/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19세기에는 18세기의 뒤를 이어 경기도 광주군 남중면 분원리(分院里) 관요에서의 제작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기형(器形)에 있어서는 각종 형태를 상형한 연적을 비롯하여 필통, 합, 벼루, 필가(筆架)와 필세(筆洗) 등 문방구와 접시, 잔 등의 생활 용기가 다양한 형태와 기법으로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조형	외형	여덟 장의 꽃잎을 가진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접시 한가운데에 사각 물통이 자리잡았으며 물통의 네 모서리로부터 접시 가장자리를 향해 태극 모양의 칸막이가 돌아나가 네 칸을 만들었다. 물통 위에는 연꽃 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달린 얇은 뚜껑이 있다. 굽은 낮고 넓다. 푸른 기가 돌고 맑으며 빙렬(氷裂)이 없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필세(筆洗)는 붓을 빠는 그릇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뚜껑 밑과 접시 굽 밑에 내화토(耐火土)를 발라 구운 백자(白磁)이다. 푸른 기가 돌고 맑으며 빙렬(氷裂)이 없는 분원리 가마 시기의 전형적인 백자유가 전면에 입혀져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을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자연의 형상(꽃잎)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외관의 조형미 또한 소품이기는 하나 웅장한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문구류, 옥외시설,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2-6
	품목명	필세(筆洗)와 물구기 (Brush Washing Vessel)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연적, 필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붓 세척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18~19세기에는 문방취미(文房趣味)가 매우 숭상되어 선비들의 문방용(文房用) 백자(白磁) 연적 및 필세(筆洗)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조형	외형	전형적인 조선 백자의 축소형으로, 아담하고 부드러운 형상을 지녔다. 물구기 형상 또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우아함을 더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필세(筆洗)는 붓을 빠는 그릇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필세는 백자(白磁)로, 물구기는 황동주조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물구기의 유연한 형상이 우아함의 극치를 보임과 동시에, 기능을 고려한 손잡이의 인간공학적 라인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문구류, 도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3-1
	품목명	나무 자루 붓 (Brush)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붓, 필가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피모(皮毛)
	용도	붓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옛날 사람들은 붓을 소중히 여기어 닳아 못쓰게 된 붓은 땅에 묻었다고 하며,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오래된 붓 중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형	외형	대형 붓으로, 자루와 필모(筆毛)의 길이가 거의 같다. 자루의 곡선이 아름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붓은 대개 필가(筆架)에 걸거나 필통에 꽂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붓촉은 뾰족하고 가지런하며 둥글고 튼튼해야 글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붓은 모필(毛筆)이 대표적인 것이나 가죽, 대(竹), 버들가지, 짚, 갈대로 만든 것도 있다. 모필은 너구리, 양, 토끼와 같은 짐승 털이나 쥐 수염으로 만들며 이 중 족제비 털로 된 황모필(黃毛筆)이 최상품이다. 필관(筆管)은 대나무가 가장 흔하고 금, 은, 상아, 나전, 화각, 나무로도 만들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붓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세워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손잡이와 모필 부위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인테리어 소품, A/V기기, 조명기구, 용기류, 문구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3-2
	품목명	붓 (Brushe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붓, 필가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자기(磁器), 피모(皮毛)
	용도	붓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문방사우>(1989/대원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붓은 털의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유희필(柔毫筆), 강호필(剛毫筆), 겸호필(兼毫筆)이라 부르며, 용도와 크기에 의해 세필(細筆), 초필(抄筆), 간필(簡筆), 대필(大筆), 액자필(額字筆)로 구분하였다. 문방(文房)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붓을 고루 갖추고 용도에 맞춰 사용하였다.
	조형	외형	전체적으로 자루와 모필의 형상이 대조를 이루면서도 조화되어 있다. 곧게 뻗은 자루와 흐르는 듯한 선의 자루에서 각기 다른 기품을 느끼게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필관(筆管)은 반드시 단단하고 무게가 있고 둥글고 곧은 것이라야 자유롭게 운필(運筆)할 수 있으며, 붓촉은 뾰족하고 가지런하며 둥글고 튼튼해야 글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붓은 모필(毛筆)이 대표적인 것이나 가죽, 대(竹), 버들가지, 짚, 갈대로 만든 것도 있다. 모필은 너구리, 양, 토끼와 같은 짐승 털이나 쥐 수염으로 만들며 이 중 족제비 털로 된 황모필(黃毛筆)이 최상품이다. 필관(筆管)은 금, 은, 상아, 나진, 화각, 나무로도 만들었던 예도 있으나, 대(竹)로 된 자루가 가장 쓰기에 편하여 조선시대의 붓들은 대부분 대나무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기(磁器)로 만들어진 붓자루의 형상이 재료의 유연함을 살리고 있다. 3개로 이루어진 세트(휴대용) 개념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필기구, 일반 오브제,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3-3
	품목명	죽제필통 (Brush Stand)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붓, 필가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9.8cm, 지름 12.2cm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소나무
	용도	필통
	지정사항	
	소장처	서세옥(徐世鈺)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필통은 사랑방의 문갑 위에 지통, 연적 등과 함께 놓여져 장식과 실용을 겸하였다.
	조형	외형	서른두 개의 일정한 굵기의 가는 대나무 관을 세워 원통을 구성한 후, 중심을 향해 대나무 관으로 4등분하고 높낮이의 변화를 주어 디자인적 요소를 갖추었다. 외부는 일정한 크기의 보다 가느다란 대나무 관을 이중으로 덧붙였다. 몸통은 검은 칠을 했고, 상부와 하단에는 희고 붉은 색의 추상적인 꽃무늬를 그려 장식성을 강조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굵은 연봉형 마개가 있는 붓을 대나무 관 속에 꽂아 두면 매달리게 되어 마치 긴 붓뚜껑이 붓 전체를 싸고 있는 듯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형식은 많은 양의 세필(細筆)을 보관하고 또 큰 붓을 꽂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장식성이 강조된 필통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서른두 개의 대나무 관을 세웠고, 바닥은 하단의 붓이 둥글게 모인 화형(花形)과 똑같이 소나무로 깎아 대었으며, 검은 칠을 하였다. 상부와 하단에는 꽃무늬를 그렸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적절한 재료를 선택해 그 재료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제품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있으며, 필통 자체의 조형성뿐만 아니라 붓이 꽂힌 이후의 조형성도 감안된 우수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장식품, 기념품, 생활용품,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3-4
	품목명	죽제필가(竹製筆架) (Brush Rest)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붓, 필가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cm, 12×9.5cm
	재료	목제(木製)-가래나무·대나무
	용도	붓을 올려 놓는 필가(筆架)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사용하던 붓을 잠시 쉬기 위해 눕어놓는 받침으로, 필격(筆格)이라고도 한다. 주로 잘 씻겨지고 항상 청결한 도자기와 옥(玉), 석(石)을 산(山)(五峯)으로 만들어 필산(筆山) 또는 산형필가(山形筆架)라고 불렀다.
	조형	외형	양쪽에 굽이 달린 받침 위에 통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두 쪽을 나란히 놓았다. 유연한 선의 대나무와 안정된 면을 구성할 수 있는 목재를 잘 조화시킨 제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 필가는 사용하던 붓을 잠시 쉬기 위해 눕어놓는 받침으로, 대나무의 패인 골에 붓을 옆으로 걸쳐놓게 만들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래나무로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통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두 쪽을 나란히 놓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그러나 제품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장식적인 받침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사무용품, 문구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3-5
	품목명	붓걸이 (Brush Hanger)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붓, 필가
	시대	근대 (19세기)
	출토지	
	크기	가로 64.9cm, 세로 17cm, 너비 3.5cm
	재료	목재(木製)-가래나무 · 대나무
	용도	붓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분석	제품 배경		옛 선비들이 글씨를 쓰는 데 이용되었던 붓을 보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다. 즉 필통에 꽂아두는 방법, 필낭(筆囊)이라는 주머니에 넣어 차는 방법, 필갑(筆匣)에 넣어 두는 방법, 필가(筆架)에 걸어 놓는 방법 등 보관 방법이 매우 많았다. 필가는 붓을 걸어 놓는 기구라 하여 붓걸이라고도 한다.
	조형	외형	이 붓걸이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시렁에 긴 나무못을 박아 붓을 매달도록 고안하였다. 시렁 위에는 줄을 매어 벽에 걸도록 하였다. 연봉오리형으로 작은 걸이용 긴 나무못이 다섯 개 있는데, 전체 틀과 잘 어울린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필가(筆架)에 붓을 걸어 놓는 방법은 벽면을 장식하는 일종의 실내 디자인 효과도 있어 많이 애용되어 왔다. 필가는 대개 문갑이나 머리장의 윗부분에 비치하였는데, 편지나 두루마리 등을 꽂아두는 고비와 함께 벽면을 장식했던 문방 도구였다. 붓걸이에 가지런히 정돈된 형태의 붓이 선비의 문방 생활(文房生活)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의 긴 시렁에 긴 나무못을 박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주 간결한 기능적,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이 특징으로, 프레임 내부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3-6
	품목명	필낭(筆囊) (Bag for Writing Brushe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붓, 필가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가로 16.1cm, 세로 30.8cm
	재료	사직(絲織)
	용도	붓을 넣어 휴대하는 주머니
	지정사항	
	소장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도록>(1983/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분석	제품 배경		옛 선비들이 글씨를 쓰는 데 이용되었던 붓을 보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다. 즉 필통에 꽂아두는 방법, 필낭(筆囊)이라는 주머니에 넣어 차는 방법, 필갑(筆匣)에 넣어 두는 방법, 필가(筆架)에 놓는 방법 등 보관 방법이 매우 많았다.
	조형	외형	겉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 주머니 안쪽에는 “幼學 崔鳳文 二十七 壬午 本陽州 居高靈 父 幼學 尙湜 祖 學生 壽栢...”이라는 글귀가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붓을 넣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천 주머니이다. 겉면에 용이 그려져 있던 것으로 보아 과거장(科擧場)에 나갈 때 휴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으로 만든 주머니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하기 간편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현대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4-1
	품목명	접게 서가(書架) (Folded Book-stand)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서가, 서산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펼친 것 : 45.3×23cm (접었을 때 길이 22.5cm, 두께 3.6×2.4cm) 접은 것 : 44×22cm (접었을 때 길이 22cm, 두께 2.5×3.5cm)
	재료	목재(木製)-화류
	용도	휴대용 책 받침대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소품>(1977/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서가(書架)는 앉아서 책을 읽기에 편리하도록 받침판을 경사지게 제작한 문방가구이다. 일반적인 책상(書案)의 천판(윗면)은 수평으로 만들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다목적 용도이며, 간혹 읽기 편리하도록 서안의 천판이 조금 경사지게 제작된 것도 있다. 그러나 서가는 순수하게 책을 읽는 데만 사용하도록 경사가 급하게 설계되었다.
	조형	외형	발이 없고 가느다란 테두리로만 이루어진 서가(書架)이다. 접으면 간단한 막대기 형태로 변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발이 없고 바로 바닥에 놓게 되었다. 가운데 설주에서 뒤로 뺀 받침목이 있어 경사도를 조절하게 되었다. 접으면 책 밑을 받치게 된 넓은 횡목 안에 쑥 들어가 휴대에 편리해진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화류나무를 가늘게 켜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일체 배제한 간결한 디자인이다. 조립식 개념이 훌륭히 도입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사무용품, 가구, 기타 도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4-2
	품목명	서산(書算) (Page Counter)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서가, 서산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3.3×21.8cm, 4.2×22.2cm
	재료	지(紙)
	용도	책의 쪽을 세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책을 읽고 다음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 서제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선비용 문방구이다.
	조형	외형	색이 다른 종이를 맞붙이고 오려진 부분을 열면 안쪽 종이의 색 같이 보이도록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오린 부분을 접으면서 읽은 책의 쪽수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색이 틀린 종이 두 장을 맞붙여서 오린 부분을 접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한 기능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절한 재료와 함께 조형적으로 승화시킨 개념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캘린더 등의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4-3
	품목명	죽제화형지통(竹製花形紙筒) (Bamboo Stand for Paper)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서가, 서산
	시대	조선 (말기)
	출토지	
	크기	지름 20cm, 밑지름 16.8cm, 높이 15.2cm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용도	두루마리 종이를 넣는 통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 문방(文房) 용구에는 대나무를 이용한 죽제공품이 많이 애완되었는데 이는 대나무가 선비들의 깨끗한 절개를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나무 제품은 은은한 편광(偏光) 효과가 있어 부드러운 실내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특성이 있어 선호되었다.
	조형	외형	대나무쪽 일곱 개를 아래쪽은 좁고 위로 갈수록 넓게 붙여서 보기에 좋고 쓰기에 편하게 하였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면의 껍질을 벗겨내어 검은 칠을 해서 그림을 튀어나오게 하였다. 선(線)을 파서 만든 그림의 내용은 대나무, 연꽃, 매화, 소나무, 파초, 수석, 불로초 등으로 사슴, 오리, 학, 물새, 구름 등이 곁들여져 이른바 불로장생화(不老長生畵)를 그린 것이다. 통의 밑바닥은 대나무 뿌리의 마디 모양으로 조각한 목판을 받쳐 놓아 고졸한 멋을 풍긴다. 구성은 간결 소박하지만 조각과 색깔이 두드러져서 사랑방 가구의 품위를 지켜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종이는 눅혀서 보관하면 자리를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말아서 두었다. 이 대나무 종이통은 두루마리를 꽂아놓던 통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굵은 대통을 반쪽으로 쪼갠 다음 죽편(竹片)의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세세하게 조각하였다. 그 외의 지면에는 대나무 껍질을 벗겨내서 각선(刻線)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흑칠로 메웠다. 흑칠로 그림이 두드러지게 한 후 그 대쪽 7쪽을 모아 평면이 칠엽화형(七葉花形)을 이루게 붙여 통을 만들었다. 통에는 얇은 굵을 대였는데, 굵은 대나무 뿌리의 마디 모양으로 조각한 목판(木板)으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종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내측면을 라운드 처리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면서 재료의 특성을 살렸고 조형적으로 완성미를 갖추었다. 만약 장식이 없다 해도 아름답고 간결한 미를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그릇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5-1
	품목명	타원형 먹통(墨筒) (Portable Ink-pot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먹통, 행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8.3cm, 너비 3.7cm, 높이 1.3cm, 뚜껑 길이 4.3cm, 뚜껑 너비 2.4cm, 대롱 길이 1.5cm, 대롱 지름 0.9cm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휴대용 먹통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 붓, 먹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크지 않으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었겠지만 벼루는 무겁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먹물을 담아서 다니는 휴대용 먹통을 고안하여 편리하게 사용했다.
	조형	외형	타원형의 먹통으로, 윗면 중앙에 타원형 뚜껑이 있어 여닫게 되어 있고, 뚜껑의 아래와 위에 붓을 꽂을 수 있는 대롱이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먹물을 담아 넣고 다니되 흐르지 않게 고안한 휴대용 먹통이다. 대롱은 밀이 막혀 있어 붓이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붓을 꽂은 다음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놋쇠로 만든 먹통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 기능을 적절히 소화한 합리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붓 꽂는 구조와 잠금 장치를 겸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도구함, 생활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5-2
	품목명	먹통(墨筒) (Portable Ink-pot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먹통, 행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필통 길이 8cm, 필통 둘레 지름 1cm, 먹통 길이 9cm, 먹통 지름 4cm, 먹통 뚜껑 2cm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휴대용 먹통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 붓, 먹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크지 않으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었겠지만 벼루는 무겁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먹물을 담아서 다니는 휴대용 먹통을 고안하여 편리하게 사용했다.
	조형	외형	붓 한 자루를 넣을 수 있는 기다란 필통에 달려 있는 먹통은 호리병박 모양을 한 놋쇠판 한쪽에 무덤 모양으로 볼록 솟아 있다. 먹통 위에는 파리잎 모양 뚜껑이 달려 있다. 필통과 먹통 중간에 경첩을 겸한 각진 고리가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먹물을 담아 넣고 다니되 흐르지 않게 고안한 휴대용 먹통이다. 붓 한 자루를 넣을 수 있는 필통이 같이 달려 있다. 필통과 먹통 중간에 경첩을 겸한 각진 고리가 있어 달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닐 때는 경첩이 접히면서 세워져 먹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달고 다니기 편하고, 쓸 때는 펴서 뉘어 놓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된 제품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놋쇠로 만든 먹통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 기능, 사용성, 조형성 등을 최적화로 만족시키고 있는 디자인이다. 꺾여지는 구조의 컨셉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도구함, 생활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5-3
	품목명	먹통(墨筒) (Portable Ink-pot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먹통, 행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오동(烏銅) · 은사(銀絲)
	용도	휴대용 먹통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 붓, 먹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크지 않으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었겠지만 벼루는 무겁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먹물을 담아서 다니는 휴대용 먹통을 고안하여 편리하게 사용했다.
	조형	외형	기다란 손잡이 끝에 사각 먹통이 달려 있다. 먹통에는 여닫을 수 있는 뚜껑이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먹물을 담아 넣고 다니되 흐르지 않게 고안한 휴대용 먹통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동(烏銅)에 은사(銀絲)를 상감하여 정교하게 문양을 새겼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작은 먹통에 긴 손잡이가 일반적인 비례를 탈피하며, 현대감을 주고 있다. 긴 손잡이는 또한 인간공학적으로 다루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은은한 상감과 함께 전체적인 조형미가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도구함, 생활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5-4
	품목명	먹통(墨筒) (Portable Ink-pot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먹통, 행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2.8cm, 지름 2.4cm
	재료	금속(金屬)-백동(白銅)
	용도	휴대용 먹통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 붓, 먹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크지 않으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었겠지만 벼루는 무겁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먹물을 담아서 다니는 휴대용 먹통을 고안하여 편리하게 사용했다.
	조형	외형	원통형과 6각의 먹통으로, 몸체의 좌우와 뚜껑에 각각 속이 빈 가느다란 대롱 모양의 장식이 있고 여기에 끈을 꿰어 달았다. 이런 모양의 먹통은 크기도 다양하고 팔각형, 육각형 등 모양도 다양하다. 뚜껑에는 으레 꽃무늬 장식과 함께 질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먹물을 담아 넣고 다니되 흐르지 않게 고안한 휴대용 먹통이다. 몸체의 좌우와 뚜껑에 각각 가느다란 대롱이 있어서 끈을 꿰어 차거나 달게 되었으며, 뚜껑과 몸체의 파이프가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재료는 백동(白銅)이다. 이러한 원통형 먹통은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 기능에 충실한 합리적인 디자인이다.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상에 상부 장식으로 미적 포인트를 두었다.	

활용 가능성	문구용품, 도구함, 생활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5-5
	품목명	행연(行硯) (Portable Inkston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먹통, 행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너비 2.8cm, 길이 4cm
	재료	금속(金屬)-백동(白銅), 석(石)
	용도	휴대용 먹통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문방사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 붓, 먹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크지 않으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었겠지만 벼루는 무겁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휴대용 벼루인 행연(行硯)을 고안하여 편리하게 사용했다.
	조형	외형	묵지(墨池)가 1.8cm에 1.2cm이고, 묵장(墨場: 먹갈 가는 곳)은 1.8cm에 1.2cm밖에 안 되는 큰 밤알 만한 벼루가 구리로 된 벼루집 속에 담겨 있다. 뚜껑에는 경첩을 달아 여닫게 했으며, 벼루집 윗부분에는 1.3cm, 1.5cm 크기의 돌출부에 구멍을 내어 피를 달고 끈을 매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대용 벼루로, 뚜껑에는 경첩을 달아 여닫게 했으며, 벼루집 윗부분에는 돌출부에 구멍을 내어 피를 달고 끈을 매어 허리에 차거나 달고 다니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벼루집은 구리로 만들고, 그에 맞춰 벼루돌을 다듬어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 기능에 충실한 컴팩트한 디자인이다. 경첩(Hinge)을 사용하여 열고 닫게 한 합리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	--

일반	분류번호	B6-1
	품목명	청동도장 (Seal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도장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높이 2.6~5.0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도장
	지정사항	
	소장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http://www.cataegu.ac.kr/museum/data/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인장(印章)과 봉인(封印)은 수결(手決)을 대신하는 것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찍는 인장과 편지를 봉하고 그 위에 찍는 봉인이 있다. 따라서 작은 도장 하나에도 지식과 안목, 취향 등 모든 것이 나타나므로 내용과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개성이 뚜렷한 형태와 크기로 매우 다양하다.
	조형	외형	각종 도장으로 장식 의장이 돋보인다. 손잡이는 동물모양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그 표정에서 개성이 돋보인다. 도장 면의 평면 형태도 원형에서부터 각이 진 형, 네모난 형으로 다양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도장의 손잡이 부분을 각종 동물 모양으로 장식, 실용과 장식을 겸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제(銅製)의 도장이다. 봉인(封印)은 청동, 놋쇠, 도자기 등 매우 다양한 재료가 있으며, 청동봉인은 고려시대의 유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다양성과 개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손잡이를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장식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게 하였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6-2
	품목명	인장(印章) 및 봉인(封印) (Seals)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도장
	시대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7~1.1cm, 지름 4~3.1cm
	재료	목재(木製)-배나무·회양목
	용도	도장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인장(印章)과 봉인(封印)은 수결(手決)을 대신하는 것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찍는 인장과 편지를 봉하고 그 위에 찍는 봉인이 있다. 따라서 작은 도장 하나에도 지식과 안목, 취향 등 모든 것이 나타나므로 내용과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개성이 뚜렷한 형태와 크기로 매우 다양하다.
	조형	외형	원통형과, 사각형, 8각형, 반달형, 비정형 등 매우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스스로 책임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찍는 인장(印章)과 편지를 봉하고 그 위에 찍는 봉인(封印)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부분 단단하고 결이 없는 배나무와 회양목을 사용했고, 봉인(封印)은 인장(印章)에 비해 선이 날카롭고 깊게 양각되어 있다. 봉인은 청동, 놋쇠, 도자기 등 매우 다양한 재료가 있으며, 청동 봉인은 고려시대의 유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인장,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7-1
	품목명	철제은입사담배함 (Tobacco Cas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4.1cm
	재료	금속(金屬)-철(鐵) · 은(銀)
	용도	담배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정화>(1997/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담배 피우는 데 필요한 제반 기물이 연구(煙具)인데,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므로 흡연구의 보급이 조선 후기의 일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배는 금속도로 민간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에 소용되는 기물이 초기에는 비록 일본 것의 모방에 치중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한국 나름의 기물로 토착화하였다. 연갑(煙匣) 혹은 연합(煙盒)에 있어서는 구리나 쇠로 만들어 은입사 치장을 하고, 서민들은 종이나 깎 싹지를 사용하였다. 정교한 목제 연갑의 유물이 간혹 보이는 것은 금속제품을 모방한 한말의 제품일 것이다.
	조형	외형	원통형 담배함으로, 전체의 은사(銀絲) 상감과 경계면의 디테일이 완벽하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담배를 보관하는 함으로, 상부에 미단이문이 달려 있다. 예전에는 담뱃잎을 썰어서 긴 담뱃대(長竹)에 담아 피웠으며, 외출시에는 담배싹지를 갖고 다녔다. 실내에서는 연초갑(煙草匣)이나 연초합(煙草盒)에 넣어 두고 피웠다.
		적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철에 은사(銀絲)를 상감한 은입사(銀入絲) 제품이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간결한 원통 형태와 상부의 미단이문 처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앞부분의 입체적 장식이 패션성을 띠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 패션 소품, 가방류, 패키지,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7-2
	품목명	담배함 (Tobacco Case)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황동(黃銅)
	용도	담배함
	지정사항	
	소장처	전진한 소장
	자료출처	<유기>(1989/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담배는 광해군 3년(1610) 일본을 통해 들어와 상류층에서만 피우던 것이 인조(재위 1623~1649) 때에는 널리 퍼져 상하 귀천이 없이 누구나 피우게 되었다. 그러나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예의범절이 각듯하여 지금까지 전통이 되고 있다.
	조형	외형	담배함은 위쪽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는 형식으로 네모난 것, 둥근 것, 그리고 팔각진 형태 등 다양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담배를 보관하는 함이다. 예전에는 담뱃잎을 썰어서 긴 담뱃대(長竹)에 담아 피웠으며, 외출시에는 담배쌈지를 갖고 다녔다. 실내에서는 연초갑(煙草匣)이나 연초합(煙草盒)에 넣어 두고 피웠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황동(黃銅)을 가지고 주물(鑄物) 유기법으로 만들었다. 담배함으로는 다양한 재료가 쓰여져, 돌, 백동, 놋쇠, 철에 은입사한 것 등이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깨끗하고 간결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용기류, 주방기기,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7-3
	품목명	타구, 재떨이 (Smoking Tools)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조선 (말기)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황동(黃銅)
	용도	타구, 재떨이, 담뱃대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유기>(1989/대원사),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 비로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은 왜초(倭草) 또는 남초(南草)로 불렸고, 북경 등에서도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고 했다. 새로운 식물인 이 담배는 1921년 일본인들이 전매제를 만들기까지 농민들에 의하여 수익 작물로 자유롭게 재배되었다.
	조형	외형	타구 : 원통형이며 오목한 상부에는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다. 몸통에는 가로줄로 홈을 파서 단조로움을 피했다. 재떨이 : 중심부를 약간 올라오도록 배꼽을 설치한 진형적인 재떨이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타구 : 가래나 침을 뱉도록 마련한 그릇이다. 재떨이 : 대꼬바리에 남아있는 단단해진 담뱃재를 재떨이에 대고 쳐서 떨어내기 위한 배꼽(숫아오른 중심부)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황동(黃銅)을 가지고 주물(鑄物) 유기법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실용적인 필요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디자인이다. 타구 몸통의 가로줄은 내구성과 잡기에 편한 편의성, 조형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용기류, 주방기기,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B7-4
	품목명	재떨이 (Ash Tray)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5cm, 지름 37cm
	재료	목재(木製)-느티나무
	용도	재떨이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 석	제품 배경		옛날 담뱃대인 장죽(長竹)은 담배를 피우고 나면 단단해진 담뱃재가 금속의 대꼬바리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를 재떨이에 대고 쳐서 떨어내기 때문에 재떨이 중심부로 약간 올라오도록 배꼽을 설치한다. 재떨이는 낫쇠, 백동, 목재로 만들며, 그중 목재가 단연 다양한 편이다. 형태는 원형, 8각, 4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조형	외형	낮은 높이의 변죽(테두리)에 재를 떨기 위한 중심의 부드러운 능선(稜線)이 안정되고 풍부하게 보인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여러 명이 둘러앉아 담소하는 자리의 중심에 놓여져서 긴 담뱃대로 담배 맛을 즐기며 함께 사용하던 대형 재떨이다. 특히 목재 재떨이는 투박한 대로 대통의 담뱃재를 떨어내는 데 기능적이며, 그런 기능에 더욱 적절하도록 재떨이 중심부로 약간 올라오는 배꼽을 두었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단단하여 금속의 대꼬바리로 쳐도 흠이 나지 않고 닳지도 않으며 불에도 강한 느티나무를 같이방(목물레)으로 같이질하여 깎아낸 것이다. 같이질은 좌우대칭이 되는 원형을 깎을 때 일종의 목물레(같이방)로 깎는 작업을 말한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이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기능적 형상에, 중앙 부위가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디자인이 돋보인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용기류, 주방기기, 가전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7-5
	품목명	담뱃대걸이 (Smoking-Pipe Rack)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출토지	
	크기	높이 49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담뱃대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3/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담뱃대걸이는 긴 담뱃대(長竹)를 기대어 세우는 대(臺)로, 장죽걸이(長竹臺)라 부르기도 했다. 장죽걸이에는 짧은 담뱃대는 걸쳐 세우지 못하며 긴 것을 여러 개 걸쳐놓는 것으로, 지체가 높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여 그 수가 많지 않다. 애연가의 대부분이 담뱃대를 방바닥이나 재판 위의 재떨이 또는 담배통받침에 걸쳐놓고 사용했다.
	조형	외형	형식은 담뱃대의 담배를 담는 대꼬바리를 내려놓는 재떨이처럼 생긴 낮은 단이 하단에 있고, 그 중심에 기둥을 세워 담뱃대를 걸쳐 세우는 장치를 상부에 설치했다. 대개 상부에는 박쥐형화형판이나 연봉형에 둥그렇게 휘어진 가지형식의 선 등으로 다양하게 되었다. 죽절(竹節)형 기둥에 풍혈(風穴)을 달아 장식성을 강조하고 안정감을 갖게 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랑방에는 여러 가지 장죽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담뱃대걸이가 필요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木製) 조각품이다. 그밖에 백동, 놋쇠, 철로 제작된 것들도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다소 장식이 과장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7-6
	품목명	백동(白銅)장죽(長竹)걸이 (Smoking-Pipe Rack)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62.5cm, 밑지름 26cm
	재료	금속(金屬)-백동(白銅)
	용도	담뱃대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8>(1974/동화출판공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담뱃대걸이는 긴 담뱃대(長竹)를 기대어 세우는 대(臺)로, 장죽걸이(長竹臺)라 부르기도 했다. 장죽걸이에는 짧은 담뱃대는 걸쳐 세우지 못하며 긴 것을 여러 개 걸쳐놓는 것으로, 지체가 높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여 그 수가 많지 않다. 애연가의 대부분이 담뱃대를 방바닥이나 재판 위의 재떨이 또는 담배통받침에 걸쳐놓고 사용했다.
	조형	외형	밑에는 여덟 개 꽃잎(八花形)의 넓은 받침이 있고 바닥에는 연잎을 좌우에 두 잎 음각하였다. 받침 중앙에 높은 지주(支柱)를 세우고 끝에는 보주(寶珠)가 달려 있다. 거의 위쪽 가까이에 곡선으로 된 만(卍)자형 장식을 붙여서 한쪽이 뚫린 고리를 만들고 끝에는 작은 보주(寶珠)를 위에 달고 중간에는 새 한 마리씩을 위에 붙여 놓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랑방에는 여러 가지 장죽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담뱃대걸이가 필요했다. 장죽은 대통을 아래로 세워서 고리에 걸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백동(白銅)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매우 간단한 구조이지만, 보주(寶珠)와 새를 장식하는 등 운치 있는 착상이 돋보인다. 베이스 부위의 조형미가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7-7
	품목명	담배침 (Pipe Scrapers)
	분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 담배용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길이 10.2~5.3cm
	재료	금속(金屬)
	용도	담배침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8/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담배를 피우는 꺾연구(喫煙具)에는 담뱃대, 연초합, 재떨이, 타구, 담배침 등 여러 소도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 정돈하도록 만든 넓은 목판(木板)인 재판에 두고 사용하던가, 간혹 방바닥에 두꺼운 유지(油紙)를 깔아 놓고 쓰기도 했다.
	조형	외형	의날짜리도 있고, 두 개의 날을 둥근 몸통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다. 침은 물고기, 새 등 각종 모양으로 장식했고 몸통도 엽전 모양이나 꽃 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손으로 빼내는 부분의 장식이 재미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금속의 대꼬바리에 남아있는 단단해진 담뱃재를 쭈셔서 떨어내기 위한 침으로, 휴대할 수 있게 고리와 끈을 달았다. 뽕족한 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금속 주조 후 후가공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건에도 섬세하고 해학적인 모양을 가미하여 가치를 둔 것이 돋보인다. 기능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아이덴티티(Identity)도 유지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패션 소품, 문구, 도구류,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8-1
	품목명	주독(主櫝) (Spirit Tablet Case)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제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1.7cm, 폭 25×16.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신주(神主)를 보관하는 상자
	지정사항	
	소장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주독(主櫝)은 신주(神主)를 봉안하는 일종의 상자로 신주독(神主櫝) 또는 독(櫝)이라 부른다. 신주는 밤나무로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해 작은 비석처럼 깎아 만들었는데 가장을 기준으로 아버지는 현고(顯考), 어머니는 현비(顯妣)라 해 모시는 패(牌)이다. 사대봉사(四代奉事)라 해서 위로 4대까지 모시고 5대째부터는 산소 옆에 묻는다.
	조형	외형	중심부의 창호는 정자문(井字文)과 빗살문으로 깊게 음각했는데 단정하면서도 정선된 선이 매끄럽고 검은 앞널판과 조화되어 엄숙함과 경건함을 나타내고 있다. 뚜껑을 벗기면 자연색의 목재로 ‘ㄷ’자형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신주(神主)를 봉안하는 일종의 상자이다. 뚜껑을 벗기면 ‘ㄷ’자형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그 안에 신주(神主)를 모시도록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상부를 받치는 하단의 족통은 짜맞춘 형식이 아니라 두꺼운 판을 깎아내었고 그 위로 뚜껑을 씌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한 전체 형상과 중심부의 디테일이 대비되어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용처에 맞는 엄숙함을 지니고 있게 한 표현 기법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생활용품,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B8-2
	품목명	지방함(紙榜函) (Spirit Tablet Case)
	분류	문방구·담배용구·제례용구 / 제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80.2cm, 폭 22.6×4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제사용 지방함(紙榜函)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죽은 이의 혼이 들어 있는 위패(位牌)를 모시기가 여의치 못할 때에는 지방(紙榜)이라 해 종이에 ‘神位’를 써서 대신하는데 신(神)이 앉는 자리를 의미하며 제사가 끝난 후 태워 없앤다.
	조형	외형	상단에 연화문이 투각되어 있고, 중심인 여단이문은 금속 장식을 사용하지 않고 돌쩌귀형식으로 대신했다. 양 측면에 초엽형 풍혈이 있어 묵직하게 보이도록 했다. 밑으로는 제사상에 끼우도록 긴 다리를 설치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문을 열면 내부에 공간이 없이 바로 뒷판인데 이곳에 지방(紙榜)을 붙인다. 일반적으로 주독은 교의(交椅)(혼백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데 제사상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은 두께가 얇아서 세워놓을 수가 없으므로 제사상을 벽 쪽에 붙이고 그 사이에 끼워 넣어 사용하도록 아랫부분에 긴 다리를 설치했다. 따라서 중간에 횡으로 보이는 연봉형 막대가 밑의 제사상의 높이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상단의 연화문은 투각하였고, 여단이문은 금속 장식을 사용하지 않고 가옥의 대문과 동일하게 상하단에 의지해 열리는 돌쩌귀형식을 취해 기둥이 없이 전체를 활짝 열어 젖힐 수 있게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직선 라인과 장식 문양의 디테일이 조화되어 있다. 기능적인 디자인이면서도 충분한 조형성을 갖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기타.
--------	----------

C. 생활소품

1. 화장도구

2. 보관용구

3. 취침도구

4. 등축구

5. 바느질용구

일반	분류번호	C1-1
	품목명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Bronze Mirro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청동기 (기원전 4~3세기)
	출토지	충남 논산
	크기	높이 31.7cm, 폭 25×16.3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거울
	지정사항	국보 141호
	소장처	숭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국보2>(1986/예경산업사), <한국미술전집1>(1973/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출토지가 논산의 훈련소 부근 야산에서 일괄 유물과 함께 도굴된 것임이 확실시되는 유물로 국내 출토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중 가장 정교한 예로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문양의 기본이 된 삼각형문(三角形文)은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문양 단위였으며 팔원문(八圓文)은 풍요와 대량을 뜻하던 팔(八)의 옛 뜻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형	외형	뒷면의 문양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심부의 문양은 사다리형 내지 장방형의 구획 안쪽을 직선으로 3등분하여 6개의 삼각형을 구획한 뒤 각 삼각형의 내부를 집선문(集線文)으로 채운 형태이다. 그 다음의 가운데 부분은 중앙에서 방사상(放射狀)으로 사출된 직선과 중앙을 축으로 하는 동심원이 서로 만나 생긴 장방형 구획의 내부 중 중심부와 같이 집선문으로 채웠으며, 문양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정밀하다. 바깥쪽의 문양도 중심부와 가운데 부분의 문양과 유사하나 4개소에 2개가 된 동심원문(同心圓文)을 배치하였다. 거울 가장자리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한쪽 면이 반들반들해서 그곳에 물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중앙에 꼭지가 있으며, 꼭지 주위에 무늬가 양각되어 있는 거울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실랍법(失蠟法)을 이용하여 이범(泥范)으로 제작된 우리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중에서도 주조(鑄造)의 완벽성에서 실로 놀라운 청동기술 수준을 과시하고 있으며, 정밀한 기하학적 문양의 시문(施文)이 경탄스럽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의 연속이 원시감과 최첨단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활용 가능성	제품 분야 전반, 건축, 비주얼 디자인 분야 전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2
	품목명	동제경(銅製鏡) (Hanging Mirro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거울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한국의 미23 금속공예>(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동경(銅鏡)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형태나 무늬는 스스로 발전한 것도 있으나 중국의 영향도 상당히 받았다. 형태는 원형에 고리가 하나인 단鈕(單鈕)가 제일 많고 가끔 고리가 두 개, 세 개 달린 쌍鈕(雙鈕)나 삼鈕(三鈕)가 보이거나 아주 드물다. 원형 이외에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화형(花形), 사능형(四稜形), 보주형(寶珠形), 정형(鼎形), 종형(鐘形), 병형(瓶形) 등 다양하며, 무늬는 동물, 식물, 인물, 문자, 고사(故事), 별세계(別世界) 등으로 나뉘어진다.
	조형	외형	거울 뒷면은 세 개의 원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원둘레의 바깥쪽으로 작은 원점이 둘러져 있다. 간략한 문양이나 세련된 맛이 풍긴다. 테두리 한쪽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사각형의 고리가 달려 있고 고리 끝에는 구멍이 나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한쪽 면이 반들반들해서 그곳에 물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장식 무늬가 양각되어 있으며, 위에는 줄을 매달아 걸 수 있도록 구멍난 고리가 달려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을 주조하여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한 원형에 고리가 달린 기능적인 디자인이나, 요란하지 않은 연속 장식을 적용하여 조형미를 높였다.	

활용 가능성	제품 분야 전반, 건축, 비주얼 디자인 분야 전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3
	품목명	동제소문경(銅製素紋鏡) (Hanging Mirro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지름 9.7cm, 테두리 높이 0.4cm, 테두리 폭 0.1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거울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한국의 미23 금속공예>(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동경은 청동기시대의 다뉴세문경에서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유물로서, 유리 거울이 나타나기까지 실로 오랜 동안 만들어지고 이용되어서 형태나 무늬가 다양하다. 형태나 무늬에는 시대적인 배경과 특징이 나타나 있어 외래문화와의 접촉상황이나 공예기술의 발달 등을 고찰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조형	외형	원형의 거울 뒷면 가장자리로 테두리가 둘러 있고 테두리에는 방사상(放射狀)으로 줄무늬가 쳐져 있다. 가운데 면은 깨끗하게 비워 두었다. 테두리 한쪽에 나뭇잎 모양의 고리가 달려 있고, 고리 중앙에는 구멍이 나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한쪽 면이 반들반들해서 그곳에 물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무늬가 양각되어 장식성을 지니며, 위에는 줄을 매달아 걸 수 있도록 구멍난 고리가 달려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을 주조하여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 느낌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나타난 디자인이다. 테두리 처리에도 손맛이 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주방기기,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4
	품목명	동제팔괘문경(銅製八卦紋鏡) (Hanging Mirro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지름 8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거울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한국의 미23 금속공예>(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고려시대에는 당시의 귀족문화를 반영하듯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지닌 동경(銅鏡)이 많이 제작되었다. 제작방법에 따라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중국에서 수입된 것, 이 거울들을 그대로 틀로 떼내어 다시 부어 낸 것과 이들을 부분적으로 본떠서 변화시켜 만든 것 등으로 구분된다. 형태는 원형, 방형(方形), 화형(花形), 능형(四稜形), 종형(鐘形) 등이 있고, 이밖에 손잡이 달린 병경(柄鏡), 매달아 늘이는 현경(懸鏡) 등이 있다. 이들 뒷면에는 가운데의 꼭지(鈕) 주위로 화조(花鳥), 서수(瑞獸), 인물고사(人物故事), 보상당초(寶相唐草), 문자(文字) 등이 시문되었다.
	조형	외형	원형의 거울 뒷면 가장자리로 8개의 괘(卦)가 둘러져 음각되어 있으며 괘와 괘 사이에는 원형의 음각이 자리잡고 있다. 테두리 한쪽에 고리가 달려 있고 고리 중앙에는 구멍이 나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한쪽 면이 반들반들해서 그곳에 물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무늬가 양각되어 장식성을 지니며, 위에는 줄을 매달아 걸 수 있도록 구멍난 고리가 달려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을 주조하여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8개의 괘를 장식화하여 사용하였다. 무언가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Symbolic)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비주얼 디자인, 용기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5
	품목명	철제은상감거울걸이 (Mirror Stand)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고려 (12~13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54.8cm
	재료	금속(金屬)-철(鐵), 은사(銀絲)
	용도	거울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전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한국의 미23 금속공예>(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동경의 발달과 함께 경가(鏡架) 역시 발달되었으니, 각종 금속으로 만들어진 경가에는 입사(入絲) 수법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시문(施文)하고 있다. 입사(入絲)란 금속기물에 문양을 파고 이물질인 금, 은, 오동(烏銅)을 넣어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이다.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입사(入絲) 기법은 고려에 이르러 불교공예품에서 꽃을 피우고, 조선시대에는 일상용품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조형	외형	원형의 거울이 접이식 거울걸이(경가(鏡架))에 놓여져 있다. 거울걸이에는 정교하게 은입사(銀入絲) 장식이 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주술적(呪術的) 용도로 쓰이던 거울이 차츰 화장용구로서의 일상용품으로 자리잡아 거울걸이(鏡架)와 함께 제작되기도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거울걸이의 문양 장식은 철제에 문양을 그리고 그대로 흙을 파서 은사(銀絲)를 넣는 상감식(象嵌式) 입사(入絲)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아이디어가 뛰어난 독특한 디자인으로,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미가 돋보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생활용품, 사인,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6
	품목명	거울 (Mirro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거울
	지정사항	
	소장처	이희재 소장
	자료출처	<유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놋쇠라는 금속이 있다. 이 놋쇠로 식기를 비롯하여 촛대, 향로, 소반, 대야, 악기, 불구(佛具) 등 다양한 일상 생활 용품이나 기구를 만들어 썼다. 놋쇠로 만든 이런 제품들을 통틀어 '유기 제품'이라고 한다. 놋쇠는 각 제품마다 그 성분과 합금의 배합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동(銅)을 기본으로 하는 비철금속(非鐵金屬)의 합금을 말한다.
	조형	외형	원형의 거울이 거울걸이(경가(鏡架))에 놓여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거울 받침대는 양옆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거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놋쇠로 주조한 것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선된 거울면 형상이 산뜻하고 현대적이다. 문양의 형상이 적용된 받침대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7
	품목명	좌경(座鏡) (Folding Mirro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1.3cm, 폭 24.3×32cm
	재료	목재(木製)-은행나무,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 금속(金屬)
	용도	거울 (경대)
	지정사항	
	소장처	박옥경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좌경(座鏡)은 앉은 자세에서 볼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든 거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대라고 부른다. 여성이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멋을 부리는 것을 상스럽다 해 화장할 때만 잠시 사용하고 접어두는 형식으로 애용되었다. 전신을 비추어보는 주연경(柱聯鏡)은 조선 말기부터 제작되었다. 서랍 없이 납작하게 접어지는 형식에서부터 한두 개의 서랍이 달린 것, 또는 서너 개의 서랍으로 높이가 높아지고 장식성이 강조된 후기의 좌경이 있다.
	조형	외형	거울만 달려있는 나직하고 단순한 좌경으로, 넓은 거울 면에 비해 낮아 경쾌하게 느껴진다. 거울 면의 주변 변자에는 박쥐형투각귀장식으로 견고하게 했으며 각 면이 짜여지는 부분에는 고춧잎형 거털잡이장식으로 거머잡았다. 불박이잠금장치와 호엽형 경첩이 주석장식으로 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서랍 없이 단순한 좌경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장롱 밑에 넣어두거나 문갑 혹은 머릿장 위에 올려놓아도 부담스럽지 않아 적격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는 은행나무이며, 거울면의 주변 변자(테두리)에는 박쥐형투각귀장식으로 견고하게 했으며 각 면이 짜여지는 부분에는 고춧잎형 거털잡이장식으로 거머잡았다. 불박이잠금장치와 호엽형 경첩이 주석장식으로 되어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슬림(Slim)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이다. 부피를 최소화하여 보관이 용이하게 하였다. 장식이 포인트가 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 함, 가방류,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8
	품목명	빗집 (Comb Box)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51.8cm, 폭 22.9×31.8cm
	재료	목재(木製),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 금속(金屬)
	용도	경대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화장을 위한 빗과 빗치개, 칩지, 뒤꽂이, 비녀 등의 소도구들을 넣어두려면 서랍이 많이 필요하다. 지체 높은 집안의 부녀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것들을 넣어두는 빗집과 거울이 들어있는 좌경이나 경대를 합친 형태의 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목적이면서 가구의 숫자를 줄여 실내공간을 정돈하는 기능이 있다.
	조형	외형	세 개의 서랍과 거울로 구성되어 있는 빗집이다. 넓은 면에는 주칠(朱漆)을 했고 테두리의 약간 겹쳐 보이는 선은 흑칠이었는데 사용하는 동안 자주 닳아 지워진 것이다. 천판(윗면)의 경첩과 자물쇠앞바탕 그리고 측면의 거털잡이에는 만(卍)자나 칠보문(七寶文)을 투각한 장식을 달았으며, 천판에는 박쥐형장식의 잠금장치를, 서랍과 서랍 사이의 여의두화형앞바탕장식 위에는 호리병형빗장을 두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궁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화장도구를 넣어두는 빗집과 거울이 들어있는 좌경의 역할을 했다. 잠금장치는 천판(윗면)의 박쥐형장식을 앞으로 당기면 전면의 박쥐형장식이 앞으로 나와 열리게 되어 있다. 여의두화형앞바탕장식 위에 전면 서랍을 고정시키기 위한 호리병형빗장을 두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주칠(朱漆)과 흑칠을 했으며, 각종 장식과 자물쇠, 경첩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이다. 면 분할, 색상, 장식, 디테일 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다. 특히 최근 유행되고 있는 내추럴 칼라와 유사한 색상의 세련미가 주목된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9
	품목명	빗 (Combs)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837년)
	출토지	
	크기	상 : 길이 12.5cm, 중 : 길이 5cm, 5.5cm, 하 : 길이 8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머리빗
	지정사항	
	소장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관모와 수식>(1993/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옛날의 여인들은 가발을 가하여 머리를 장식하였기 때문에 열레빗, 참빗 등 다양한 빗이 필요했다. 머리를 빗을 때 빗집을 펴서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리마는 빗치개로 정리하고 미지나 동백기름을 발라 남자머리, 쪽머리를 틀어 올렸다. 그러나 의식에 사용하던 큰머리, 어여머리는 수모(首母)가 빗겨 주어야만 했다. 이 빗들은 순조의 삼녀(三女)인 덕온공주의 유물이다.
	조형	외형	위로 세 개는 주칠(朱漆)을 한 열레빗이고 아래의 것은 주칠빗이다. 모두 반월형(半月形)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열레빗이라 부르는 발이 굽고 성근 형태의 큰 빗은 머릿걸을 고르기 위해 빗질하는 것이며, 소형 빗은 흩어진 머리카락을 가다듬어 넘기는 용도이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나무로 깎고 주칠(朱漆)을 했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자연스러운 형상, 인체에 사용하기 위한 부드러운 디테일이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가전제품, 통신기기, 신변소품, 액세서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0
	품목명	빗 (Combs)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길이 9.3, 7.3, 6.2, 5.1, 6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머리빗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머리털을 가지런히 빗어 정돈하는 데 사용되는 빗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신라시대에는 거북이 등껍질인 대모(玳瑁)로 만들어 상류층 여자들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 특히 신라 고분에서 나온 장식 빗은 금실 꽃무늬와 푸른 옥, 그리고 너울거리는 꽃넝쿨로 치장되어 귀부인의 호사스러움을 보여 준다.
	조형	외형	상단의 좌측은 빗살이 성근 열레빗이며, 그밖의 것은 월소(月梳)라 부르는 반달 모양의 형태와 촘촘한 빗살을 갖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상단 좌측의 열레빗은 발이 굽고 성근 형태로 머릿결을 고르기 위해 빗질하는 것이며, 간혹 먼빗이라고도 부르는 소형 빗은 흩어진 머리카락을 가다듬어 넘기는 용도이다. 이러한 빗은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도 사용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빗의 재료로는 배나무, 참죽나무, 밀감나무, 회양목, 박달나무, 대나무 등 나무 재료가 많았고, 고급은 자라 등껍질, 상아, 쇳발 등으로도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디테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활용 가능성	가전제품, 통신기기, 신변소품, 액세서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1
	품목명	빗 (Combs)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길이 5.6~12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머리빗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머리털을 가지런히 빗어 정돈하는 데 사용되는 빗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신라시대에는 거북이 등껍질인 대모(玳瑁)로 만들어 상류층 여자들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 특히 신라 고분에서 나온 장식 빗은 금실 꽃무늬와 푸른 옥, 그리고 너울거리는 꽃넝쿨로 치장되어 귀부인의 호사스러움을 보여 준다.
	조형	외형	형태로는 반월형(半月形)이나 사각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발이 고운 면빗, 참빗과 발이 성근 열레빗 등이 있다. 그 밖에 음양소(陰陽梳), 참빗 등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호트러진 긴 머리채를 날이 성긴 열레빗으로 대강 빗은 후 촘촘한 참빗 날로 거듭 빗어 가지런히 한 다음 면빗으로 귀밑머리를 곱게 넘기면 단정한 모습이 된다. 특히 열레빗으로 빗어 내린 후 참빗질을 하면 때도 잘 빠지고 머릿결도 좋아진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빗의 재료로는 거북의 등껍질인 대모(玳瑁)와 상아, 뿔, 목재, 대나무 등을 사용했고, 주칠(朱漆)을 하거나 화각(畵角), 조각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들이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과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도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신변소품, 액세서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2
	품목명	빗치개 (Comb Cleaner)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10~13cm
	재료	금속(金屬)-백동
	용도	머리 장식 및 가르마 타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여인들의 머리를 갈무리하는 도구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대개 빗이나 빗집 등과 같이 경대 안에 간직해 둔다. 이 빗치개는 형태와 무늬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보아 양반가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궁가에서 쓰인 것은 비취, 산호, 진주, 호박 등을 박아 모양과 색깔이 화려하였다.
	조형	외형	이 빗치개의 위 모양은 끝이 둥글고 얇으며, 다른 끝은 가늘고 뾰족하다. 형태와 무늬가 비교적 단순하다. 좌우의 것은 둥근 판의 좌우를 반달형으로 파서 박쥐 모양을 나타내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빗치개는 머리를 치장하는 장식품 중 하나로서 원래는 빗살 틈에 끼인 때를 빼내는 기구였으나 가르마를 타는 데나 밀기름을 바르는 데도 쓰였다. 이 빗치개의 위 모양은 끝이 둥글고 얇아서 빗살 틈의 때를 빼는 데 편하고 다른 끝은 가늘고 뾰족하여 가르마를 타기에 알맞다. 대부분 여인의 꾸미개가 부적의 기능을 겸하였듯이 빗치개 또한 쪽머리 위에 덧꽂는 수식물이면서 잡귀를 막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백동(白銅)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형태와 무늬를 단순화한 간결한 디자인이다. 기능성을 강조하였으나 조형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사인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3
	품목명	족집게 (Tweezers)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좌로부터 1850년대, 1700년대, 1650년대, 고려, 1700년대)
	출토지	
	크기	좌로부터 길이 8.2cm, 8.2cm, 9cm, 9cm, 9.8cm
	재료	금속(金屬)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관모와 수식>(1993/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는 얼굴의 잔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였다. 우선 족집게로 눈썹을 다듬거나 이마를 가지런히 정돈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뽑고 나서, 아궁이에서 숯가지를 태운 한줌의 재를 문혀 두 줄로 겹쳐 쥐고 팽팽하게 밀면 먼도한 것보다도 뒤가 깨끗하였고, 재를 사용해 소독도 되었다.
	조형	외형	장식적인 문양을 곁들인 것에서 단순한 형태까지 다양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족집게는 몸에 난 잔털이나 또는 살에 박힌 가시를 뽑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오른쪽의 것은 귀이개와 손톱을 다듬을 수 있는 연모가 달린 복합용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금속 주조 및 단조 후 후가공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으로, 세심한 인간공학적 배려가 있다.	

활용 가능성	족집게, 공구류,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4
	품목명	소자(掃子) (Brushes)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550년대)
	출토지	
	크기	좌로부터 길이 12.3cm, 11cm
	재료	골각패(骨角貝), 피모(皮毛)
	용도	화장용 솔
	지정사항	
	소장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관모와 수식>(1993/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여인들이 화장할 때 쓰던 솔이다.
	조형	외형	한쪽 끝에는 솔이 달려 있고 배가 불룩한 가운데 몸통 위에는 원형의 얇은 판을 덧끼웠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화장용 솔이다. 가운데 몸통 위에는 손에 잡기 편하도록 원형의 얇은 판을 덧끼웠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는 뿔을 깎아 만들고 솔은 짐승의 털을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당시의 재료(뿔)를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손에 잡기 쉬운 인간공학적 요소가 있다. 부드러운 표면과 자연스러운 색상이 조화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화장도구, 패션 소품, 신변잡화,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5
	품목명	청자동화퇴화국화문합(靑磁銅畫堆花菊花文盒) (Cosmetic Case)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높이 2.7cm, 지름 7.3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향합(香盒), 화장합(化粧盒)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9>(1995/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이러한 기형은 본디 금속기의 형태에서 유래하였지만, 오래 전부터 도자기로 변안되어 만들어지는 가운데 세부적인 특징은 거의 사라지고 뚜껑 가장자리의 사면 등에만 금속기의 흔적이 남아있다.
	조형	외형	뚜껑 윗면에는 단순화된 국화 여섯 송이를 상감하였고, 화심(花心)에 진사(辰砂)를 칠했다. 진사의 색깔은 보통 팔색이나 주홍색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밝은 주홍색으로 나타났다. 뚜껑 가장자리의 경사면으로부터 밑쪽의 측면까지 굵은 흑퇴선(黑堆線)과 백퇴선을 번갈아 내려그어 장식하였다. 광택이 거의 없고 녹색이 감도는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그물 모양의 병렬(氷裂)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향합(香盒)이나 화장합(化粧盒)으로 쓰이던 것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뚜껑의 국화 문양은 상감하였고, 화심(花心)에 진사(辰砂)를 칠했다. 뚜껑의 가장자리에는 비스듬히 모깍기를 했으며 이 모깍기 경사면에서 밑쪽의 측면까지 굵은 흑퇴선(黑堆線)과 백퇴선을 번갈아 내려그었으며, 유약을 입혔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에 색상과 비주얼 요소가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션 소품, 신변잡화,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6
	품목명	백자청화접문합(白瓷靑畵蝶文盒) (Cosmetic Case)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8세기)
	출토지	
	크기	지름 4.1cm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 고렘미술관(Koryo Museum)
	자료출처	일본 속의 한국 문화재 http://www.ccnews.co.kr/remains/kyoto/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독특한 도자기는 푸른 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나타낸 청화백자(靑畵白磁)이다. 중국 원, 명나라 도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청화 백자는 초기에는 중국 도자를 모방하여 당초문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중국 자기의 모습이지만,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중국식에서 탈피하여 곧 한국적인 특징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체로 매화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와 나무 아래 들 국화를 사실적인 회화 수법으로 묘사하여 적당한 여백을 가진 한 폭의 그림 같은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조형	외형	뚜껑 윗면에 푸른 나비 문양이 그려진 백자합(白磁盒)이다. 뚜껑은 그릇을 덮어씌우지 않고 편평한 판형으로 올려졌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향합(香盒)이나 화장합(化粧盒)으로 쓰이던 것으로 추측된다.
		적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순도 높은 순백의 기면(器面) 위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雜物)의 함유가 없는 순도 높은 장식계(長石界) 유약을 그 위에 씌워 번조한 것이 청화백자이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편평한 뚜껑의 형상이 독특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신변잡화,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1-17
	품목명	백자청채양각쌍(희)자합(白瓷靑彩陽刻雙(囍)字盒) (Cosmetic Case)
	분류	생활소품 / 화장도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7.5cm
	재료	자기(磁器)-백자(白磁)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Koryo Museum)
	자료출처	일본속의 한국 문화재 http://www.ccnews.co.kr/remains/kyoto/ <국보1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에는 세종, 세조대부터 중국에서 코발트계 청색 안료인 회회청(回會靑)이 수입되었으며, 세조 9년(1463년)에는 국산인 토청(土靑)으로도 청색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靑華白磁)를 번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청색 안료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청색 안료를 기면(器面) 전체에 입혀 번조한 청채(靑彩)이다.
	조형	외형	쌍희(囍)자가 양각된 육면체의 백자합(白磁盒)이다. 뚜껑은 그릇을 덮어씌우지 않고 편평한 판형으로 올려졌으며, 푸른 청채(靑彩)가 전체적으로 입혀졌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향합(香盒)이나 화장합(化粧盒)으로 쓰이던 것으로 추측된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바탕 흙은 백자 태토(胎土)이며, 기면(器面) 전체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를 입히고 그 위에 백자 유약을 씌워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 사각 형상과 편평한 뚜껑의 형상이 독특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신변잡화,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
	품목명	십이지상각가형석함(十二支像刻家形石函) (Stone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통일신라
	출토지	
	크기	
	재료	석(石)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mfs.kyungpook.ac.kr/vl/museums/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함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중국에는 함이라는 명칭은 없고 함과 같은 형태의 보관용구를 상(箱)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비로소 함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석함(石函)에 대한 기록으로는 <청장관전서>에서 볼 수 있는데, 고려 예종 2년(1107)에 하음 봉(奉)씨 선조가 나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조형	외형	뚜껑은 가옥의 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몸체 아래쪽 둘레에 얇은 형상의 십이지상(十二支像)이 양각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무엇인가를 보관했던 함이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석재(石材)로 다듬어지고 조각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이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상단부와 십이지상이 거칠게 조각되어진 하단부의 대비적 디자인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가전제품, 패키지,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
	품목명	나전국화문경함(螺鈿菊花文經函) (Mother-of-pearl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37.8×19.2cm, 높이 26.4cm
	재료	골각패(骨角貝)-나전(螺鈿), 목재(木製)
	용도	경전을 넣는 함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국보10>(1986/예경산업사),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지금 남아 있는 고려 나전(螺鈿)의 명품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고종 11년(1224)에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두고 양산했던 경함류(經函類)들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으나 다행히 일본과 유럽, 미국 등지에 건너간 것들이 남아 있다. 11세기에는 고려의 조정이 외국에 나전칠기를 예물로 보낼 만큼 자신 있는 제품을 생산했었고 또 고려시대 현존 유물들이 실증하듯이 11, 12세기 무렵의 고려 나전기술은 그 절정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형	외형	고려시대의 나전 경함은 조선시대의 목제함들과 그 양식이 유사하나 형태를 보면 뚜껑 네 변의 모서리를 천판(윗면)에서부터 경사지게 깎아 낸 점이 다르다. 이렇게 뚜껑을 깎은 것은 고려시대의 청자에서도 볼 수 있다. 앞면에는 둥근 열쇠고리를 달았고, 측면에는 들쇠를 달았다. 국화 문양을 전면에 장식했는데, 이렇게 문양을 나전경함(螺鈿經函) 전면에 장식하는 것은 그 시대 경함(經函)의 정형이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불경(佛經)을 보관하기 위한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전칠기의 제품으로, 국화문양으로 전면을 메운 정연한 의장(意匠), 그리고 정밀한 공기(工技)를 살펴보면 중세기의 동양 나전 중에서 고려나전이 가장 세련되었다고 하는 연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짜임새 있는 형상에 패턴화된 문양이 완결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명품 가방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디자인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함류, 텍스타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3
	품목명	나전포도동자문의함(螺鈿葡萄童子文衣函) (Close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48×17.6cm, 높이 17.6cm
	재료	골각패-나전(螺鈿), 목재(木製)
	용도	의류 보관용 함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국보10>(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함은 주로 자개나 화각 장식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조선시대의 나전칠기는 고려시대의 귀족적 취향에서 신선한 민중적 취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대범하고도 거친 표현의 회화적 무늬가 자리를 잡아 왔다. 고려시대에도 청자무늬가 반영되었듯이 조선시대 청화백자에 나오는 매죽(梅竹), 화조(花鳥) 무늬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형	외형	함의 전면에 포도 문양과 동자(童子) 문양으로 자개 장식하였으며, 포도 열매와 덩굴을 전체의 면으로 연결시켜 통일성을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관복이나 예복을 넣어 간수하는 의상함(衣裳函)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로 된 백골(白骨)에 굵은 베 형질을 바르고 자개를 시문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짜임새 있는 형상에 패턴화된 문양이 완결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명품 가방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디자인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함류, 텍스타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4
	품목명	빗집(梳函) (Comb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29cm, 폭 28.7cm, 높이 21.5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머리단장용 도구 함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Calendar 함>(1998/삼성그룹),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소함(梳函)이라고도 하는 빗집은 퇴발낭(退髮囊:사방 80~90cm의 유지로 머리를 빗을 때 무릎 앞에 펴 빠지는 머리카락을 받아 모아 종횡으로 3번 접어 보관), 빗, 빗솔, 빗치개 등을 보관하는 제구로서 유리 거울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되었다. 좌경은 유리 거울이 보급되면서 빗집에 거울을 부착한 것으로 빗집이 발전된 양식이다. 주칠, 나전칠기 제품이 많은 편이며, 잠금 장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값비싼 머리 장식품도 보관한 듯하다.
	조형	외형	이 빗집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게 뻗은 선뺨침대(길채)는 조선시대의 양식으로 장식과 기능을 겸하였으며, 중간에 길목이 있어 잠그도록 되었다. 모서리 사이사이에는 국수거털감잠이로 장식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머리 손질에 필요한 빗, 빗솔, 빗치개와 같은 머리단장용 도구와 화장품, 머리 장식품 등을 넣어두는 함이다. 길게 뻗은 선뺨침대는 아래 서랍까지 잠그는 역할과 뚜껑을 뒤로 젖혔을 때 경첩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뚜껑을 수평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가 주재료이며 쇠로 된 경첩 및 자물쇠 장식을 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중앙의 가느다란 잠금장치가 길게 내려온 것이 특이하다. 장식의 조화가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5
	품목명	함(函)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40×24.5cm, 높이 24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놋쇠
	용도	귀중품 보관용 함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전통 목가구>(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함은 깊은 밑쪽에 운두가 얇은 뚜껑을 경첩으로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상자이다. 함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중국에는 함이라는 명칭은 없고 이러한 형태의 가구를 상(箱)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비로소 함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조형	외형	길게 뻗은 선뺨침대(길채)는 조선시대의 양식과 기능을 겸하였다. 놋쇠의 둥근 앞바탕과 모서리를 빙 둘러 고춧잎감잡이로 감싼 이러한 양식의 함은 내실용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귀중품을 넣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자물쇠로 채우도록 되어 있다. 자물쇠는 뚜껑에 부착된 긴 뺨침대(길채 또는 낙목이라고도 함)의 중간에 달린 고리(길목)와 몸체에 박힌 두 배목의 고리를 연결하여 잠그도록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가 주재료이며 놋쇠로 된 경첩 및 자물쇠 장식을 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중앙의 가느다란 잠금장치가 길게 내려온 것이 특이하다. 장식의 조화가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6
	품목명	예물함(禮物函) (Gift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26×11cm, 높이 4.8cm
	재료	목재(木製)-괴목, 금속(金屬)
	용도	예물함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함은 기물을 넣고 보관하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특히 귀중품을 넣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함은 ‘혼인 때 신랑측에서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 신부측에 보내는 상자’인 혼함(婚函)으로 특별한 기물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용도를 우선적으로 지칭하는 것일 뿐, 함의 기본형에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조형	외형	옆으로 긴 함으로, 모서리에는 국수거털감잡이를, 앞판과 옆판의 이음새에는 큰 약과판감잡이를 붙여 장식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예물(禮物)을 넣어 보내고, 또 보관하는 작은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괴목으로 만들고 모서리에 국수거털감잡이를, 앞판과 옆판의 이음새에는 큰 약과판감잡이를 붙여, 상자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조 보강과 장식성을 겸한 장식 활용이 적절하다. 예물함으로서 단단함과 품위를 동시에 느껴지게 한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7
	품목명	서류함(書類函) (Document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34.2×18cm, 높이 10.8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서류함
	지정사항	
	소장처	전갑봉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사랑방용의 함으로는 서류함을 비롯해 도장함, 관복함, 관모함, 돈계가 있는데 사랑방이 서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서책이나 귀중문서를 넣어두는 크고 작은 함과 의류수장용 께가 많았다. 대부분 각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썼으므로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조형	외형	양 측면에 환(環)고리가 달린 고식(古式)이다. 자물쇠 앞바탕과 뒷면의 경첩이 네모나고 단순한 약과형장식인데,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했다. 이는 각 판재를 거머잡은 국화형거머잡이와 환고리바탕쇠 등과 어울려 통일되는 장식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물결치는 듯한 나뭇결에 주석 장식이 아름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사랑방에서 서류를 넣어 보관하던 함이다.
		특기	
	제작	재료	자물쇠 앞바탕과 뒷면의 경첩을 타출(打出), 즉 뒷면에서 뽕족한 정으로 때려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했다. 맞짜임한 각 판재는 국화형거머잡이로 거머잡았다.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양식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목재의 채질감, 색상, 장식의 디테일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최적으로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8
	품목명	문서함(文書函) (Document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38.5×26cm, 높이 6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 금속(金屬)
	용도	서류함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문서함은 귀중한 서책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관재의 다양한 함류를 말한다. 서櫃(書櫃), 문서櫃(文書几) 등으로 기록한 경우도 보게 되나 대체로 함의 형태를 갖춘 것들이다. 물론 일정하게 규격화된 것이 없고 대소고저도 다양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문서함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동나무판을 인두로 지져 취색한 것을 귀히 여기며, 선비용품의 격식을 좇아 장지로 감싸 바른 것도 있다.
	조형	외형	납작한 서류함으로, 이음새마다 국화판 새발장식으로 보강하였고 양옆에는 굵은 고리틀쇠가 있다. 문짝은 위에서 망두경첩으로 연결하고 앞의 국화판 바탕에 자물쇠 고리가 있다. 전체적으로 흑칠을 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랑방에서 서류를 넣어 보관하던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는 행자목이고 흑칠을 했다. 이음새마다 국화판 새발장식으로 보강하고 양옆에는 고리틀쇠를 달았다. 문짝은 위에서 망두경첩으로 연결하고 앞에는 자물쇠 고리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목재의 재질감, 색상, 장식의 디테일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최적으로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9
	품목명	문서함(文書函) (Document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38.5×26cm, 높이 6cm
	재료	목재(木製)-물푸레나무, 금속(金屬)
	용도	서류함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사랑방용의 함으로는 서류함을 비롯해 도장함, 관복함, 관모함, 돈계가 있는데 사랑방이 서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서책이나 귀중 문서를 넣어두는 크고 작은 함과 의류수장용 께가 많다. 대부분 각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썼으므로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조형	외형	납작한 서류함으로, 물푸레나무의 아름다운 결을 살린 목재 함이다. 네 모서리에 주석 장식을 접어서 대고 그 사이에는 국수거털감잡이를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사랑방에서 서류를 넣어 보관하던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물푸레나무 결을 살린 목재 함으로, 네 모서리에 주석 장식을 접어서 대고 그 사이에는 국수거털감잡이를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단순한 장식에서 캐주얼한 현대감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0
	품목명	도장궤(印櫃) (Seal-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좌 : 10.7×11.2cm, 높이 13.5cm, 우 : 10.3×10.3cm, 높이 17cm
	재료	목재(木製)-가래나무·떡감나무, 금속(金屬)
	용도	도장 보관용 궤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인궤는 크게는 나라의 국새(國璽), 임금의 어보(御寶), 관청의 관인(官印)과, 작게는 화가의 낙관(落款), 개인의 인장(印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도장들을 넣어두는 함으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인뒤옹이’라고도 부른다. 도장은 직위를 상징하므로 외형을 돋보이게 하여 주변에 귀중하게 보관하였고, 외출시 지인(知印), 통인(通引)에 들려서 곁에 가지고 다녔는데, 이를 조선조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형	외형	각 모서리마다 금속을 접어서 대었는데, 이는 인궤의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옆에는 벨빡끈을 달도록 고리를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도장을 보관하는 궤는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각 모서리마다 금속을 접어서 대고 못을 박아 자물쇠판을 견고하게 하였고, 양옆에는 고리를 달아 이동할 때에 든든하게 엮어 묶을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는 가래나무, 떡감나무의 두터운 판이 쓰였다. 각 모서리마다 금속을 접어서 대고 못을 박았으며, 자물쇠와 양옆의 고리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 형상에 내구성과 보안성을 염두에 둔 장식의 사용이 실용과 장식적 디자인을 겸하고 있다. 색상이나 재질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현대적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함류,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1
	품목명	인둬옹이(印櫃) (Seal-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13.7×13.7cm, 높이 20.2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도장 보관용 궤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Calendar 함>(1998/삼성그룹),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관아(官衙)에서 사용하는 인(印)을 보관했던 궤(櫃)로서, 이 인궤 내부의 나무 도장에 새겨진 ‘관.첩(關.帖)’은 관문(關文)과 첩지(帖紙)를 일컫는 말로서 관문은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보내는 공문, 첩지(첩지)는 관아에서 이속(吏屬)을 채용할 때 쓰는 임명장이나 공문서를 뜻한다.
	조형	의형	네모진 상자에 꼭지가 달린 뚜껑을 덮었는데 뚜껑의 사면은 경사지게 깎여 있다. 앞쪽에는 작은 자물쇠를 달았고, 외면에 붙은 많은 금속장식은 견고함과 함께 큰 장식 효과를 주고 있다. 양옆에는 뿔뿔을 달도록 고리를 달았다. 자물쇠 앞바탕에는 관인(官印)을 뜻하는 ‘인신(印信)’을 새겼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관아(官衙)에서 사용하는 인(印)을 보관했던 궤(櫃)로서, 앞쪽에는 작은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고, 양옆에는 고리를 달아 이동할 때에 든든하게 엮어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인궤는 순수하게 나무로 된 것, 나무에 붉은 칠이나 흑칠이 된 것, 단단한 교피(蛟皮, 상어 껍질)를 씌운 것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 사각 육면체를 탈피한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견고함과 장식성을 겸한 많은 부분의 장식 사용이 분위기를 다르게 한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함류,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2
	품목명	흑칠 영정함(黑漆 影幀函) (Scroll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상 : 75.9×10.5cm, 높이 11.3cm, 하 : 74×12.9cm, 높이 15.3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영정 보관용 함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함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 명칭도 크기도 다양하기 그지없다.
	조형	외형	표면 전체에 검은 옷칠을 두텁게 올리고 거멸쇠 장식으로 간결하면서 견고하게 엮었다. 둔중하면서 근엄한 분위기여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한 물품의 수장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선대 조상의 영정을 받들어 보관하던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표면 전체에 검은 옷칠을 두텁게 올리고 거멸쇠 장식으로 간결하면서 견고하게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디자인이다. 최소한의 장식 사용으로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느끼게 한다. 색상의 대비가 현대적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함류, 패키지, 소품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3
	품목명	호수함(虎鬚函)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46.3×7.4cm, 높이 7.4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초립(草笠)의 장식꽃이, 호수(虎鬚) 보관함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호수(虎鬚, 호랑이 수염)는 원래 조선 현종(재위 1660~1674)이 온천에 행차할 때 보리가 대풍인 것을 기뻐하여 신하들에게 관모(冠帽)에 꽃도록 한 것이 시작이라고 전해진다. 영조(재위 1724~1776) 26년, 갓끈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백관들이 초립 위에 보리이삭을 꽃았다는 기록도 있다. 참대꽃이에 호수를 아교로 붙여 사용했으나 쉽게 부러지고 또 호랑이의 수염을 많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도판 유물의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대용품으로 짐작된다.
	조형	외형	검은 칠이 된 긴 상자에 불박이자물쇠장식이 단아하게 붙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초립(草笠)의 양 측면과 뒤쪽에 꽃는 호수(虎鬚, 호랑이 수염)를 넣어 두는 이 상자는, 일반적인 상자와는 달리 양끝에 미닫이 뚜껑이 있다. 호수를 넣을 때에는 목침에서 사용되는 능형의 뚜껑 쪽으로 넣고, 꺼낼 때에는 반대편 뚜껑을 열고 밀어서 꺼내게 되어 있다. 귀한 호랑이 수염의 끝 부분이 부러지지 않게 일정한 방향으로 여닫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전체적으로 검은 칠을 하고, 불박이자물쇠장식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패키지의 수납 방식이 특이하다. 컴팩트하며 품위가 있고, 편의성이 내재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4
	품목명	휴대 약장(藥奩) (Potable Medicine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휴대용 약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서랍이 양분되게 구성된 독특한 양식의 휴대용 약장으로, 이와 비슷한 구조의 잔합(饌盒)들도 볼 수 있다.
	조형	외형	뒷면에 경첩이 달려 있어 반으로 나누어 열어젖히면 내부에 양쪽으로 각각 다섯 칸으로 분리된 작은 서랍들이 달려 있다. 서랍에는 천도형 들쇠를 달았고, 두 짝을 붙인 후의 앞면에는 둥근 자물쇠판을 붙였다. 그리고 위에는 반달 들쇠를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한약재를 따로따로 갈라서 넣어놓기 위해 작은 서랍으로 구성되었다. 뒷면의 견고한 경첩을 활용해 열어젖히면 내부에 양쪽으로 서랍이 있다. 두 짝을 붙인 후 자물쇠를 잠그고 윗면의 들쇠를 잡고 들어 운반하면 간단한 하나의 가방이 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서랍의 천도형 들쇠, 앞면의 둥근 자물쇠 바탕, 윗면의 반달형 들쇠 등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좌우의 개폐나 손잡이 위치 등이 독특한 컨셉트의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등의 가방류, 공구함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5
	품목명	가죽함(皮函)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42×22cm, 높이 24cm
	재료	피모(皮毛)-우피(牛皮),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함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Calendar 함>(1998/삼성그룹)

분석	제품 배경		함(函)의 모양에는 정방형, 장방형 혹은 꽃 모양, 나비 모양에 종이, 자개, 대나무, 쇠뿔(華角), 상어껍질(鮫魚皮) 등의 재료와 각종 금속장식, 다채로운 색채, 재미있는 문양을 넣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조형	외형	천판(윗면)을 안으로 휘게 하면서도 앞뒤로는 둥글게 둥글려 흔하지 않은 형태를 보여 준다. 모서리마다 국화관 새발장식으로 보강하였고 양옆에는 고리들쇠를, 앞에는 자물쇠를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가죽을 칠로 굳혀 만든 함으로, 모서리마다 국화관 새발장식으로 보강하였고 양옆에는 고리들쇠를, 앞에는 자물쇠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용자를 배려한 인체공학적인 라인이 아름답게 조화된, 기능적이며 조형적인 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다. 장식의 디테일이 섬세한 우아함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함류, 가구류, 가방류, 가전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6
	품목명	지승함(紙繩函)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20세기)
	출토지	
	크기	47×17cm, 높이 19cm
	재료	지(紙),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함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Calendar 함>(1998/삼성그룹),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를 이용한 이러한 지승기법은 휴지나 과지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생겨난 조선시대 특유의 공예기법으로 우리 선조의 검소한 생활과 뛰어난 창의력, 응용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종이를 꼬아서 처음에는 단순히 문고리나 빨랫줄과 같은 끈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1800년대 이후 각종 기물의 형태로 제작, 사용되었는데, 기물의 외부에 시칠(柿漆)이나 들기름칠을 하여 물기가 닿는 기물까지 다양하게 제작, 사용하였다. 종이를 이용한 정통공예로는 이러한 지승공예 이외에도 종이를 여러 번 겹쳐 만든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는 지도기법(紙塗技法)과 종이를 불려서 진흙처럼 만들어 이용하는 지호기법(紙糊技法)이 있다.
	조형	외형	윗뚜껑이 앞면까지 내려와 덮는 형태로, 앞면에는 자물쇠를 달았고 양 옆면에는 반달형 들쇠를 달았다. 전체적으로 검은 칠을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내부에는 나무상자를 짜 넣어 내부의 작은 그릇들을 안전하게 운반, 보관하도록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쪽을 꼬아서 끈을 만들어 기물을 엮는 지승공예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검은 칠을 하였다. 앞면에는 자물쇠를 달았고 양 옆면에는 반달형 들쇠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세련된 외관의 실루엣과 재료의 질감, 색상이 잘 조화되고 있다. 자물쇠 또한 가장 최소화된 장식으로 처리되었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7
	품목명	연함(硯函) (Inkstone-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12.3×43cm, 높이 21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
	용도	문방구 보관 및 촛대 겸용 함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소품>(1977/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사랑방의 각종 도구를 정리할 수 있는 함으로 화려하지 않은 깔끔함과 검소함이 조선시대 선비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함(硯函)은 다른 함들보다도 그 구조가 다양하다.
	조형	외형	3단으로 구성하고 위에는 뚜껑을 덮었으며, 종단에는 서랍을 달았다. 뚜껑을 열면 각종 문방구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나오고, 촛대를 빼서 세울 수 있다. 쓰지 않을 때는 깔끔한 직육면체의 함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다목적 함으로, 뚜껑을 열면 위에는 벼루, 연적, 먹, 붓, 촛대를 깨끗이 자리를 만들었고, 가운데는 양쪽에 서랍도 유용하게 달았다. 밑에는 종이를 넣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는 행자목이고 얇게 옷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다목적 기능을 합리적인 구조로 콤팩트하게 처리한 다기능 (Multi-function) 디자인이다. 단혀진 외관이 간결하다.	

활용 가능성	도구함, 소품 가구,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8
	품목명	비단 보석함 (Jewel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14×8cm, 높이 5.5cm
	재료	사직(絲織)-견(絹), 골각패(骨角貝)-상아(象牙)
	용도	보석함
	지정사항	
	소장처	창덕궁
	자료출처	<천·종이를 사용한 조선시대의 가구>(1982/이화여대 석사논문, 김옥광)

분석	제품 배경		궁중에서 사용한 비단함은 사용된 천의 색깔이 궁녀의 복식천과 같은 것이며, 같은 패턴의 천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진 비단함들로 미루어 그 조각천의 용도가 패품 이용이 아니고 이 함들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조형	외형	조각천의 모자이크 기법에서 왕실용은 그 특징이 뚜렷한 것으로, 노란색과 가지색으로 마치 한복의 삼회장 테두리의 미감을 살린 것처럼 보인다. 특히 쇠장식을 피하고 상아로 칼자루 모양을 만들어 고리에 끼웠다. 부드러운 견직의 질감과 고운 상아 장식은 우아한 멋을 나타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왕실용으로 여인들의 각종 패물을 담은 상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우선 바탕천인 노란색 비단을 사각으로 오려 붙이고 그 위에 흰 면천을 붙였는데 가운데를 사각으로 구멍을 내어 먼저 붙인 노란 비단이 보이게 했다. 그 다음으로 사다리꼴의 가지색 비단을 흰 면천 위에 붙여서 테두리 문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아로 칼자루 모양을 만들어 고리에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천의 질감과 색상의 조화가 일반 목제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함류, 가방류, 인테리어 소품, 텍스타일,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19
	품목명	비단 보석함 (Jewel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사직(絲織)-견(絹), 골각패(骨角貝)-상아(象牙)
	용도	보석함
	지정사항	
	소장처	창덕궁
	자료출처	<천·종이를 사용한 조선시대의 가구>(1982/이화여대 석사논문, 김옥광)

분석	제품 배경		궁중에서 사용한 비단함은 사용된 천의 색깔이 궁녀의 복식 천과 같은 것이며, 같은 패턴의 천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진 비단함들로 미루어 그 조각천의 용도가 폐품 이용이 아니고 이 함들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조형	외형	조각천의 모자이크 기법에서 왕실용은 그 특징이 뚜렷한 것으로, 청록색과 가지색으로 마치 한복의 삼회장 테두리의 미감을 살린 것처럼 보인다. 특히 쇠장식을 피하고 상아로 칼자루 모양을 만들어 고리에 끼웠다. 부드러운 견직의 질감과 고운 상아 장식은 우아한 멋을 나타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왕실용으로 여인들의 각종 패물을 담은 상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우선 바탕천인 청록색 비단을 사각으로 오려 붙이고 그 위에 흰 면천을 붙였는데 가운데를 사각으로 구멍을 내어 먼저 붙인 청록 비단이 보이게 했다. 그 다음으로 사다리꼴의 가지색 비단을 흰 면천 위에 붙여서 테두리 문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아로 칼자루 모양을 만들어 고리에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천의 질감과 색상의 조화가 일반 목제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함류, 가방류, 인테리어 소품, 텍스타일,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0
	품목명	조바위함 (Hat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24×132cm, 높이 3.7cm
	재료	지(紙), 사직(絲織)-견(絹)
	용도	조바위 보관용 함
	지정사항	
	소장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천·종이를 사용한 조선시대의 가구>(1982/이화여대 석사논문, 김옥광)

분석	제품 배경		이 조바위함은 양반계급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좋다.
	조형	외형	조바위의 모양으로 전체의 형태를 잡았다. 뚜껑에는 노란색의 견직물 위에 색종이로 글자문양과 원색을 사용한 태극문양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함 안에도 견직물 위에 크기가 큰 태극문양과 글자문양을 장식했고, 함의 모서리에는 분홍색, 청색, 빨간색 등의 종이를 오려 붙였다. 솜을 깔아서 폭신한 촉감을 느끼게 하는 비단 조바위함은 견의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정교하게 오려 붙인 색종이 문양으로 여성미가 물씬 풍기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뚜껑 전체를 들어내는 형식의 조바위를 보관하는 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두꺼운 종이를 틀을 만들어 솜을 얇게 깔고 그 위에 견직물을 붙였다. 노란색의 비단천 위에는 색종이로 문양을 오려 배치하였다. 함 안의 바탕천도 견직물로, 역시 문양을 종이로 오려 붙였다. 함의 모서리도 종이를 붙여서 마무리를 단단하고 깨끗하게 했다. 조선시대 여인의 높은 수공예 수준을 보여 주는 제품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내용물을 그대로 담아낸 패키지 방식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1
	품목명	색상자(色箱子) (Cases)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75cm
	재료	지(紙)
	용도	보관용 상자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규방의 여인들이 으레 비치하는 색상자는 대개 표면에 오색지를 오려 붙이거나 당초와 모란 등을 진지(剪紙)해 바르는 등 화사하게 꾸몄다. 이런 색상자는 일제하에서 인쇄된 도안의 색종이를 바른 값싼 물건으로 전락해버려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나, 속에 판자를 쓰지 않고 장지(壯紙)만을 겹겹이 부해서 만든 옛 색상자의 유물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조형	외형	몸체와 뚜껑이 상하 대칭형이고 전체적으로 팔각형의 주판알처럼 만든 상자 5개를 크기에 따라 포개어 놓은 것이다. 원색으로 도안을 하여 무늬를 넣었는데, 삼태극(三太極)과 길상어(吉祥語) 무늬도 넣어 돋보이게 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귀한 천조각이나 실꾸러미, 혹은 골무와 자수품, 장신구나 소도구 등을 간수하는 규방용 보관용구로, 겹겹이 포개어 보관하므로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장식성도 좋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상자 하나 하나는 가는 나무로 틀을 만들어 형태를 잡은 뒤 종이로 발라서 만들었다. 종이 위에는 몇 가지의 문양을 오려 붙이고 기름을 먹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제작기법과 관련된 합리적인 구조(형태)와 그에 따른 모듈화 개념이 우수하다. 현대의 물류 효율성과도 관계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키지, 제품 전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2
	품목명	죽장상자(竹張箱子) (Bamboo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8세기)
	출토지	
	크기	55.6×38.5cm, 높이 21.7cm
	재료	목재(木製)-대나무 · 오동나무
	용도	보관용 상자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함과 상자는 물건을 보관하는 기능은 같으나, 민속학자 최상수의 함에 관한 논고에 의하면, 상자는 뚜껑을 덮게 되어 있고, 함은 뚜껑과 아래쪽을 붙임쇠로 연결시켜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데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반드시 자물쇠가 붙어 있어 채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즉 함은 임자가 열지 않으면 타인이 열어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이 상자와 다른 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형	외형	윗면과 각 면에는 죽장을 엮물려 삼각형과 능형(菱形)을 나타내고, 윗면에는 단순화된 번개 문양(雷文)으로 띠를 둘러 그 면에 요철의 효과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연귀붙임으로 제작하였다. 오동나무로 상자를 짜서 밑짝과 뚜껑의 안을 책지로 바르고 뚜껑의 외면은 색대나무를 붙여 여러 가지 문양을 조립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려 이루어진 패턴이 세련되게 적용되었다.	

활용 가능성	함, 인테리어 소품,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3
	품목명	책궤(冊櫃) (Book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좌 : 37.7×27.5cm, 높이 39.5cm, 우 : 21.3×30cm, 높이 26.5cm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
	용도	책 보관용 궤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책궤(冊櫃)란 <논어>, <맹자>, <서전(書傳)>, <시전(詩傳)>, <주역> 등 여러 권이 한 질로 된 책들을 정리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책상(冊箱), 책함(冊函)이라고도 부른다. 일반 가정에서는 흔히 책을 간수하는 시설이 책궤였다. 많은 궤를 기능적으로 집합한다거나 또는 소바리의 운반이 용이하도록 규격화한 책궤도 없지 않다. 한 질이 여러 권으로 된 경우 8, 9갑에 이르도록 수량이 많았다.
	조형	외형	문판에 책이름을 음각하거나 써서 붙이기도 했는데, 이 책궤는 후자에 속하며 현재는 아무 것도 붙어 있지 않다. 하단에 간략한 풍혈을 달아 완전한 가구의 형식을 취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책을 보관하기 위한 궤로, 문판은 위로 밀어 올리는 미닫이문과 들어서 떼어내는 두껍단이문 형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쌓아올려 사용하므로 떼어내는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문판의 상하에 가로지른 문변자를 덧대어 문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문판을 들어 떼어내면 내부에는 2, 3단의 층널이 있어 책을 보관하고 꺼내기 편하게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사랑방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검소한 오동나무로 제작하였다. 특히 오동나무는 충해로부터 책을 보호하므로 책궤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일체의 장식을 배제하였고 고급 칠이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염가형 디자인이며, 모듈화 개념이 도입되었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4
	품목명	대나무 인삼갑(竹製人蔘匣) (Bamboo Ginseng Box)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6~17세기)
	출토지	
	크기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22cm
	재료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인삼 보관용 갑
	지정사항	
	소장처	한독의약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인삼은 매우 비싼 것이어서 중국과 무역할 때 요긴하게 쓰였다. 그 무게만큼 금으로 맞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알려졌다. 그 귀한 인삼을 구하면 온존이 보존하기 위해 인삼갑을 사용하였다.
	조형	외형	이 대나무 인삼갑은 가는 대나무와 아주 굵은 대나무가 이어져 마치 구비 구비 돌아가듯 유연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드문 모양을 지녔다. 양편 귀 쪽에 두 개씩 박아놓은 쇠틀은 견고함을 더해준다. 위에는 손잡이가 달렸다. 인두로 지져 만든 듯한 검은 자국이 대나무 제품으로는 색다르게 고급스런 맛을 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이 인삼갑은 손잡이가 박힌 것으로 보아 휴대용인 듯한데, 희귀 약재를 담아 넣어둘 때도 편리했을 것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대나무와 아주 굵은 대나무를 쪼개서 쇠틀에 이어 붙였으며, 인두로 지져 검은 문양을 내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관하는 내용물을 고려한 외관 형상의 디자인이 최적으로 조화되어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디테일의 완성도가 있는 짜임새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가구류, 가방류, 신변잡화,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5
	품목명	어피표자갑(魚皮瓢子匣) (Water Dipper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직경 22cm, 높이 8cm
	재료	피모(皮毛)-어피(魚皮, 상어 껍질), 목재(木製)
	용도	표주박집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 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표주박은 물을 떠먹는 작은 바가지인데 잘 깨지고 품위가 없으므로 선비들은 목재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해 허리춤에 차거나 넣어 가지고 다녔으며, 때로는 고급재질로 표주박집을 만들어 휴대하였다. 한국은 물이 좋아서 흐르는 물이나 우물, 약수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떠먹을 수 있기에 표주박이 널리 애용되었는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표주박이 먼 거리 여행에 필수 휴대품이었다.
	조형	외형	전체 모양은 한번 먹으면 천년을 산다는 천도(天桃, 하늘의 복숭아) 모양이다. 앞쪽에 손잡이 장식이 붙고 옆면에는 뽕침대 장식을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표주박을 넣어 다니는 표주박집이다. 옆면의 뽕침대 장식으로 잠그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두터운 목판을 파고 깎아 표주박이 들어가게 만든 다음, 겉면도 표주박 옆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상어 껍질(魚皮)을 붙여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물을 단순화한 형상이 세련되어 있다. 내용물 보관을 위한 최적의 부피와 휴대하기 위한 장치 또한 간결하게 적용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가전제품, 통신기기, 생활용품, 패키지, 가방,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6
	품목명	망건통(網巾筒) (Head-band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16cm, 폭 8.4cm, 높이 13.5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망건 보관 통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Calendar 함>(1998/삼성그룹),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망건은 상투를 틀어 끌어올린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동여매는 띠를 말하는데, 대부분 말총으로 만들었다. 망건은 잘 때 벗어놓고 아침 세수 후에 동여매는데 그 동안 망건통 안에 넣고 벽에 걸어둔다. 따라서 망건통은 망건을 둘둘 말아 뭉쳐서 넣기 때문에 아주 작게 제작되며, 양옆이나 상부에 매다는 끈을 걸고리가 있다.
	조형	외형	팔각형의 망건통 2개를 이어 붙여 만든 특이한 것으로 양옆에는 고리가 있고 각각의 뚜껑에는 은혈자물쇠가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망건을 담아 보관하는 통으로, 양옆에는 고리가 있어 끈을 빼어 휴대할 수 있게 하였고, 뚜껑에는 자물쇠도 달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木製)로, 뚜껑에는 은혈자물쇠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세트 개념의 독특한 구조와 형상으로, 모듈화 개념도 적용되었으며, 휴대를 위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패키지, 용기류,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9
	품목명	서간통(書簡筒) (Letter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지름 6.8cm, 높이 47cm
	재료	목재(木製)-가래나무, 금속(金屬)
	용도	편지 보관 통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편지나 문서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통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묵직하게 보이도록 제작되었는데, 때로는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난죽(蘭竹)과 시문(詩文)을 조각하여 선비 정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조형	외형	팔각기둥 형태로 위쪽 끝에 뚜껑이 달려 있다. 전체적으로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중후하면서 위엄이 있어 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지 또는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데 쓰인 통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래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흑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기능 위주의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최소한의 장식으로 장식성을 배제하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2-28
	품목명	죽제통(竹製筒) (Bamboo Case)
	분류	생활소품 / 보관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49.2cm, 지름 14cm
	재료	목재(木製)-대나무, 금속(金屬)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의 대나무는 통으로 쓸 만큼 굵은 것이 없으므로 대개 여러 개를 이어서 만들었다. 이것은 용도를 알 수 없는 제품이다.
	조형	외형	대나무 네 쪽을 연결해 둥글둥글한 곡선이 유연하다. 경첩을 달았으며, 양 마구리에 쇠를 달아 기능과 장식을 겸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확실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뚜껑은 경첩으로 연결돼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나무 네 쪽을 연결해 둥글둥글하면서도 가운데는 가로로 홈이 파여 있어 놓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통대를 그대로 사용하여 보강재와 경첩만 댄 제품이다. 대나무 네 쪽을 맞춰서 통을 만들고 마구리를 막은 다음 고리를 달아서 끈을 끼게 되어 있다. 그 중 한 쪽은 중간을 잘라 경첩으로 연결했다. 양 마구리에는 쇠를 감아 벌어지지 않도록 보강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려 제작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대나무와 금속 장식, 끈 등 재료의 대비에서 패션성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1
	품목명	녹유도침(錄釉陶沈)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낙랑
	출토지	
	크기	
	재료	토제(土製)
	용도	베개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mfs.kyungpook.ac.kr/vl/museums/

분석	제품 배경		낙랑 유적에서 출토된 베개이다.
	조형	외형	옆면은 사다리꼴이며, 윗면은 베기 좋게 안으로 휘어졌다. 베갯모 양끝에서 포물선처럼 휘어든 선과 면은 그 기능과 시각 효과를 아울러 나타낸 것이다. 휘어진 상면에 화엽(花葉) 문양을 음각하고, 측면에 무인상을 음각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베개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문양을 음각한 다음 녹유를 입힌 토제(土製)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인체공학적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 형상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3-2
	품목명	청자상감모란운학문침 (靑磁象嵌牡丹雲鶴文枕) (Celado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고려 (12세기 중엽)
	출토지	경기 개성 부근
	크기	높이 12.7cm, 길이 23.3cm, 너비 9.4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베개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9>(1975/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청자 상감 베개 가운데 가장 유조(釉調)가 아름답고 의장(意匠)이 세련된 예이다.
	조형	외형	양쪽 마구리 가운데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으며 베개의 면은 양쪽 마구리 모서리에서부터 안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듯 휘어들었다. 각 면의 중앙에 주문양대(主文樣帶)를 두고 마구리와 닿은 가장자리에 연판문(蓮瓣文) 띠를 역상감(逆象嵌)으로 들렀으며, 주문양대와 가장자리 사이의 면에는 당초문을 역상감했다. 주문양대의 넓은 두 면에는 흑백 상감으로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운학을 상감했으며, 좁은 두 면에는 흑백 상감 두 겹으로 마름꽃 모양(菱花形)을 만들고 그 안에 모란꽃 무늬를 상감해 넣었다. 유조(釉調)는 바탕 흙이 약간 비쳐 보여서 잔잔한 회청색이며, 상감한 무늬 위에 빙렬(氷裂)과 기포(氣泡)가 많이 들어가 수정처럼 은빛으로 빛나는 소위 석(石)얼음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마구리 한쪽 면에 규사눈 받침이 네 군데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베개의 네 면 가운데 두 면은 넓고 두 면은 좁아서 베는 데 높고 낮은 차를 두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문양을 상감한 청자로,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가마에서 구워낸 것으로 짐작된다. 구울 때 한쪽 모서리로 세웠으므로 규사눈 자리가 한쪽 마구리에 남아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인체공학적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 형상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비주얼 디자인, 텍스타일.
--------	-----------------------

일반	분류번호	C3-3
	품목명	목침(木枕) (Woode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5.7cm, 너비 14.8×12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괴목
	용도	휴식용 베개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목침(木枕)은 나무로 만든 베개의 통칭인데 나무토막으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목침은 주로 남성용으로 발달된 것이다. 가름한 작은 케 모양으로 짠 것을 퇴침(退枕)이라 하는데, 옷칠을 하거나 황경피를 입히거나 혹은 낙동법(烙洞法)으로 침향색을 낸 것이 더욱 좋다. 판재로 짜서 북판에 풍혈이 뚫린 것을 풍침(風沈)이라 하며, 통영의 나전침(螺鈿枕)으로는 양귀가 도독한 이른바 침각(枕角)이 유명하였다.
	조형	외형	재료의 자연적인 느낌을 대비시켜 장식화하였다. 부드러운 디테일이 완성미를 더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이다. 힘을 많이 받고 많이 닳게 되는 네 모서리 부분과 전면의 네 귀에 삼각판을 대어 견고하고 안정성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을 외형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오히려 견고성을 강조하여 신뢰감을 주게 되는데, 오늘날 제작되는 사진이나 그림의 액자 모서리에도 이용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행자목에 괴목 등으로 상감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패턴과 색상을 대비하였다. 단순화된 패턴은 현대적인 세련미를 주며, 네 귀에 위치한 삼각판의 디테일이 완벽하게 처리된 세심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생활용품, 패션 소품,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4
	품목명	죽제목침(竹製木沈) (Bamboo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앞 : 높이 11.1cm, 폭 14.9×8.2cm, 뒤 : 높이 13.3cm, 폭 32.6×10.3cm
	재료	목재(木製)-대나무 · 떡감나무 · 은행나무
	용도	휴식용 베개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목침은 오수(午睡)를 즐기거나 잠시 누울 때 베개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며 단단한 목침은 후두부에 지압 효과를 주기도 하여 노인들이 즐겨 사용했다. 목침은 실내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작고 맵시 있게 만들어지는데, 두꺼운 통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네 귀를 판재로 짜서 맞춘 것, 무늬를 투각한 것, 자개로 시문한 것, 대나무로 짠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조형	외형	두 개가 한 조를 이루고 있는 대나무 목침이다. 직선으로 끝은 대나무 살이 시원해 보인다. 양쪽 끝 부분인 측널은 떡감과 은행나무로 띠를 두르고, 매듭의 가지방식 무늬를 투각하여 장식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이다. 대나무살의 탄력과 통풍성이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죽부인과 함께 여름철에 즐겨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의 항상 깨끗하고 탄력이 있는 성질을 활용하여 제작된 죽침(竹枕)이다. 큰 것은 통대의 걸대를 길게 사용하여 탄력을 강하게 느끼게 했고, 작은 것은 속대를 활용하여 짧고 촘촘히 짜 맞추어 탄력보다는 단단한 목침의 효과를 얻도록 했다. 양쪽 끝 부분인 측널은 떡감과 은행나무로 띠를 두르고 투각하여 장식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디자인으로, 재료의 탄성을 적절히 활용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전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고려한 측면 처리가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5
	품목명	접개목침(木沈) (Woode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13.4cm, 너비 25×7.2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괴목
	용도	휴식용 베개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목침(木枕)은 나무로 만든 베개의 통칭인데 나무토막으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목침은 주로 남성용으로 발달된 것이다. 가름한 작은 꺾 모양으로 짠 것을 퇴침(退枕)이라 하는데, 옷침을 하거나 황경피를 입히거나 혹은 낙동법(烙桐法)으로 침향색을 낸 것이 더욱 좋다. 판재로 짜서 복판에 풍혈이 뚫린 것을 풍침(風沈)이라 하며, 통영의 나선침(螺鈿枕)으로는 양귀가 도독한 이른바 침각(枕角)이 유명하였다.
	조형	외형	윗면은 편평한 판재이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X자형 다리가 달린, 무장식의 목침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이다. 쓰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도록 접이식으로 만들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접이식 구조의 차별화된 목침으로, 기능을 강조한 합리적인 구조의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스트리트 퍼니처, 레저용품, 공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6
	품목명	목침(木枕) (Woode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25.5cm, 너비 6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휴식용 베개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4/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목침은 오수(午睡)를 즐기거나 잠시 누울 때 베개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며 단단한 목침은 후두부에 지압 효과를 주기도 하여 노인들이 즐겨 사용했다. 목침은 실내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작고 맵시 있게 만들어지는데, 두꺼운 통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네 귀를 판재로 짜서 맞춘 것, 무늬를 투각한 것, 자개로 시문한 것, 대나무로 짠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조형	외형	전체 형태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X자형으로, 아무런 장식이 없이 심플한 목침이다. 다리는 안정감 있게 길고, 윗면은 좁으면서 안쪽으로 휘어지게 깎아 편안하게 받칠 수 있게 하였다. .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이다. 쓰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도록 접이식으로 만들었다.
		적질성	
		편의성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접이식 구조의 차별화된 목침으로, 기능을 강조한 합리적인 구조의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조형미와 디테일이 우수하다.	

활용 가능성	가구류, 스트리트 퍼니처, 레저용품, 공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7
	품목명	목침필갑(木沈筆匣) (Woode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13×28.5×8.5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베개 겸 필기구 보관 함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서울올림픽 기념, 서울시민 소장문화재전>,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목침(木枕)은 나무로 만든 베개의 통칭인데 나무토막으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목침은 주로 남성용으로 발달된 것이다. 가름한 작은 꺾 모양으로 짠 것을 퇴침(退枕)이라 하는데, 옷칠을 하거나 황경피를 입히거나 혹은 낙동법(烙桐法)으로 침향색을 낸 것이 더욱 좋다. 판재로 짜서 복판에 풍혈이 뚫린 것을 풍침(風沈)이라 하며, 통영의 나전침(螺鈿枕)으로는 양귀가 도독한 이른바 침각(枕角)이 유명하였다.
	조형	외형	윗부분은 장방형의 함 형식이고, 다리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X자형 목침이다. 함의 천판(윗면)은 미세하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 베개의 기분을 내었다. X자형 다리와 어울리게 X자형 경첩을 달았으며, 서랍에는 둥근 고리 손잡이를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인데, 윗부분을 함으로 만들어 사랑방에서 필기구 및 문방구를 넣어둘 수 있게 하였다. 함에는 옆으로 서랍도 뺄 수 있게 하여 다용도 제품이다. 다리는 접이식으로 만들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으며, 금속 경첩과 자물쇠 및 들쇠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다소 지나친 기능의 접목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외관 형상과 구조가 특이하다. 장식의 아이덴티티(Identity)도 주목된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레저용품, 다용도 함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8
	품목명	목침(木枕) (Woode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근대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10.4cm, 폭 14.8×5.2cm
	재료	목재(木製)-떡감나무
	용도	휴식용 베개 겸 소품 함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목침(木枕)은 나무로 만든 베개의 통칭인데 나무토막으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목침은 주로 남성용으로 발달된 것이다. 가름한 작은 케 모양으로 짠 것을 퇴침(退枕)이라 하는데, 옷칠을 하거나 황경피를 입히거나 혹은 낙동법(烙桐法)으로 침향색을 낸 것이 더욱 좋다. 판재로 짜서 복판에 풍혈이 뚫린 것을 풍침(風沈)이라 하며, 통영의 나전침(螺鈿枕)으로는 양귀가 도독한 이른바 침각(枕角)이 유명하였다.
	조형	외형	떡감나무의 잔잔한 줄무늬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한쪽에는 숨은 미단이문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휴식할 때 사용하는 베개이다. 숨은 미단이문 내부에는 깊은 서랍을 두어 동곳, 먼뽕, 살쩍밀이, 손가위 등이나 은밀히 보관해야 하는 사랑방 소품들을 넣도록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잔잔한 줄무늬의 떡감나무를 자연스러운 나무토막처럼 보이도록 의식적으로 각 면들을 45°연귀짜임으로 짜맞추었고, 한쪽에 숨은 미단이문을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위트가 보이는 디자인이다. 간결하고 실용적이다.	

활용 가능성	소품 가구류, 레저용품, 다용도 함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3-9
	품목명	목침(木沈) (Wooden Pillow)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근대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18cm, 폭 16.4×11.5cm
	재료	목재(木製)-느티나무·떡감나무·소나무,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
	용도	휴식용 베개 겸 경대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목침 안에 거울이 들어있는 목침경대이다. 선비들은 거울을 자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여 작고 납작한 좌경이나 접는 거울 또는 목침거울을 사용했다. 안쪽 판재에는 붓으로 “右疏頭吉日 初三六七八九, 十一四五六九, 廿一 二五六九”라고 적혀 있다.
	조형	외형	거울을 닫으면 장방형의 간단한 목침이고, 윗면을 당겨서 뒤로 젖히면 거울이 나온다. 그 아래에는 손잡이 구멍이 있는 판재가 있고, 또 그 아래로는 수납공간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거울이 들어 있는 목침 겸 베개로, 당겨서 뒤로 젖히는 거울과 그 아래 구멍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얇은 판재가 있는데, 그 판재 밀어로는 주로 상투를 틀 때 사용되는 동곳, 면빗, 살쩍밀이, 손가위 등의 소도구를 넣어두며, 거울과 같이 보관할 수 있어 한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느티나무 판재로 연귀짜임을 하고, 단단한 떡감나무로 모서리에 두 개씩의 원두정을 박아 견고하게 했다. 뚜껑에는 떡감나무로 계선(界線)을 두르고, 떡감나무와 느티나무로 가늘게 각목을 만든 후 일정한 크기로 잘라가면서 쌍희(囀)자를 형성했다. 거울 아래 판재는 소나무이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적절한 기능끼리 접목한 다기능 디자인이며, 기능 외에는 최대한 단순화한 형상으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3-10
	품목명	죽부인(竹夫人) (Bamboo Article for keeping One Cool when One Sleeps in Summer)
	분류	생활소품 / 취침도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길이 110cm, 지름 22.7cm
	재료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여름용 취침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죽계(竹几)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평상 위에 깔린 돛자리에 놓고 죽침(竹枕)과 더불어 한여름의 오수(午睡)를 즐길 때 사용되었다. 홀이불을 덮고 죽부인을 끼고 자면 그 사이로 통풍이 되어 시원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었다. 죽부인은 대를 물리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어서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조형	외형	연통처럼 속이 비워지게 엮여 있으며, 양옆은 모가 나지 않게 둥글렀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더운 여름날 끼고 자면 그 사이로 통풍이 되어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취침도구이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일년생 대나무를 12날로 잡아 연통처럼 속이 비워지게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주어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디자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재료, 구조, 제작 등이 합리적이며, 기능 또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1
	품목명	놋쇠 등잔걸이(鑪製燈檠)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73cm, 지름 28cm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등잔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옛 문방문화전>(1996/고도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국립민속박물관>(1993/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전래의 등화구(燈火具)로는 등경(燈檠)걸이, 등롱, 촛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가설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며, 석유조차 19세기말부터 보급되었다. 그 이전에는 초와 식물성 기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에 알맞도록 등화구가 발달되었다. 일반 가정에서 평소 많이 켜는 기름등잔의 경우 서유구의 <섬용지(贍用志)>에서 소개하기를 “서실(書室)에서는 쇠등경, 내실에서는 놋등경, 서민들은 나무로 깎은 등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조형	외형	밑에는 넓은 접시 모양의 받침대가 있고 두 개의 접시가 기둥에 걸쳐 있는 기본 구조이다. 기둥의 뒤쪽에 닭벼슬 모양의 층을 만들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단의 끝 부분이 둥글고 하단에 둥근 불판을 구성한 것은 놋쇠 등잔걸이의 기본형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등잔걸이는 기둥인 간주(竿柱)에 기름접시판을 걸고 그 밑에 다시 기름받이 그릇을 걸어놓는 이중구조의 등가(燈架)이다. 즉 윗 접시에는 놋쇠나 사기로 된 기름접시판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며, 아래의 접시는 떨어지는 기름을 받는 용도이다. 때에 따라 높이를 조절해 걸 수 있도록 기둥에 층을 두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놋쇠로 주조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등잔걸이의 전형적인 구조와 형상이다. 기능 수행의 불필요한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거는 방식이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주방기구,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2
	품목명	백동촛대(白銅燭臺)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77.5cm, 밑지름 29.5cm
	재료	금속(金屬)-백동
	용도	등잔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8>(1974/동화출판공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춘향전>, <홍부전>과 같은 고전소설에서는 ‘백동유경(白銅鑰繫) 촛대’가 상례로 등장되듯이 상류층일수록 금속제품의 사용이 많았다. 촛대로는 신라와 고려 때의 청동제품을 볼 수 있지만, 등잔걸이에 있어서는 그런 오랜 유물이 없다. 또한 석유 보급 이후에는 촛대 모양으로 만들어 호롱을 엮거나 혹은 촛대와 등잔대를 겸용시킨 예도 적지 않다. 이것도 조선시대 등잔걸이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양초를 겸용하게 만든 점을 보면 조선시대 말기의 제품으로 보인다.
	조형	외형	수반형(水盃形)의 반침 밑에는 높은 굽이 달리고 여기 고리가 달린 서랍이 붙어 있다. 가운데 기둥에는 4단 턱을 만들어 등잔 받침을 걸게 되었고, 아래쪽에는 따로 촛대를 만들어 기둥의 축에 끼웠다. 촛대에는 부채 모양의 바람막이가 붙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등잔걸이는 기둥인 간주(竿柱)에 기름접시판을 걸고 그 밑에 다시 기름받이 그릇을 걸어놓는 이중구조의 등가(燈架)이다. 때에 따라 높이를 조절해 걸 수 있도록 여러 칸을 두었다. 축에 끼워진 촛대도 돌려 가면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로 바람막이도 달려 있고, 밑에는 불을 켜는 도구나 심지를 넣도록 서랍도 배려한 다기능의 등가(燈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백동(白銅)으로 주조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촛대를 겸하는 다기능 디자인으로, 높낮이 조절, 바람막이 구조 등 기능상, 구조상 섬세한 배려가 되어 있다. 조형적으로는 다소 복잡하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주방기구,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3
	품목명	등가(燈架)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57cm, 폭 18.5×18.5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등잔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등가(燈架)는 등잔이나 호롱을 받쳐주고 높이를 조절해 기능적이면서 편리하도록 만든 일종의 받침대로, 서민들은 나무로 깎은 등가를 많이 사용하였다. 등잔은 자기나 돌로 만든 잔에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어촌에서는 어유(魚油)를, 산간에서는 산초기름을 사용한다. 등심(燈心)인 심지는 솜을 비빈 것, 종이나 천 조각, 물에서 나는 골풀대속(燈心草)을 사용해 기름이 적셔 올라오게 했다.
	조형	외형	상단에 봉황머리가 양각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약간 기울게 끼워진 잔 받침대가 있다. 밑에는 받침대인 사각 불판이 납작한 기둥과 어울리는데, 함이나 장롱의 족통과 같은 풍혈을 보여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잔 받침대는 철로 된 긴 축이 받쳐주고 있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고정하기 위해 턱이 진 것은 없으나 두 개의 긴 막대 사이에서 잔과 받침의 무게로 인해 저절로 고정되는 원리를 이용했다. 받침대는 부싯돌이나 기타 소도구를 올려놓는 역할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이러한 유형은 경상도 안동, 예천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슬림한 본체 형상과 부분 장식이 조화된 디자인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 고정되고 높이가 조절되는 잔 받침대의 구조가 독특한 아이디어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4
	품목명	등가(燈架)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1cm, 지름 24.8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 느티나무
	용도	조명기구 (호롱 받침)
	지정사항	
	소장처	이대원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등가(燈架)는 등잔이나 호롱을 받쳐 세워 놓는 것으로, 등잔용은 기둥의 중간에 약간 비스듬히 받쳐놓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호롱은 상부 꼭대기에 올려놓게 되어 높이를 조절은 되지 않는다. 등잔을 사용할 때보다 발달된 형태로, 자기나 유기로 된 호롱을 받쳐 놓는다.
	조형	외형	팔각으로 된 목직함 받침과 마름모꼴을 연결한 기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담하고 건강한 조형 양식을 지니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자기나 유기로 된 호롱을 상부 꼭대기에 올려놓게 되어 있는 등가(燈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로 깎은 받침과 느티나무를 깎은 기둥을 연결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독특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사인, 옥외 시설물,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5
	품목명	등가(燈架)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8.3cm, 폭 19.3×19.3cm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 느티나무
	용도	조명기구 (호롱 받침)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등가(燈架)는 등잔이나 호롱을 받쳐 세워 놓는 것으로, 등잔용은 기둥의 중간에 약간 비스듬히 받쳐놓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호롱은 상부 꼭대기에 올려놓게 되어 높이를 조절은 되지 않는다. 등잔을 사용할 때보다 발달된 형태로, 자기나 유기로 된 호롱을 받쳐 놓는다.
	조형	외형	사각의 굵은 기둥에 사선이 말려 올라가듯 양각되어 있고 네 가닥의 선으로 받치고 있다. 마치 네 가닥의 선이 꼬인 것과 같이 험차게 보인다. 역시 사각의 받침에는 서랍을 두었는데, 하나의 목재를 잘라서 만들어 나뭇결이 연결되도록 했다. 바닥에는 풍혈을 두었으며, 서랍에는 복숭아 모양의 고리를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자기나 유기로 된 호롱을 상부 꼭대기에 올려놓게 되어 있는 등가(燈架)이다. 받침에는 불을 켜는 도구나 심지 등을 넣어두는 서랍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하단의 서랍은 앞면의 양끝을 45°연귀짜임해 마치 한 덩어리의 목재로 보이도록 단순하게 처리했다. 기둥은 오동나무이고, 하단의 받침은 무겁고 단단한 느티나무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개성적인 조형적 요소가 조화되어 있는 독특한 형상이 특징이다. 나뭇결을 깨지 않는 서랍 부위의 처리가 돋보인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사인, 옥외 시설물,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6
	품목명	촛대(燭臺) (Candle Stick)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2cm, 폭 20×20cm
	재료	목재(木製)-느티나무
	용도	촛대
	지정사항	
	소장처	송중근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초는 축(燭)에서 시작된 말로, 옛날에는 벌통에서 꿀을 뜨고 난 밀봉으로 만들었기에 가격이 비싸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다. 이 촛대의 받침 아래 4각진 면에는 ‘壬戌 七月 九日 始成’이란 음각 명문이 있어 그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조형	외형	초를 쬐는 너른 받침은 하단의 넓은 판과 어울리도록 대형으로 8각지게 깎았다. 기둥은 굵고, 하단의 너른 받침대에는 서랍이 있으며 환고리를 달았다. 짜임새 부분을 금속의 거멸잡이장식처럼 먹감나무로 상감해 장식성을 강조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초를 쬐는 너른 받침은 촛농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굵은 기둥의 돌리는 손잡이는 높이 조절이 가능토록 기능을 위주로 한 촛대이다. 하단의 서랍에는 불을 켜는 도구 등을 넣어 둘 수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느티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짜임새 부분에는 먹감나무로 상감하여 장식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적인 요소를 독특한 조형의 적용으로 개성 있게 디자인하였다. 조화의 맛은 없으나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사인, 옥외 시설물,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7
	품목명	촛대(燭臺) (Candle Stick)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7.5cm, 밑지름 21.5cm, 연봉 높이 8.7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귀목
	용도	촛대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연꽃 봉오리와 줄기, 그 아래 물고기의 조각으로 연못의 정경을 보여 주는 단정한 촛대이며, 연꽃과 물고기는 여성과 남성, 또는 사랑과 풍요를 상징한다. 특히 물고기는 재앙을 막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 진흙 바닥에서 맑고 깨끗하게 피는 연꽃처럼 청정(淸淨)하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여성용 촛대이다.
	조형	외형	상단의 연꽃 봉오리를 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밑에 받침대(받침대)이 있다. 연꽃 봉오리는 밑에 꽃자리가 있으며 꽃자리 위에 네 겹의 꽃잎이 있다. 기둥은 가운데가 굵어 마디처럼 되었는데, 건축양식과 같이 중심을 배부르게 해 시각적인 안정을 갖도록 했다. 하단의 받침대는 너른 원판에 전면이 물고기 한 마리의 양각으로 가득 차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상단의 연꽃 봉오리 내부를 3cm 정도 파내어 초꽂이로 사용하고 있는 촛대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연꽃 봉오리는 행자목으로 주칠(朱漆)이 되어 있고, 받침대는 귀목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장식이 상징적으로 적용된 의미 있는 디자인이다. 물고기가 적용된 베이스의 입체 형상이 자연스럽게 기능성과 연결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8
	품목명	촛대(燭臺) (Candle Stick)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용도	촛대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윈터치 포토 이미지(CD)>(디자인하우스),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촛대는 금속제품의 오랜 유물이 더러 있고, 또 제구(祭具)로서도 전래되는 것이 적지 않아서 형태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등화구이다. 물론 목재 촛대의 유물은 대체로 19세기 이후의 제품들이며, 등잔대를 겸용하거나 화선(火扇)을 부착한 것 등 이형에 속하는 촛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조형	외형	한 쌍의 촛대로, 위에는 둥글고 너른 받침이 있고, 또 그 밑에 접시 모양의 받침이 하나 더 있다. 기둥은 가운데는 가늘어서 날렵하고, 아래위 양쪽 가장자리로는 두터운 턱을 두어 견실해 보이도록 했다. 받침대는 종이나 발(鉢)을 얹어놓은 것 같은 형태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등잔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촛대로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등잔을 놓을 경우를 위해, 기름받이의 기능으로 받침대를 하나 더 두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제로 추정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고전미와 현대미가 조화된 디자인으로, 단순미와 간결미가 강조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9
	품목명	부엌등(燈) (Kitchen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5cm, 지름 7.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부엌용 등잔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부엌등은 참으로 독특한 등이다. 대부분이 목재 토막으로 깎아 제작되었는데, 마루나 방의 등처럼 외형에 치우치지 않아 오히려 소박하고 건강한 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부엌에서는 밥을 지을 때나 소의 여물을 쓸 때 매일 장작을 땀으므로, 등 전체가 그을음과 때로 절어 두껍게 피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검고 거칠어진 표면이 더욱 순박하게 느껴진다.
	조형	외형	부엌등 중에서는 모양을 낸 것으로, 둥근 호롱 받침 뒤로 추상적인 형태의 뒷판 걸이가 있다. 소박미가 돋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부엌의 벽에 걸어 놓고 호롱을 올려놓는 부엌등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木製)로, 호롱을 세우는 받침은 같이방으로 돌려 깎았으며, 걸기 위해 뒷판의 두 곳에서 못으로 고정시켰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과거 부엌의 환경이 고려된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사용자, 사용 환경 등의 자연스러운 고려에서 나온 실용적인 디자인이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이루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10
	품목명	부엌등(燈) (Kitchen Lamp Stand)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9cm, 지름 8.6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부엌용 등잔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김종학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부엌등은 참으로 독특한 등이다. 대부분이 목재 토막으로 깎아 제작되었는데, 마루나 방의 등처럼 외형에 치우치지 않아 오히려 소박하고 건장한 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부엌에서는 밥을 지을 때나 여물을 쓸 때 매일 장작을 땀으므로, 등 전체가 그을음과 때로 절어 두껍게 피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검고 거칠어진 표면이 더욱 순박하게 느껴진다.
	조형	외형	등잔을 올려놓는 곳과 그 밑에 도구를 올려놓는 공간으로 2단 처리했다. 이 두 개의 단들이 위의 고리와 복합되어 새로운 조형을 가져왔는데, 대담하면서도 세심한 선들이 잘 정리되어 마치 현대조각을 보는 듯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부엌의 벽에 걸어 놓고 호룽을 올려놓는 부엌등이다. 등잔을 올려놓는 곳 밑에 심지나 불을 켜는 도구를 올려놓는 공간을 더 두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 통목을 깎아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과거 부엌의 환경이 고려된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사용자, 사용 환경 등의 자연스러운 고려에서 나온 실용적인 디자인이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이루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11
	품목명	좌등(座燈) (Floor Lamp)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근대 (19세기 말)
	출토지	
	크기	높이 129.5cm, 가로 41.8cm, 세로 41.8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좌등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좌등(座燈)은 좀더 넓고 멀리 비추기 위해 창을 넓히고 높이는 데, 이에 따라 견고한 기등과 천판(윗면) 그리고 머름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피가 큰 실내가구로서 구색을 갖추게 되었으며, 탁자의 기본 형태를 따르기도 했다.
	조형	외형	거명쇠 장식의 경첩을 달아 한 면을 열도록 문을 내었다. 전면의 문 창살은 ‘+’자형이며 다른 세 면은 살이 설치되지 않은 틀로만 되어 있다. 하단에 하나의 선반이 달렸고, 다리는 네 기둥이 뺨어 내려 이루어진 뺨다리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좌등은 실내 한쪽에 놓여져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데 사용한다. 좌등의 대부분이 초나 호롱을 넣어 사용하므로 이를 받치기 위한 기등과 불판이 내부에 있다. 좌등에는 때로 서랍을 달기도 하는데, 이것은 선반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 각재로 틀을 만들고, 문에는 경첩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구조에 기능이 충분히 고려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12
	품목명	좌등(座燈) (Floor Lamp)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59cm, 받침지름 36cm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좌등
	지정사항	
	소장처	안동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초롱과 좌등은 본시 촛불을 켜는 기구이지만, 그 뼈대를 나무나 대로 깎아 만든 것이 많고 옷칠이나 주칠을 한 호사스런 것이 없지 않다. 특히 좌등은 서실(書室)에 놓이는 서등도 있지만, 주로 궁궐이나 공청의 유물로서 잔존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런 좌등은 전문적인 소목(小木)의 제품일 것이다.
	조형	외형	팔각의 받침대에는 풍혈이 있고, 그 위에 타원형의 갓이 있다. 갓의 대나무 살이 무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아담한 스탠드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좌등은 실내 한쪽에 놓여져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데 사용한다. 좌등의 대부분이 초나 호롱을 넣어 사용하므로 이를 받치기 위한 기둥과 불판이 내부에 있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받침대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위의 갓은 대나무 살에 종이를 발랐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디자인된 형태이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13
	품목명	백석등잔(白石燈盞) (Lamp)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석(石), 금속(金屬)
	용도	실외 등잔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옥외용 등잔으로, 사찰이나 궁궐에서 쓰였다. 조선 초에는 이런 등잔을 때로 중국사절에게 선사하기도 하였다.
	조형	외형	단순한 대접 모양의 흰 등잔에, 옷걸이 모양으로 휘어진 철사로 끈을 매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찰이나 궁궐에서 쓰인 등잔으로, 건물의 천장 서까래에 매달아 사용하며 식물성 기름을 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흰 돌로 만들었으며, 철사로 끈을 매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디자인이다. 재료의 대비가 극도의 세련미를 주고 있고, 그에 따라 대비되는 조형적 요소 또한 훌륭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14
	품목명	초롱(燭籠) (Paper Covered Lantern)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27.5cm, 지름 57.5cm
	재료	석(石), 금속(金屬)
	용도	실외 등잔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초롱과 좌등은 본시 촛불을 켜는 기구이지만, 그 뼈대를 나무나 대를 깎아 만든 것이 많고 옷칠이나 주칠을 한 호사스런 것도 있다.
	조형	외형	삿갓 모양의 갓이 있으며 그 밑으로 네 개의 끈이 연결되어 있고, 끈의 중앙에 초를 꽂을 수 있는 초꽃이가 있다. 갓 상부에는 길게 고리를 달았다. 특이한 형태의 초롱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초롱은 내부에 촛불을 밝혀 길을 비추거나, 들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 주는 일종의 휴대용 등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뼈대를 대나무로 하고 그 위에 종이를 발랐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를 고려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가능한 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재료와 구조로 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생활용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15
	품목명	청사초롱(靑絲燭籠) (Hand Lantern)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사직(絲織)
	용도	휴대용 등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윈터치 포토 이미지(CD)>(디자인하우스),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초롱과 좌등은 본시 촛불을 켜는 기구이지만, 그 뼈대를 나무나 대를 깎아 만든 것이 많고 옷칠이나 주칠을 한 호사스런 것도 있다. 초롱은 4, 6, 8각의 여러 형태가 있으며 기둥 사이의 창에는 한지나 황사(黃絲), 청사(靑絲)를 바르는데, 청사초롱은 이를 일컬음이다.
	조형	외형	8각으로, 기둥 사이의 창에는 청사(靑絲)와 홍사(紅絲)를 발랐다. 대나무 뿌리로 된 손잡이의 가늘고 촘촘한 마디와 부드러운 곡선이 일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초롱은 내부에 촛불을 밝혀 길을 비추거나, 들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 주는 일종의 휴대용 등이다. 내부의 초꽃이는 바닥에서 울려 끼운 후 돌려서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뼈대를 만들고 기둥 사이의 창에는 청사(靑絲)와 홍사(紅絲)를 발랐다. 손잡이는 대나무 뿌리를 활용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고전적인 아름다운 조형과 색상의 조화가 훌륭한 제품이다. 현대 조명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디자인으로, 손잡이에 걸감과 탄성이 있는 재료를 적용하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4-16
	품목명	조족등(照足燈) (Hand Lantern)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32cm, 밑지름 13cm, 높이 43cm, 밑지름 14cm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휴대용 등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만든 초롱의 일부로, 주로 발 앞을 비춘다 하여 조족등이라 불린다. 탐조등(探照燈)이라고도 하며, 포졸들이 순라를 돌 때 들고 다녀 도적등이라고도 불렀다.
	조형	외형	둥근 항아리를 엮어놓은 듯한 몸체에 위에는 손잡이가 달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대용 등으로, 길을 갈 때 주로 발 앞을 비춘다. 내부의 초꽃이는 등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자재로 회전하여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손잡이는 나무로 깎아 만들었고 등의 잣은 종이를 바르고 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의 방식이 독특한 구조의 디자인이다. 내부의 구조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조형적으로 완성미가 있다.	

활용 가능성	도구류,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4-17
	품목명	철제은입사초꽃이(鐵製銀入絲燭臺) (Candleholder)
	분류	생활소품 / 등촉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28.8cm
	재료	금속(金屬)-철·은
	용도	초꽃이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전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전주박물관>(199/국립전주박물관), <한국의 전통공예>(1994/한국문화재보호재단)

분석	제품 배경		입사(入絲)란 금속기물에 문양을 파고 이물질인 금, 은, 오동(烏銅)을 넣어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이다.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입사(入絲) 기법은 고려에 이르러 불교공예품에서 꽃을 피우고, 조선시대에는 일상용품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부터 공조에는 여러 공장(工匠) 중에 입사장(入絲匠)이 있어 입사만 전업으로 하는 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형	외형	원통형으로 말려진 초꽃이 뒤에, 둥근 고리형 손잡이가 달리고 끝이 뾰족한 막대가 붙어 있으며, 또 그 뒤로 끝이 뾰족한 고리가 붙어 있다. 초꽃이에 상감된 복숭아꽃과 잎사귀 문양이 단순화되어 현대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원통형 초꽃이에 초를 꽂아, 갈고리를 이용해 어딘가에 걸던가, 지팡이 모양의 막대를 꽂아서 밝히게 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제에 문양을 그리고 그대로 흙을 파서 은사(銀絲)를 넣는 상감식(象嵌式) 입사(入絲)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조와 형태가 독특하게 차별화된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섬세한 장식은 제품의 질을 높아 보이게 적용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C5-1
	품목명	실패 (Thread Spool)
	분류	생활소품 / 바느질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재료	사직(絲織)-견(絹)
	용도	실패
	지정사항	
	소장처	한국자수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자수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jasu

분석	제품 배경		바느질 상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실을 감는 실패이다. 여기에 사용된 빨강, 파랑, 초록 등의 색 천은 분명 옷을 짓고 남은 조각일 것이다. 작은 조각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사용한 옛 여인들의 알뜰한 살림솜씨를 엿볼 수 있다.
	조형	외형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등의 조각 천을 조형미 있게 배치하였다. 실을 감기 위해 허리를 잘록하게 하면서 곡선을 이루어 네 귀퉁이가 뾰족하게 되었다. 뛰어난 색 감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실을 감는 실패이다. 실을 많이 감아도 풀리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을 잘록하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자투리 천을 이어 붙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형적인 미로 발전시킨 디자인이다. 주어진 재료의 활용에 따라 제작된 기법이나, 배색 감각이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도구류, 문구류, 신변잡화,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5-2
	품목명	실첩(絲帖) (Paper Made Sewing Basket)
	분류	생활소품 / 바느질용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31×20cm
	재료	지(紙)
	용도	실첩
	지정사항	
	소장처	상기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jasu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여인들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던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수를 놓는데 필요한 색실을 분류하여 보관하기 편하도록 만든 것이다. 실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지 색상의 조화를 중시하여 그 위에 각종 무늬를 새겨 장식적 효과도 갖고 있다.
	조형	외형	통일된 문양으로 반복 효과를 주고 있다. 화려했던 색상이 바랬을지 모르나, 은은한 중간색으로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수를 놓는 데 필요한 색실을 분류하여 보관하기 위해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편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색 전지 공예(五色剪紙工藝) 기법으로,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하여 재단한 후 각종 색종이를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이 공예 기법에서는 종이를 바를 때 밀풀이나 쌀풀(땀쌀과 찹쌀을 섞음)을 사용하고 내구성과 내습성을 위해 콩땀을 하였으며, 들기름, 동백기름, 잣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먹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성(보관, 사용, 휴대)과 조형성이 훌륭히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 패션 소품,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5-3
	품목명	실첩(絲帖) (Paper Made Sewing Basket)
	분류	생활소품 / 바느질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21×21cm
	재료	지(紙)
	용도	실첩
	지정사항	
	소장처	한국자수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자수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jasu <중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여인들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던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수를 놓는데 필요한 색실을 분류하여 보관하기 편하도록 만든 것이다. 실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지 색상의 조화를 중시하여 그 위에 각종 무늬를 새겨 장식적 효과도 갖고 있다.
	조형	외형	같은 크기로 색색의 칸을 나누고, 그 위에 양각 기법으로 꽃무늬를 새겼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수를 놓는 데 필요한 색실을 분류하여 보관하기 위해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편하다. 맨 위의 작은 칸을 들추면 여러 겹의 칸이 숨겨져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색 전지 공예(五色剪紙工藝) 기법으로,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하여 재단한 후 각종 색종이를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이 공예 기법에서는 종이를 바를 때 밀풀이나 쌀풀(땀쌀과 찹쌀을 섞음)을 사용하고 내구성과 내습성을 위해 콩땀을 하였으며, 들기름, 동백기름, 잣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먹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콤팩트(Compact), 포터블(Portable), 모듈(Module) 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색상을 포함한 비주얼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기념품, 패션 소품, 신변잡화,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C5-4
	품목명	색실함(色箱子) (Thread Box)
	분류	생활소품 / 바느질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가로 16cm, 세로 19cm, 높이 28cm
	재료	지(紙)
	용도	바느질용품 상자
	지정사항	
	소장처	한국자수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 전통 종이공예품인 색실함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옛 여인들의 지혜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통풍성이 뛰어난 종이는 색실을 오래 보존시켜 주며, 부드러운 질감은 규방의 분위기와 어울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엮어낸다.
	조형	외형	삼층 서랍으로 되어 있는 색실함의 맨 위칸을 열면 8개의 정사각형의 작은 칸들이 나타난다. 이 작은 칸이 다시 2칸씩 연결되어 하나의 상자를 이루고, 또 4칸이 열리면서 더 큰 칸으로 만들어져 있다. 겉에는 장수 부귀의 상징인 꽃, 나무, 박쥐, 만(卍)자 무늬 등을 색색의 종이에 오려 붙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수를 놓을 때 필요한 실, 바늘, 골무, 가위 등을 넣어두는 상자로, 이동식 칸의 크기는 색실의 양과 길이에 따라 결정되었다. 칸과 칸 사이에 마치 바닥이 조금 부푼 듯 뚜껑으로 덮인 비밀 칸이 있는데, 이는 다른 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적이나 금붙이 등을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색 전지 공예(五色剪紙工藝) 기법으로, 한지를 여러 겹 부해서 형태를 만든 후 색색의 종이에 문양을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콩기름을 칠해 마무리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콤팩트(Compact), 포터블(Portable), 모듈(Module) 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색상을 포함한 비주얼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생활용품, 기타.
--------	----------------

D. 기(器) 및
주방용구

1. 식기
2. 제기
3. 병, 항아리
4. 주전자
5. 수저, 가위
6. 찬합, 주합
7. 화기
8. 주방용구

일반	분류번호	D1-1
	품목명	용기문토기(隆器文土器)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신석기 (중기)
	출토지	부산 영선동패총
	크기	높이 12.4cm, 입지름 16.4cm
	재료	토제(土製)-연질(軟質)
	용도	그릇
	지정사항	보물 제597호
	소장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http://www.donga.ac.kr/museum/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한국의 선·원사토기>(1993/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부산 영선동패총(옛 목도패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약 5~6천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패총은 시가지 확장으로 유적이 완전 소멸되었으며, 지금의 영도 영선동 파출소가 위치한 곳이다. 그 일괄 유물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는 토기 표면에 점토띠를 덧붙이거나 표면을 손끝으로 집어 눌러 돌게 하여 여러 가지 덧무늬를 장식한 토기이다.
	조형	외형	반구형(半球形)의 완형(盥形) 토기로, 구연부 한쪽에 짧은 주구(注口)가 붙어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토기 외면 상부에는 W자 모양으로 점토대(粘土帶)를 붙여 놓았다. 점토대의 상부는 N자형을 얹혀 놓은 것 같은 문양을 반복한 것으로 윗면과 양쪽을 눌러 장식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색조는 황갈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검은 색이 짙어지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밑이 둥근 그릇으로, 그릇 위 부분에 짧은 주구(注口)를 붙여 기능성을 추가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탕 흙은 점토질(粘土質)로, 점토에 사립을 혼합시켜 소성될 때의 균열을 막았으나 소성화도는 선사토기와 같이 낮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상단은 짧은 주구의 위치가 기능성을 더해 주는 특징이 있다. 입체 패턴의 형상 또한 현대적인 유행과 상통한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션,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D1-2
	품목명	석개타날승석문발(石蓋打捺繩蓆文鉢) (Bowl with Stone Li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원삼국
	출토지	하남 미사동 주거지
	크기	토기 높이 12.7cm
	재료	토제(土製), 석(石)
	용도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선·원사토기>(1993/국립중앙박물관)

분 석	제품 배경		초기철기시대 말엽인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원삼국시대라고 하며, 이 시기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토기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물레의 사용으로 토기 제작이 빨라지고, 지붕 있는 가마의 도입으로 소성 온도를 높이게 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토기는 한강 유역의 하남(河南) 미사동(溍沙洞)에서 발견된 것으로, 철기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타날문토기이다.
	조형	외형	타날문(打捺文), 즉 두드림무늬 토기로, 가운데는 황으로 세 개의 줄이 그어졌고 줄 사이사이로 어긋난 줄무늬가 그어졌다. 위에는 둥글고 넓적한 돌뚜껑이 덮여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정확한 용도는 모르나 식기로 쓰였을 그릇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얇은 토기 벽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타봉으로 표면을 두드릴 때 그려진 무늬가 있는 토기이며, 돌로 된 뚜껑을 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잘 다듬어진 인공적 몸체의 형상과 자연스럽게 가공된 뚜껑의 대비가 특이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3
	품목명	손잡이 달린 바리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삼국
	출토지	
	크기	높이 7.7cm, 입지름 21.8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http://www.cataegu.ac.kr/museum/data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분석	제품 배경		인류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고 이것을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일만 년 전쯤부터이다. 사람들은 그후 몇 천년간 가마 없이 낮은 화도(火度)에서 산화번조(酸化燻造)로 연질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인류의 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경질토기가 필요하게 되어 원시적 연질토기를 구워내던 상태에서 발달하여 가마가 만들어지고 점차 고화도(高火度) 산화번조의 토기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화도 환원번조 토기로 발전하게 된다.
	조형	외형	몸통의 크기에 비해 작은 손잡이가 달린 토기이다. 짧은 입술은 급격하게 외반(外反)하였으며 몸통과 함께 바닥도 둥글게 처리되었다. 그릇의 한쪽 옆에는 고사리처럼 돌아간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손잡이가 달린 대접 모양의 그릇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기(土器)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성을 배가한 손잡이가 부착된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손잡이 형상과 입술의 디테일이 인체공학적이며 완성미가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스트리트 퍼니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4
	품목명	청자상감포도동자문대접(靑磁象嵌葡萄童子文 大楪)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7.9cm, 입지름 19.2cm, 굽지름 6.3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대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도기(陶器), 경질토기(硬質土器)의 제작 단계까지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일찍이 도달하였지만 청자나 백자와 같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른 나라는 별로 없었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은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서 자기를 만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질과 조형에서 중국의 아류에 그쳤던 것에 비해, 중국 자기와는 다른 형태와 유색을 가진 양질의 자기를 생산하였다.
	조형	외형	동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듄직한 형태의 대접이다. 내면에는 구연 밑에 당초문양대를 백상감하고, 전면에 압인양각(壓印陽刻)한 포도덩굴 문양을 깔아놓았으며, 이를 배경으로 측면 세 곳에 원권을 두르고 그 안에 초룡, 새, 연꽃 등을 들고 있는 동자를 백상감 위주로 시문하였다. 외면에는 여백을 많이 두고 흑백상감된 모란꽃 가지(牡丹折枝)를 세 곳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귀여운 동자와 단아한 모란꽃의 시정 어린 문양이 돋보이는 귀한 대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대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釉)를 시유하였으며, 전면에 병렬이 있고, 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상감과 압인양각의 기법을 함께 이용한 시문수법은 흔치 않은 제작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아한 실루엣의 조형미가 탁월하다. 현대적인 외관 라인에 동양적 무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5
	품목명	청자상감 용봉모란문 대접(靑磁象嵌 龍鳳牡丹文 蓋盒) (Lidded Bowl and Sauc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높이 14.9cm, 입지름 18.5cm, 굽지름 6.8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대접 및 숟가락
	지정사항	국보 220호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National Treasure of Korea http://www-me.postech.ac.kr/treasure/

분석	제품 배경		뚜껑 달린 대접과 숟가락, 승반의 일괄 세트가 완전히 남아 있는 매우 진귀한 예이다. 화려하게 장식적인 당초문, 넓게 백상감된 용봉문, 인화수법의 여의두문과 원권문 등은 13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장식 요소들이며 흑백의 조화와 여백의 균형이 깨어져 인위적인 역지가 느껴지는 문양 장식 또한 이 시기의 흐름이지만, 기형과 시문이 매우 정성스럽고 용봉문의 사용으로 보아 왕실용의 음식기로 특별히 제작된 제일급의 작품으로 보인다.
	조형	외형	대접 뚜껑에는 작고 귀여운 용이 조각되어 있고, 맵시 좋은 숟가락의 끝을 연봉으로 표현하였으며, 뚜껑의 한 모서리를 파내어 숟가락을 끼워 넣게 만들었다. 승반은 구연부에 넓은 전이 달려 있고 동체 중앙을 둥글게 파내었으며 높직한 굽다리는 두 개의 단으로 처리되었다. 뚜껑, 대접, 받침 전면에 걸쳐서 용, 봉황, 운학(雲鶴), 모란절지(牡丹折枝) 등과 연관문대(蓮瓣文帶), 뇌문대(雷文帶),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 당초문대(唐草文帶) 등이 가득히 흑백상감되었는데 당시의 상감문양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뚜껑 달린 대접과 숟가락, 승반의 일괄 세트로, 왕실용의 음식기로 추정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釉)를 고르게 시유하였으며, 잔잔한 빙결이 퍼져 있고, 뚜껑과 대접, 승반 모두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상감과 압인양각의 기법을 함께 이용한 시문수법은 흔치 않은 제작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대접과 숟가락, 받침이 완벽한 기능적, 조형적인 조화를 이룬 세트 디자인이다. 고급 상품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외부에 돌출된 숟가락 끝단의 형상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기념품,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고급(High Value) 제품.
--------	--

일반	분류번호	D1-6
	품목명	분청사기인화 승림문 귀대접(粉靑沙器印花 繩簾文 片口鉢)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1448년)
	출토지	
	크기	높이 6.5cm, 입지름 17.2cm, 굽지름 6.1cm
	재료	자기(磁器)-분청
	용도	대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분석	제품 배경		정통(正統) 13년(1448년)명이 있는 장방형의 분청사기 묘지와 함께 출토된 작품으로, 이를 통해 제작연대의 추정 가능성이 가능하며 당시의 제작상황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품이다. 제품의 형태도 좋고 예도 매우 희귀하다.
	조형	외형	입 가장자리 한 곳에 ‘ㄷ’자형의 주구가 달려 있는, 내지가 얇고 편평한 편구발로, 귀대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쪽에는 입가에 두 줄의 선을 돌리고, 그릇 벽면과 바닥 일부에 승림(繩簾) 무늬를 인화(印花)한 후 바닥 중앙에는 국화 무늬를 상감하였다. 바깥면에는 입 밑에 번개를 나타내는 뇌문(雷文)을 두르고, 그릇 벽면에 뽀뽀이 승림문을 인화한 후, 저부에 선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색상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입 가장자리 한쪽에 주구가 달려 있는 대접이다.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청색의 유(釉)를 시유하였으나, 발색이 다르지 못하여 대개 황갈색조를 띠고 있는 분청사기이다.
특기			
디자인 특징		가장자리 주구와 전체 형상이 잘 조화되어 있다. 주구의 디테일이 기능적, 조형적으로 완벽하며, 그릇의 낮은 높이와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7
	품목명	청화백자대접(靑華白磁大碟) (Bowl with the Character for "Festival" in Underglaze Blu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대접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국보1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청화백자가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왕가에 들어온 것은 세종 10년(1428)이며, 고려말에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종, 세조대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회회청(回回靑)으로 청화백자를 번조하였으며, 세조 9년(1463)에는 국산인 토청(土靑)으로도 청화백자를 번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명나라의 공예의장화된 도식적인 문양이 기면(器面) 전체를 뒤덮었으나, 중기부터 국풍화(國風化)되어 난초를 주로 한 초화문(草花文)이 간결 청초하게 기면을 장식하게 되며 점차 산수문, 용문(龍紋) 등이 나타난다.
	조형	외형	입술이 안으로 휘어진 10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대접이다. 바닥에는 청색 안료로 둥근 원 안에 글씨가 쓰여 있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대접이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순도 높은 순백의 기면(器面) 위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雜物)의 함유가 없는 순도 높은 장식계(長石界) 유약을 그 위에 석워 번조한 것이 청화백자이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당시의 일반 대접과는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선과 면이 독특한 형상으로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장식품, 조명기구,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8
	품목명	바리때 (Bowl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11.8cm, 지름 20.7cm
	재료	목재(木製)-은행나무
	용도	스님용 밥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바리때는 스님용 그릇으로, 발우(鉢盂)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7, 9, 11, 13개가 한 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현재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래는 11개가 한 조이던 것이 한 개가 분실된 듯하다.
	조형	외형	두께가 얇은 반구형(半球形)의 그릇을 겹겹이 겹쳐 놓고, 위에는 납작한 뚜껑을 덮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바리때는 스님이 공양을 다니거나 식사를 할 때 국, 밥, 반찬을 따로따로 받아 깨끗하게 부서먹고 닦은 후 쟁겨두는 그릇이다. 여러 개의 그릇들이 컴팩트하게 겹쳐지므로, 가지고 다니기에 간단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리때는 그릇의 두께가 얇고, 비틀리거나 이지러지지 않아야 여러 개를 겹쳐 놓을 수 있기에 은행나무와 옷칠이 필수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으로, 컴팩트(Compact), 모듈(Module), 포터블(Potable) 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키지, 생활용품, 주방기기,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9
	품목명	백자화형접시(白磁花形접시) (Dishe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접시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국보1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백자 즉 순백자(純白磁)는 안료로 그린 문양이 없는 것을 말하며 중기, 후기에는 음각, 양각, 투각 등이 있다. 조선왕조 전기에는 순백자가 대부분이며 여기 문양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백자의 호상(好尙)은 조선왕조 말까지 계속된다. 조선왕조 사람들은 순백의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의미와 변화를 깊게 관조, 달관하여 거기서 무궁한 뜻과 변화를 발견했던 것이다.
	조형	외형	꽃잎 모양(花瓣形)으로 입술이 이루어진 접시이다. 꽃잎 모양의 입술 장식 이외에 아무런 문양 등의 장식이 없는 깨끗한 디자인이다. 백자의 색상은 눈같이 흰 설백색(雪白色)과 회백색, 청백색, 유백색(乳白色) 등 다양한데, 이것은 유백색에 가깝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접시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순도 높은 백토(白土)로 성형한 후 투명유(透明釉)가 입혀진 백자(白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 형상이 잘 다듬어져 입체적으로 적용된 디자인이다. 측면과 평면의 형상이 섬세하고 우아하다. 섬세한 형상에 비해 면에는 장식을 배제해 중용을 지켰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패션 소품, 주방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10
	품목명	굽다리 접시뚜껑 (Lid of Mounted Cup)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47호
	크기	높이 8.1cm, 지름 15cm
	재료	토기(土器)
	용도	접시 뚜껑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국립경주박물관),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1973년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미추왕릉지구 정화사업을 할 때 드러난 고분군인 계림로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국립박물관과 여러 대학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였으며, 이때 특이한 유물과 토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꼭지에 손상을 입고 몸과 유리된 채 발견되었으나 원래 뚜껑만 묻은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조형	외형	삿갓처럼 약간 솟아오른 윗면 중앙에 안으로 홈이 파인 둥근 꼭지가 자리잡아, 전체 외형은 전형적인 굽다리접시의 뚜껑이다. 동물과 사람 모양을 단순화시켜 가는 선으로 그린 문양이 현대 회화적이면서 독특하다. 동물의 종류는 표현이 애매해서 분명하지는 않으나 범, 거북, 말, 돼지를 비롯해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 공간은 삼각사선문(三角斜線文)으로 채워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신라의 전형적인 토기인 굽다리 접시의 뚜껑으로 추정된다.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토기(土器)로 만들어졌으며, 뚜껑의 표면 전면에 굵은 도구로 문양을 그렸다.
특기			
디자인 특징		패턴의 형상이 원시적이면서도 자연적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현대 상품에 자주 적용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 분야, 텍스타일, 패션, 비주얼 디자인,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11
	품목명	복숭아모양 잔 (Cup)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신라 (중·후기)
	출토지	경상도
	크기	높이 6.3cm, 길이 12cm, 폭12.7cm
	재료	토제(土製)-경질(硬質)
	용도	잔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신라 영역 내에서 출토되는 회청색 경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를 신라토기라고 부른다. 신라토기는 가야토기와 마찬가지로 원삼국시대의 연질토기와 와질토기가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에 의해 경질토기로 바뀐 것으로, 물레를 이용하여 빚고 굴가마 속에서 1000℃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운 토기이다.
	조형	외형	복숭아 형태를 본뜬 보기 드문 잔이다. 복숭아를 세로로 반을 잘라내서 속을 파낸 형태의 잔인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표면은 흑색이 약간 짙은 회흑색(灰黑色)이고, 그릇의 벽은 매우 얇으며, 표면에는 아무 장식이 없고 바닥은 편안하게 놓이도록 편평하게 만들었다. 상형용기(象形容器)중에서도 품위 있는 소박한 제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잔(杯)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탕 흙은 불에 잘 견디는 차진 진흙이고 가마는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등요(登窯)이며, 환원염으로 구워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 형상을 무리 없이 활용하여 기능 제품화한 디자인이다. 조형적으로 아름다움을 지닌 동시에 손잡는 부위와 주구 부위가 인간공학적, 기능적으로 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도구류, 주방기기, 기타 일반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1-12
	품목명	마두식각배(馬頭式角杯) (Cup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삼국
	출토지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
	크기	좌 : 길이 17cm, 입지름 7.5cm, 우 : 길이 20cm, 입지름 8.8cm, 높이 11cm
	재료	토제(土製)-경질(硬質)
	용도	잔
	지정사항	보물 제598호
	소장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http://www.donga.ac.kr/museum/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1971년 초겨울 부산의 동래 복천동 고분에서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고(古)신라 또는 가야의 영역에서 발견된 빨잔은 적지 않은 숫자이며, 대소의 차이나 형태의 변화 등도 다양하지만, 이 빨잔은 그 중에서도 처음 보는 걸작이다. 특히 동물 모양과 잔을 결합한 토기는 옛 가야, 신라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순박한 조형미는 드문 가치를 지닌다. 크기는 서로 다르나 애초에 한 쌍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각배도, 말의 조각도 다 북방아시아 문화의 전통을 보이는 것으로, 한국문화의 원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조형	외형	잔의 밑 부분을 비스듬히 늘어뜨려 말머리 장식을 붙인 매우 특이한 빨 모양의 토기 잔 한 쌍이다. 입은 넓고 빨잔 끝은 위로 들리면서 연장되어 말의 목이 되었고, 다시 말 머리가 붙어 있다. 길쭉한 얼굴이나 벌린 입, 코, 눈, 귀, 아랫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표정은 미소짓는 듯 애교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배후에는 두 개의 발을 달았고, 표면은 흑회색을 띠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배후에는 이 빨잔이 말머리를 앞으로 하여 안전하게 놓일 수 있도록 두 개의 발을 달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전면을 예리한 칼 같은 것으로 척척 깎아 내리면서 다듬어낸 자리가 똑똑히 남아 있고, 말머리도 이러한 식으로 만든 토기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캐릭터화된 디자인으로, 최대한 개성을 살린 독특함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두 개의 발도 부착하였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기념품(캐릭터 상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액세서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13
	품목명	백자양각편복문잔탁(白磁陽刻蝙蝠文盞托) (Cup Sauc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잔 받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조선후기 백자에 관한 연구>(홍익대 대학원 논문/최사은), <국보1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백자 즉 순백자(純白磁)는 안료로 그린 문양이 없는 것을 말하며 중기, 후기에는 음각, 양각, 투각 등이 있다. 조선왕조 전기에는 순백자가 대부분이며 여기 문양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백자의 호상(好尙)은 조선왕조 말까지 계속된다. 조선왕조 사람들은 순백의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의미와 변화를 깊게 관조, 달관하여 거기서 무궁한 뜻과 변화를 발견했던 것이다.
	조형	외형	잔 받침으로, 잔이 놓이는 부분은 잔 밑 부분에 맞게 등글게 홈이 파여 있고, 양쪽으로 손에 잡는 부분을 날개처럼 반원으로 달았다. 날개 부분에는 박쥐 문양을 각각 한 마리씩 양각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손잡이 부분만 편하게 양쪽으로 돌출시킨 잔 받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순도 높은 백토(白土)로 성형하고 양각(陽刻)한 후 파르스름한 투명유(透明釉)를 입힌 순백자(純白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독특한 형상의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일반 받침들에 비하여 매우 강한 고유성(Originality)을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1-14
	품목명	표주박(瓢子) (Cup)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5cm, 길이 7.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표주박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표주박은 물을 떠먹는 작은 바가지인데 잘 깨지고 품위가 없으므로 선비들은 목재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해 허리춤에 차거나 넣어 가지고 다녔다. 한국은 물이 좋아서 흐르는 물이나 우물, 약수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떠먹을 수 있기에 표주박이 널리 애용되었는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표주박이 먼 거리 여행에 필수 휴대품이었다.
	조형	외형	표주박의 형태로는 천도(天桃)라 해서 한번 먹으면 천 년을 산다는 하늘에 있는 복숭아의 형태가 가장 많은데, 이 제품도 그릇 부분은 복숭아 모양을 약간 날렵하게 뾰았으며, 손잡이로 용의 머리와 목 부분을 사실적으로 조각해 심플한 그릇과 잘 어울리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여행시 물을 떠먹는 작은 바가지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표주박의 재료로는 목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속이다. 이것도 목재를 조각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 형상을 잘 적용하여 기능 제품화한 디자인이다. 잡는 부위에 장식을 첨가하여 가치를 부여하였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기념품, 액세서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15
	품목명	표주박(瓢子) (Cup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지름 10.4cm, 높이 5.7cm
	재료	목재(木製)-대추나무
	용도	표주박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흐르는 물이나 우물, 약수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떠먹을 수 있기에 표주박이 널리 애용되었다. 우리 표주박은 자연의 생김새를 따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표주박이 있으나 주로 조롱박이나 나무로 호리병과 원 모양처럼 만들었다.
	조형	외형	표주박의 형태로는 천도(天桃)라 해서 한번 먹으면 천 년을 산다는 하늘에 있는 복숭아의 형태가 가장 많은데, 이 제품들도 천도 복숭아 모양이다. 표면의 소용돌이 무늬가 생동감이 넘치며, 내부도 조개나 복숭아 형태로 굴곡을 깎아서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다. 손잡이 끝에는 고리 장식이 붙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여행시 물을 떠먹는 작은 바가지이다. 손잡이 끝에는 고리 장식을 붙여 끈을 꿰어서 매달고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표주박의 재료는 여러 가지이다. 이 제품들처럼 대추나무 등의 목재를 깎아 만든 것들이 많지만, 취향에 따라 직접 조개나 느티나무 뿌리 또는 열매 속을 다듬거나 파서 칠을 입혀 만들어 썼다. 궁궐이나 양반가에서는 숙련된 장인들이 만든 청동, 은, 청백자 표주박을 썼다. 종이와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 표주박들의 손잡이 끝에는 백동으로 고리 장식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 형상을 잘 적용하여 기능 제품화한 디자인이다. 잡는 부위에 장식을 첨가하여 가치를 부여하였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기념품, 액세서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1-16
	품목명	표주박(瓢子) (Cup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지름 15~8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표주박
	지정사항	
	소장처	송중근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표주박은 물을 떠먹는 작은 바가지인데 잘 깨지고 품위가 없으므로 선비들은 목재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해 허리춤에 차거나 넣어 가지고 다녔다. 한국은 물이 좋아서 흐르는 물이나 우물, 약수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떠먹을 수 있기에 표주박이 널리 애용되었는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표주박이 먼 거리 여행에 필수 휴대품이었다.
	조형	외형	우리 표주박은 자연의 생김새를 따서 만든 것이 특징으로, 이 표주박들도 화형(花形), 샷갓형, 거북형, 표형 등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였다. 손잡이 끝에는 고리 장식이 붙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여행시 물을 떠먹는 작은 바가지이다. 손잡이 끝에는 고리 장식을 붙여 끈을 꿰어서 매달고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표주박의 재료로는 목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속재이다. 이것들도 목재를 조각해 만들었으며, 손잡이 끝에는 금속 고리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한 기능 제품의 디자인에서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형상이 기능을 다하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1-17
	품목명	토기 뚜껑 (Cover of Ke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식기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주 천마총
	크기	높이 16.5cm, 지름 45.5cm
	재료	토기(土器)-경질(硬質)
	용도	토기 뚜껑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국립경주박물관),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토기이다.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천마도(天馬圖)가 그려진 두 장의 말다래(障泥)가 출토되었기 때문인데, 말다래는 말을 탄 사람의 옷자락에 진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린 네모난 판으로, 자작 나무껍질로 판을 만들어 중앙에 하늘을 나는 말을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당초문양을 돌렸다.
	조형	외형	거북이 등 모양의 대형 토기 뚜껑으로, 입술은 위로 조금 말려 올라갔고, 가장자리 겉면에는 세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세한 격자무늬를 반복하고, 그 사이에는 가운데에 점을 찍은 작은 원을 네 개씩 배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패턴의 문양을 그 위에 한 줄 더 올렸는데, 원의 숫자만 2개로 줄여 변화를 주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대형 토기의 뚜껑인 것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경질(硬質) 토기(土器)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뚜껑으로서는 독특한 형상의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적용된 패턴 또한 지역적이 아닌 글로벌한 느낌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비주얼 디자인, 텍스타일,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1
	품목명	삼족토기(三足土器) (Small Tripod Pottery)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원삼국
	출토지	중원 하천리
	크기	높이 4.4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청주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선·원사토기>(1993/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소형토기는 각종 토기를 축소, 모조한 것으로, 발, 잔, 굽다리접시, 시루, 국자 등이 있다. 이것은 손으로 간단히 빚어 구운 것으로 제작수법이 간단하고, 크기도 10cm 이내로 작아 제사용의 특수유물로 판단된다. 소형토기가 출토된 유적에서는 대체로 점빠가 출토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토기는 한강 유역의 중원(中原) 하천리(荷川里)에서 발견된 경질무문토기로, 청동기시대 이래의 무문토기 기술 전통에 새로운 고화도 소성의 기술이 가미되면서 나타난 유형이다.
	조형	외형	짧은 발이 세 개 달리고 입구는 넓게 벌어진 소형 토기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아주 소형인 것으로 보아, 제사용의 특수유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고화도 소성의 경질무문토기로, 손으로 간단히 빚어 구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밀하게 계획되어 제작된 토기는 아닐지라도 외관의 구도와 균형이 잘 조화되어 있고 독특한 조형을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주방기구, 생활용품, 가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2
	품목명	원통모양토기(器臺) (Pottery Stan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백제
	출토지	서울 몽촌토성
	크기	높이 49.5cm
	재료	토제(土製)-경질(硬質)
	용도	의례용 그릇 받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몽촌토성은 서울 강동구 방이동의 한강 남안에 있는 한성시대의 평지읍성으로서 군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평지 위의 자연 구릉을 이용하여 방벽으로 삼고, 구릉이 낮거나 끊긴 부분과 출입문 좌우 벽은 다져쌓기를 하여 쌓은 토성이다. 이 토성에서는 각종 그릇류의 토기와 철기들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그릇받침은 원통형과 고사리형으로 나뉘는데, 원통형 그릇받침에서 발전된 것이 고사리형 그릇받침이다.
	조형	외형	그릇을 올려놓는 윗부분은 입술이 넓게 벌어져 안정감이 있으며, 그 밑으로 원통형의 다리 부분이 다섯 층으로 나뉘어졌다. 각 층마다 세모형의 굽구멍을 뚫어 놓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기대(器臺)는 본래 밑이 둥근 소형 그릇을 올려놓기 위하여 만든 낮은 대(臺)와 같은 것이었으나, 뒤에는 기대의 다리 부분이 높아져서 제례용의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고분에서 밑이 둥근 단지류의 소형 그릇(일상용이 아닌 제례용)을 올려놓은 채 기대가 발견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경질토기는 백제토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교적 고운 바탕 흙을 써서 신라토기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제기로서의 상징성이 뛰어나다. 외관에 균형미가 있고 각 층과 세모형의 투각 장식이 상징적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주방기구, 생활용품, 산업용기기, 조명기구, 팩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3
	품목명	그릇받침(器臺) (Pottery Stan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백제
	출토지	
	크기	높이 76cm
	재료	토제(土製)-경질(硬質)
	용도	의례용 그릇 받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백제의 그릇받침은 원통형과 고사리형으로 나뉘는데, 원통형 그릇받침에서 발전된 것이 고사리형 그릇받침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기대(器臺)는 고(古)신라나 가야지방의 것들과도 다른 것이며, 백제지방의 독특한 것이다. 백제 후기에는 더욱 세련된 예술품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조형	외형	포도주 잔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릇 받침이다. 장고와 닮았다 해서 장고형 그릇받침이라고도 하는데, 고사리무늬의 세로띠 장식, 원형의 섬세한 굽구멍이 뚫려 있는 백제의 전형적인 그릇받침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기대(器臺)는 본래 밑이 둥근 소형 그릇을 올려놓기 위하여 만든 낮은 대(臺)와 같은 것이었으나, 뒤에는 기대의 다리 부분이 높아져서 체례용의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고분에서 밑이 둥근 단지류의 소형 그릇(일상용이 아닌 체례용)을 올려놓은 채 기대가 발견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경질토기는 백제토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교적 고운 바탕 흙을 써서 신라토기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전체 형상과, 적용된 장식의 디테일이 조화되어 있다. 몸통을 가로지르는 가는 띠들은 그릇을 들 때에 미끄러움 방지 역할을 하였으리라 추측된다.	

활용 가능성	그릇, 생활용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4
	품목명	그릇받침(器臺) (Pottery Stan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삼국
	출토지	
	크기	높이 37cm, 입지름 19.8
	재료	토제(土製)
	용도	의례용 그릇 받침
	지정사항	
	소장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http://www.cataegu.ac.kr/museum/data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그릇받침은 삼국시대에 많은 발달을 본 토기로, 특히 각부(脚部)가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 그 높이가 높아지고, 하부로 넓어지면서 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고배(高杯)의 형태에서 발달하여 고배의 각부와 같이 투창(透窓)도 상하 여러 단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고배와 같이 주로 제의(祭儀)용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그 제작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것들이 만들어졌다.
	조형	외형	전체적으로 높이가 높고 배가 약간 부른 형태로서 중간에는 상하 엇갈리게 2단으로 긴 삼각형의 굽구멍을 뚫어 놓았다. 그릇의 겉면에는 토기를 만들 때 생긴 무늬가 일부 남아 있다. 색상은 적갈색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기대(器臺)는 본래 밑이 둥근 소형 그릇을 올려놓기 위하여 만든 낮은 대(臺)와 같은 것이었으나, 뒤에는 기대의 다리 부분이 높아져서 제례용의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고분에서 밑이 둥근 단지류의 소형 그릇(일상용이 아닌 제례용)을 올려놓은 채 기대가 발견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적갈색을 띠는 양질의 점토로 제작한 토기(土器)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삼각형으로 투각된 장식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조명기구, 장식용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5
	품목명	합(盒)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삼국
	출토지	계성A지구 1호분
	크기	높이 18.3cm
	재료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창녕박물관
	자료출처	창녕박물관 http://gun.changnyong.kyongnam.kr/chang26.htm <고분 유물>(1992/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합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과 가야 시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품목으로,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조형	외형	합은 속이 깊은 대접 모양의 몸체에 반구형(半球形)의 뚜껑이 있는 것인데, 뚜껑의 운두에 달린 손잡이의 형태에 변화가 있으며, 이것의 손잡이는 지붕이나 샷갓 모양의 덮개를 쓰고 있다. 뚜껑의 테두리는 약간 들어올려졌으며, 밑바닥의 굽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들어올려져 통일감을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형태의 골호(骨壺)도 간간히 볼 수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합에는 금, 은, 금동, 청동, 동 등의 제품이 있으나 그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전체 외관의 형태가 기하학적이면서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면에서 보는 윤곽 라인은 높은 완성도를 표출하고 있다. 약간은 언밸런스한 꼭지 형상이 독특한 느낌을 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 반	분류번호	D2-6
	품목명	백자반합(白磁飯盒) (Covered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조선 (15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2.5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제기
	지정사항	보물 806호
	소장처	호림박물관
	자료출처	<국보15, 16>(1986/예경산업사)

분 석	제품 배경		풍요를 누리며 문화를 드높였던 세종, 세조대의 관요(官窯)에서 만들어진 상품(上品)으로 추측된다. 세종조(1419~1450)의 어기(御器)에는 백자가 사용되었고, 왕실의 제기, 의기(儀器) 등에도 백자를 사용하였다.
	조형	외형	고려, 조선왕조의 청동기에서 단정함을,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함에서 풍만한 양감을 그대로 따낸 듯한 느낌을 준다. 뚜껑과 밑작의 풍만한 선, 높으면서 밖으로 벌어진 굽 등의 형태가 어울려 기품 있는 맛을 풍긴다. 뚜껑의 단정한 꼭지는 보주형(寶珠形)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제기(祭器)의 반합(飯盒)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뚜껑 내부는 원심(圓心)으로 깎아내었고, 그 주연(周緣) 13군데에 바탕 흙(胎土) 빚음눈의 흔적이 있으며, 바닥은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으로 변조하였다. 바탕 흙은 담회색(淡灰色)을 띤 백자 태토로서 유조(釉調)는 담청(淡靑)을 머금은 회백색으로 두텁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유롭고 부드러운데, 재미있는 캐릭터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대칭적이면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2-7
	품목명	청자상감국화문퇴주기(靑磁象嵌菊花文退酒器) (Vessel for Emptied Win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고려
	출토지	경기 개성 부근
	크기	높이 9.9cm, 지름 22.1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제사 때 술을 물리는 퇴주기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9>(1975/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고려 19대 명종의 지릉(智陵)에서 출토된 청자소문타구(靑磁素文唾具)와 같은 기형(器形)이다.
	조형	외형	위쪽에 시원하게 펼쳐진 물받이 전이 있고, 그 아래에 조그마한 향아리 모양의 몸체가 전을 받치고 있다. 넓은 물받이의 안쪽 면 입 둘레에는 띠선을 두 줄 돌린 다음 그 안에 인화 상감 기법으로 국당초문(菊唐草文)을 돌렸고 넓은 공간에는 국화꽃 가지(菊花折枝)를 여덟 군데에 장식했다. 바깥 면의 물받이 변두리에는 국화꽃 가지를 세 군데에 상감했고, 그 아래 몸체에는 물받이 바깥 면의 문양과 겹치지 않고 엇갈리게 세 군데에 국화꽃 가지를 상감했다. 굽다리는 청자 전성기의 기명(器皿)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단면이 역삼각형에서 끝을 약간 둥글린 모습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제사 때 올린 술을 물리는 퇴주기(退酒器)이다.
		특기	
	제작	재료	유약은 두껍고 광택이 은은하며 빙렬(氷裂)이 없는 질 좋은 비색 유이다. 굽 밑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 빚음을 받쳐 구운 자리가 네 군데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고전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디자인이다. 기능적인 우수성을 형태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솔직한 구조가 아름다운 조형미로 승화되어 있다. 차별화된 뚜렷한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주방기구, 생활용품, 장식용품, 옥외구조물,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8
	품목명	방울잔(土器鈴杯) (Cup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삼국
	출토지	
	크기	높이 17.4cm, 입지름 12.4cm
	재료	토제(土製)-경질(硬質)
	용도	잔
	지정사항	
	소장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http://www.cataegu.ac.kr/museum/data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잔의 일부에 방울을 넣는 이러한 토기는 가야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며 제사 등의 특수 용도로 사용되어진 듯하다.
	조형	외형	입이 넓은 잔 밑에 방울이 들어있는 둥근 공간이 있다. 방울이 들어있는 공간의 옆면에는 사각형의 작은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4~5개 뚫었으며, 잔의 옆면에는 2단으로 구획하여 물결무늬를 그려 넣었다. 두 점이 한 세트로, 크기가 같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잔 밑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그 안에 흙으로 빚어 만든 방울을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 제의(祭儀)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탕 흙은 불에 잘 견디는 차진 진흙이고, 가마는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등요(登窯)이며, 환원염으로 구워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잔에 별도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디자인이다. 아이디어가 독특하며, 제품화한 구조와 외관에 무리가 없다.	

활용 가능성	그릇,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9
	품목명	분청철화이배(粉靑鐵畫耳杯) (Cup with Two Handle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분청
	용도	잔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분청사기>(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분청사기라는 명칭은 백토(白土)를 분장(粉粧)한 회청색의 사기(沙器), 즉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청’이라고도 한다. 분청사기는 쇠퇴해 가는 고려 상감 청자로부터 출발하여 15세기 전반기에는 다양한 여러 기법을 고안, 발전시켜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는 경기도 광주에 백자 중심의 관요(官窯)가 성립됨에 따라 점차 쇠퇴하다가 16세기 중엽 이후 백자에 흡수됨으로써 자연 소멸된다.
	조형	외형	기벽의 양면에 ‘J’자형의 손잡이가 달린 조선의 특징적인 기명(器皿)이다. 문양은 단순화된 화초(花草)가 그려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부잔(耳附盞)은 원래 금속기를 모방하여 제기용(祭器用)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손잡이 역할을 하는 귀가 양쪽에 달려 있어 들기 편한 잔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백토 분장을 한 뒤에 철분이 많이 포함된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무늬를 그리는 철화(鐵畫) 기법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세련된 현대적 느낌의 손잡이가 일반 제기와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10
	품목명	백자이배(白磁耳杯) (Cup with Two Handle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조선 (16세기)
	출토지	
	크기	지름 6.5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잔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Koryo Museum)
	자료출처	일본 속의 한국 문화재 http://www.ccnews.co.kr/remains/kyoto/ <국보1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옛 문헌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자기는 색택(色澤)이 아름다운 백자를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했으며, 아무리 백자에 훌륭한 그림을 그린다 해도 백색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 없다는 철리(哲理)까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색택이 보다 아름다운 백자를 번조하기 위하여 청화백자나 진사(辰砂), 철사(鐵砂) 등을 이용한 화려한 자기보다 몇십 배의 정성과 고난과 노력 및 재력을 소모시키는 것이 순백자(純白磁)였다.
	조형	외형	기벽의 양면에 ‘J’자형의 손잡이가 달린 조선의 특징적인 기명(器名)으로, 아무 문양이 없는 순백자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부잔(耳附盞)은 원래 금속기를 모방하여 제기용(祭器用)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손잡이 역할을 하는 귀가 양쪽에 달려 있어 들기 편한 잔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순도 높은 백토(白土)로 성형한 후 파르스름한 투명유(透明釉)가 입혀진 순백자(純白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세련된 현대적 느낌의 손잡이가 일반 제기와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11
	품목명	백자 이부잔·잔대(白磁 耳附盞 盞臺) (Cup and Sauc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조선 (1466년)
	출토지	경남 거창군 북상면
	크기	총높이 5.4cm, 잔 높이 4cm, 입지름 6.6m, 잔대 높이 2cm, 굽지름 4.6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잔 및 잔받침
	지정사항	국보 172호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분석	제품 배경		경남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한, 경상도 언양현감을 지낸 김윤(金潤)의 어머니 정씨의 묘지에서 발굴된 제품이다. 묘지에서는 정씨의 행장(行狀)을 기록한 위패가 발견되었는데, 그 위패에는 정씨가 성화(成化) 2년(세조 12년, 1466년)에 졸(卒)한 것으로 적혀 있어, 제품의 제작 시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조형	외형	잔의 양 측면에는 별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받침은 일상적인 접시형이다. 굽은 죽절형(竹節形)이며, 태토비짐을 받쳤다. 잔은 푸른기가 있는 초기 백자유 색상이며, 잔대는 담황색(淡黃色)을 띤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 시기의 제사(祭祀)용 잔에 유행한 별 모양의 손잡이로 미루어 제기의 일종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잔은 푸른기가 있는 초기 백자유를 씌워 경질로 번조하였고, 잔대는 담황색을 띤 연질백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적인 그릇 형상이나, 장식을 적용한 손잡이가 특이하며 캐릭터적인 요소가 있다.	

활용 가능성	캐릭터 상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2-12
	품목명	백자제기(白磁祭器) (Dish Used in Ancestor Worship)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제기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제기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조선 후기 백자에 관한 연구>(홍익대 대학원/최사은),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 왕실의 제기로는 주로 백자가 사용되었으며, 후기에 와서는 일반 양반가에서도 백자제기가 애용되었다.
	조형	외형	위의 사각 접시 부분은 네 귀퉁이가 위로 들려서 유연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네 모서리는 안으로 홈이 파여 있어 꽃잎 모양을 이룬다. 아래의 굽다리는 높으면서 밑바닥으로 약간 퍼진 형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제기(祭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최상품 백자는 바탕 흙(胎土)의 입자가 곱고 밀도가 강한 백토에 파르스름한 투명유(透明釉)가 입혀져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현대적인 느낌의 디자인이다. 일체의 장식이 없으며, 그릇 상단면은 적절한 복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능을 다하고 있음과 동시에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
	품목명	이형토기(異形土器)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삼국
	출토지	
	크기	높이 9.5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물관 http://www.cataegu.ac.kr/museum/data/ <고분 유물>(1992/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고분에서 드러난 삼국시대의 토기를 크게 나누면 앞선 시기의 토기 생산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작한 연질계 토기(軟質系土器)와 더욱 발전된 생산 기술로 제작한 경질계 도질 토기(硬質系陶質土器)로 나누게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은 이러한 공통된 토기 생산 기술로 토기를 제작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각국 특유의 기술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조형	외형	밑이 둥근 반구형(半球形)의 몸통 위 한쪽에 넓은 입의 긴 목이 붙어 있어 특이한 형태의 토기이다. 문양은 없으며 겉면의 일부에 토기를 구울 때 흘러내린 자연유가 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기(土器)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그릇(또는 병)이 가질 수 있는 자유분방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었다. 발상의 자유로움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2
	품목명	입 큰 자라병(異形廣口扁瓶)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통일신라
	출토지	경남 합천
	크기	높이 25cm, 입지름 2.2cm, 밑지름 8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 당나라와의 본격적인 교류와 불교미술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토기는 뿔항아리와 병 종류이다. 병의 종류에는 입큰병(廣口瓶), 목병(長頸瓶), 자라병(扁瓶) 등 여러 형태의 것들이 제작되었다.
	조형	외형	이 토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마치 아프리카인의 입술같이 생긴 입이다. 둥근 접시같이 생기고 주위에는 직립(直立)한 턱을 낸 부분을 세워서 잘록한 목에 연결하였다. 몸은 평면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바닥은 평저(平底)이다. 표면의 색상은 회흑색(灰黑色)을 띠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 병의 용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곡물 같은 것을 담아두거나 또는 씨앗을 뿌릴 때 일시에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안일지 모르며, 몸을 편평하게 만든 것도 그러한 용도에 편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좁은 쪽으로 누어서 구운 듯 반대쪽 좁은 면에 전면에 걸쳐서 자연유가 입혀져 있는 토기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그릇(또는 병)이 가질 수 있는 자유분방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었다. 발상의 자유로움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다. 특별한 기능에 따른 형태로 보인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3
	품목명	청자광구병(靑磁廣口瓶) (Celadon Vas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4cm, 입지름 6.8cm, 밑지름 6.9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순청자(純靑磁)는 소문(素文)청자라고도 하며, 문양이 없는 청자를 일컫는 말이다.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가장 많은 양이 만들어져, 청자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청자류는 비색과 단아한 형태를 추구했으며, 그것이 바로 청자의 기본적인 아름다움이다.
	조형	외형	구연은 폭이 넓은 전이 달려 있어 광구(廣口)를 이루며, 목은 가늘면서 길고, 동체가 원통형이다. 문양은 없이,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암록색의 유가 전면에 곱게 시유되었으며, 기벽면 일부와 저부에 유약이 묻쳐 있지만 병렬은 없다. 이 병은 구연이 넓고 얇으며, 동체의 어깨가 예리한 직각을 이루는 등 금속기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미 고려적인 세련을 보이는 단아한 모양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편의성	병(瓶)이다.
		특기	
	제작	재료	질이 좋은 태토(바탕 흙)에, 굵은 평저(平底)이나 바닥 중앙이 다소 오목하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바닥까지 시유한 뒤, 네 곳에 작은 규석(珪石)을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 자기병의 부드러움보다는 직선적이고, 남성적인 디자인이다. 병 끝 부위가 넓은 것이 잡기에 편하고 담기 수월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측면으로 파악된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4
	품목명	청자상감진사채 국당초문 기름병(靑磁象嵌辰砂彩 菊唐草文油瓶) (Celadon Oil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5cm, 입지름 2.8cm, 밑지름 5.1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기름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청자의 독창적인 상감(象嵌) 기법은, 청자에서 비색을 완성시킨 것과 같은 커다란 발전이었다. 상감 기법은 시문구(施文具)로 그릇 표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을 새긴 후, 그 안을 백토(白土)나 자토(赭土)로 메우고 유약을 입혀 구워 내면 백토는 희게 자토는 검은빛을 띠게 되어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기법이다. 상감 청자는 유약이 완전히 녹아 경도(硬度)가 높아짐에 따라 유약에 얼음의 갈라진 금 모양 무늬(氷裂)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로 인하여 유약의 질감뿐만 아니라 색감과 문양에서 중국 청자와는 물론 순청자와도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조형	외형	반구형(盤口形)의 작은 입이 달리고, 동체가 납작한 바둑알 형태의 단아한 기름병이다. 동체의 위와 중간에 각각 두 줄의 백상감 선을 돌려 문양대를 구획한 후, 열세 개의 국화 꽃잎 문양(菊瓣文)을 당초로 이은 국당초문대(菊唐草文帶)를 흑백상감하였는데, 각 꽃잎 중앙에 붉은 색의 진사채를 점점이 가하여 장식하였다. 광택이 있는 연녹색의 청자유가 시유되었으나, 실익이 뿌옇게 보이며, 일부에 병렬이 있다. 굽은 낮고 둥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여성용의 화장용 기름병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병은 원래 뚜껑이 있었을 것이나 없어진 듯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안 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국화꽃 중앙에 붉은 점으로 장식된 진사 안료는 산화동(酸化銅)으로 만들며 환원염으로 구우면 팔죽색 같은 붉은 색으로 발색되는데, 고려인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한 고화도(高火度) 장식안료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손에 잡기 편한 납작한 형상이다. 내부 용량을 고려하여 낮으면서도 넓은 형상(비정형적 비율)이 특징적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5
	품목명	청자상감진사채 모란문 기름병(靑磁象嵌辰砂彩 牡丹文油瓶) (Celadon Oil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3cm, 입지름 2.7cm, 밑지름 4.8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기름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표면에 문양을 새겨 넣는 상감 기법은 동시대 목기(木器)의 나전 기법이나 금속기의 입사(入絲) 기법과 유사하지만 도자기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 것은 세계 도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며, 비색과 더불어 고려 청자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조형	외형	밖으로 벌어진 반구(盤口)에, 동체의 무게중심이 다소 아래로 처진 바둑알 모양의 기름병이다. 동체의 상반부 두 곳에 대칭으로 모란꽃 가지 문양을 흑백상감한 후, 진사안료를 구연의 안쪽면과 모란의 꽃과 잎에 가채하였는데, 진사가 초록색과 붉은색의 두 가지로 발색하고 있다. 전면에 병렬(氷裂)이 나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여성용의 화장용 기름병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병은 원래 뚜껑이 있었을 것이나 없어진 듯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진사(辰砂)가 초록색과 붉은 색의 두 가지로 발색하고 있는데, 이는 진사의 발색이 높은 온도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산화 분위기에서는 녹색으로, 환원되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데 기인하여, 불의 통제가 극히 정밀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두 색이 함께 발색될 수도 있다. 광택이 좋고 투명도가 높은 담녹색의 유(釉)를 시유하였으며, 마다 세 곳에 적갈색 흙모래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번조시 동체가 다소 일그러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손에 잡기 편한 납작한 형상이다. 내부 용량을 고려하여 낮으면서도 넓은 형상(비정형적 비율)이 특징적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6
	품목명	백자매병(白磁매(梅)瓶) (White Porcelain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총높이 32cm, 병높이 28.1cm, 밑지름 8.1cm, 몸지름 17.5cm, 뚜껑높이 4.8cm, 뚜껑지름 10.5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9>(1975/동화출판공사), <국보6>(1986/예경산업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고려 자기는 크게 청자와 백자, 흑유자(黑釉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에 사용된 음각, 양각, 투각, 인각 등의 시문(施文) 기법에 의해 다시 세분된다. 그중 백자는 고려 초기부터 말기까지 청자와 함께 산발적으로 구워졌다.
	조형	외형	뚜껑을 갖추고 있는 드문 매병(梅瓶)이다.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고려자기의 피부와 뚜껑을 갖춘 전체 곡선이 매우 단아하게 어울린다. 병 입은 작고 기품이 있으며 어깨는 풍만하다. 고운 망상(網狀)의 빙털이 전면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매병은 12세기 초 무렵의 청자에서도 볼 수 있으며, 회청자매병의 경우 이러한 곡선이 일반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뚜껑의 양식에서 그 기능이나 용도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뚜껑은 병의 입 위에 비단이나 자수류(刺繡類)를 어깨까지 덮어씌우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태토(바탕 흙)는 야무지지 못하고 유약은 부드러우며, 굽 밑에는 흙 빛음눈으로 구운 자리가 있는 백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몸체나 뚜껑의 완벽한 소화에서 나오는 조형미가 우수하다. 접합부의 디테일 또한 자기 느낌 이상으로 섬세하다. 상단의 스트레이트 면이 산뜻함을 한층 더한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7
	품목명	백자상감 당초무늬 편병(白磁象嵌 唐草文 扁瓶) (White Porcelain Flask)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466년)
	출토지	경남 거창군 북상면
	크기	높이 22.1cm, 입지름 3.7cm, 밑지름 7.7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병
	지정사항	국보 172호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한국미술전집10>(1973/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이 편병은 경남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한, 제조 12년(1466년) 경상도 연양 현감을 지낸 김윤의 어머니인 정씨의 묘에서 백자흑상감 묘지(墓誌)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당시 연양 지방 백자가 마에서 번조되었으리라고 추측되며, 유약과 태토의 질로 보아 고려백자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 초기의 편병으로는 이형(異形)이나, 이것도 일종의 지방색으로 보인다. 흑상감 기법으로 장식된 특이한 형태 이외에도 연대가 분명한 조선 초기 제품으로, 도자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예이다.
	조형	외형	원뿔대 모양의 구연과 받침, 원판 모양의 동체가 특이한 모습을 이루는 편병이다. 문양은 흑상감하였는데, 편평한 동체 양면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에 두 줄 한쌍의 둥근 테를 돌려 문양대를 구획한 후, 중앙에는 간략화된 꽃무늬를 두고, 바깥에는 모란과 당초무늬를 변형한 초화문을 세련되게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담황색을 띠며, 미세한 빙렬이 퍼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편병(扁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번조된 조선 초기의 특징적인 연질(軟質) 백자이다. 문양은 철분이 많은 자토(赭土)를 숙련되고 능숙한 필치로 흑상감하였다. 푸른기가 약간 있는 투명한 백자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며, 굽 아래의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받침 부분이 비교적 높고 독특하게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대칭형상과는 달리 비정형적으로 적용된 상감 문양이 자연스러움을 더한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8
	품목명	백자편병(白磁扁瓶) (White Porcelain Flask)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6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6.7cm, 입지름 6cm, 굽 9.9×6.2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백자의 유태(釉胎)만으로 이루어진 순백자(純白磁)는 대접과 접시 등의 생활 자기로 생산되었으며, 특히 조선 왕실에서는 태항아리로 사용되었다. 문양에 따라 무문(無文) 혹은 음양각 및 투각 백자는 순백자라 하고, 기타 상감 백자(象嵌白磁), 철화 백자(鐵畫白磁), 동화 백자(銅畫白磁) 등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조형	외형	두 개의 원반을 세워 놓은 듯한 동체를 가진 편병으로, 모서리의 각이 예리하게 서 있으며, 짧은 목과 타원형의 굽다리가 달려 있다. 굽은 다소 외반하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순백색과 어우러지는 단정하고 세련된 형태, 부드러운 벽선과 대비되는 날카롭게 각이 진 가장자리 등이 잘 조화된 제품으로, 뛰어난 격조를 보이는 상품(上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편병(扁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광택이 좋은 투명한 백자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며, 일부에 미세한 병렬(氷裂)이 있다. 태토(바탕흙)는 깨끗한 치밀질의 백토이다. 바닥 안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전형적인 원형 스타일의 편병으로서 일체의 장식이 없는 깨끗하고 간결한 디자인이다. 부드러운 곡면과 기하학적인 각면이 대비되어 현대감을 느끼게 한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9
	품목명	청화백자산수문각병(靑華白磁山水文角瓶) (White Porcelain Flask)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8세기 전반)
	출토지	
	크기	높이 18.6cm, 굵 12.7×5.9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 홍두영 소장
	자료출처	<한국미술집10>(1973/동화출판공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세조 말에서 예종 초(1467, 1468년경)에 왕에게 소요되는 진상품 및 식사, 그릇들을 제작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옹원(司饗院)의分院(分院)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어 이 곳에서 왕실용 자기를 만들어서 진상하였다. 광주가 최상품의 백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태토(바탕 흙)인 광주토와 풍부한 뿔감을 갖춘 데다가,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광주 백자 가마터 중 금사리 가마에서는 전형적인 조선 중기 백자를 제작하였다.
	조형	외형	경사면(斜面)을 이룬 어깨 부분(肩部)이나, 직육면체의 당당한 몸통을 내만(內灣)되면서 외반(外反)된 단정한 입구 부분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금사리 가마의 전형적인 각병 형태이다. 각 면마다 주연(周緣)을 따라 획선(劃線)을 둘렀으며, 어깨 부분 윗면에는 ‘壽福’ 문자를 넣고 앞뒤에는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세필(細筆)로 그렸으며, 양측면에는 매화를 그리고 그 위에 짐승 모양의 고리 같은 것을 부조(浮彫)하였다. 앞면에서 산과 누각은 세필로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설채(設彩)하였으며, 특히 배를 대각선으로 둔 것은 전체 그림에 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술병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병(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유약은 금사리 가마의 전형인 담청을 머금은 밝고 명랑한 백자유이며, 빙렬이 없는 청화백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전반적으로 장식적이거나, 보조 손잡이 기능 및 끈을 매달 수 있게 한 장식 적용이 주목할 만한, 사각 편병의 일반적 형태이다. 현대 물류 개념에서 부피 최소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생활용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0
	품목명	청화백자병(靑華白磁瓶) (Bottle with Flowering Plants in Underglaze Blu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독특한 도자기는 푸른 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나타낸 청화백자(靑畫白磁)이다. 중국 원, 명나라 도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청화 백자는 초기에는 중국 도자를 모방하여 당초문양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중국 자기의 모습이지만,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중국식에서 탈피하여 곧 한국적인 특징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체로 매화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와 나무 아래 들 국화를 사실적인 회화 수법으로 묘사하여 적당한 여백을 가진 한 폭의 그림 같은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조형	외형	가늘고 긴 목에 사다리꼴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병이다. 어깨선의 유연한 흐름이 아름답다. 벽면에는 청화(靑畫)로 매화 화분 하나가 그려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병(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순도 높은 순백의 기면(器面) 위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雜物)의 함유가 없는 순도 높은 장식계(長石界) 유약을 그 위에 석위 번조한 것이 청화백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백자와 청화의 조화가 신선하다. 다이내믹한 네 곡면이 합해진 병 모양은 완성도를 지닌 긴장감을 주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조명기구, 생활용품, 장식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1
	품목명	백자철유각병(白磁鐵釉角瓶) (Bottle with Amber Glaz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0.5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국보1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전국에 걸쳐 초기 백자나 분청사기 요지(窯址)에서 흑유(黑釉)를 반출하는 곳이 많다. 흑유는 중기와 후기에도 사용되었으나, 특히 후기에 와서 유약의 색이 암갈색으로 된 석간주(石間硃)라고 불리는 흑유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항아리가 제일 많고 역시 각이 진 병류도 있다.
	조형	외형	여섯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병이다. 암갈색의 흑유(黑釉) 색상이 깊은 맛을 주며, 각진 부분에는 주홍색을 띠어 아름다운 선의 흐름이 도드라져 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병(瓶)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태토(바탕 흙)는 백자 태토이며, 유약 안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번조 후 표면의 색이 흑갈색 또는 암갈색으로 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육면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조형미가 우수하다. 각진 면의 색상이 다른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포인트가 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키지, 기념품, 장식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2
	품목명	대나무 병(瓶)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7cm, 지름 9.6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술병 또는 물병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목병(木瓶)은 자기병에 비해 만드는 사람의 재주에 따라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으며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인해 휴대용 술병과 물병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병의 표면에 대나무나 매화를 음각이나 양각으로 장식한 것을 보면 문인화를 즐긴 선비들의 야외시회(野外詩會)에서 쓰였음직하다.
	조형	외형	병의 표면에 대나무를 음각하여 장식하였다. 뚜껑을 닫으면 간단한 원통형이며, 양쪽에 고리를 달아 끈을 매었다. 뚜껑을 열면 안에 주둥이가 달려 있는 병의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대용 술병, 또는 물병으로 쓰인 병이며, 뚜껑은 잔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몸통에 고리를 달고 끈을 매달아 휴대에 용이하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양옆에 고리를 달고 끈을 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과 한계성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입체적인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강조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3
	품목명	매화장식 12각 병(瓶)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4cm, 밑지름 7.5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술병 또는 물병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목병(木瓶)은 자기병에 비해 만드는 사람의 재주에 따라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으며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인해 휴대용 술병과 물병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병의 표면에 대나무나 매화를 음각이나 양각으로 장식한 것을 보면 문인화를 즐긴 선비들의 야외시회(野外詩會)에서 쓰였음직하다.
	조형	외형	12각의 병 양쪽에 매화 가지를 양각하여 장식하였다. 매화 장식은 뚜껑까지 연결되었으며, 병의 12각도 뚜껑 테두리 부분까지 연결되다가 둥글러지면서 각이 사라지고 있다. 뚜껑을 열어 뒤집으면 낮은 밑받침이 있는 잔이 된다. 뚜껑을 열면 안에 주둥이가 달려 있는 병의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대용 술병, 또는 물병으로 쓰인 병이며, 뚜껑은 잔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려 간결한 12각을 표현하고 입체적 장식을 적용, 조형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뚜껑 부위의 각과 곡면이 만나는 디테일이 훌륭하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4
	품목명	병(瓶)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총높이 41.3cm, 높이 38.5cm, 지름 9.5cm
	재료	피모(皮毛)-상어피,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술병
	지정사항	
	소장처	궁중유물전시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궁중유물(돌)>(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목병(木瓶)은 자기병에 비해 만드는 사람의 재주에 따라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으며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인해 서민사회에서 술병과 제병(祭瓶)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또한 상어피는 상어의 부위에 따라 거칠고 역센 부분은 목재 표면을 갈아내는 줄로써, 부드러운 쪽은 목기의 표면에 석워 단단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조형	외형	원통형 병으로 뚜껑을 갖추고 있으며, 뚜껑 속에는 옷칠을 한 술잔을 병 입 속에 넣고 다시 그 위에 뚜껑을 덮게 했다. 몸통 상하의 끈을 거는 고리장식은 짐승으로 보이나 매화가지와 꽃을 표현하고 있다. 뚜껑에는 주석 장식의 띠를 두르고 몸통의 상부와 하부에 여의두형연속장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둥근 곡면에 나타나는 형식이다. 바닥은 하부장식과 함께 석워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구한말의 휴대용 술병으로 보이며, 뚜껑 속에 술잔을 넣게 되어 있다. 몸통에 고리를 달고 끈을 매달아 휴대에 용이하게 하였다. 병의 바닥에는 하부장식과 함께 네 개의 원형받침이 붙어 있어 기물을 보호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몸체는 상어껍질인 교피(鮫皮)로 싸여 있어 확인되지 않으나, 육안으로 보이는 뚜껑의 제작기법은 여러 개의 판재를 이어 원통을 만들고 다시 안과 밖을 깎아낸 후 외부에 상어피를 붙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독특한 고유성(Originality)을 가지고 있다. 형상, 구조, 재료 등에서 서양제품과는 달리 완벽히 차별화되어 있다. 휴대 기능에 많은 배려를 하였다.	

활용 가능성	휴대용 용기류, 가방류, 문구류,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5
	품목명	화약통(火藥筒) (Tortoise-shaped Gunpowder Keg)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좌 : 폭 11.3cm, 길이 18.5cm, 우 : 폭 8.2cm, 길이 10.5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화약통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 선조(재위 1568~1608) 때에 일본에서 전래된 조총(鳥銃)은 화약가루를 쏟아 붓고 탄환을 넣어서 쏘는 형식으로, 항시 어깨줄을 맨 화약통을 허리춤에 걸치고 다녔다. 화약통은 대부분이 위용과 장수를 뜻하는 거북 형상으로, 화약통마다 귀갑문(龜甲文), 귀두(龜頭)의 모양이 다양각색이어서 당시 목조각의 여러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조형	외형	거북이 모양의 화약통이다. 등에는 세세한 선조각으로 다양한 비늘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머리 부분은 표정을 희화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옆에는 뭉뺱을 달기 위한 둥근 고리가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화약을 넣었던 화약통으로, 나무를 깎아 속이 비우게 만들었으며, 머리 부분이 화약통의 뚜껑이고 그 안쪽에 나무, 주석, 소뼈로 된 관을 끼워 총에 화약을 쏟아 붓는 깔때기 역할을 함께 하도록 했다. 허리에 차고 다니기 좋게 납작하게 만들어 끈을 매달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화약통의 자재로는 배나무나 가래나무 등 단단한 목재가 쓰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동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유지하여 장식성을 나타내고, 기능에 맞게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낸 디자인이다. 디테일이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기념품,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6
	품목명	화약통(火藥筒) (Tortoise-shaped Gunpowder Keg)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22cm, 폭 14cm
	재료	목재(木製)-행자목
	용도	화약통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 선조(재위 1568~1608) 때에 일본에서 전래된 조총(鳥銃)은 화약가루를 쏟아 붓고 탄환을 넣어서 쏘는 형식으로, 항시 어깨줄을 맨 화약통을 허리춤에 걸치고 다녔다. 화약통은 대부분이 위용과 장수를 뜻하는 거북 형상으로, 화약통마다 귀갑문(龜甲文), 귀두(龜頭)의 모양이 다양각색이어서 당시 목조각의 여러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조형	외형	평범하고 소탈한 일반형 화약통이다. 등에는 과도문양을 음각하고 중심대에는 과도문양을 변형시켜 중첩된 사각형 내에 능형(菱形)을 배치하는 등 변화를 주고 늦쇠로 둥근 광두정과 같은 장식 셋을 붙였다. 측면은 소문(素文)이나 자귀 자국을 소탈하게 남겨 두고 뿔뿔을 달기 위한 둥근 무쇠 고리가 달리고 배목은 받침판 없이 바로 나무에 박았다. 머리 부분은 변형 재구성한 듯 대담한 터치로 추상적으로 나타내어 민예적인 맛을 풍겨 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화약을 넣었던 화약통으로, 나무를 깎아 속이 비게 만들었으며, 머리 부분이 화약통의 뚜껑이고 그 안쪽에 나무, 주석, 소뿔로 된 관을 끼워 총에 화약을 쏟아 붓는 갈때기 역할을 함께 하도록 했다. 양옆에 작은 고리가 있어 끈을 꿰어 매도록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행자목의 밑에 네모로 커다란 구멍을 뚫고 네모 구멍을 통해 속을 파낸 후 밑뚜껑을 박아 놓았다.
특기			
디자인 특징		동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유지하여 장식성을 나타내고, 기능에 맞게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낸 디자인이다. 디테일이 뛰어나다. 거친 디테일이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기념품,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7
	품목명	지승병 (Paper Woven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14cm
	재료	지(紙)-한지, 자기(磁器)-오지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양의숙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글씨 연습을 하고 버리게 된 종이를 모아 두었다가 창호를 바르는 데 사용하거나 버리게 된 휴지를 모아 지승 기법으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헌 책을 뜯어내서 이것을 이용해 지승 그릇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한때는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할 서책을 뜯어 지승 그릇을 만드는 것을 엄금하였던 일도 있었다.
	조형	외형	흔히 자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그 모양이 자라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종이를 꼬아 옷을 입힌 질감이 독특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이나 물병, 기름병으로 사용되는 병이다. 목 부분에 한지로 만든 끈인 지노(紙蘆, 노역계)로 끈을 만들어 매달아, 여행을 할 때 말 등에 매달고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한지를 좁다랗고 길게 잘라 엄지와 검지로 비벼 꼬아 이어가면서 만든 한지끈으로 직조하듯 엮어서 오지병에 옷을 입혀 만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적절히 활용한 디자인으로, 조형적으로도 우수하며, 질감에서 느껴지는 독특함이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패션 소품, 신변잡화, 용기류,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8
	품목명	자라병 (Paper Woven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지(紙)-한지, 자기(磁器)-오지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지승 공예는 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가 나오기 마련이다. 때로는 색지나 검은색 물을 들인 종이를 함께 써서 무늬를 베껴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굴곡이나 변화를 주어 갖가지 형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깨끗한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목판으로 인쇄된 서책을 이용하였는데 먹 글씨가 자연스럽게 무늬를 이루게 되어 오히려 운치있게 보이기도 한다.
	조형	외형	흔히 자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그 모양이 자라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종이를 꼬아 옷을 입힌 질감이 독특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이나 물병, 기름병으로 사용되는 병이다. 목 부분에 한지로 만든 끈인 지노(紙蘆, 노역계)로 끈을 만들어 매달아, 여행을 할 때 말 등에 매달고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한지를 좁다랗고 길게 잘라 엄지와 검지로 비벼 꼬아 이어가면서 만든 한지끈으로 직조하듯 엮어서 오지병에 옷을 입혀 만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적절히 활용한 디자인으로, 조형적으로도 우수하며, 질감에서 느껴지는 독특함이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패션 소품, 신변잡화, 용기류,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19
	품목명	술병 (Bo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47cm, 입지름 6cm, 밑지름 27cm
	재료	초제(草製)-짚,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
	용도	병
	지정사항	
	소장처	광주직할시립박물관
	자료출처	<짚제품 특별전>(광주직할시립박물관),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짚은 예로부터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생활용품의 주된 재료였으며, 매우 다양한 민구(民具)들이 짚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짚제품을 통해 서민들의 실용성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짚에는 풍년을 초래하고, 액을 막아주는 데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믿어져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 내지 도구로 신앙시된 관념도 볼 수 있다.
	조형	외형	유리병 위에 짚으로 새끼를 꼬아 옷을 입혔다. 유리병의 라인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짚의 질감이 새롭다. 손잡이 두 개가 달려 있으며, 손잡이 밑에 8×5cm의 창을 내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병을 운반할 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병을 보호하기 위해 새끼를 꼬아 입혔다. 몸통 양편에 2개의 손잡이를 달았고, 손잡이 밑에는 내용물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내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유리로 된 술병 바닥부터 촘촘하게 짚을 엮어 목에서 마무리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려 운반에 용이하도록 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내충격성, 운반성 등을 고려하였다. 병을 감싸고 있는 외관 형상 또한 조형적으로 우수하다. 재료의 특성을 살린 창 부위가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가방류, 생활용품, 용기류, 인테리어,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20
	품목명	청동소호(靑銅小壺)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초기철기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청동기시대에는 비록 청동기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지만 계속해서 석기가 주로 제작되어 사용된 것처럼, 초기철기시대에도 앞시대의 청동기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이전의 제품들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수량도 늘어나게 되나 형태와 재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초기철기시대의 전기는 한국 청동기의 전성기로서 형태의 변화도 활발하고 재질도 다양해진다.
	조형	외형	둥근 몸체에 비해 큼직한 E자형의 손잡이가 달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무덤에 묻기 위해 특별히 소형으로 만든 명기(名器)처럼 아주 작은 항아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합금(銅合金)으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큼직한 손잡이가 특징적이다. E자형 형상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활용 가능성	주방기기, 도구류, 용기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21
	품목명	주구호(注口壺)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원삼국
	출토지	
	크기	
	재료	토제(土製)-와질(瓦質)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원삼국시대는 기원 전후경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 동안으로 문헌상의 삼한시대이며, 국가 발전 단계의 성읍국가시대에 해당되고 삼국이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대에는 단단하게 구워진 민무늬토기가 계속 사용되는 한편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의 도입으로 연질(軟質)토기와 와질(瓦質)토기가 등장하여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는데, 후기에는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인 회청색경질토기(灰靑色硬質土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조형	외형	외경한 경부를 가진 항아리의 양어깨를 쇠뿔처럼 돌출시키고 그 한쪽 끝은 내용물을 붓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다. 색상은 회흑색(灰黑色)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돌출된 어깨의 한쪽 끝을 내용물을 붓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항아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약간의 모래가 섞인 점토로 만든 회흑색 와질(瓦質)토기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의미 있는 듯한 독특한 형상이 차별화되어 있다.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기능성을 배가하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22
	품목명	새장식뚜껑항아리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원삼국
	출토지	영남 지방
	크기	높이 32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원삼국시대는 기원 전후경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 동안으로 문헌상의 삼한시대이며, 국가 발전 단계의 성읍국가시대에 해당되고 삼국이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대에는 단단하게 구워진 민무늬토기가 계속 사용되는 한편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의 도입으로 연질(軟質)토기와 와질(瓦質)토기가 등장하여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는데, 후기에는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인 회청색경질토기(灰靑色硬質土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조형	외형	몸체는 옆으로 약간 퍼진 둥근 형태이며, 뚜껑 위에는 새 모양 네 개가 십자형을 이루며 장식하고 있다. 굽다리는 넓고 다소 높게 받쳐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뚜껑이 있는 항아리로, 넓어서 안정감 있는 굽다리가 달려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연질(軟質)토기로, 민무늬토기와 마찬가지로 한테가마(露天窯)나 굴가마에서 입구를 개방한 상태로 구워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짜임새 있고 정선된 외형의 조형적 요소가 우수하다. 뚜껑 위의 장식이 약간 이질적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주방기기,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23
	품목명	장경호(長頸壺)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백제
	출토지	
	크기	높이 23.4cm, 지름 19.1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한선 갤러리
	자료출처	iArt Shopping Center http://www.artseoul.net/artplaza/antique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백제토기는 이전의 전통적인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여기에 낙랑과 고구려의 토기제작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백제토기는 바탕 흙과 빛깔로 보아 대체로 적갈색연질토기, 검은색토기(黑陶), 회청색토기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토기는 항아리와 단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매우 다양한 그릇들이 출토되었다.
	조형	외형	둥근 몸체에 역사다리형의 입구가 붙어 있다. 입구 부분의 횡으로 둘러진 줄무늬가 단순한 형태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항아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구의 형상과 역사다리형 입구부가 교차되어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줄무늬 디테일이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24
	품목명	토우장식항아리(土器土偶裝飾長頸壺) (Jar with Figurine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30호분
	크기	높이 34cm, 입지름 22.4cm, 몸통지름 30.6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국보 195호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국립경주박물관),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국보5, 6>(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1973년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미추왕릉지구 정화사업을 할 때 드러난 고분군으로 국립박물관과 여러 대학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였다. 무덤의 형식은 소형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독널무덤으로, 이 고분군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이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 가운데에 토우를 붙인 예는 간혹 있으나 이처럼 다양하게 붙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조형	외형	밑은 둥글고 목이 긴 항아리로 어깨에 단(段)이 지워 있는 전통이 남아 있는 고식(古式)이지만, 넓은 입의 목과 선각문(線刻文) 등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유행된 중기 형식이다. 어깨와 목 부위에 작은 토우들이 붙어 있는데, 거북, 가야금을 타는 사람, 개구리를 쫓는 뱀, 엎드려 있는 여자, 그 뒤에 서있는 남자 등이 표현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사람과 짐승의 토우로 미루어 다산(多産)과 풍요를 의미하는 주술적인 기능의 항아리임을 짐작케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로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장식의 독특함이 특징이다. 극도로 추상화된 평면 장식과 구체화된 입체 장식이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25
	품목명	양이부단경호(兩耳附短頸壺)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삼국
	출토지	
	크기	
	재료	토제(土製)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토기는 고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이었다. 그러나 한 개의 토기를 몇 년씩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기는 끊임없이 깨지고 또한 만들어졌다. 다른 금속제품과 달리 순환이 매우 빠르다. 따라서 생활 감정이나 미적 감각의 변천도 인류가 사용한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잘 표현되어 있다.
	조형	외형	구형(球形) 같은 동그란 항아리로, 양쪽 좌우에 세로로 구멍이 두 개 뚫린 손잡이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바닥은 둥글지만 안전하게 놓일 정도이고, 입구의 입술은 외반(外反)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항아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두드림 무늬가 전면에 있는 토기(土器)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손잡이의 형상이 독특하다. 기능적으로 무리가 없으면서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하였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각종 손잡이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26
	품목명	유개호(有蓋壺)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삼국
	출토지	
	크기	
	재료	토제(土製)
	용도	뚜껑 있는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고분 유물>(1992/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고분에서 드러난 삼국시대의 토기를 크게 나누면, 앞선 시기의 토기 생산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작한 연질계 토기(軟質系土器)와 더욱 발전된 생산 기술로 제작한 경질계 도질토기(硬質系陶質土器)로 나누게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은 이러한 공통된 토기 생산 기술로 토기를 제작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각국 특유의 기술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조형	외형	뚜껑과 몸이 모두 둥근 모양으로 통일을 이루며, 또한 각각 세 개씩 직육면체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어 포인트가 되고 있다. 고식 도질토기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 조형의 장의 한 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뚜껑 있는 항아리이다. 몸과 뚜껑에 각각 세 개의 횡이(橫耳)를 부착하여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고안한 형태와 구조가 특이한 컨셉이다. 기능뿐 아니라 하나의 장식적 조형 요소로 발전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27
	품목명	인화문대부단경호(印花文臺附短頸壺)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통일신라
	출토지	
	크기	
	재료	토제(土製)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1/museums/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도장무늬토기는 통일신라토기 하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는 형식인데, 이는 중국 수, 당 도자기의 퇴화문(堆花文), 인화문(印畵文)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8세기에 들어서면서 모양이 다양해지고 무늬판으로 찍어 만든 도장무늬가 토기 표면에 화려하게 배풀어지며 연유(鉛釉)로 발현시켜 만든 녹색, 황갈색, 황록색의 아름다운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조형	외형	아주 짧은 목이 눌러 내려앉아 몸체 높이와 같이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항아리이다. 입의 입술은 짧으면서 곧게 올라간 형태이고, 밑의 굽다리는 넓고 높은 편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항아리이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토제(土製)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입구 부분이 오히려 낮은 특이한 발상의 디자인이다. 전체 형상 또한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 반	분류번호	D3-28
	품목명	청자반양각 연당초문 호(靑磁半陽刻 蓮唐草文 壺) (Celadon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4.4cm, 입지름 11.2cm, 밑지름 11.2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보물 1028호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분 석	제품 배경		이 제품처럼 형태가 단정하게 구형을 이루는 호는 고려자기 중에 유례가 매우 드물며, 반양각(半陽刻)으로 기면(器面)에 가득 처리된 문양 또한 예사롭지 않아, 비색청자 중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명품으로 꼽을 만하다.
	조형	외형	목이 거의 없이 외반(外反)된 입술이 달린, 동체가 동그란 구형 호(球形壺)이다. 문양으로 동체 가운데에 커다란 연화문을 같은 간격으로 시문한 후, 사이사이에 당초문을 뺄뺄이 배치하였는데, 윤곽은 반양각(半陽刻)을 하고, 세부는 가는 음각선으로 처리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비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곳곳에 미세한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병렬은 거의 없는데, 문양의 윤곽 부분에 유가 몰려 짙은 벽색(碧色)을 보인다. 바닥은 평저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항아리이다.
		특기	
	제작	재료	광택이 있고 투명한 비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유를 훑어내고 여섯 곳에 커다란 적갈색 흙모래 비짐을 받쳐 번조한, 반양각(半陽刻) 청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목이 거의 없는 차별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간결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29
	품목명	분청 인화 집단연권무늬 네귀항아리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424년 이전)
	출토지	경기도 고양군 정소공주묘
	크기	높이 19.1cm, 입지름 7.5cm, 배지름 14cm, 밑지름 6.6cm
	재료	자기(磁器)-분청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분청자기>(1990/대원사), <국보16>(1986/예경산업사),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에 위치한, 세종대왕(재위 1419~1450)의 큰 딸 정소공주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인화문(印畵文)은 도장과 같은 시문도구로 문양을 찍어내는 획일적인 수법에 의한 것으로, 고려 말 13세기경부터 퇴락한 상감청자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인화 분청으로 발전한다. 인화 분청은 문양과 구도가 자유분방하지 않고 정형화된 특징을 지니며 다른 종류의 분청에 비해 특히 왕실용과 관청용이 많다.
	조형	외형	추상적인 형태의 무늬를 보이는 항아리로, 밑 부분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빠졌고, 어깨 부분에 고리 반쪽 모양의 네 귀가 붙어 있다. 목은 짧고, 입술은 외반(外反)하였다. 유태가 정선되어 얼은 회청색을 띠며, 문양 구도 또한 안정된 모습을 갖추었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태항아리로, 왕실에서 태(胎)를 항아리에 넣어 산봉(山峰)에 안치 하던 습속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태항아리는 내, 외호가 있어서 내호에 태를 담고 잘 싸서 이것을 다시 큰 외호에 넣어 끈으로 매었다. 그리고 다시 싸서 지석(誌石)과 함께 큰 석함(石函)에 넣어 묻고 작은 태비(胎碑)를 곁에 세운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입자가 치밀하며 밝은 회색을 띠는 바탕 흙(胎土) 위에 도장과 같은 시문도구로 백토를 찍어 문양을 만든 후, 회청색의 투명한 분청유를 입혔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특기	외관과 추상적 패턴이 잘 조화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끈으로 맬 수 있는 고리가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비주얼 디자인, 텍스타일, 패션,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3-30
	품목명	백자호문호(白磁鎬文壺) (Porcelain Jar with Ribbed Relief)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0.5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자료출처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백자는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단정한 양식, 혹은 풍만한 양감을 지닌 조형으로 특징지워진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한 백자는 순백(純白)에 대한 조선인의 미감(美感)을 충실히 반영한 도자기였으며, 조선 건국이래 세종 연간까지만 왕실에서 전용했을 뿐, 그 후로는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온 백성들이 백자를 사용하였다.
	조형	외형	풍만한 어깨선을 따라 촘촘한 주름 무늬가 좁아지는 아래로 흐르고 있다. 주름이 곡선인 것에 반해, 입술은 직각으로 서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항아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탕 흙(胎土)의 입자가 곱고 밀도가 강한 백토에 투명유(透明釉)가 입혀진 백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과 직각으로 형성된 입구 부위가 대비되어 훌륭한 조형미를 유지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31
	품목명	채독(柳甕) (Willow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경북 안동
	크기	
	재료	지(紙), 목재(木製)-싸리나무
	용도	곡식류 보관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한솔중이박물관
	자료출처	<한솔중이박물관 이야기>(1997/한솔중이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안동 지방에서 사용된 곡식류 보관 항아리이다. 싸리나무는 전국에 걸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목재로, 대가 가느다랗고 탄력성이 좋아 각종 용구들을 엮어 사용했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의 싸리채는 바지개, 삼태기, 발 등의 도구를 만들며, 가는 것만 추려서 껍질을 벗긴 속대로는 고리를 비롯하여 광주리, 채반, 소쿠리, 다래끼, 용수 등의 부엌살림을 주로 장만한다.
	조형	외형	전형적인 항아리 형태로 몸에 비해 뚜껑은 다소 작은 편이다. 싸리나무를 엮은 선이 그대로 살아 있어 양감을 주며, 뚜껑과 몸통에는 자물쇠 고리를 달아 연결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곡식류 보관 항아리로, 통풍성이 좋다. 싸리채는 물기 있는 것도 담을 수 있고 수년씩 쓰일 만큼 튼튼하여 농가의 들일에 요긴한 도구가 되며 서민 가구로서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편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싸리나무로 틀을 형성한 후 기름종이를 붙였다. 싸리는 메가 곱고 붉은 참싸리로 당년에 흰칠하게 자란 것을 8월경 베어다 쓰며, 싸리채 한 줄기를 세 갈래로 쪼개어 말렸다가 물에 적서 녹여서 제작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린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재질감과 제작상에서 나오는 외관 형상을 그대로 살린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키지, 인테리어 소품, 기타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	---

일반	분류번호	D3-32
	품목명	채독(柳甕) (Willow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76cm, 뚜껑 42×26cm
	재료	지(紙), 목재(木製)
	용도	곡식류 보관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는 종이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데에 활용되었다. 실용성에 비중을 둔 종이 기물들은 다른 재료로 만든 기물에 비해 제조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동안 전란으로 소멸되기도 하여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형	외형	양옆으로 길게 벌어진 형태로, 양어깨가 풍만하다. 뚜껑과 밑은 장방형인 것이 특이하며, 뚜껑에는 고리를 달았다. 뼈대의 엮은 선이 그대로 살아 있어 양감을 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지독'이라고도 부르는 곡식류 보관 항아리로, 통풍성이 좋다. 곡식이 귀했던 시절,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뚜껑에 고리를 달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싸릿개비(싸리나무 대)나 가는 나무 오리로 결어서 독 모양으로 만들어 안팎으로 종이를 바른 뒤 기름을 먹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린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재질감과 제작상에서 나오는 외관 형상을 그대로 살린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또한 우수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패키지, 인테리어 소품, 기타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	---

일반	분류번호	D3-33
	품목명	짚독 (Straw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목제(木製)
	용도	곡식류 보관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짚문화>(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농가의 더러 재주 있는 사람들은 짚을 가지고 모양을 내서 진짜 독 모양으로 만들어 썼다. 독과 똑같이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를 좁게 오므라뜨려서 나무나 혹은 제것의 짚 뚜껑까지 해 덮은 것에 햇곡식이라도 방방하게 채워 넣으면 영락없는 쌀독이었다.
	조형	외형	전형적인 독 모양으로 배가 풍만하게 불렀으며, 독특한 갈색인 비사리(싸리나무 껍질)로 가로 줄무늬도 넣어 모양을 내었다. 옹기 뚜껑과 같은 형태의 짚뚜껑과 나무로 만든 납작한 뚜껑이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짚으로 만든 짚독은 습기가 차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해 벌레 낄 염려도 없어 곡물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짚을 겹으로 엮어 만들었으며, 하나는 뚜껑을 나무로 깎아 덮었다. 싸리나무 껍질인 비사리로 줄무늬도 넣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린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재질감과 제작상에서 나오는 외관 형상을 그대로 살린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목재로 된 뚜껑이 대비되어 독특한 느낌을 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3-34
	품목명	쌀독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보리짚
	용도	쌀 항아리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1995/현암사)

분석	제품 배경		이삭을 떨고 남은 줄기인 짚은 서민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소재가 되어 왔다. 특히 짚은 각종 크고 작은 보관 용구를 손쉽게 만들기에 적절하면서도 흔한 재료였기에 농촌의 요긴한 생활 자재였다.
	조형	외형	보릿짚을 따리 틀 듯 틀어 올린 모양이 그대로 디자인이 되고 있다. 옆선은 직선으로 올라갔고 어깨 부분에서 손을 넣어 들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을 두었으며, 뚜껑도 항아리 뚜껑 그대로의 형태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든 독은 습기가 차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해 벌레 낄 염려도 없어 곡물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깨 부분에 손을 넣어 들 수 있는 공간을 배려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보릿짚을 겹으로 엮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린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재질감과 제작상에서 나오는 외관 형상을 그대로 살린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함류,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	--------------------------------

일반	분류번호	D3-35
	품목명	장군 (Earthenware J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병, 항아리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높이 26.4cm, 몸지름 15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거름 운반 용기
	지정사항	
	소장처	한선 갤러리
	자료출처	iArt Shopping Center http://www.artseoul.net/artplaza/antique/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한 사발의 밥은 남에게 주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주지 않는다’라는 속담에서 거름의 비중과 그것을 장만하는 데에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예부터 거름으로는 두엄과 사람의 분뇨, 그리고 재를 써 왔다. 거름을 나르고 주는 연장 중 오줌을 나르는 오줌장군은 예부터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시대에 따라 재료만 달라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형	외형	중두리(독보다 조금 작고 배가 불룩한 오지 그릇)를 닮은 모양으로, 배에는 좁은 입이 있다. 세울 수 있게 한쪽은 편평하고 다른 한쪽은 둥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거름을 주는 연장으로, 오줌 등을 넣어 지게에 옮겨 농토에 뿌리게 된다. 때로는 물, 술, 간장 따위를 담아서 옮길 때에도 썼다. 지게 등에 뉘어서 었을 수 있도록 길고, 입구가 옆에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오지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여러 위치로 사용 가능한 합리적,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부드러운 외관 형상 또한 조형적인 안정감을 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4-1
	품목명	청동주전자(靑銅酒煎子) (Ke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8cm, 입지름 7cm, 밑지름 17cm, 몸지름 27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부산시립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23>(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전체적인 형태는 도자기 제품이나 금속 제품에서 보이는 고려시대 주전자의 기본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몸통이 매우 커서 약간 변형된 모습을 보이는 주전자이다. 현재 뚜껑이 없고 몸통 아래 부분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점 외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 주전자는 비록 판독이 불가능하나 명문(銘文)을 갖고 있는 점과 흔하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는 점에서 고려시대 주전자 양식 흐름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형	외형	몸통은 바닥에 얇은 굽이 달려 있는데 이 얇은 단으로부터 조금 넓어지면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어깨에서 모를 내며 일단 꺾여서, 약간의 사면을 이루면서 목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목 부분에는 뚜껑을 받치기 위한 약간 도톰한 턱이 둘러져 있고 구연부는 목 부위에서부터 차츰 자연스럽게 좁아진 형태이다. 귀때는 몸통과 거의 평행을 이루며 직선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약간 굽어지고 있는데 몸통과 거의 같은 높이이다. 손잡이는 바깥쪽에만 양편으로 약간 도톰한 단을 두고, 가운데 낮은 부분에는 거의 전체에 걸쳐 명문(銘文)을 두르고 있다. 손잡이 끝 부분은 목 가까이에 와서 한번 완전히 굽혀서 삼각꽃잎형의 장식으로 붙이고, 아래 부분도 몸통 아래까지 이어지는 넓고 긴 삼각 구연부가 좁은 느낌이며, 귀때 또한 매우 가는 느낌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주전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주전자로서 흔하지 않은 독특한 형상이 특징으로, 금속재료로 부드러운 도자기와 같은 형상을 추구하였다. 손잡이의 곡선이 인간 공학적이면서도 조형미를 갖추었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주방기기,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4-2
	품목명	청동주전자(靑銅酒煎子) (Ke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고려 (말기)
	출토지	
	크기	높이 20cm, 입지름 8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한국의 미23>(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고려시대 청동(靑銅) 주전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통식(通式)의 주전자이다.
	조형	외형	세련된 형태로서 몸은 밑으로부터 약간 넓어지면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어깨에서 직각에 가까운 모를 내며 꺾이어 목에 연결되었다. ‘亞’형의 목은 굵고 길게 올라가다가 외반(外反)되게 약간 밖으로 만곡되면서 구연부를 갖추게 되었다. 몸체의 한쪽에는 자연스럽게 길게 앞으로 뺀 주구(注口)를 달고 있고, 반대쪽에는 큼직한 손잡이가 있다. 손잡이 위에는 동물의 머리와 같은 장식을 붙여 뚜껑과 연결시켰으며, 뚜껑 꼭지도 동물상으로 장식하였다. 주전자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있어 소박하고 우아한 맛을 더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편의성	주전자로, 손잡이와 뚜껑을 연결하는 동물 장식으로 인해 뚜껑을 여닫게 하였다.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특기			
디자인 특징		전체적으로 우아한 곡선과 각이 만나는 세련된 형상이다. 손잡이와 뚜껑을 연결하는 동물 장식으로 인해 뚜껑을 여닫게 한 점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주방기기,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4-3
	품목명	청자죽순형주자(靑磁竹筍形注子) (Celadon Wine Pot in the Shape of Bamboo Shoot)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고려 (12세기 전반)
	출토지	
	크기	총높이 23.5cm, 뚜껑높이 6.7cm, 밑높이 0.2cm, 밑지름 7.6cm, 몸높이 19.2cm, 몸지름 15cm, 입지름 3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9>(1975/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고려 순청자 상품(上品)의 특색이라면 병렬(氷裂)이 거의 없다는 점과 광택이 부드럽고 은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고려청자 최성기(最盛期)의 산물인 이 제품은 상품 고려 순청자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 가마터에서 비슷한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조형	외형	죽순 모양의 몸체에 가는 대가지 두 개를 붙여 구부린 모양의 손잡이와 역시 대를 구부린 모양의 귀때부리가 붙어 있다. 죽순의 뾰족한 끝을 잘라서 뚜껑으로 삼았고, 죽순 껍질의 엽맥이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었으며, 귀때부리의 대마디나 대가지 흔적들도 실감나게 양각되어 있어서 매우 정성을 기울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주전자이다. 노끈을 묶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뚜껑과 손잡이 윗부분에 각각 작은 고리가 마련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고도로 정선된 바탕 흙에, 뚜껑 안쪽 일부와 굽다리를 제외한 전면에 맑은 비색 유약이 매우 고르게 입혀져 있다. 굽다리 와 굽안바닥 다섯 군데에 내화토는 받침 자국이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물 형상을 거스르지 않고 정선하여 제품에 적용하였다. 뚜껑과 몸체의 경계 라인과 무리 없이 연결된 뚜껑의 라인이 극도의 세련미를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용기류, 주방기구, 장식품,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4-4
	품목명	청자음각 만표문 표형주자(靑磁陰刻 蔓瓢文 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고려 (12세기)
	출토지	
	크기	총높이 34.3cm, 뚜껑 : 높이 4.9cm, 밑지름 1.6cm, 주전자 : 높이 30.6cm, 입지름 2.2cm, 밑지름 9.7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청자는 초기에는 중국 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12세기부터는 고려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청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 구조의 조형미를 지니게 되며, 11세기말에서 12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춘 상형청자(象形靑磁)가 제작, 유행되었다. 그러므로 호리병주자, 용이나 거북형태의 주자, 석류형주자, 과형병(瓜形瓶) 등이 흔히 발견된다.
	조형	외형	조롱박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는 표주박 형태의 주전자로, 두 줄의 덩굴로 꼬아 만든 손잡이와 만곡한 주구(注口)가 달려 있다.
		색상	문양은 동체 전면에 음각선을 사용하여 박 넝쿨과 탐스럽게 달린 박 문양을 가득히 베풀었다. 뚜껑과 동체, 손잡이, 표면의 문양까지도 모두 자연에서 소재를 구한 것으로 이들이 아름다운 청자 유색과 하나로 어루러져 서정성을 짙게 느끼게 하는 제품이다.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주전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광택이 있고 투명한 질은 녹색의 유가 두텁게 시유되었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낮고 넓으며, 다소 내경(內傾)하고 깎음새가 단정한데, 안바닥을 얇게 깎아내고 시유한 뒤, 일곱 곳에 적갈색 흙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의 형상을 활용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완벽할 정도의 균형미와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적절히 사용한 장식적 요소(손잡이, 뚜껑 부분)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그릇, 용기류, 주방기구, 장식품,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4-5
	품목명	분청사기상감 연화어문 용머리편병주전자(粉靑沙器象嵌 蓮花魚文 龍頭扁瓶注子) (Flattened Ew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고려 (15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1.8cm, 입지름 5.1cm, 밑지름 7cm
	재료	자기(磁器)-청자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청자는 초기에는 중국 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12세기부터는 고려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청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 구조의 조형미를 지니게 되며, 11세기말에서 12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춘 상형청자(象形靑磁)가 제작, 유행되었다. 그러므로 호리병주자, 용이나 거북형태의 주자, 석류형주자, 과형병(瓜形瓶) 등이 흔히 발견된다.
	조형	외형	나팔형 구연에 목이 잘록하고 동체 저부에서 부드럽게 팽만하는 형태로, 양쪽 벽면을 편평하게 두드린 후, 용의 머리와 몸체 모양의 주구와 손잡이를 장식한 편병주전자이다. 어깨에 번개문양(雷文)과 연꽃잎 문양, 연주문양대를 배치하고, 편평한 양면에는 능화창(菱花窓)에 둘러싸인 연꽃과 물고기 문양(蓮花魚文)을 상감하였다. 능화창의 밖에는 먼 가득히 과도문양을 상감하고 밑둥에 연꽃 문양대를 두어 마무리하였으며, 주구와 손잡이는 음각선으로 용의 세부를 표현하였다. 굽은 낮고 외반(外反)되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주전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회녹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나, 유면이 맑지 못하고 전면에 빙얼이 있으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과도하게 장식적이거나 주전자로서는 특이한 편병 스타일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4-6
	품목명	백자은구약차관(白磁銀具藥茶罐) (Medical Kettle made with White Porcelain)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28.9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연세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연장>(1984/연세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분석	제품 배경		대체로 질박하고 간결한 백자 가운데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아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주는 일품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백자주자(白磁注子)가 있다.
	조형	외형	오뚝한 꼭지가 달린 반구형 뚜껑을 갖추었고 아주 약간 안으로 기울어졌을 뿐 거의 직립한 목과, 어깨에서부터 서서히 부풀었다가 허리께에서부터 서서히 줄어들어 몸체가 후덕하고 안정된 곡선을 지닌 주자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약재를 달여 차 대신 마시는 약물인 약차(藥茶)를 담아 두고 사용하는 주전자이다. 주전자의 목과 뚜껑에 구멍이 뚫려서 은으로 만든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독약 따위를 넣지 못하도록 마음을 써서 만든 듯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고운 태토(바탕 흙) 위에 얼은 푸른색이 비긴 백자유를 두텁게 입혀서 유약이 흘러내린 선이 은은한 명암을 이루고 있는 순백자(純白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현대적인 조형미가 뛰어나다. 일체의 장식이 없으면서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풍기고 있다. 잠금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4-7
	품목명	놋주전자(鑪酒煎子) (Brass Pitch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조선 (17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8.5cm, 지름 9.2cm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태평양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놋쇠로 만든 숟가락이나 그릇, 세숫대야 등 생활용품을 가리키는 유기(鑪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이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놋그릇의 질과 양의 관리 상태가 그 집안의 생활 정도를 가늠하는 한 척도였다. 놋그릇은 두들겨서 만드는 방짜유기와 주물로 만드는 주물유기 두 종류가 있다. 중국에서 전해진 방짜 기법은 현재 한국에만 남아 있다.
	조형	외형	사과 모양의 몸체는 마치 사과를 반으로 자른 듯 뚜껑과 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새의 부리에서 따온 듯한 주전자 주둥이는 몸체와 대조적으로 각이 져 있고 자동 덮개가 달려 있다. 손잡이도 몸체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반원을 그린다. 자연스러운 조형에 유연한 선의 아름다움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일상적인 주전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방짜유기 제조법으로 만들어졌다. 방짜유기는 놋쇠물로 대강 크기와 형태를 만든 후 유기장(鑪器匠)이 1천 회 이상의 메질을 해서 완성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곡선과 파팅 라인(Parting Line)이 조화되어 있는, 간결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손잡이의 형상 또한 전체의 흐름을 따르되 자연스럽게 제작되어 있으며, 몸체와 뚜껑의 절개 위치나 디테일이 평범하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4-8
	품목명	주전자(酒煎子) (Kettl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주전자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주전자
	지정사항	
	소장처	홍정실 소장
	자료출처	<유기>(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놋쇠라는 금속이 있다. 이 놋쇠로 식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일상 생활용품이나 기구를 만들어 썼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친숙했던 은은한 광택을 내는 노르스름한 색의 놋 제품들은 조선조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아주 폭넓게 쓰던 극히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으로서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었던 전통적인 생활 용구였다. 놋제품에서 은근히 풍기는 품위는 우리 고유의 멋이었다.
	조형	외형	전형적인 놋쇠 주전자의 형태로 몸은 위로 벌어지면서 약간 길게 올라가다가 어깨에서 급하게 꺾여졌으며, 바닥은 안정감 있게 넓고 편평하다. 간단한 꼭지가 달린 납작한 원통형 모양의 뚜껑이 있으며, 손잡이는 전체 각진 형태와 어울리도록 약간 각이 지게 둥글러졌다. 역시 각이 진 주둥이에는 자동 덮개가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일상적인 주전자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놋쇠는 각 제품마다 그 성분과 합금의 배합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통적 의미의 놋쇠는 동 1근(지금의 600g)에 상납 4냥반(약 168.7g)을 배합한 우리나라 특유의 재료이며, 일명 유철(鑪鐵)이라고도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군더더기가 없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이다. 재료의 특성을 살려 무리 없이 제작되었다. 꼭지 부위의 디테일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그릇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5-1
	품목명	동제 수저 (Bronze Spoons and Chopstick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수저, 가위
	시대	백제
	출토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크기	길이 18.2~21.2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수저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공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공주박물관>(1997/국립공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1971년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5~6호분 배수로 공사중 우연히 발굴된 무령왕릉에서는 1,442년만에 햇빛을 본 108종 2,90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그 유물들 중 하나인 청동제 수저로, 이와 똑같은 숟가락이 비슷한 시기의 일본 무덤에서 출토된 바 있어 백제와 일본과의 문물교류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조형	외형	숟가락은 몸체가 은행알 모양이고 손잡이가 끝으로 가면서 넓어져서 길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젓가락의 경우는 지름면이 각(角)져 있다. 숟가락은 여러 줄의 돌을 선과 가는 선을 새겨서 화려하게 장식하여 그 품격을 더해주고 있으며, 젓가락 가운데에는 손잡이 부분에 끈을 묶는 둥근 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숟가락과 젓가락 세트로, 젓가락 가운데에는 손잡이 부분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 고려시대의 젓가락처럼 끈으로 묶을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독특한 식생활 도구의 양식으로, 기능성 해석을 어려우나 상징적인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식생활 도구,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5-2
	품목명	청동 숟가락 (Bronze Spoon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수저, 가위
	시대	통일신라 (8~9세기)
	출토지	경주 안압지
	크기	상 : 길이 26.7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숟가락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국립경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안압지는 신라 제 30대 문무왕(661~681년)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궁궐 안에 못을 만들고 이곳에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던 곳으로, 당시 이름은 월지(月池)였다. 1974년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연못 준설 공사 중 발굴된 유물들은 총 3만2천여 점으로, 고분 유물과 달리 실생활용품들로 그 가치를 지닌다. 그중 청동 숟가락은 통일신라시대의 것부터 고려, 조선시대의 숟가락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시면(匙面)이 원형과 타원형인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으로, 이런 형태는 일본 정창원에 당시의 신라 장적(帳籍) 용지에 포함되어 노끈으로 10개씩 세트로 묶여 보존되고 있다.
	조형	외형	시면(匙面)이 원형에서부터 타원형까지 다양하다. 손잡이 부분이 약간 휘어지며, 끝이 물고기 꼬리지느러미처럼 갈라지기도 한 고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숟가락들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미세한 형상과 굴곡의 차이로 느낌을 다르게 한다. 용도와 기능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식생활 도구,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5-3
	품목명	청동수저 (Bronze Spoons and Chopstick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수저, 가위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손가락 길이 28, 27.4, 24.5cm, 젓가락 길이 27.5, 28.5, 25.8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수저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며 부장품으로 묻힌 것이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손가락의 입술은 둥글어지고 손잡이는 직선화되어 오늘날의 손가락과 같은 형태를 띤다.
	조형	외형	버들잎 형태의 손가락으로, 손잡이에는 꽃봉오리 장식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손가락과 젓가락 세트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장식으로 된 손가락 끝 부분이 독특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식생활 도구, 일반 도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5-4
	품목명	철협(鐵鉞) (Scissor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수저, 가위
	시대	신라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철(鐵)
	용도	가위
	지정사항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분석	제품 배경		신라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가위이다.
	조형	외형	가느다란 대가 둥근 고리 모양의 손잡이를 이루고 X자로 꺾여 내려가다가 가윗날과 연결된다. 군더더기가 없는 날렵한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일반 가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제(鐵製)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성을 강조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불필요한 요소가 배제되어 있고, 재료의 원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도구, 공구류,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5-5
	품목명	철제황동상감협(鐵製黃銅象嵌鉞) (Scissor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수저, 가위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21.5cm, 폭 8.2cm
	재료	금속(金屬)-철(鐵)
	용도	가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조선조금속상감에 대한 연구>(1981/홍익대 대학원, 조유진)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의 상류사회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호화로운 가위이다.
	조형	외형	가느다랗고 커다란 손잡이 부분과, 곧고 날렵한 가윗날이 잘 조화되고 있다. 손잡이 끝 부분에서 살짝 말린 것이 장식 효과를 주고 있다. 상감된 문양은 문자문(文字文)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가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鐵)로 주조 후 황동(黃銅)으로 문양을 상감(象嵌)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충분히 기능적이면서도 조형성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장식성을 최적함으로 살린 우수한 디자인이다. 손잡이 부분 디테일 처리 또한 훌륭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분야.
--------	---------

일반	분류번호	D5-6
	품목명	엿장수 가위 (Scissor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수저, 가위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철(鐵)
	용도	가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원터치 포토 이미지(CD)>(디자인하우스)

분석	제품 배경		동네를 돌며 빈 병이나 폐품들을 받고 엿과 바꿔주던 엿장수들이 가지고 다니던 가위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가위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데 사용하였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엿장수 가위 소리였으나, 이제는 과거의 향수 속에 묻히고 말았다.
	조형	외형	손잡이는 커다랗고, 둔탁해 보이는 가윗날도 넓으며 밖으로 만곡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자르고 오리는 용도의 가위가 아니고 엿장수들이 소리를 내기 위한 가위이므로, 가윗날은 서 있지 않고 두 날이 비교적 험렁하게 겹쳐있기 마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제(鐵製)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소리를 내기 위한 용도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자 제작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가윗날이 없고 면적이 넓게 되어 있다. 손잡이 부분은 장시간 사용시 무리가 없도록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도구류, 공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1
	품목명	찬궤(饌櫃) (Picnic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3.6cm, 폭 18.6×15.6cm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
	용도	휴대용 반찬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관가에서 운영하던 숙박소인 원(院)에서는 객이 내어주는 쌀로 관리자들이 밥만 지어주기 때문에 여행자는 먹을 양식과 함께 반찬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찬합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형	외형	문은 옆에 달렸고 둥근 바탕에 배꼽장식으로 여닫게 되었으며 고리가 달렸다. 속에는 십자 칸막이를 했으며, 서랍이 네 개가 달려 있다. 이음새마다 고춧잎 감잡이로 보강하고, 양옆에 반달 들쇠가 있다. 바닥에는 배꼽 장식으로 네 발을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마른반찬을 담는 찬합으로, 앞의 문을 열면 서랍 네 개가 있으며, 각각의 서랍도 2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동나무로 만들었으며, 각종 경첩과 고리, 감잡이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Compact), 모듈(Module), 표준화(Standardization) 개념의 휴대용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구조 보강과 장식성을 병용한 감잡이장식과 전면의 앞바탕 장식이 특징적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레저용품, 가방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2
	품목명	찬합(饌盒) (Lunch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9.5cm, 폭 19.3×18.8cm
	재료	목제(木製)-은행나무, 금속(金屬)-장식
	용도	휴대용 도시락
	지정사항	
	소장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관가에서 운영하던 숙박소인 원(院)에서는 객이 내어주는 쌀로 관리자들이 밥만 지어주기 때문에 여행자는 먹을 양식과 함께 반찬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찬합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형	외형	일반 찬합과는 달리 서랍이 양분되게 구성한 독특한 형식이다. 뒷면의 견고한 경첩을 활용해 열어젖히면 내부에 세 칸으로 분리된 커다란 서랍이 있다. 전면에는 두 개로 분리된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 주로 서류함에서 사용되는 볼박이자물쇠장식을 달았는데 넓은 앞바탕장식과 사개물림, 그리고 국수형거멸장식 등이 어울려 단아하면서 짜임새가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서랍으로 구성된 찬합으로, 대부분이 뒷판에 구멍을 뚫어 서랍을 손가락으로 밀어내도록 했으나, 이것은 두 줄의 긴 홈을 파내어 쉽게 사용하도록 했으며 약간의 통풍도 고려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은행나무를 견고하게 사개물림했으며, 뒷면은 판재를 맞짜임으로 끼워 넣고 대나무못을 박은 후 국수형거멸잡이로 견고하게 잡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Compact), 모듈(Module), 표준화(Standardization) 개념의 휴대용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구조 보강과 장식성을 병용한 감잡이장식과 전면의 앞바탕 장식이 특징적이다. 통풍구 적용과 중앙에서 양분되는 개념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레저용품, 가방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3
	품목명	찬합(饌盒) (Lunch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4.5cm, 폭 12.3×12.3cm
	재료	목재(木製)-피나무, 금속(金屬)-장식
	용도	휴대용 도시락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관가에서 운영하던 숙박소인 원(院)에서는 객이 내어주는 쌀로 관리자들이 밥만 지어주기 때문에 여행자는 먹을 양식과 함께 반찬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찬합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형	외형	미닫이문판을 위로 밀어 열면 네 개의 층으로 된 서랍이 나오는, 전형적인 찬합의 구조이다. 전면 문판을 포함해 사방을 창호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통일해서 투각하고 날카로운 이중선을 구성해 간결하다. 모서리마다 원형감잡이로 장식했으며, 위에는 반달형 들쇠를 달았다. 옷칠을 해 소반의 질감을 그대로 갖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뒷판의 투각한 구멍으로 손가락을 밀어내어 서랍을 열게 되어 있으며, 똑같이 사방을 투각해 내부의 음식물에 통풍이 되게 하였다. 천판(윗면)에는 들쇠를 달아 이동에 편리하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으며, 주석 장식으로 견고하게 잡았다. 표면에 옷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름다운 조형성과 기능성, 품격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우수한 디자인이다. 휴대성, 표준화, 모듈 개념 등이 내재되어 있고, 통풍구를 겸한 투각 장식과 금속 장식이 조형적 역할을 더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레저용품, 가방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4
	품목명	나무찬합(木製饌盒) (Wooden Picnic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9.5cm, 폭 20×14.5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휴대용 도시락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3/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미-선/색/형>(1994/지식산업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찬합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술병, 물병 또는 술그릇과 안주 등을 포개어 간수하거나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용기이다. 3단에서 5단 까지 서랍을 층층이 설치하여 음식을 넣고, 위에는 들쇠를 달아 띠를 걸어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조형	외형	왼쪽의 것은 빗집이나 상자의 족통과 같은 하단(받침대)에 손잡이를 달고 목판을 얹었다. 고춧잎거털장식으로 장식하였으며, 양 측면에는 초문(草文)이 투각되어 있다. 오른쪽은 미달이문판을 위로 밀어 열면 네 개의 층으로 된 서랍이 나오는, 전형적인 찬합의 구조이다. 사방에 세로로 긴 타원형 두 개씩을 투각하고, 위에는 반달형 들쇠를 달았다. 옷칠을 해 소반의 질감을 그대로 갖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왼쪽의 손잡이 측면에 투각된 판재는 목판들을 안전하게 지탱하면서도 장식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오른쪽의 것은 뒷판의 투각한 구멍으로 손가락을 밀어내어 서랍을 열게 되어 있으며, 똑같이 사방을 투각해 내부의 음식물에 통풍이 되게 하였다. 천판(윗면)에는 들쇠를 달아 이동에 편리하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으며, 주석 장식으로 견고하게 잡았다. 표면에 옷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름다운 조형성과 기능성, 품격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우수한 디자인이다. 휴대성, 표준화, 모듈 개념 등이 내재되어 있고, 통풍구를 겸한 투각 장식과 금속 장식이 조형적 역할을 더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레저용품, 가방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5
	품목명	찬합(饌盒) (Lunch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27.7cm, 폭 29×18.8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도시락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의 음식은 밥과 여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음식을 나르기 위한 찬합도 여러 칸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가정용에서 야외용으로 용도가 첨가된 듯하다.
	조형	외형	흑칠된 받침과 손잡이가 주된 골격을 이루고 외부에는 주칠, 내부에는 흑칠을 입힌 세 개의 목판으로 구성된 찬합이다. 빗집이나 상자의 족통과 같은 하단(받침대)에 손잡이를 달고 목판들을 얹었다. 목판은 하단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낮아져 안정되어 보인다. 양 측면에는 손잡이와 연결된 골재를 중심으로 ‘亞’자문이 투각되어 있다. 골재의 짜임부분에 장식된 세발장식과 귀장식이 시각적으로 단정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손잡이 측면 상단의 구멍에 뚜껑을 고정시키고, 또 각 층의 바닥에 굽을 두어 서로를 물리고 있어서 빠지지 않는다. 손잡이 측면에 투각된 판재는 목판들을 안전하게 지탱하면서도 장식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장식은 견고한 보완 역할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으며, 주석 장식으로 견고하게 잡았다. 표면에 흑칠과 주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면서도 품위 있는 조형미와 완벽한 구조 및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단계별로 크기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레저용품, 가방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6
	품목명	주합(酒盒) (Liquor Barrel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26.7cm, 폭 20.3×11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술병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는 보행으로 긴 여행을 떠날 때 물병, 술병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관습이 있어 이에 맞게 많은 용기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조형	외형	모양은 나무 상자로 되어, 양쪽에 낫쇠고리가 있어 끈을 꿰었고, 미단이 뚜껑이 위에 있으며, 각 모서리에는 곡수거털감잡이가 촘촘하게 감싸고 있다. 통 속에 넣어져 있는 두 개의 보온병은 밑에 팔괘(八卦) 모양으로 투공해서 무늬를 이루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그릇과 술안주를 담아서 들고 다니게 된 찬합으로, 양쪽에 낫쇠고리가 있어 끈을 꿰어 매고 다니게 되어 있다. 뚜껑이 위에 있어서 옆으로 밀어 열게 되어 있으며, 거털감잡이가 각 모서리를 보강하고 있다. 통 속에는 보온병 두 개를 넣도록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만들었으며, 주석 장식으로 견고하게 잡았다. 통 속의 보온병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극도의 간결미를 지니고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질서 있게 적용된 감잡이 장식이 구조 보강과 은은한 장식 역할을 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6-7
	품목명	휴대용 도시락 (Lunch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20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0.7cm
	재료	금속(金屬)-놋쇠,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도시락과 물병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는 보행으로 긴 여행을 떠날 때 물병, 술병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관습이 있어 이에 맞게 많은 용기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조형	외형	왼쪽의 찬합은 원형 통합으로 5단이며, 물병은 사각 통형 병이다. 가운데에 구분틀이 있는 얇은 놋쇠판의 틀에 끼워 넣게 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물병과 찬합이 함께 부착된 휴대용 도시락으로, 끼워 넣는 틀은 손잡이 역할까지 한다. 양쪽에 젓가락을 끼우기 위한 대롱을 아래위로 부착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찬합과 틀은 얇은 놋쇠로 만들어졌으며, 물병은 칠기제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두 용도가 조합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재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일체의 장식을 배제한 꾸밈없는 솔직한 디자인(Naked Design)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6-8
	품목명	주합(酒盒) (Liquor Barrel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17.5cm
	재료	금속(金屬)-놋쇠
	용도	휴대용 술병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3/국립민속박물관),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에는 보행으로 긴 여행을 떠날 때 물병, 술병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관습이 있어 이에 맞게 많은 용기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조형	외형	원형 통합으로 3단, 2단이며 그 안에 크기가 다른 3개의 잔을 포개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운데에 구분틀이 있는 얇은 놋쇠판의 틀에 끼워 넣게 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물병과 찬합이 함께 부착된 휴대용 주합으로, 끼워 넣는 틀은 손잡이 역할까지 한다. 잔까지 곁들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얇은 놋쇠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Compact), 모듈(Module)화 개념이 적용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끼워 넣는 틀과 손잡이 역할이 공용된 합리적인 구조이다. 조형적으로도 군더더기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레저용품, 생활용품,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D6-9
	품목명	찬합(饌盒) (Lunch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근대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23.5cm, 지름 11.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휴대용 술병 및 반찬통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 석	제품 배경		찬합에는 반찬을 넣어 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반찬과 술병을 함께 갖고 다니게 만든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찬합들은 20세기초에 성행하던 기법으로, 목재를 회전시켜 깎아내는 같이방이 기계식으로 발전되어 빠른 회전 속도에 의해 정교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세기 중반기에는 대형의 찬합이 성행했다.
	조형	외형	이 찬합은 하단에 깊은 찬합이 있고 그 위에 긴 술병을 얹은 후 탁잔의 받침 부분에 구멍을 뚫어 병의 목 부분에 끼운 후 잔을 얹어놓고 다시 뚜껑을 덮도록 되어 있다. 잔에는 표주박과 같이 작은 고리가 달려 있다. 외부는 대나무 마디형으로 연속적인 홈이 파여 있어 장식효과가 높으며, 세 개의 층으로 분리되는 다목적 용도임에도 매우 간결하게 느껴진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하단에 안주를 넣는 깊은 찬합이 있고 그 위가 술병이며, 잔과 잔 받침,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목적 용도이다. 잔을 얹어놓는 모양은 자주 보이나 잔의 받침은 격식을 갖추는 것으로 혼치 않는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를 회전시켜 깎아내는 같이방이 기계식으로 발전되어 빠른 회전 속도에 의해 정교하고 손쉽게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살린 간결한 패턴의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다목적 기능이 심플한 하나의 형태 내에서 잘 해결되어 있다. 잔에 고리가 달린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가 보인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6-10
	품목명	구절판찬합(九折坂饌盒) (Nine-Sectioned Tray)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높이 8cm, 지름 31.5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휴대용 구절판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한국미술전집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구절판은 아홉으로 나누어진 그릇을 뜻하는데, 그릇 이름을 따서 음식도 구절판이라 부르며, 음력 유월 보름 유두절이 오면 때음식으로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만들었다. 구절판 음식은 궁중식일 때는 중앙에 밀전병을 담고 연한 살코기, 미나리, 양, 달걀, 숙주, 무채, 표고, 천엽 등을 양념해 볶은 것과 달걀을 부쳐서 채킨 것을 가장자리에 돌려 담는다. 또한 민간식은 찹쌀가루나 밀가루 전병을 만들고, 미나리강회, 썩갓, 홍당무, 생채, 양배추채, 육회, 달걀쌈, 어회, 순무채 등에서 색을 맞추어 여덟 가지를 담는다. 마른 것을 담을 때는 마른안주로서 갖가지 육포와 어포, 마른 새우 등에서 여덟 가지를 담고 중앙에는 보통 생뎀을 놓는다.
	조형	외형	구절판의 통례에 따라 외형은 8각으로 하고, 밑쪽 중앙부에 작은 8각 그릇을 중심으로 사다리꼴의 작은 그릇 8개를 방사선으로 둘러 배치했다. 내부에는 주칠, 외부에는 흑칠을 해 색의 조화를 가져오도록 했으며, 국수거밀감잡이장식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가정용이기보다는 야외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구절판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구색에 맞추어 담은 찬합의 일종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판으로 백골(白骨)을 짠 후에 내부에는 주칠, 외부에는 흑칠을 하였다. 겉 그릇의 짜임새는 순수한 연기로 붙였지만 그 먼 연결부에 은축 이음을 하고 다시 그 모서리마다 주석장식의 국수거밀감잡이를 둘씩 대어 한층 견고하게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정선된 조형의 현대적인 디자인이며, 모듈화 개념이 적용된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휴대용으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식이 사용되었고, 이는 또한 조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6-11
	품목명	백자청화화문합(白磁靑畵花紋盒) (Covered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9cm
	재료	자기(磁器)-백자
	용도	휴대용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일본 교토 고려풀관(Koryo Museum)
	자료출처	일본 속의 한국 문화재 http://www.ccnews.co.kr/remains/kyoto/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그릇을 층층이 쌓은 것은 목재 찬합과 같은 형식이다. 목재가 대부분 사각형인 것에 반해, 그릇의 원자재인 자기로는 이렇게 식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둥근 형태의 찬합들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는 놋쇠, 스테인레스로 스틸로도 흔하게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종종 볼 수 있는 찬합의 기본 형태이다.
	조형	외형	2단의 원통형 그릇을 포개 놓고, 그 위에 반구형(半球形)의 뚜껑을 덮었다. 그릇 표면 전체에 푸른 꽃무늬를 화려하게 그려 넣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밥이나 반찬을 따로 담아 옮길 수 있는 찬합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순도 높은 순백의 기면(器面) 위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雜物)의 함유가 없는 순도 높은 장식계(長石界) 유약을 그 위에 씌워 번조한 것이 청화백자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와 적용된 패턴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디자인이다. 목재와는 달리 자기의 특성을 잘 살린 제품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그릇류, 비주얼 디자인, 텍스타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12
	품목명	버들 도시락 (Lunch Box)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19cm
	재료	목재(木製)-버드나무
	용도	도시락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출처	<월간 매종>(1996. 8./가야미디어)

분석	제품 배경		옛 사람들은 버들가지로 키나 고리썩, 둥고리, 도시락 따위의 유기(柳器)를 엮어 짜는 사람들을 ‘고리 백정’이라고 했으며, 이는 천민 중의 천민으로 조선말까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아 마을 사람들과 섞여 살지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유기는 일반인들은 걸지 않았으며, 백정들만이 평생 되풀이하였으므로 그 숨겨 또한 무척 세련되었다. 일반인들이 엮은 둥구미나 땡땡이 바구니 따위보다 유기가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때문이다. 형태도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고리 백정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생산했기 때문이다.
	조형	외형	타원형으로 흡사 큰 누에 같은 형상이며, 버들가지의 잔무늬와 소나무로 두른 넓은 테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버들도시락은 잘 걸었을 때는 박 속처럼 깨끗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산일을 가거나 먼길을 갈 때 밥을 담아 지니고 다닌 도시락으로, 버들 자체에 그윽한 향기가 있어 밥을 담아 놓으면 여느 밥과 달리 독특한 향취가 배었다. 이것은 가볍고, 깨질 위험도 없어 20세기초까지 서민들의 친근한 필수품이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껍질 벗긴 버들로 내부를 짜고, 소나무 속껍질로 테를 둘렀다. 버들은 습한 곳이나 개울가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버들 중에서도 유기(柳器)를 결는 버들은 그 해에 난 새 가지로, 적당한 크기로 자라면 잘라서 껍질을 벗겨 말려 두고 만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는 재료의 특성을 살린,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구조를 이루는 표면 재질의 변화가 훌륭한 조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후대에 적합한 무리 없는 형태 또한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그릇류, 가방류,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13
	품목명	버들 도시락과 동고리 (Lunch Boxes)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경상도 지방
	크기	
	재료	목재(木製)-버드나무
	용도	도시락 및 동고리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 박물관
	자료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1995/현암사), <월간 매종>(1996. 8./가야미디어)

분석	제품 배경		옛 사람들은 버들가지로 키나 고리짚, 동고리, 도시락 따위의 유기(柳器)를 엮어 짜는 사람들을 ‘고리 백정’이라고 했으며, 이는 천민 중의 천민으로 조선말까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아 마을 사람들과 섞여 살지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유기는 일반인들은 걸지 않았으며, 백정들만이 평생 되풀이하였으므로 그 숨겨 또한 무척 세련되었다. 일반인들이 엮은 등구미나 땡땡이 바구니 따위보다 유기(柳器)가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때문이다. 형태도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고리 백정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생산했기 때문이다.
	조형	외형	버들가지의 잔무늬와 소나무로 두른 넓은 테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버드나무로 결은 것들은 갓 걸었을 때는 박 속처럼 깨끗하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산일을 가거나 먼길을 갈 때 밥을 담아 지니고 다닌 도시락으로, 버들 자체에 그윽한 향기가 있어 밥을 담아 놓으면 여느 밥과 달리 독특한 향취가 배었다. 이것은 가볍고, 깨질 위험도 없어 20세기초까지 서민들의 친근한 필수품이었다. 큰 것은 동고리로, 옷가지 등을 넣어놓는 데 사용한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겹질 벗긴 버들로 내부를 짜고, 소나무 속껍질로 테를 둘렀다. 버들은 습한 곳이나 개울가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버들 중에서도 유기(柳器)를 결는 버들은 그 해에 난 새 가지로, 적당한 크기로 자라면 잘라서 겹질을 벗겨 말려 두고 만든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는 재료의 특성을 살린,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구조를 이루는 표면 재질의 변화가 훌륭한 조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휴대에 적합한 무리 없는 형태 또한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용기류, 그릇류, 가방류,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6-14
	품목명	짚 도시락 (Lunch Bag)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찬합, 주합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15cm, 길이 23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도시락 가방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식생활과 관련하여 우리 선조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짚을 이용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식생활에 쓰이는 짚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음식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메주틀, 콩나물시루 등이며, 둘째 음식의 보관, 저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계란꾸러미, 독뚜껑, 도시락 등이 그것이고, 셋째 음식문화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장독금줄, 수저통 등이 그것이다.
	조형	외형	가방의 형태로, 뒷면에서 연결돼 올라온 위 뚜껑이 덮여지며 옆면에서 올라온 덮개를 덮고 아래의 고리로 연결하여 잠그게 되어 있다. 양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산일을 가거나 먼길을 갈 때 밥을 담아 지니고 다닌 도시락으로, 안에 넣는 그릇을 보호하면서 가방의 역할을 하며, 가볍고 다루기 편하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짚을 엮어 만들었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현대적인 패션을 느낄 수 있다. 내용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성을 충족하는 재료의 선정과 구조가 합리적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7-1
	품목명	청동초두(靑銅鑣斗) (Tripo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시 황오동 16호분
	크기	높이 11cm, 전체 길이 38.5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온기(溫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국립경주박물관), <고분 유물>(1992/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신라의 각 고분에서 드러난 초두의 양식은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처럼 실용성 위주의 초두가 있는가 하면, 양머리 장식의 귀패, 봉황형 뚜껍 꼭지, 용머리 손잡이, 두 번 꺾인 긴 손잡이, 갖은 문양의 양각 장식 등 화려하게 제작한 것들도 있다.
	조형	외형	뚜껍은 없으며, 길고 곧은 손잡이가 달려 있고, 세 개의 말굽형 다리도 비교적 긴 편이다. 입술은 약간 외반(外反)하였으며 한쪽 끝에 반쪽이 잘린 대롱 모양의 주구(注口)가 달려 있다. 비교적 장식이 없고 기능적인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술, 약 등을 데우는 데 쓰인 온기(溫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용상 편의를 위해 길게 된 손잡이, 열전도 등에도 대비되어 있는 중간의 꺾인 부분은 구조상 보강 역할을 하고 있다. 주구와 손잡이가 배치되어 있는 각도가 합리적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7-2
	품목명	청동초두(靑銅鑣斗) (Tripo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신라
	출토지	
	크기	높이 11.5cm, 몸지름 17.3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온기(溫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8>(1974/동화출판공사), <고분 유물>(1992/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신라의 각 고분에서 드러난 초두의 양식은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처럼 간략한 형식의 초두가 있는가 하면, 양머리 장식의 귀뚜, 봉황형 뚜껍 꼭지, 용머리 손잡이, 두 번 꺾인 긴 손잡이, 갖은 문양의 양각 장식 등 화려하게 제작한 것들도 있다.
	조형	외형	구형(球形)에 가까운 몸에 짧은 다리가 3개 달리고 뚜껍이 있다. 한쪽에는 짧은 귀뚜가 달리고 옆에는 긴 손잡이가 달려 있다. 표면에는 장식 무늬가 거의 없고 다만 손잡이 끝과 다리에 약간의 장식이 있을 뿐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술, 약 등을 데우는 데 쓰인 온기(溫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용상 편의를 위해 길게 된 손잡이, 열전도 등에도 대비되어 있는 중간의 꺾인 부분은 구조상 보강 역할을 하고 있다. 주구와 손잡이가 배치되어 있는 각도가 합리적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7-3
	품목명	청동초두(靑銅鑣斗) (Tripod)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백제
	출토지	
	크기	높이 14cm, 길이 27.3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온기(溫器)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23>(1981/중앙일보사), <한국미술전집8>(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백제시대의 초두로서는 희귀한 예에 속하는 것으로, 백제의 특색을 충분히 발휘한 수작 중의 하나에 속한다.
	조형	외형	몸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입술은 밖으로 나팔형과 같이 비스듬히 벌어져 좁은 전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입술 밑으로 반원 곡선 모양으로 한 단의 굴곡부를 형성한 다음 동체(胴體)를 연결하였고, 동체 표면에는 용기된 횡선대를 돌렸으며 밑 부분은 완만하게 둥글려서 평저(平底) 바닥을 이루었다. 또한 동체에는 밑이 활짝 벌어진 말발굽 모양의 다리 3개를 부착시켜 안정되고 경쾌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한쪽 다리 위로는 S자형으로 곡선을 이룬 짧은 손잡이가 달리고 손잡이 끝을 용머리로 장식하여 마치 초두의 동체가 용의 몸으로 느껴지게 하였고, 다리 역시 용의 다리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표면의 녹색 또한 은근한 맛을 풍기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술, 약 등을 데우는 데 쓰인 온기(溫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합금(靑銅合金)으로 주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제작 수법은 매우 세련되고 율동적이며 부드럽고 은근한 맛을 풍기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조형미가 뛰어난 디자인이다. 용머리와 말발굽의 형상을 세련되게 단순화하여 적용하였다. 손잡이의 장식은 기능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주방기구, 그릇류, 가구, 환경 조형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7-4
	품목명	풍로(風爐) (Furnace)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통일신라 (8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시 안압지
	크기	높이 19.5cm, 바닥지름 30.2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풍로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국립경주박물관), <한국의 미5>(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경주의 안압지에서는 완형을 포함하여 복원이 가능한 통일신라 시대의 토기 1,600여 점과 신라 청자완 조각, 당 백자와 청자완 조각 등 다량의 도자기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단일 유적에서 이처럼 방대한 양의 토제품이 출토된 것은 처음이다. 고분 출토품과 달리 안압지 출토품들은 실생활 유적에서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토기 편년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풍로는 실제로 사용한 것이므로 안쪽이나 천장부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 같은 모양의 토제품은 안압지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조형	외형	발(鉢)을 거꾸로 한 것 같은 모양이며, 몸통 한쪽에 아치형 아궁이를 내고 그 반대편에 짧은 연통을 수평으로 붙였다. 윗면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원형 구멍을 내어 동시에 두 개의 그릇을 올려놓고 요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몸통 중간에 두 줄의 굽은 점선을 돌리고, 그 중간 공간은 작은 점선으로 채웠다. 어깨 바로 아래에는 날아가는 오리 문양(飛鴨文)을 도장으로 찍어 장식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그릇을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로 불을 때며 요리하는 풍로로, 화구에는 바깥 가장자리에 진흙띠를 덧붙여 열의 손실을 막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로 만들어졌다. 오리 문양과 점선 문양은 도장으로 일정한 무늬를 찍어내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솔직한 디자인으로, 무슨 용도인가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하단부가 외곽으로 곡이 쳐 있어 안정감과 내구성 이 고려되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7-5
	품목명	분청사기상감 포류문 육각향로(粉靑沙器象嵌 蒲柳文 六角香爐) (Incense Burn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조선 (15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0.6cm, 입지름 25.6cm
	재료	자기(磁器)-분청
	용도	향로
	지정사항	
	소장처	호암미술관
	자료출처	<호암미술관명품도록(CD)>(삼성영상사업단), <한국의 미23>(1981/중앙일보사)

분석	제품 배경		이 같은 대형 향로는 고려 후기의 상감청자에서 나타나, 조선시대 전기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유례는 드문 편이다.
	조형	외형	넓게 벌어진 전이 있고 역삼각형으로 납작하게 빚은 네 개의 다리가 달린 육각향로이다. 구연의 넓은 전 가장자리에는 폭이 좁은 번개 문양대를 돌리고, 내부에 폭이 넓은 당초 문양대를 화려하게 백상감하였다. 몸체 바깥 면에는 버드나무, 갈대, 연꽃 등을 흑백상감으로 간략히 배치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각각 바탕 흙으로 빚은 수직의 거치문대(鉅齒文帶)를 만들어 붙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향로(香爐)는 사찰에서 불전(佛前)에 향을 피우던 ‘爐’ 즉 그릇을 말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탕 흙에는 미세한 사립(沙粒)이 섞여 거친 편이며, 광택이 있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굽은 표면을 다듬지 않아 다소 거칠며, 검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상징성이 극대화된, 평범하지 않은 긴장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좁아져 내려오는 몸체 라인에 맞춘 다리 부분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건축,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7-6
	품목명	백동화로(白銅火爐) (Brazi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23cm, 가로 24.5cm, 세로 21.5cm
	재료	금속(金屬)-백동
	용도	화로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p>화로는 상하 신분이나 빈부를 가리지 않고 두루 썼던 겨울철 살림살이이다. 난방과 불씨 보존, 그리고 차를 달이는 것 등 쓰임에 따라 나눌 수 있으나 대개는 여러 구실을 함께 맡았다. 때로는 여행할 때 가마 안에서 쓰게끔 작은 화로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백동화로에는 명문 양반가의 사랑방을 장식했던 품위 있는 모습이 그득하다.</p>
	조형	외형	<p>하얀 바탕에 점선을 찍어서 좋은 뜻의 글자와 더불어 꽃과 나무를 새겼고, 유선형과 각진 선을 겹겹이 배합해서 한껏 멋을 내었다. 둥근 화로의 너른 전과는 달리 좁은 전을 보완하여 부드럽게 올라간 윗부분의 손잡이 모양은 각진 선의 딱딱함을 줄여 준다.</p>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p>겨울철 온돌방 안에서 난로처럼 사용했던 난방용구로, 부엌에서 불을 때고 남은 불씨와 재를 담아 사용했다.</p>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p>화로는 오지, 사기, 놋쇠, 곱돌 따위로 만들며, 이것은 백동으로 만들어졌다.</p>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p>현대와 고전적 조형미가 잘 조화된 디자인으로, 기능적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손잡이의 각도나 형상이 사용자를 배려하고 있다.</p>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 반	분류번호	D7-7
	품목명	신선로(神仙爐) (Cook-pot with a Tube for Burning Charcoal in the Cent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가로 36cm, 세로 14.5cm, 높이 23.7cm
	재료	금속(金屬)-놋쇠, 목재(木製)
	용도	신선로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분 석	제품 배경		대개의 신선로는 상 위에 놓고 열구자(悅口子)탕을 끓이는, 놋이나 구리, 은 같은 것으로 만든 대접 모양의 그릇인데, 이것은 장방형의 상자 모양으로, 혼하지 않은 제품이다.
	조형	외형	장방형의 상자 모양으로, 뚜껑도 역시 장방형이며 중앙에 놋쇠로 된 둥근 연통이 있다. 상자의 양옆구리의 고리를 잇는 큰 들쇠가 있으며, 앞, 뒷면에 각기 2개씩 통풍 구멍이 풍혈로 뚫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가운데 숯불을 담는 통이 있고, 통 둘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끓이게 되어 있는 구조는 신선로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뚜껑을 닫으면 상자의 양옆구리의 고리를 잇는 큰 들쇠가 있어 운반하기 쉽게 되어 있고 앞, 뒷면에 각기 2개씩 통풍 구멍이 뚫려 있다. 아마도 야외용 신선로가 아닌가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와 놋쇠를 이용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독특한 개념의 차별화된 신선로 디자인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며, 콤팩트(Compact)의 개념과 운반성이 고려되어 있다. 기능과 구조 보강을 위하여 적절한 재료가 혼용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레저용품,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7-8
	품목명	배롱(焙籠) (Tool to Dry Wet Clothes on it)
	분류	기(器) 및 주방용품 / 화기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높이 63.8cm, 지름 50.7cm
	재료	지(紙),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신선로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목공예명품도록>(1990/고려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배로(焙爐)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화로 위에 덮어 썬위놓고 젖은 옷가지를 말리는 도구이다.
	조형	외형	원통형으로, 어깨 부분에서 각을 주면서 꺾여 들어갔으며 윗면의 가운데는 뚫려 있다. 옆구리에 화덕 같은 반달형의 창을 내었고 밑에는 작은 다리를 붙였다. 겉면에는 사슴, 학, 구름, 나비, 새, 불로초 등을 색종이로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화로 위에 덮어 썬위놓고 그 위에 기저귀나 젖은 옷 같은 것을 얹어 말리는 도구이다. 가볍게 만들어 쉽게 들어 옮길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오리를 휘어서 만들어 바깥쪽으로 종이를 바르고, 색종이를 오려 만든 문양을 빙 둘러 붙여 장식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전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기능의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부터 최종 구조까지의 컨셉트가 탁월하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에 아름다운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어 명품의 질(Quality)을 느끼게 한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옥내외 구조물,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8-1
	품목명	이남박 (Rice-washing Bowl)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지름 37cm, 높이 15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쌀 씻는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기계화되지 않은 재래의 방법으로 찜어놓은 쌀에는 겨뿐 아니라 북더기와 돌 부스러기가 섞여들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뒤주에서 쌀바가지로 퍼낸 쌀은 밥을 안치기 전에 잘 씻어야 했다. 이남박은 쌀을 씻어 일 때 쓰는 효과 높은 주방기구였다.
	조형	외형	반구형(半球形)의 바가지 형태로, 함지박의 일종으로서 안쪽에 여러 줄로 층층이 골을 내었다. 색상은 홍갈색을 띠고 있다. 건강미를 주는 제품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쌀을 씻어 일 때 쓰는 그릇으로, 안쪽에 가늘게 패어 있는 골들은 쌀을 일 때마다 마찰을 일으켜서 곁에 묻은 이물질을 쉽게 벗겨지게 하였으며, 조리로 쌀을 건져 올린 다음 물을 출렁이면 보다 가벼운 쌀 무리는 돌 부스러기와 층을 달리해서 같은 골에 모이게 되고, 이 쌀을 한데 모으고 나머지 돌 부스러기는 물과 함께 내버리면 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물에 비교적 강한 잣나무나 참죽나무 등 단단한 재질로 만드는 이남박은 주사의 붉은 칠이나 황토흙을 칠하여 바짝 말린 다음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고 겉면에 들기름을 얇게 먹여서 홍갈색을 띠도록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요소의 내면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내수성이 강한 재료의 선정, 도구로서의 장식성 배제 등이 특징적이다.	

활용 가능성	주방용구, 그릇,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8-2
	품목명	함지박 (Vessel)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근대 (20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2cm, 폭 60.5×40.5cm
	재료	목재(木製)-엄나무
	용도	다용도 함지
	지정사항	
	소장처	박옥경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이런 함지는 전(입술)이 있다 해서 전함지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 부엌에서는 요긴하게 다용도로 쓰였던 큰 그릇으로, 커다란 통나무를 까귀와 자귀로 깎고 파내어 만든 것들이 흔했다.
	조형	외형	가운데는 둥글게 파여 있으며, 양쪽에는 넓은 전(입술)이 있다. 손잡이인 전 부분은 안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는 빙 둘러 둥글었던 것을 대담하게 양 측면에서 잘라내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씻거나 그 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함지이다. 손잡이도 되고 일을 하면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도록 넓은 전(입술)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단단한 엄나무를 같이방으로 회전시켜 전(입술)을 살려 깎은 후 양 측면을 잘라내었다. 경기도 일원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용자에 대한 인간공학적 배려와 함께, 한 가지 주기능 외에 부가기능이 잘 병행되도록 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더불어 간결하고 현대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 반	분류번호	D8-3
	품목명	함지 (Vessel)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근대 (19~20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6.2cm, 폭 85×60.7cm
	재료	목재(木製)-피나무
	용도	다용도 함지
	지정사항	
	소장처	박옥경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 석	제품 배경		옛날 부엌에서는 요긴하게 다용도로 쓰였던 큰 그릇으로, 커다란 통나무를 까귀와 자귀로 깎고 파내어 만든 것들이 흔했다.
	조형	외형	구연부에 넓은 전(입술)이 있으며, 양 측면의 등근 부분을 넓게 직선으로 깎아낸 모양이 마치 주름진 것처럼 보여 주름함지라 부르기도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씻거나 그 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함지이다. 넓은 전(입술)은 들어 옮기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넓은 목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강원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함지이며, 통나무를 까귀와 자귀로 깎고 파내어 만들었다. 자재는 피나무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용자에 대한 인간공학적 배려와 함께, 한 가지 주기능 외에 부가기능이 잘 병행되도록 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더불어 간결하고 현대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8-4
	품목명	안반과 떡메 (Pounding Board for Making Rice Cakes)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5cm, 폭 155×57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떡을 치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명절이나 잔칫날 새하얀 찹쌀을 그득히 찌어 내어 안반에 부어 놓고 억센 장경 돌이 떡메를 번갈아 계속해서 내려치면 쫘득쫘득한 인절미가 된다. 나무 외에 널찍한 바위를 안반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조형	외형	안반은 두껍고 넓은 나무판으로, 반쪽에는 움푹한 곳을 만들었으며, 다리를 붙였다. 떡메는 굵고 짧은 나무토막의 중간에 긴 자루가 박혀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반은 떡을 칠 때 받침으로 쓰는 나무판으로, 반쪽에는 떡살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움푹한 곳을 만들었다. 떡메는 내리치기 위한 방망이로, 자루의 적당한 부분을 잡아야 몸의 중심을 유지하며 힘차게 내려칠 수 있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안반은 매우 큰 통나무를 세로로 잘라내어 만들었으며, 떡메는 굵고 짧은 나무토막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 긴 자루를 박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용도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려된 형태를 가진 솔직한 디자인이다. 비대칭적이고 덩덤한 조형미가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주방 시스템, 옥외 시설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8-5
	품목명	다식판(茶食板) (Wooden Cake Patterns)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가로 23cm, 세로 39cm
	재료	목재(木製)-가래나무
	용도	다식 모양 판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다식(茶食)은 녹말, 콩, 송화, 승김초, 황밤, 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 따위에 반죽해 다식판에 눌러 메운 후 박아내는, 명절용 과자의 일종이다. 다식판에는 갖가지 꽃무늬와 물고기, 수복(壽福), 부귀(富貴)의 문자 등 여러 가지 무늬들을 음각해 다식에 양각되도록 했는데, 이처럼 기호음식 한 조각에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기원을 담았던 것이다.
	조형	외형	장방형의 널조각에 각종 무늬를 음각했는데, 이 다식판은 꽃무늬와 더불어 독특하게도 물고기와 토끼, 그리고 석류 열매가 새겨졌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다식판은 갖가지 색색의 가루를 반죽해 눌러 메운 후 다식을 박아내는 일종의 틀이다. 무늬를 음각해 다식에는 양각되도록 하였는데, 다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양각해 재료의 색감과 함께 맛을 돋우었다. 위아래 두 쪽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한 쪽만 만들어서 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개 다식판은 장방형의 가래나무 널조각을 깎아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캐릭터적인 요소가 독특하다. 자연스러움과 위트가 보이는 유머러스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캐릭터 상품, 패션 소품, 액세서리,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8-6
	품목명	개수통 (Dishpan)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가로 134.5cm, 세로 34cm, 높이 73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설거지 통
	지정사항	
	소장처	광주 정득채 소장
	자료출처	<개관10주년기념 기증자료 전시회>(1997/광주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광주 지방에서 만들어진 개수통으로, 다리 한쪽은 결실되고 없다.
	조형	외형	통나무의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윗면을 반듯하게 하고 두 개의 반구형(半球形) 홈을 뚫다. 다리도 역시 자연적인 나무재료 형상을 그대로 살렸는데, Y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형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음식 그릇들을 씻는 통으로, 홈 바닥에 구멍이 없어 작업이 끝난 후 물을 퍼내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통나무를 깎아서 두 개의 홈을 파내고, 다리를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 재료를 조화롭게 적용하여 기능성을 추구한 우수한 디자인이다.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두 원과 자연스러운 외관 라인, 다리의 형상 등이 훌륭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첨단 유럽 제품인 모벌 키친 시스템의 원리와 같다.	

활용 가능성	부엌 가구 및 주방 시스템, 가구류, 기타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8-7
	품목명	수저통 (Spoon Bag)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20.5cm, 입지름 14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수저통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식생활과 관련하여 우리 선조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짚을 이용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식생활에 쓰이는 짚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음식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메주틀, 콩나물시루 등이며, 둘째 음식의 보관, 저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계란꾸러미, 독뚜껑, 도시락 등이 그것이고, 셋째 음식문화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장독금줄, 수저통 등이 그것이다.
	조형	외형	원통형 수저통으로 위에는 끈을 매었다. 바닥은 약간 벌어지고 입구에서 조금 오므라든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부엌의 벽에 매달아 놓고 수저를 담아 놓는 통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짚으로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일 기능의 솔직한 구조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매달아 놓았을 때 조형적으로 위트가 느껴진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패션 소품,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D8-8
	품목명	소쿠리 (Bamboo Basket)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소쿠리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부엌에서 들에서, 또 밭에서 요긴했던 것이 소쿠리이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각종 음식물의 재료를 담거나 채소를 씻어 물을 뺄 때 요긴했고, 들에서는 나물 캐는 바구니로, 밭에서는 씨앗을 담아 뿌리거나 고추 등 경작물을 거둬들이는 바구니로,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었다.
	조형	외형	밑이 타원형으로 둥근 소쿠리이다. 한쪽을 각이 약간 저 깊게 하고 다른 한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부엌이나 들일, 밭일 할 때 채소류나 곡식을 담은 다목적 용도로 쓰인 소쿠리이다. 타원형으로 옆구리에 끼기 좋게 하였고, 한쪽이 깊고 다른 한쪽이 얇아 곡식을 털거나 하는 데 용이하게 하였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대나무 가지로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가장 기능적이고 인간공학적인 디자인 중 하나이다. 중량이 가벼운 재료의 적용이나 제작 기법 등이 기능성을 배가한다. 조형적으로도 가감할 수 없는 완성미를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8-9
	품목명	무쇠약연(鐵製藥礮) (Iron Mortar)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68.2cm
	재료	금속(金屬)-철
	용도	약재 가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연세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연장>(1984/연세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한약방에서 쓰던 도구로, 약재를 가는 데 쓰였다.
	조형	외형	받침 그릇은 날렵한 나룻배 형상이며, 밑에는 두 개의 다리로 받쳤다. 공이는 납작한 원형인데 가운데 손잡이를 끼울 수 있게 구멍을 뚫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약재를 가는 도구이다. 공이의 가운데 구멍에 나무 막대를 끼우고 두 손으로 잡고 앞뒤로 등글려 약재를 갈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무쇠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구조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솔직한 구조에서 오는 간결하고 현대적인 조형미가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D8-10
	품목명	약틀(藥壓攪機) (Medicine Sapper)
	분류	기(器) 및 주방용구 / 주방용구
	시대	조선 (18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9cm, 길이 38cm
	재료	목재(木製)-참나무
	용도	약 짜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한독의약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이것은 새 모양의 약틀로, 새는 액운을 쉽게 찾아내어 내쫓음으로 병마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 보통 가정에서는 약보자기 좌우에 약막대기나 숟가락으로 비틀어 힘들여 약을 짚으나, 약을 늘 다려야 했던 한약방이나 식솔 많은 집에서는 이런 약틀을 만들어서 수월하게 이용하였다.
	조형	외형	위판과 아래 받침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박한 모습이지만 단순 추상화시킨 새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위판은 지렛대 원리의 누름판이 되고 아래판은 약을 담아 찧 수 있게 파여져 있다. 약탕기에서 끓인 약재를 삼형겉으로 만든 약보자기에 싸서 움푹 들어간 곳에 올려놓고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구멍으로 약물이 졸졸 흘러내려 약사발로 들어갔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참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구조가 적용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정교하지 않은 디테일로 보아 실용성이 강조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	------------------------------

E. 도구

1. 농기구
2. 망태기, 다래끼
3. 축산용구
4. 목공연장

일반	분류번호	E1-1
	품목명	따비 (Spade)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철
	용도	밭가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기구>(1990/대원사),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농사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하는 일은 씨앗을 뿌릴 땅을 가는 것이다. 따비는 소에 매어 논밭을 가는 쟁기를 쓸 수 없는 비탈 밭이나 작은 밭을, 사람이 발판을 밟아 땅을 일구는 데 쓰는 연장이다. 수렵채취 시대의 연장인 뒤지개가 발달한 것으로, 뒤에 성예를 달아 쟁기로 발달하였다. 따비는 날의 모양에 따라 말굽쇠날 따비, 주걱날 따비, 송곳날 따비, 코끼리 이빨형 따비로 불린다. 지금도 일부 도서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조형	외형	기다란 손잡이 부분과 날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손으로 잡는 손잡이 부분과 쇠날을 끼우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나무못을 박아 끼워 연결하고, 발판으로 고정시켰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자루를 손으로 잡고 발판에 한쪽 발을 대고 눌러서 밭을 가는 도구이다. 발판은 밭을 올려놓는 기능과 손잡이와 날 부분을 연결해 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만들고 끝에는 쇠날을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철저하게 기능 위주의 디자인이다. 완만하게 굽은 전체 곡선은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하는 각 파트가 합리적인 구조로 조합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산업용기기, 도구, 공구,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1-2
	품목명	가래 (Long Handled Spade)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우 : 총길이 282cm, 날길이 70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철
	용도	흙을 파헤치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전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농사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하는 일은 씨앗을 뿌릴 땅을 가는 것이다. 같이연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소에 매는 쟁기이지만 소가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밭은 따비, 팽이, 삽, 쇠스랑 등으로 갈고, 무논이나 쉬논은 화가래나 종가래를 쓴다. 특히 가래는 밭이랑을 일구고 도랑을 치고 논둑을 쌓거나 깎을 때에 쓴다.
	조형	외형	넓직한 몸체와 자루가 하나가 되도록 깎아졌으며, 몸체 끝에 쇠날을 끼웠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가래는 흙을 파헤치는 기구로 세 사람이 공동작업을 해야 하며, 몸 윗부분의 양쪽에 줄을 매어 한 사람은 자루를 잡고 두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어 흙을 파서 던진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만들고 끝에는 쇠날을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제품 부분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합리적인 구조로 조합하였다. 기능적인 디자인이면서 조형적으로 완성미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1-3
	품목명	호미 (Weeding Hoe)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철, 목재(木製)
	용도	김매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호미는 팽이에서 파생된 소형의 농기구로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한국적 연장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도 출토되고 있어, 그 역사는 농경생활의 시작과 거의 비슷하다. 토질에 따라 날의 너비와 두께가 달라진다. 밭매기는 1년 내내 두루 쓰이고 논매기는 음력 7월 무렵에 세 벌 논매기가 끝나면 ‘호미씻이’라고 하여 호미를 씻어서 걸어 두고 농부나 일꾼이 중심이 되어 술 마시고 흥겹게 하루를 논다.
	조형	외형	목이 휘어 꼬부라져 넘어간 데에 둥글고 짧은 나무를 박아 자루로 삼는데, 두툼한 철판인 날과 손잡이인 자루, 날과 자루를 연결해 주는 스페로 구성된다. 쇠날은 앞이 뾰족하고 위는 넓적이다. 호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호미날과 자루가 넓고 길며, 남쪽일수록 날이 가늘고 자루도 짧아진다. 대개 보습형, 낫형, 세모형으로 나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종자를 심거나 논밭의 김을 매는 데에 쓰이는 중요한 농기구로, 김매고 북돋우기, 옮겨심기, 솟기, 잡초 제거 및 흙을 파서 뒤집어엎는 데 사용되었다. 밭호미와 논호미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밭호미는 앉아서 쓰는 것이지만 서서 사용하는 선호미도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쇠날에 둥근 나무 자루를 끼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용도에 따라 적합하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사례이다. 철저히 경험(Field Test)에 의한 디자인의 결과이다. 기능에 따른 형태로서 조형미도 지니고 있다.	

활용 가능성	도구, 공구, 레저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1-4
	품목명	용두레 (Water Dipper)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몸통 길이 약 200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물 푸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기구>(1990/대원사),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p>문헌에는 벼농사가 동옥저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국시대의 벽골제, 조선시대 중기의 보(沔)와 같은 관개 시설 외에 두레, 맞두레, 두레박, 용두레, 무자위, 흙통 등은 우리나라 지형과 인력에 알맞게 고안된 것으로 물을 대는 연장으로서 는 대표적인 것이다.</p>
	조형	외형	<p>몸통은 배 모양으로 길쭉하게 파져 있고, 그 가운데에 양쪽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 가는 나무를 끼우고 끈을 매어 삼각대에 매달았다.</p>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p>한 곳에 고인 물을 퍼 다른 곳으로 멀리 던져 옮기는 데에 쓰인다. 무덤이가 얇은 물을 퍼 올리는 데 쓰이는데, 두 곳의 높낮이 차가 심하면 사용할 수 없다.</p>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p>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쭉하게 파서 몸통을 만들고 끈을 꿰었다.</p>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p>구조적으로 간결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몸통의 형상은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가 배려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조형미도 우수하다.</p>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1-5
	품목명	무자위 (Water Wheel)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약 200cm, 지름 약 230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물 푸는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기구>(1990/대원사),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p>문헌에는 벼농사가 동옥저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국시대의 벽골제, 조선시대 중기의 보(洑)와 같은 관개 시설 외에 두레, 맞두레, 두레박, 용두레, 무자위, 흙통 등은 우리나라 지형과 인력에 알맞게 고안된 것으로 물을 대는 연장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다.</p>
	조형	외형	<p>전체가 소달구지 바퀴 모양으로, 한 개의 축 위에 많은 판을 나선형으로 붙였다.</p>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p>무덤이가 얇은 곳의 물을 푸는 연장이다. 일종의 수차로, 바퀴 아래 부분이 물에 잠기게 세워 놓고 사람이 바퀴 위에 올라서서 기둥에 의지해 바퀴 날개를 밟아 돌리면 물을 밀어 올린다.</p>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p>목재로 만들었으며, 한 개의 축 위에 많은 판을 나선형으로 붙였다.</p>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p>과학적이고 기능적인 장치이다. 외관의 장식이나 멋보다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와 제작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디자인이다.</p>	

활용 가능성	산업용기기, 레저용품, 스포츠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1-6
	품목명	홀태 (Thresher)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59cm, 너비 59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탈곡 기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3/국립민속박물관),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완전히 성숙한 벼이삭에서 흰쌀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탈곡(脫穀)이라 하여 벼이삭을 터는 일에서 시작하여 벼에서 껍질을 벗기는 탈각(脫殼) 작업이 있다. 거둔 곡식은 개상이나 댓돌 위에 내려치거나, 도리개로 두드리거나, 벼훅이, 홀태(그네)로 훑어서 알곡을 떨어내는 비교적 원시적인 방식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1900년대 초부터는 발로 밟아 돌리는 기계식 탈곡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조형	외형	빗처럼 촘촘히 세워 놓은 날을 기둥이 받치고 있다. 밑으로 줄을 내려 널판자를 올려놓고 밟아 넘어지는 것을 막는 모양이 그네와 같아 '그네'라고 부른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빗과 같은 날 사이에 벼나 보리 이삭을 통과시켜 알곡을 훑어내는 연장이다.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줄을 내려 발로 밟는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나무 기둥에 쇠나 대쪽의 날을 촘촘히 세웠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최소한으로 필요한 간결한 구조의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전체적으로 부품의 레이아웃에서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 발받침과 연결된 유동적인 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1-7
	품목명	매통 (Wooden Mill)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약 70cm, 지름 약 40cm
	재료	목재(木製)
	용도	방아 기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농기구>(1990/대원사), <국립전주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방아는 그 기능으로 보아 보리 이삭 등을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알곡을 내는 ‘바수기’가 있고, 걸쭉질을 벗겨 벼를 쌀로, 보리를 보리쌀로 만드는 ‘짚기’가 있으며, 현미를 백미가 되도록 한번 더 절구에서 찼어내는 ‘쓸기’가 있고, ‘갈기’는 물을 섞어 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으깨는 것을 말하며, 빵기는 가루를 내는 것이고, 치기는 떡을 치는 것을 말한다. 마찰운동을 하는 물체 사이에 곡식을 넣어 방아를 찼는 연장에는 맷돌, 매통, 연자매 등이 있다.
	조형	외형	굵은 통나무 두 짝이 서로 닿는 마구리에 홈을 파서 고춧대가 끼워지게 했으며, 위짝과 아래짝이 닿는 양쪽 면에는 울퉁불퉁하게 홈을 내었다. 위짝에는 손잡이 두 개를 끼웠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두 사람이 각각 한쪽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벼의 껍질(왕겨)을 벗겨내는 연장이다. 위짝과 아래짝이 닿는 양쪽 면에는 울퉁불퉁하게 홈을 내서 왕겨가 잘 벗겨지게 하였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통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구조적으로 간결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래 통 상단부의 경사가 과학적이다. 손잡이가 꺾여져 있는 것도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도구, 공구, 주방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1-8
	품목명	맷돌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석(石), 목재(木製)
	용도	방아 기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기구>(1990/대원사), <원터치 포토 이미지(CD)>(디자인하우스),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국립전주 박물관>(1990/국립전주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방아는 그 기능으로 보아 보리 이삭 등을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알곡을 내는 ‘바수기’가 있고, 걸쭉질을 벗겨 벼를 쌀로, 보리를 보리쌀로 만드는 ‘짚기’가 있으며, 현미를 백미가 되도록 한번 더 절구에서 짚어내는 ‘쓸기’가 있고, ‘갈기’는 물을 섞어 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으깨는 것을 말하며, 빻기는 가루를 내는 것이고, 치기는 떡을 치는 것을 말한다. 마찰운동을 하는 물체 사이에 곡식을 넣어 방아를 짚는 연장에는 맷돌, 매통, 연자매 등이 있다.
	조형	외형	위쪽은 손잡이가 끼워지고 위에 구멍이 나 있는 둥근 형태이고, 아래쪽은 가장자리로 홈이 파여 있어 넓은 받침 그릇의 역할까지 하며 옆구리에 길게 입구를 내었다. 그밖에는 둥글넓적한 두 쪽의 돌 가운데에 쇠를 박아 끼우고, 손잡이는 나무로 박은 것이 가장 흔하며, 나무로 쳃다리를 받치고, 그 밑에 함지 등을 놓는다. 맷돌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위쪽에 끼운 맷손으로 돌리면서 아가리에 곡물을 넣으면 아래쪽과의 틈으로 갈려 나온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돌로 만들고, 손잡이는 나무로 해 끼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적인 구조의 솔직한 디자인이다. 베이스의 평면 레이아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손잡이의 위치나 형상이 다양하여 인간공학적 측면의 시도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형미 또한 우수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1-9
	품목명	지게 (A-frame Carrier)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제(木製), 초제(草製)-짚
	용도	나르는 기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korea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지게는 삼한시대 이전부터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르기 용구이다. 지게는 지는 사람의 체격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며,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기 지게도 있다. 농어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열 개 정도까지 소유하기도 했다.
	조형	외형	가지가 비스듬히 위로 뻗은 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에 세장을 박아 고정시켜 A자 모양을 만든 다음 멜빵을 단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멜빵을 어깨에 매어 등에 지고 각종 짐을 나르는 지게이다. 등이 닿는 부분은 방석처럼 짚을 엮어서 무거운 짐을 지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였다. 벗어서 세워 놓을 때는 위쪽의 끝이 Y자 모양인 막대를 끼워 놓으며, 지게를 질 때는 그 막대가 지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지게 위에 얹혀지는 바소거리는 부스러기 짐을 나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모양이 적당한 나뭇가지를 잘라 다듬어 만들며, 멜빵은 짚을 엮어 달았다. 지게는 몸과 가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나 때에 따라 지켓가지를 참나무로 깎아 쫓은 것도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전통적인 운반 수단으로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독특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이다. 각 부위별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구조, 제작방법 등이 완벽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1-10
	품목명	낫꽃이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경기도 지방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낫 보관 기구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1995/현암사), <짚문화>(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아무 데나 방치해 두면 다칠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낫은 벼 베기가 끝나면 이렇게 낫꽃이에 꽂아 안전하게 보관했다. 짚은 흔하기도 한 재료이지만 밀짚이나 보릿짚처럼 뻗뻗하지 않고 부드러워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기가 쉬웠다.
	조형	외형	뭉툭한 방망이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처마 밑 손닿는 곳에 걸어두고 쓰지 않는 낫을 꽂아 두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짚을 두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고 아랫도리를 단단히 묶은 다음 까뒤집으면 뭉툭한 모양이 된다. 그것을 잘 쓰다듬어내려 모아 쥘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새끼로 묶어 내려 끝마무리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위트가 보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었다. 아이디어와 적절한 재료, 단순한 제작방법 등이 간결한 디자인을 가능케 하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1-11
	품목명	낫꽃이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경기도 지방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낫 보관 기구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1995/현암사), <짚문화>(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아무 데나 방치해 두면 다칠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낫은 벼 베기가 끝나면 이렇게 낫꽃이에 꽂아 안전하게 보관했다. 짚은 흔하기도 한 재료이지만 밀짚이나 보리짚처럼 뻗뻗하지 않고 부드러워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기가 쉬웠다.
	조형	외형	낫의 날을 둥글게 감싸고 있으며, 끈을 매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쓰지 않는 낫을 꽂아 안전하게 벽에 걸어두거나, 일하러 나갈 때도 메고 다니기 편리하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짚 한 다발의 네 군데를 묶고 양쪽 끝을 작두로 가지런히 잘랐으며, 끈을 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위트가 보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었다. 아이디어와 적절한 재료, 단순한 제작방법 등이 간결한 디자인을 가능케 하였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가방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1-12
	품목명	나락뒤주 (Grain Storage)
	분류	도구 / 농기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초제(草製)-짚
	용도	곡물 저장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1996/온양민속박물관),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농산물을 갈무리하거나 담아두는 데에는 곡식의 종류나 양에 따라 독, 뒤주, 곡갑, 통가리, 섬, 가마니, 먹서리, 멍둥구미 등을 사용한다. 많은 곡물을 저장할 때는 나락뒤주, 곡갑(穀匣) 등이 있었으나 널리 쓰이지 않았다. 곡식이나 사료의 저장과 함께 수량을 단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먹서리와 섬 등이 주로 쓰였다.
	조형	외형	지붕은 삿갓처럼 위가 뾰족한 모양이며, 몸은 배가 약간 부른 원통형이다. 밑에는 통나무로 받침 걸 받을 대었고, 옆에는 창을 내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가을에 타작 후 나비질을 하여 정제한 벼를 저장했던 뒤주이다. 통풍성이 좋은 저장용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쪽을 엮은 다음 안쪽에 진흙을 발라 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했다. 지붕으로는 짚을 엮어 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저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정, 제작하였다. 습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형상이 토속적인 고유성(Originality)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하다.	

활용 가능성	레저용품, 인테리어, 옥외 시설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1
	품목명	망태기(網袋) (Mesh Bags)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20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38cm, 너비 57cm 외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운반, 보관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1995/현암사)

분석	제품 배경		짚은 흔하기도 한 재료이지만 밀짚이나 보릿짚처럼 뻗뻗하지 않고 부드러워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기가 쉬웠다. 또한 짚으로 만든 물건은 농가 어디에 걸려 있어도 낫설지 않았다. 예전에는 어느 농가에나 널려 있던 것이 망태기였다. 망태기는 비에 젖으면 힘없이 늘어지는데, 마침내 귀퉁이부터 찢어 들면 두엄간에 버려져서 퇴비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조형	외형	현대의 흔한 가방 모양이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질감이 자연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망태기는 곡물이나 감자, 또는 꿀 등을 나르는 데 쓰는 운반용구이다. 흔히 양끝에 끈을 달아 어깨에 매고 다니거나 헛간에 걸어 놓기도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새끼로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의 패션 시각으로 볼 때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자유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2
	품목명	망태(網袋) (Mesh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운반, 보관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농기구>(1990/대원사),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짚은 흔하기도 한 재료이지만 밀짚이나 보릿짚처럼 뻗뻗하지 않고 부드러워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기가 쉬웠다. 또한 짚으로 만든 물건은 농가 어디에 걸려 있어도 낫설지 않았다. 예전에는 어느 농가에나 널려 있던 것이 망태기였다. 망태기는 비에 젖으면 힘없이 늘어지는데, 마침내 귀퉁이부터 찢어지면 두엄간에 버려져서 퇴비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조형	외형	현대의 배낭 모양이다. 위쪽에 등성등성 고리를 달고 고리와 아래 양끝에 끈을 꿰었다. 이러한 것을 ‘주루막’이라고 하기도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 걸어 두는 용구이지만 어깨에 걸고 씨를 뿌릴 때 쓰기도 한다. 주둥이에 끈을 달아 조일 수 있게 만들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늘게 꼰 새끼로 네모꼴로 촘촘히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의 패션 시각으로 볼 때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자유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이다. 특히 끈 매듭 부위의 디테일이 액센트가 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3
	품목명	망태기(網袋) (Mesh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19세기)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운반, 보관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korea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사각형이나 둥근 형태로 짚을 엮어 만드는 망태기는 초가집의 창호지문과 흙벽, 짚과 풀로 만들어진 다른 생활도구들과 어우러져 우리 농가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운치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조형	외형	현대의 배낭 모양이다. 위쪽에 고리를 달고 고리와 아래 양끝에 끈을 꿰었다. 이러한 것을 '주루막'이라고 하기도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망태기는 생활에 쓰이는 작은 농기구, 연장, 땀나무, 짚신 등 물품들을 담아 두던 것으로, 대부분 벽에 걸어 두거나 어깨에 매기에 좋도록 끈이 달려 있다. 이 망태기는 입구를 주머니처럼 끈으로 풀었다 조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새끼로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의 패션 시각으로 볼 때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자유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4
	품목명	망태기(網袋) (Net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20세기 초)
	출토지	
	크기	길이 50cm, 폭 41.5cm
	재료	지(紙)
	용도	운반, 보관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korea

분석	제품 배경		망태기는 실, 삼, 종이 따위로 가늘게 끈 노를 재료로 해서 만들기도 하였다. 종이를 이용한 이러한 지승 기법은 휴지나 파지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생겨난 조선시대 특유의 공예기법으로 우리 선조의 검소한 생활과 뛰어난 창의력, 응용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종이를 꼬아서 처음에는 단순히 문고리나 빨랫줄과 같은 끈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1800년대 이후 각종 기물의 형태로 제작, 사용되었다.
	조형	외형	현대의 배낭 모양이다. 위쪽에 고리를 달고 고리와 아래 양끝에 끈을 꿰었다. 이러한 것을 ‘주루막’이라고 하기도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망태기는 생활에 쓰이는 작은 농기구, 연장, 땀나무, 짚신 등 물품들을 담아 두던 것으로, 대부분 벽에 걸어 두거나 어깨에 매기 좋도록 끈이 달려 있다. 이 망태기는 입구를 주머니처럼 끈으로 풀었다 조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쪽을 꼬아서 끈을 만들어 기물을 엮는 지승공예법으로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의 패션 시각으로 볼 때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자유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이다. 현대 백팩(Back-pac)의 실용적인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5
	품목명	걸망 (Mesh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길이 14cm, 세로 22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풀 운반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영산호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짚제품 특별전>(광주직할시립박물관),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망태기는 가는 새끼로 엮어서 곡물이나 감자 또는 소의 먹이인 풀(풀) 등을 나르는 데 쓰는 운반용구로서, 예전에는 어느 농가에나 널려 있는 가장 흔한 물건이었다. 지금 보면 언뜻 거친 듯 하지만 짚이 가진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새삼스럽다.
	조형	외형	마름모꼴로 거칠게 엮었다. 손잡이 부분은 땅은 형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소의 먹이인 풀(풀)을 담아 나르는 용구로, 간혹 밑 부분이 터지게 만들어 새끼 한 가닥으로 엮고 풀 수 있게 하여 내용물을 쉽게 털어 낼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망태보다는 굵은 새끼를 마름모꼴로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아하고 장식적인 고급 핸드백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지극히 캐주얼한 자유스러운 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6
	품목명	망태기(網袋)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운반, 보관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경기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짚은 흔하디 흔했던 까닭에 짚으로 만든 어떤 용구도 전혀 귀한 것이 아니었다. 농사일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짚단을 잡아 손질하는 농부의 손에서 쉽게 갖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왔다.
	조형	외형	위 뚜껑이 덮여지는 것이 핸드백 모양이다. 어깨끈이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연장이나 도구 등을 담아서 갖고 다니거나, 걸어 보관하는 망태기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새끼를 엮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의 패션 시각으로 볼 때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자유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7
	품목명	연장망태기(網袋) (Tool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22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연장 운반, 보관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금복현 소장
	자료출처	<짚문화>(1989/대원사),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망태기는 망태, 구덕, 깔망태 등으로 불리며, 양어깨, 또는 한쪽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끈을 달았다. 곡물이나 감자 등을 운반할 때나 산에서 풀을 베어 담아 나를 때 사용했다. 연장을 매달아 보관하기 좋게 가방처럼 만들어 끈을 단 망태를 연장망태라고 한다.
	조형	외형	대부분의 짚 제품들이 둥글게 엮어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책가방처럼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연장을 담아서 갖고 다니거나, 걸어 보관하는 망태기이다. 아래 앞부분의 고리와 뚜껑 부분의 고리를 연결해 잠글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새끼를 엮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 망태와는 달리 연장을 담을 수 있는 차별화된 형상이다. 고리를 사용하여 잠글 수 있게 된 점이 특이하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함류,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2-8
	품목명	다래끼 (Basket)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19cm
	재료	목재(木製)-싸리나무
	용도	저장, 운반 도구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조선조 주방용 가구와 목기에 관한 연구>(1981/이화여대 대학원, 이원영), <농기구>(1990/대원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다래끼는 싸리나무가 흔한 강원도 지방에서 가장 흔하고도 요긴한 물건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씨앗을 담아 뿌리거나 경작물을 거두거나 나물을 썰 때 체구에 적당한 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모습은 가장 흔한 정경이었다.
	조형	외형	바닥은 넓고 몸통은 길고 둥글넓적하다. 옆구리에 끈을 걸 수 있도록 고리를 두었다. 주둥이로 올라가면서 오므라든 곡선이 아름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다래끼는 밭에 씨뿌릴 때에 여기에 담아서 뿌린다. 그밖에 나물을 캐거나 고추 등 경작물을 따서 담기도 하는 등 다용도였다. 옆의 고리에 끈을 매어 어깨에 매면 허리에 잘 달라붙어 있었다. 물기 있는 것도 담을 수 있고 수년씩 쓰일 만큼 튼튼하여 농가의 들일에 요긴한 도구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싸리나무 속대로 엮었다. 이런 싸리는 메가 곱고 붉은 참싸리로 당년에 흰칠하게 자란 것을 8월경 베어다 쓰며, 싸리채 한 줄기를 세 갈래로 쪼개어 말렸다가 물에 적서 녹여서 제작한다. 때로는 짚, 대, 고리버들 등으로 엮기도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운 동시에 휴대가 간편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상은 재료와 제작방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창출된 것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2-9
	품목명	종다래끼(提籃) (Seed Bag)
	분류	도구 / 망태기, 다래끼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30×17.5×18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씨앗 운반 용구
	지정사항	
	소장처	금복현 소장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농기구>(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봄같이로 비롯되는 오곡의 씨뿌리기는 고무래로 흙을 고른 다음에 시작하여 모내기가 끝날 때쯤 거의 마무리된다. 씨를 뿌리는 연장은 특이한 다래끼, 종다래끼 등 두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씨를 뿌릴 때에 사용되는 것이 따로 없고 소쿠리, 바구니, 뒤옹박, 말, 되, 바가지, 양재기 등 간편하면서도 담을 수 있는 것이면 아무 것이나 다 쓰였다.
	조형	외형	종다래끼는 다래끼보다 조금 작은 것이다. 작은 핸드백 모양으로, 긴 어깨끈이 달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것에 종자를 담아 걸어 보관하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씨를 뿌린다. 특히 콩, 팥, 감자 등을 심을 때 씨를 담아 뿌린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새끼를 엮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아하고 장식적인 고급 핸드백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지극히 캐주얼한 자유스러운 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3-1
	품목명	닭둥우리 (Hen Nest)
	분류	도구 / 축산용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닭둥우리
	지정사항	
	소장처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1995/현암사),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짚문화>(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짚은 흔하기도 한 재료이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으로 인해 축산용구로는 그만이었다. 또한 짚으로 만든 물건은 농가 어디에 걸쳐 있어도 낯설지 않았다. 닭둥우리는 지방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또 만드는 이의 솜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개가 대담하고 거침없는 형태에 창의성을 곁들였으며, 때로는 닭둥우리 하나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이기도 했다.
	조형	외형	거꾸로 보면 긴 머리 소녀가 머리를 양쪽으로 땅아 내린 형상이다. 밑은 용마름(용구새) 모양으로 엮었다. 엮음새가 힘차고 아름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암탉이 알을 품는 둥우리이다. 편안하게 들어앉도록 아담한 형태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용마름(용구새) 모양으로 엮고 그 한 쪽씩을 각각 모아 권 후 땅아 올려 두 가닥을 모아 묶어 매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위트가 있는 아이디얼한 디자인이다. 단일 재료로만 되어 있으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감쪽한 조형을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3-2
	품목명	개집 (Dog House)
	분류	도구 / 축산용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높이 55cm, 지름 60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개집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짚은 흔하기도 한 재료이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으로 인해 축산용구로는 그만이었다. 또한 짚으로 만든 물건은 농가 어디에 있어도 낯설지 않았다. 누런빛은 비가 자라는 이 땅의 색으로서 언제나 주위와 잘 어울렸고, 그 형태가 아무리 거친 모양일지라도 겉모습에서는 부드러운 질감이 넘쳐 났다.
	조형	외형	원통형으로 엮고 한쪽에 입구를 내었다. 견실해 보이면서도 조형미가 있는 개집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바닥은 폭신해서 촉감이 좋을 듯한 개집이다.
		적질성	
		편의성	
	제작	재료	짚으로 엮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견고함과 내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단단한 짜임새로 제작되어 있고, 그에 따른 형태 또한 잘 다듬어져 있다. 모나지 않은 형상은 사용자(개)를 배려하였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3-3
	품목명	구유 (Trough)
	분류	도구 / 축산용구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용도	소의 먹이 그릇
	지정사항	
	소장처	농업박물관
	자료출처	<농업박물관 이야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소가 먹을 풀이 없는 겨울에는 짚이나 말린 풀을 작두(도마 달린 칼)로 잘게 썰어서 물을 섞어 커다란 가마솥에 푹푹 삶는데, 그것이 여물이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여물을 여물 바가지로 퍼서 구유에 쏟아 주면 소의 푸짐한 식사가 된다. 따로 소외양간이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부엌에 외양간이 달려 있어 부엌 한쪽에 구유가 놓이기도 했다.
	조형	외형	큰 홈을 하나 파고, 작은 홈을 두 개 뚫었다. 적당히 휘어진 선이 자연스럽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소의 여물을 썰어서 주는 그릇으로, 적당히 휘어진 통나무를 이용해 소가 고개를 돌려 가며 먹기 편하게 만들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통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때로는 돌을 파서 만들기도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사용자(소)를 배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다. 현대 디자인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인터랙티브(Interactive)의 개념을 알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E4-1
	품목명	먹통(墨筒) (Carpenter's Inkpot)
	분류	도구 / 목공연장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용도	줄 긋는 연장
	지정사항	
	소장처	연세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연장>(1984/연세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먹통은 건축작업에서 직선의 긴 먹줄을 긋거나 수직을 잡는 목공도구이다. 주로 집을 짓는 대목들이 사용하며 목가구를 제작하는 소목들도 가끔 사용한다. 먹통은 목수 자신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 직접 제작하므로 재앙을 물리치는 괴수, 복이 있는 거북, 신성시된 봉황 등을 조각하는데 목재를 다루는 능한 솜씨로써 치밀하게 구사하고 있다.
	조형	외형	동물의 형상으로, 코는 돼지 코를 닮았다.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곡선이 것이, 대개 동물의 형상의 머리에 사각형의 몸통인 다른 먹통들과 다르다. 머리에 실을 감는 고패를 두고 엉덩이에 먹줄을 넣는 홈을 두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머리 부분에 실을 감는 고패를 넣고 그 뒤 엉덩이 부분의 파여진 곳에 솜을 넣고 먹줄을 갈아 부었는데 실이 솜을 통해 나오는 동안 먹이 묻는다. 구멍으로 빠져 나오는 실 끝을 뽀족한 나무 끝에 못을 달아 매단다. 그리고 줄을 긋기 시작하는 원점에 먹줄 끝이 못을 꽂은 후 먹통을 잡고 실을 길게 늘어 팽팽하게 줄을 튕기면 실에 묻은 먹이 나무에 곧은 줄을 만든다. 그 후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 실을 감아들인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제작기술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따른 구조가 인간공학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된 아주 우수한 디자인이다. 흐르는 듯하고 부드러운 전체의 곡선은 현대의 첨단 운송수단의 조형보다 앞서고 있다. 자연물과의 조화와 단순화한 조형감이 뛰어나다.	

활용 가능성	전제품 분야.
--------	---------

일반	분류번호	E4-2
	품목명	대패(鉋) (Planes)
	분류	도구 / 목공연장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철
	용도	목재 다듬는 연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한국의 목가구>(삼성출판사),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조립목물이란 목재를 눈질로 켜서 판재와 각목을 가지고 부분부분을 짜맞춘 목물을 말한다. 이같이 여러 부재를 다듬어서 결구하는 목공은 단순목물의 제작과 달라서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요하게 되며, 이들 목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소목장(小木匠)이라 통칭하는데, 소목장들도 전문적으로 만드는 품목이 있었다. 소목장의 연장은 그 일의 잔손질 때문에 톱, 대패, 자귀, 끌, 칼 등이 핵심을 이룬다.
	조형	외형	밀어내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는 재래 대패들로, 소목 연장 가운데 가장 다양한 것이 대패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평밀이(평대패)는 바닥을 편편하게 고를 때 사용하는 대패이며, 뒤집대패(배대패)는 둥근 곡면을 깎을 때 사용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쇠날을 박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당시의 재료와 기술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사례이다. 용도에 따라 몸통과 손잡이의 형상이 다른, 이유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도구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E4-3
	품목명	대패(鉋) (Planes)
	분류	도구 / 목공연장
	시대	근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철
	용도	목재 다듬는 연장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86/열화당)

분석	제품 배경		우수한 목수일수록 도구들을 자작하다시피 특별히 주문해 쓰는 것이 상례였다. 더구나 옛날에는 기계산업에 의한 양산 체제의 도구 제작소가 없었기 때문에 목수 자신이 물건의 제작에 소용되는 대로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다. 목수에 있어서 연장은 합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며 자기 손에 맞도록, 자기가 하는 일의 범위에 따라 많이 갖춰 놓는 것이 유능한 목수였다. 이같이 많은 연장을 구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목물의 이음새와 짜임새를 견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조형	외형	밀어내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는 재래 대패들로, 소목 연장 가운데 가장 다양한 것이 대패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대패에는 평면을 다듬는 평대패만도 수종이 있어서 대소의 훔날 대패, 겹날대패, 따꿈대패, 부판대패, 등밀이 등으로 부르는데, 특수 용도를 위한 변탕, 개탕, 흑대패, 쇠시리대패 등에 이르러서는 한층 각양각색이다. 변탕은 그 말 자체가 물건의 변죽을 지칭하듯이 면의 가장자리를 밀어내는 용도의 대패이다. 개탕은 끝을 판다고 하여 골미리대패라고도 하며, 흑대패는 소반의 패기판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바닥에 둔덕지게 둥근 흑을 붙여 거기에 대패구멍을 뚫다. 쇠시리대패는 기둥의 모와 창살 및 장롱의 뼈대 등을 쇠시리할 때 쓰는 대패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를 깎아 쇠날을 박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당시의 재료와 기술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사례이다. 용도에 따라 몸통과 손잡이의 형상이 다른, 이유 있는 디자인이다. 깔끔하게 처리된 디테일과 라인은 정교함을 요구하는 연장류의 정선된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도구류, 공구류, 산업용기기, 기타.
--------	----------------------

F. 신변잡화

1. 장신구
2. 시계, 저울
3. 안경, 안경집
4. 부채, 부채집
5. 지갑, 주머니
6. 관모, 갓집
7. 신발
8. 기타

일반	분류번호	F1-1
	품목명	구슬 (Bead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원삼국
	출토지	
	크기	길이 (큰곶은옥) 3.0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벽옥·수정·활석·유리·마노
	용도	목걸이, 팔찌 등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1996/통천문화사)

분석	제품 배경		“삼한은 구슬을 재보로 귀히 여겼다.”는 역사기록과 맞게 무덤과 집터에서 구슬이 출토되고 있다. 유리제작기술은 제철기술과 함께 한이나 낙랑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졌는데 거푸집이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자체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형	외형	기하학적 형상과 자연스러운 형상,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등 대조적인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고 있다. 색상 또한 최대한 절제되어 차분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보색 계열의 액센트가 디자인 포인트가 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팔찌, 목걸이 등과 기타 장식품 부자재의 역할을 한 것들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삼한의 무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정형화된 곶은 옥과 6면체로, 여러 면 구슬, 대롱옥, 유리구슬 등으로 정교하게 다듬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형상의 대비, 크기의 대비적 요소가 조화되어 장식적 효과를 준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 각의 날카로움을 달리했다.	

활용 가능성	장신구, 패션 소품의 장식재, 조명기구,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2
	품목명	유리제 장식 (Necklace Ornament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 월성로
	크기	우하 : 길이 5.7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마노·옥
	용도	목걸이, 팔찌 등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통천문화사)

분석	제품 배경		1985년 5월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 로타리에서 경주박물관에 이르는 약 2km 길이의 월성로 하수도 확장공사 때 발견되어 조사된 월성로 고분군에서 출토되었으며, 여러 형태의 무덤 속에 매우 다양하고 화려한 출토유물 중 하나로, 무덤의 주인공들이 상당한 신분을 가진 귀족이었음을 보여 준다.
	조형	외형	곱은옥, 여러면 구슬, 대롱옥 등으로 구성된 목걸이들이다. 끈의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구슬들의 조합이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에 큰 구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끈은 대담한 장식 효과를 내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걸이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유리, 마노, 옥을 수공으로 정교하게 가공한 후, 끈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크기의 대비, 색상의 대비, 형상의 대비로부터 섬세한 장식 효과와 대범한 장식 효과가 나타나고, 계절의 시원함(좌)과 따뜻함(우)을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장신구, 패션 소품 장식재, 가방류 및 신변잡화류 장식재,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F1-3
	품목명	상감유리옥 목걸이 (Necklace with Inlaid Face)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 미추왕릉지구 C지구 3호분
	크기	길이 24.0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벽옥·유리·마노
	용도	목걸이
	지정사항	보물 634호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통천문화사)

분 석	제품 배경		1973년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미추왕릉지구 정화사업시 드러난 계림로 고분군에서 출토된 특이한 유물들 중 하나로, 유리를 상감한 기술이 당시의 높은 제작 수준을 보여 준다.
	조형	외형	유리 구슬과 곡옥의 펜던트로 이루어진 목걸이로, 중앙의 유리 구슬 한 개에는 사람 얼굴, 구름, 새 등을 색깔이 다른 유리로 상감하였다. 특히 전반적 색상 배열(구성)에서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목걸이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수공으로 정교하게 가공하였다. 중앙의 구슬에는 여러 형상(조형 참조)을 상감 처리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슬 하나 하나 형상의 다양함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탈리아 뎀피스 스타일을 연상케 한다) 단품으로서의 완성미를 느낄 수 있다. 구성원 색상에서 첨단 패션 감각을 읽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장신구, 패션 소품 장식재, 패키지, 조명기구,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4
	품목명	목걸이 (Necklace)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 서봉총
	크기	우하 : 지름 7.6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마노·옥, 금속(金屬)-금
	용도	목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 (동국대 개설) http://www.SCL.dongguk.ac.kr/Museum

분석	제품 배경		경주 서봉총에서 발굴되었으며, 유리 구슬과 곱은옥, 대롱옥 등으로 구성된 목걸이다.
	조형	외형	다양한 형상이 자유스러우면서도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다. 차분하면서도 은근히 화려한 색상이 고급스러움을 나타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걸이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유리, 마노, 옥을 수공으로 정교하게 가공, 끈으로 이어 제작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전체적인 구성의 질서 속에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의 조합이 짙고 발랄한 장식적 효과를 보이게 한다. 각기 다른 재료의 효과를 구현하였으며, 현대 미니멀리즘과 팝 아티즘을 연상케 한다.	

활용 가능성	장신구, 패션 소품 장식재, 인테리어 소품, 팬시용품 등.
--------	----------------------------------

일반	분류번호	F1-5
	품목명	팔찌 (Bracelet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북 경주 인왕동 고분
	크기	지름 7.3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옥
	용도	팔찌
	지정사항	
	소장처	경희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경희대학교박물관 도록>(1986/경희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곱은옥, 대롱옥, 여러면 옥으로 구성된 옥팔찌다.
	조형	외형	실린더형의 기하학적 형태와 정교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다면체가 잘 어울리고 있다. 곱은 형의 중앙 곡옥은 원통형 옥 색상(에머랄드 그린)과 함께 전체 조형의 중심이 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팔찌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당시 고급 장식용 재료로써 많이 사용된 옥(Jade)을 수공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제작하고 매듭끈으로 연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미로써 장식적 효과를 구현하였고, 촌촌하지 않은 여백으로 여유의 미가 보인다.	

활용 가능성	장신구, 문 손잡이 등의 가정용 소품 장식재, 패션 소품의 액센트 장식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6
	품목명	팔찌, 반지 (Bracelets & Finger Ring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신라 (5~6세기)
	출토지	경주 금관총
	크기	좌상 : 지름 7.9cm
	재료	금속(金屬)-금
	용도	팔찌, 반지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1989/통천문화사)

분석	제품 배경		1921년 경주 노서동의 한 민가에서 건물부지를 넓히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던 중 발굴된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 일부로, 이 금관총의 조사로 인하여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와 성격 및 풍부한 유물 등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고분에서 처음으로 금관을 발굴하였기 때문에 금관총이라 하였다.
	조형	외형	신라시대의 일반적인 형태로, 팔찌는 겹면이 툇니바퀴처럼 에워져 있고, 반지는 바깥쪽이 마름모꼴이다. 형상은 단순하나 전체적으로 음각의 디테일 처리로써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팔찌와 반지로, 팔찌의 경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착용할 수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금을 주물 후, 후가공(표면 처리)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그리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단순미에 디테일적 요소를 가미하여 섬세한 느낌을 구현하였다. 정형화되지 않은 작은 링 형상은 자연적, 원시적 느낌을 받게 한다.	

활용 가능성	장신구, 패션 소품, 가정용 소품 장식재, 가구 장식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7
	품목명	곡옥 (Comma-shaped Jade)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청동기
	출토지	대전 서구 괴정동 244-14
	크기	길이 3.3cm
	재료	석(石)-천하석(天下石)
	용도	장신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미술전집1>(1973/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대구 괴정동의 청동기시대 석관묘에서 청동기들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똑같은 모양 두 개가 같이 발견되었는데 고리가 하나만 달려 있다. 원래 곡옥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으나, 초기 철기시대의 무덤에서 고리 달린 곡옥이 발견되어 곡옥이 무언가를 장식하기 위한 용도임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조형	외형	초승달 모양의 곡옥으로 머리와 끝 부분이 잘려진 듯 몽툭하고 편평하다. 푸른색 한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소옥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고리를 꿰고 있어 주목된다. 삼국시대 비취곡옥에 앞서는 것으로, 일반 곡옥과는 다른 고아한 미를 지녔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장식물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새과랴고 단단한 천하석(天下石)을 탁마(琢磨)해서 반원형의 결형으로 만든 것으로, 성형에는 타정(打整)과 지마(砥磨)를 겸용하고 천공(穿孔)에는 석찬(石鑽)을 썼을 것이다. 고리는 작은 구슬을 끈에 이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형상에 부드럽게 가공된 표면이 그윽한 맛을 나타낸다. 쌍(pair)의 개념과 독립적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오디오,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형상 및 이미지 적용, 화장품 용기 및 패키지,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8
	품목명	칩지 (Ornamental Hairpin)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5×1.3cm
	재료	금속(金屬)-금
	용도	여성용 머리 장식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6/국립중앙박물관 편저)

분석	제품 배경		칩지는 없은머리 대신 쪽진 머리를 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족두리를 권장한 데서 생겨난 것으로, 족두리나 화관 같은 것을 쓸 때 걸려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상류계급이라도 예장(禮裝)을 갖추는 외에는 하지 않고 궁중에서는 평시에도 하고 있어 신분의 상하를 표시하기도 한다. 왕비는 금으로 용, 봉황을,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는 금, 은, 흑각으로 개구리를 장식하고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달았으며, 이것을 가르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뒤에서 머리와 한테 묶어 쪽을 지었다.
	조형	외형	한쪽에만 장식된 봉황의 세련미가 뛰어나다. 비대칭의 조형이 현대적 느낌을 갖게 하며, 장식 부분과 단순 부분의 디테일이 뛰어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머리핀으로서 머리카락 및 족두리나 화관 등을 고정시키는 기능과 장식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금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장식도 절제된 디자인과 만나면 훌륭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양적인 느낌과 서양적인 느낌이 내재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신변잡화용품 장식재, 트로피 등의 오브제,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9
	품목명	머리장식 (Head Ornament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1.2~5.9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옥 · 비취 · 호박 · 밀화 · 산호, 금속(金屬)-금 · 은
	용도	남자용 머리장식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6/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시대의 남성 머리 장식용구로써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당시 사용자층의 우아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조형	외형	동곳 : 위가 반원형으로 둥근 버섯머리형이 가장 많으며 콩머리 등 다양하고, 밑이 약간 굽은 것과 굽지 아니한 것, 말뚝 같이 생긴 것 등이 있고 하부가 배가 불러 빠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한쪽 끝이 뾰족하다.
		색상	
		디테일	관자 : 아무 수식이 없는 링 모양에서 꽃과 대나무, 연양(蓮樣) 등을 조각한 것까지 다양하다.
		특기	풍잠 : 주로 반달형이며, 재료의 색상을 그대로 살렸다.
	기능	적절성	동곳 : 상투를 틀어 고정시키는 기혼남의 수식물이다. 관자 : 권자라고도 하며, 망건의 양쪽 관자놀이에 부착시켜 잔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망건의 부속물로, 머리를 둘러싸서 망건끈(당줄)으로 고정시켜 상투에 연결시킨다.
		편의성	풍잠 : 망건 앞에 다는 장식품으로, 갓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갓 밑으로 빛나는 풍잠은 사용자의 격을 나타낸다.
		특기	
	제작	재료	동곳 : 재료로 품계를 가르지는 않았으나 상류층에서는 금, 은, 밀화, 호박, 마노, 옥 등으로 만들어 꽃았으며, 대부분 은과 백동으로 만들어졌다. 이 제품 중 기능상 뾰족해야 할 부분을 철재로 제작한 것이 특이하다.
		제작기술	관자 : 품계에 따라 1-3품의 당상관은 금과 옥을, 3품 이하 서민까지는 대모, 양각, 호박 등을 사용하였다.
특기		풍잠 : 관품에 따른 규정은 없지만 귀천을 가려 양반은 호박, 대모, 마노를, 중인과 상인은 뼈와 뿔을 사용하였다.	
디자인 특징		'형상이 기능을 따라간다'의 논리에 절제된 장식적 요소가 부여되었다. 재료의 한계를 상이한 재료의 조화로 특징화했다. 반달형 풍잠의 비율이 훌륭하다.	

활용 가능성	일반 장식용품, 신변소품(라이터, 파이프 등), 생활용품(시계, 주방기구 등),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0
	품목명	갓장식 / 옥로 (Hat Ornament)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6.4cm
	재료	금속(金屬)-금·은
	용도	갓 장식물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6/국립중앙박물관), <관모와 수식>(1993/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갓 정상의 수식으로, 고려 공민왕 당시 백관의 등위를 가리기 위해 갓에 옥, 수정 등의 정자(頂子)를 달게 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대군은 금, 1, 2, 3품은 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과 관찰사, 절도사는 옥, 감찰은 수정 정자를 하였으며, 시임(時任), 원임(原任), 대신이 흉복과 군복을 입을 때나 외국에 나갈 때 착용했다.
	조형	외형	붉은 구슬 위에 은색의 해오라기와 금색의 풀꽃이 장식되었다. 정선된 구의 라인은 간결미를 더하고, 붉은 색상은 중후한 무게를 부여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갓의 꼭대기 윗면 중앙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장식물로, 사용된 자재에 따라 백관의 등위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수가공으로 구슬 가공 후 장식을 부착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디자인과 섬세한 장식이 만났다. 구 위에 요소를 부착함으로써 긴장미가 구현되고 있다. 오브제의 베이스가 따로 없는 3차원 형상이다.	

활용 가능성	장식용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패키지, 테이블웨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1
	품목명	갓장식 / 옥로 (Hat Ornament)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2.2cm
	재료	금속(金屬)-은
	용도	갓 장식물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6/국립중앙박물관), <관모와 수식>(1993/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갓 정상의 수식으로, 고려 공민왕 당시 백관의 등위를 가르기 위해 갓에 옥, 수정 등의 정자(頂子)를 달게 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대군은 금, 1, 2, 3품은 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과 관찰사, 절도사는 옥, 감찰은 수정 정자를 하였으며, 시임(時任), 원임(原任), 대신이 융복과 군복을 입을 때나 외국에 나갈 때 착용했다.
	조형	외형	일반적인 섬세한 장식과는 다른 형식의 장식으로, 기계적 느낌과 남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디테일은 뛰어나지 않으나 독특한 형상과 구조가 특이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갓의 꼭대기 윗면 중앙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장식물로, 사용된 자재에 따라 백관의 등위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은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 장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구조에서 오는 미케니컬 이미지, 색상에서 오는 엔틱 메탈릭(Antique Metallic) 이미지 등이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생활소품,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2
	품목명	백동바늘집노리개 (Nickel-Made Needle Case Ornament)
	분류	신변잡화류 / 장신구
	시대	조선 (1780년대)
	출토지	
	크기	33cm
	재료	금속(金屬)-은, 사직(絲織)-실매듭
	용도	휴대용 바늘집 및 장신구
	지정사항	
	소장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장신구>(1981/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바늘은 여인들의 필수품이었다. 따라서 바늘을 간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었는데, 이 제품은 보관의 기능성과 장식적 기능을 충족시킨 바늘집노리개이다.
	조형	외형	원통형의 간결한 바늘집과 동심결(同心結) 매듭 및 방울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색의 바늘집과 흰색의 끈이 깨끗한 조화를 이룬다. 금속의 뚜껑고리가 꽃모양 매듭과 함께 절제된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백동으로 만들어진 바늘집으로 뚜껑을 여닫게 하여 수시로 바늘을 꺼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매듭장식과 함께 노리개의 역할까지 겸한 실용적인 장신구이다. 주머니 속에 넣기도 하고, 백동이나 은 같은 금속 재료로 제작하여 저고리 고름이나 안 고름에 차고 다니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바늘집은 백동으로 제작하였고, 동심결(同心結) 매듭과 방울술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주 용기의 현대적 간결미와 매듭 부위의 장식적 효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백동의 인공적 느낌과 매듭의 천연적 느낌도 조화를 이룬다. 고전적이면서도 충분히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패션 소품, 생활용품, 소품 가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3
	품목명	장도 (Ornamental Knive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길이 15~21.6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은·칠보, 목제(木製)-대나무·흑단 등
	용도	부녀의 호신용 장신구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6/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장신구>(1991/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최남선의 <고사통>에 의하면 “지금은 구습이 되었거니와 남녀의 옷고름에 차는 장도는 형태와 패용법이 순전히 몽고풍임이 분명하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도의 패용은 고려가 원에 복속한 이후부터이고 조선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형	외형	장도의 형태로는 칼자루와 칼집이 원통형, 을(乙)자형, 네모형, 여덟모형 등 다양하다. 마무리와 장식의 디테일이 섬세하고, 재료의 질감과 색상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은젓가락이 달려 있는 것은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젓가락으로 사용도 하고, 음식 가운데 독의 유무를 분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칼자루 및 칼집의 재료로는 우골, 흑색, 심향, 흑단, 호박, 대모, 비취, 공작석, 옥, 밀화, 마노 등이 주로 쓰였으며, 노리개용으로 흔히 사용된 것의 재료는 옥석, 보패류이고, 흔히 은, 백동, 도금 등으로 만들었으며, 칼날은 강철을 썼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본 용도를 지니고 있는 제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장식 용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능한 한 재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려 제작하였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류, 소형 가방류, 생활소품,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4
	품목명	단추형 장식구 (Bronze Button-shaped Ornament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청동기 (1세기)
	출토지	경북 영천군 금호읍 어은동
	크기	지름 2.1~2.5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장식구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보2>(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1918년 겨울, 경북 영천군 어은동에서 비바람에 의해 패인 옹덩이로부터 우연히 일괄 발굴된 유물중 하나이다.
	조형	외형	윗부분이 둥근 반구형과 뾰족한 원추형으로, 내면은 비어 있으며 한 줄의 횡철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반구형은 표면이 단순히 나선문으로 장식된 것과, 윗부분에 십자상 문양을 넣고 그 주위에 방사상직선문을 배치한 후 그 사이를 나선문으로 채운 것으로 세분된다. 원추형은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뾰족한 윗부분을 무늬 없이 남기고 그 바깥을 6개의 방사상직선문으로 배치한 후 그 사이를 나선문으로 채운 것이 대부분이다. 완벽하지 않은 디테일이 오히려 반 대량생산적인 자연미를 더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중국 요령의 유적에서는 피장자의 발목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바 있어, 부츠와 같은 신발의 장식구로 볼 수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합금을 주물 성형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주적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패턴의 변화가 특이하다. 느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다른 디테일은 현대의 프로덕트 아이덴티티(Product Identity)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소품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5
	품목명	검과형동기(劍把形銅器, 대쪽모양동기) (Pommel-shaped Bronze Object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청동기 (기원전 4~3세기)
	출토지	충북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크기	좌 : 높이 24.5cm, 상단폭 15.6cm, 하단폭 10.5cm, 중 : 높이 11cm, 하단폭 11.1cm, 하 : 높이 11.6cm, 하단폭 10.8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알 수 없음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자료출처	<국보1>(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1978년 4월 충남 예산저수지 부근의 야산에서 발굴된 돌널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다른 무덤들이 낮은 구릉에 있는 것에 견주어 높은 산 중턱에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무덤으로, 나팔형동기, 동경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검과형 동기는 충청도 일대에서만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
	조형	외형	3점 모두 같은 크기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평면의 모양이 우리나라 동검(銅劍)의 검과에서 흔히 보이는 장고 모양의 몸체를 하고 있다. 중간에 마디가 있고 상하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각 부분마다 주위의 윤곽에 따라 네모나게 구획한 세선문대(細線文帶)를 이중으로 돌려서 장식하였으며, 가운데에는 납작한 고리를 두고 거기에 새끼를 끈 것과 같은 둥근 고리를 하나씩 달았고, 고리의 위쪽에는 사람의 손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 출토의 청동기 중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유물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이러한 검과형동기의 용도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주술적인 종교 의식에 사용된 장신구의 일종으로 추측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주조기술이 우수하고 문양이 아주 정교하여 당시의 뛰어난 청동기주조기술 수준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색상과 패턴의 조화가 극도의 세련미를 창출하고 있다. 묘사된 사람의 손 형상은 현대 레이아웃과 포인트, 픽토그램의 또다른 상상을 유발케 한다.	

활용 가능성	기구류, 가전제품(오디오기기 등),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6
	품목명	나팔형동기 (Trumpet-shaped Bronze Objects)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청동기 (기원전 4~3세기)
	출토지	충북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크기	높이 26cm, 아랫지름 9.7cm, 윗지름 2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알 수 없음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자료출처	<국보1>(1986/예경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1978년 4월 충남 예산저수지 부근의 야산에서 발굴된 돌널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다른 무덤들이 낮은 구릉에 있는 것에 견주어 높은 산 중턱에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무덤으로, 검파형동기, 동경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나팔모양으로는 중국 요령성의 정가와자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금강유역의 청동기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형	외형	파이프 같은 기대(基臺)에 원추형의 원주(圓柱)를 세운 형태로, 나팔과 비슷하다. 기대는 중간부에서 약간 갈수록 얇아졌고 상하로 긴 삼각형의 투공(透孔)이 삼단으로 각각 여섯 군데에 서로 마주 뚫려 있다. 왼쪽 원추형 기대의 표면에는 5조의 점선문양 띠가 상하로 돌아가며, 그 사이에 점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4개가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면 오른쪽 원추대의 표면에는 3개의 띠가 돌아가며, 맨 밑의 띠 아래로 긴 삼각형의 문양이 돌려져 있다. 색상은 윤택한 녹청색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기대와 원주부는 본래 별도로 주조된 것이나 표면에는 접합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놀라운 용접 처리 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형적 구도를 탈피한 제품의 비율(면적 대비 높이)이 특이하며, 기하학적 하단 라인과 끈게 뺨으면서 살며시 휘어 있는 상단 라인의 조화가 뛰어나다. 간결한 패턴이 현대감을 더한다.	

활용 가능성	생활 소품, 오디오기기, 조명기구,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7
	품목명	은제관꾸미개 (Silver Diadem Ornament)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삼국
	출토지	부여 하황리
	크기	
	재료	금속(金屬)-은
	용도	관 장식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부여박물관 http://kitel.co.kr/~sunghoon

분석	제품 배경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중국의 역사책인 수서, 구당서, 신당서, 주서, 북사 등에는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고, 6품인 나솔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은제의 꽃모양 관꾸미개는 부여 하황리와 부여 능산리, 논산 육곡리, 남원 척문리, 나주 흥덕리의 굴식돌방무덤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 이 은꽃관식을 꽃꿨던 사람들은 사비 백제의 중앙에서 파견되었거나 그 지역에서 지역민을 통솔하였던 지방 관리로 추측된다.
	조형	외형	인동당초 줄기와 꽃봉오리를 단순화하여,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머리에 쓰는 관의 장식물이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얇은 은판을 길게 오려 줄기를 나타내고 인동당초무늬와 꽃봉오리를 대칭이 되도록 접어 만든 것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체적인 형상을 단순화하여 장식화한 기법이 특징으로, 과감히 일직선으로 정리된 한 면과 대조를 이루어 현대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장식 소품, 가구류, 사인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8
	품목명	은제손잡이유리공 (Ornament)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삼국
	출토지	부여 하황리
	크기	
	재료	금속(金屬)-은, 유리/보석(琉璃/寶石)-유리
	용도	장식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부여박물관 http://kitel.co.kr/~sunghoon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백제의 금속공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관(冠)장식을 비롯한 꾸미개를 들 수 있다. 백제의 금속공예는 웅진도읍기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 남북조와의 교류를 통하여 참신한 조형감각과 세련된 공예기술이 꽃피게 되며 사비도읍기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룬다.
	조형	외형	자연스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구와 역시 다듬어지지 않은 가느다랗고 긴 손잡이가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유리공과 장식 접합부의 디테일이 정교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장식물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주조된 유리공에 수가공된 은제 장식을 부착하였으며, 장식에 손잡이를 연결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대비에서 오는 느낌과 구와 직선의 구성에서 오는 느낌이 긴장감을 줄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다. 정형적 구도의 탈피가 특징이다.	

활용 가능성	생활 소품, 용기류, 조명 기구, 사인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1-19
	품목명	쌍조간두식(雙鳥竿頭飾) (Ornament)
	분류	신변잡화 / 장신구
	시대	청동기
	출토지	경주
	크기	높이 12.5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1>(1973/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에는 새 숭배 습속이 있어 왔으며, 부락 입구에 세우는 새 모양의 솟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작아 솟대나 긴 장대에 꽂았던 것은 아닐 것이며, 조그만 지팡이 같은 것의 장식이 아닌가 추측된다.
	조형	외형	둥글게 꺾여진 테 끝에 부리가 비교적 큰 새 두 마리를 앉혔으며, 테 중앙에는 무엇인가 꽂을 수 있게 꼭지가 달려 있다. 장식 부의 새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으나, 장식적 기능으로 추정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합금 주물 성형물이다. 새는 작으면서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져 당시의 조각 솜씨를 가늠할 수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시원스런 원호 모양의 외관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실적 장식물이 우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칭 구도이면서도 공간 여백의 미가 풍부하게 느껴진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신변잡화 장식품, 인테리어 소품, 사인류,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F2-1
	품목명	평면해시계 (Sundial)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고려
	출토지	
	크기	
	재료	석(石)
	용도	시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1994/월간시계사), <우리의 과학문화재>(1997/서해문집)

분 석	제품 배경		조선 세종 때 정밀한 해시계들이 제작되어 사용되기 이전에는 '표(表)'라는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우고 해그림자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는 간단한 해시계가 주로 쓰였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평면해시계이다.
	조형	외형	기하학적인 레이아웃이 측정기구로서의 정교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섬세한 디테일은 완성미를 더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시간 측정 기능을 위한 해시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석에 각인을 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에서 정리된 간결함을 볼 수 있다. 기하학적 라인과 자유스러운 글자체가 대조되어 원시감과 현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전자제품, 컴퓨터,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조명기구,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F2-2
	품목명	현주일구 (Sundial)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조선 (전기, 15세기)
	출토지	
	크기	받침대 길이 12.5cm, 시반 지름 7.5cm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휴대용 시계
	지정사항	
	소장처	해인사
	자료출처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1994/월간시계사), <우리의 과학문화재>(1997/서해문집)

분 석	제품 배경		세종 19년(1437)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현주일구는 크기가 약 18cm로 휴대할 수 있었는데, 현주일구의 일종이라고 추측되는 이 청동제 해시계는 시각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원판의 뒷면에 현주일구에 그려져 있던 100각법에 의한 시반이 새겨져 있어 현주일구의 일종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조형	외형	측정 방법은 알 수 없으나, 기능에 따른 구조를 고안하여 솔직하게 적용된 외관이다. 보기 드물게 정교한 제품으로, 100각의 시반과 수평을 맞추기 위한 물홈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시간 측정 기능의 해시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청동 주조 후, 후가공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이며, 그에 따른 독특하고 차별화된 형상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였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문구류, 전기 전자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2-3
	품목명	휴대용 양부일구 (Portable Sundial)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조선 (고종 8년, 1871년 4월)
	출토지	
	크기	가로 3.3cm, 세로 5.6cm, 높이 1.6cm, 시반면 지름 2.7cm, 지남침 지름 2.0cm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옥
	용도	휴대용 시계
	지정사항	보물 852호
	소장처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1994/월간시계사), <우리의 과학문화재>(1997/서해문집)

분석	제품 배경		뒷면에 제작자 강건, 제작년대 1871년 4월 하순, 그리고 낙관이 새겨져 있는 휴대용 양부일구로, 남북의 방향을 쉽게 측정하도록 지남침이 설치되어 있다.
	조형	외형	직육면체 윗면에 원형의 양부일구와 지남침이 붙어 있다. 조선시대 휴대용 양부일구로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매우 아름다운 시계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헤시계와 나침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제품으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아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옥을 수가공하여, 각인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Compact)한 디자인과 다기능(Multi Function)이 잘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전기 전자제품, 문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2-4
	품목명	자명종 (Alarm Clock)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조선 (17세기 후반)
	출토지	
	크기	높이 34cm, 폭 12.5cm
	재료	금속(金屬)-철·놋쇠
	용도	자명종 시계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1994/월간시계사)

분석	제품 배경		시침만 있는 초기 형식의 철제 자명종으로,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시계 내부 벽에 금색 글씨로 '인시계사(印時計師)'라고 써어 있다.
	조형	외형	시계 걸판에는 장식이 없고, 다이얼은 바깥 테두리는 붉은 색이며 시침만이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놋쇠로 만든 종은 한국적인 맛이 있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 것들의 모양과는 다른 형식이다.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추도 엽진과 비슷한 모양으로 특이하다. 고색이 짙고 무게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시계 및 시간 알리는 알람 기능을 지녔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기계와 톱니바퀴는 철제이며, 종은 놋쇠이다. 지금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기계부분은 완전하고 제작솜씨도 좋다. 기계를 움직이는 추는 도르레로서 기계의 동력과 타종장치를 함께 움직이도록 한, 연속회전장치(endless rope drive)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드문 형식이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종, 본체, 추의 세 부분이 조형적으로 서로 다른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문자판 부분의 레이아웃과 색상이 인지를 용이하게 하고, 주목성을 갖는다.	

활용 가능성	시계,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전기 전자제품, 조명기구, 사인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2-5
	품목명	선추(扇錘) 해시계 (Pendants for Folding Fan with Sundial)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사직(絲織)
	용도	부채 손잡이 장식용(드리개), 휴대용 나침반 및 해시계
	지정사항	
	소장처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1994/월간시계사), <우리의 과학문 화제>(1997/서해문집), <한국미술전집 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선비들이 갖고 다니는 부채 끝에 매달은 나침반으로, 나침반 중심에 영침을 세워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부채에는 나침반이나 향갑 또는 노리개가 주로 장식되었는데, 이 선추는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가문의 덕으로 벼슬을 얻은 음관(蔭官)이나 무반(武班)은 달지 못했다고 전해올 만큼 지체 있는 장식품이었다. 대개 휴대용의 합죽선이나 그밖의 흥선 같은 부녀자의 치레용 부채자루에 달았었다. 노리개는 옥이나 각(角), 나무 등을 조각한 것과 향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실용성을 감안하여 목재로 나침반이나 도장을 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형	외형	원형 또는 사각형의 목갑 밑에 나침반을 달고 또 그 밑에 매듭이나 술을 달았다. 대추나무 목갑에는 십장생을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기하학적 시계 부위와 부드러운 목갑(木匣)이 대비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휴대용 나침반 및 해시계로, 나무 조각한 목갑 밑에 나침반을 달아 장식과 실용을 겸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추나무에 조각을 했으며, 비단끈을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휴대 기능을 구조적으로 완벽히 소화하였다. 더불어 외관의 다양성과 기능을 겸한 매듭 장식으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활용 가능성	회중시계, 액세서리, 문구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2-6
	품목명	선추(扇錘) 해시계 (Pendants for Folding Fan with Sundial)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조선 (18~19세기)
	출토지	
	크기	길이 5~3cm, 높이 1.5~1cm
	재료	목재(木製), 사직(絲織)-비단끈, 비단실
	용도	부채 손잡이 장식용(드리개), 휴대용 나침반 및 해시계
	지정사항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한국미술전집 1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선비들이 갖고 다니는 부채 끝에 매달은 나침반으로, 나침반 중심에 영침을 세워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부채에는 나침반이나 향갑 또는 노리개가 주로 장식되었는데, 이 선추는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가문의 덕으로 벼슬을 얻은 음관(蔭官)이나 무반(武班)은 달지 못했다고 전해올 만큼 지체 있는 장식품이었다. 대개 휴대용의 합죽선이나 그밖의 홍선 같은 부녀자의 치레용 부채자루에 달았었다. 노리개는 옥이나 각(角), 나무 등을 조각한 것과 향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실용성을 감안하여 목재로 나침반이나 도장을 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형	외형	원형 또는 사각형의 목갑 밑에 나침반을 달고 또 그 밑에 남색, 진보라, 회색, 옥색 등의 매듭끈이나 술을 달았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휴대용 나침반 및 해시계로, 나무 조각한 목갑 밑에 나침반을 달아 장식과 실용을 겸하였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특기	자침(磁針)을 넣어 주위에 십이지의 방위 표식을 한 손톱 만한 나침반이 집 속에 장치되도록 했고, 그 집 표면에는 송학, 죽녹, 일월, 산수, 초충, 불로초, 누각 등을 양각 또는 투각했다. 목재는 대추나무와 배나무를 썼고, 끈은 끈목에 방울술, 딸기술을 달았다.
		재료	
		제작기술	
	디자인 특징		휴대 기능을 구조적으로 완벽히 소화하였다. 더불어 외관의 다양성과 기능을 겸한 매듭 장식으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활용 가능성	회중시계, 액세서리, 문구류,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2-7
	품목명	휴대용 손저울 (Portable Balance)
	분류	신변잡화 / 시계, 저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저울대 길이 16cm, 추의 높이 2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놋쇠
	용도	휴대용 손저울 및 갑
	지정사항	
	소장처	한독의약박물관
	자료출처	<우리의 과학문화재>(1997/ 서해문집)

분석	제품 배경		가죽으로 만든 저울집(Case)이 함께 있으며, 집의 길이는 17.5cm, 폭은 4.5cm이다. 과거에도 금, 은이나 인삼 등의 무역에 필요한 저울은 국가가 강력하게 관리했다. 즉, <만기요람> 채용편 제4의 기록에 의하면, 강계 지역에서 체삼(體蓼)과 미삼(尾蓼)을 재는 저울과 동래 지역에서 예단삼(禮單蓼)을 재는 저울, 의주에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저울도 모두 호조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준저울에 의해 검정을 받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형	외형	내용물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깔끔하게 처리된 내부 단면에 합리적으로 내용물이 놓여 있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휴대하기 위한 저울을 넣어 다니는 갑이다. 저울은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추를 이동하게 하였다.
		적절성	
		편의성	
	제작	재료	목재로 다듬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내용물을 포함하는 합리적 외관을 아름답게 처리하였다. 패키지의 기능과 조형성을 만족시킨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가방류, 패키지,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
	품목명	대형 대모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골각패(骨角貝)-대모(玳瑁)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큰 거북의 등껍질로 만드는 대모 안경테는 색깔 좋은 등껍질 일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귀했으며, 색상이 유려할 뿐만 아니라 기법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안경을 만드는 최상의 소재로 여겨져 왔다.
	조형	외형	이 안경은 크기가 매우 큰데, 같은 안경이라도 크기가 큰 것은 연대가 오래된 것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1752년에는 제임스 야스코프에 의해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안경이 만들어져 착용과 휴대가 간편해졌는데, 이런 안경을 꺾기다리 안경이라 부른다. 이 안경의 다리 끝에는 착용상의 편리함을 위해 작은 동전 크기의 고리가 부착돼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모 안경테는 휘어진 대모를 불에 구워 완완하게 펴 무거운 돌로 식을 때까지 눌러 둔 후, 식은 후에 거친 숫돌로 대강 갈아서 평면을 만든 다음 안경 본을 대고 끝이 뾰족한 송곳으로 그린다. 활비비(송곳)로 구멍을 뚫고 가는 톱으로 대충 모양을 낸 다음 창칼로 깎아서 다듬고 고운 사포로 문지른다. 광을 낼 때는 가죽이나 광목 같은 천을 널판자에 붙여서 보드라운 숫돌 가루나 숯가루를 물에 축여 발라서 낸다. 안경테에 붙이는 장식이나 경첩은 유기(신주)로 만들어 가는 구리나 신주 철사를 사용해 못을 만들어 박는다. 안경알을 끼울 때는 숫불에 테를 달구어 조절해 가면서 끼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한 림(rim)과 장식적 브릿지가 돋보인다. 이러한 모티브는 조선시대 안경 전반에 나타나는 제품 아이덴티티(Identity)이다.	

활용 가능성	안경(일반 안경, 선글라스,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2
	품목명	옥 안경 (Spectacle)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정조)
	출토지	
	크기	
	재료	유리/보석(琉璃/寶石)-옥, 사직(絲織)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정조의 친필과 함께 발견되어 정조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안경이다. 정조는 47세 때부터 시력이 떨어져 안경이 없으면 책이나 서류를 보기 어려웠다고 <정조실록> 권 52에 전한다.
	조형	외형	옛 안경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정원형의 림(rim)과 장식적 브릿지가 세련되게 조화를 이루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 귀에 구멍을 내고 실이나 리본을 매단 안경을 실다리 안경이라고 하는데 16세기에 등장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안경다리는 실, 테는 옥으로 만들어져 매우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당시에는 왕족이나 특권층을 위해 옥으로 만든 테가 쓰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군더더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절제된 디자인의 답을 말하고 있다. 장식적 요소도 간결함과 적절히 조화된다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활용 가능성	안경, 신변 소품, 인테리어 소품,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3
	품목명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골각패(骨角貝)-대모·우각, 유리/보석(琉璃/寶石)-수정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온양민속박물관>(1996/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안경은 우리나라에 17세기초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며, 당시에는 뒷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은 무례한 행위였다.
	조형	외형	정원으로 이루어진 간결하고 기능적인 형태이다. 두꺼운 림(rim)의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큰 아치 형상으로 가늘게 이어진 브릿지가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아래의 안경은 다리 대신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귀에 걸도록 하였고 접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얇은 유리 대신 경주 남산에서 생산되는 투명한 돌을 사용하였고, 테는 대모(玳瑁, 거북의 등껍질)나 소의 뿔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함, 기능주의, 미니멀리즘 등을 연상케 한다. 림(rim)과 브릿지, 끈 고리의 세 부분이 전혀 다른 재료와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활용 가능성	안경(일반 안경, 선글라스, Clip-on), 인테리어 소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4
	품목명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길이 11.3~15.1cm
	재료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8/통천문화사)

분석	제품 배경		임진왜란 전후하여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일본으로부터의 유입, 또는 자생적 개발 등 세 가지 추측이 우리 안경의 기원이다.
	조형	외형	정원 형태의 다양한 림(rim)과 부품 형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인 느낌이 유사하면서도 각각의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의 뿔(牛角), 거북의 등껍질(玳瑁) 등을 사용하여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함에서 오는 현대성이 돋보인다.	

활용 가능성	안경(일반 안경, 선글라스, Clip-on), 인테리어 소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5
	품목명	우각테 경주 남석 안경과 대모 타원형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19세기 초)
	출토지	
	크기	
	재료	골각패(骨角貝)-대모·우각, 유리/보석(琉璃/寶石)-수정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경주 남석 안경은 경주 남산에서 캐낸 수정을 가공해서 안경알을 만들어 끼운 것으로, 근대까지도 고가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우리나라 안경 역사의 큰 맥을 형성해 왔다. 현재는 수정 채굴이 금지되어 맥이 끊긴 상태다.
	조형	외형	여자용 안경은 계란형으로 안경알이 타원형이어서 ‘셀쭉 안경’이라고도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경주 남산 옥들은 자색으로 아름다운 광택이 나며, 유리 렌즈에 비해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어 여름에는 눈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준다고 전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안경알은 금강사(金剛砂)로 연마하고 마무리할 때 원으로 흠이 파인 오동나무에 광을 내었다. 우각 안경테 제작에는 갈색 색상이 고르게 퍼져 있는 암소뿔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뿔 하나로 한벌의 안경테를 만들 수 있었다. 안경테를 만들기 위해서는 뿔을 오랫동안 물에 담가 편 뒤에 황줄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표면을 갈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안경 본을 얹어 끌, 칼 등의 도구로 오린 후, 사포로 갈고 숯돌 가루나 재를 물에 개어 발라서 광을 낸다. 알을 끼울 때는 숯불을 쪼여 가며 끼웠다고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함에서 오는 현대성이 엿보인다. 여자용 안경은 사이즈를 작게 해서 귀여운 맛을 내고 있다. 색상의 배합이 현대 유행과 별 차이가 없다.	

활용 가능성	안경(일반 안경, 선글라스, Clip-on), 인테리어 소품, 기념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6
	품목명	여러 가지 안경 코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19세기초)
	출토지	
	크기	
	재료	골각패(骨角貝)-우각, 유리/보석(琉璃/寶石)-수정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경주 남석 안경은 경주 남산에서 캐낸 수정을 가공해서 안경알을 만들어 끼운 것으로, 근대까지도 고가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우리나라 안경 역사의 큰 맥을 형성해 왔다. 현재는 수정 채굴이 금지되어 맥이 끊긴 상태다.
	조형	외형	경주 남석 우각 안경도 코의 모양이 약간씩 다른데, 구름이나 불로초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경주 남산 옥들은 자색으로 아름다운 광택이 나며, 유리 렌즈에 비해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어 여름에는 눈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준다고 전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안경알은 금강사(金剛砂)로 연마하고 마무리할 때 원으로 흠이 파인 오동나무에 광을 내었다. 우각 안경테 제작에는 갈색 색상이 고르게 퍼져 있는 암소뿔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뿔 하나로 한 벌의 안경테를 만들 수 있었다. 안경테를 만들기 위해서는 뿔을 오랫동안 물에 담가 편 뒤에 황줄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표면을 갈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안경 본을 얹어 끌, 칼 등의 도구로 오린 후, 사포로 갈고 숯돌 가루나 재를 물에 개어 발라서 광을 낸다. 알을 끼울 때는 숯불을 쪼여 가며 끼웠다고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브릿지의 다양한 형상과 디테일 변화가 주목된다. 패턴화된 문양도 기능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시리즈 제품의 디테일 변화 기법, 안경,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7
	품목명	대모테에 금속 코, 금속 꺾기다리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류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골각패(骨角貝)-대모, 금속(金屬)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큰 거북의 등껍질로 만드는 대모 안경테는 색깔 좋은 등껍질 일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귀했으며, 색상이 유려할 뿐만 아니라 기법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부터 안경을 만드는 최상의 소재로 여겨져 왔다.
	조형	외형	안경 다리 끝의 동전 크기의 고리 모양은 반지형, 만(卍)자문 등이다.
		색상	
		디테일	
	기능	특기	
		적절성	1752년에는 제임스 야스코프에 의해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안경이 만들어져 착용과 휴대가 간편해졌는데, 이런 안경을 꺾기다리 안경이라 부른다. 이 안경의 다리 끝에는 착용상의 편리함을 위해 작은 동전 크기의 고리가 부착돼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모 안경테는 휘어진 대모를 불에 구워 관판하게 펴 무거운 돌로 식을 때까지 눌러 둔 후, 식은 후에 거친 숫돌로 대강 갈아서 평면을 만든 다음 안경 본을 대고 끝이 뾰족한 송곳으로 그린다. 활비비(송곳)로 구멍을 뚫고 가는 톱으로 대충 모양을 낸 다음 창칼로 깎아서 다듬고 고운 사포로 문지른다. 광을 낼 때는 가죽이나 광목 같은 천을 널판자에 붙여서 보드라운 숫돌 가루나 숫가루를 물에 축여 발라서 낸다. 안경테에 붙이는 장식이나 경첩은 유기(신주)로 만들어 가는 구리나 신주 철사를 사용해 못을 만들어 박는다. 안경알을 끼울 때는 숫불에 테를 달구어 조절해 가면서 끼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혼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금속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기법은 현대에도 동일하다.	

활용 가능성	안경, 신변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8
	품목명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좀더 많은 숫자의 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금속테가 등장하였다.
	조형	외형	정원형의 금속 림(rim), 아치형 브릿지, 꺾기다리로 이루어졌다. 장식은 없으며, 아치형 브릿지의 디테일이 아름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1752년에는 제임스 야스코프에 의해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안경이 만들어져 착용과 휴대가 간편해졌는데, 이런 안경을 꺾기다리 안경이라 부른다. 이 안경의 다리 끝에는 착용상의 편리함을 위해 작은 동전 크기의 고리가 부착돼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금속테 안경이 등장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장식적 요소가 배제된 간결한 디자인이다. 대량 생산을 배려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아치형 브릿지가 포인트가 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안경,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9
	품목명	무테 금속 꺾기다리 안경 (Spectacl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 유리/보석(琉璃/寶石)-수정
	용도	안경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서양에서는 19세기에 접어들어 안경의 테가 없는 무테 안경이 등장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만들어졌다. 이 안경은 부와 지위의 상징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잘 깨지는 결점 때문에 유행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조형	외형	무테(rimless)는 안경에 새로운 맛을 부여한다. 기타 부품의 장식은 다소 요란한 감이 있지만 장식 효과의 극대화로 볼 수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1752년에는 제임스 야스코프에 의해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안경이 만들어져 착용과 휴대가 간편해졌는데, 이런 안경을 꺾기다리 안경이라 부른다. 이 안경의 다리 끝에는 착용상의 편리함을 위해 작은 동전 크기의 고리가 부착돼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금속테 안경이 등장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혼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패션용품으로서 장식이 극대화되었다.	

활용 가능성	안경, 신변 소품, 인테리어 소품,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0
	품목명	석류형 나무 안경집과 실다리 안경 (Spectacle & Cas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조선 (17세기)
	출토지	
	크기	
	재료	목제(木製)
	용도	안경,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휴대가 간편한 안경과 안경집이다. 옛날에는 하루 종일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경이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형	외형	석류 모양의 단순화된 안경집이 안경에 꼭 맞게 형성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접이식 안경은 착용성보다는 휴대가 간편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을 것이다. 안경집은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로 된 안경집은 내용물 파손의 우려가 없고, 석류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최대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내부 보관 면적에 어울리는 외부 형상을 석류형으로 처리하였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문구류, 패키지, 시계,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1
	품목명	안경집 (Spectacle Cas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오동나무, 피모(皮毛)-어피
	용도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초창기에는 안경 착용을 부끄럽게 여겨 허리춤에 매달기보다 도포 자락에 넣어 다녔기 때문에 안경집에 끈이 없었다. 그러나 점차 안경 착용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되면서 허리춤에 매다는 것이 유행하였고 안경집이 화려해져 안경보다 비싸기도 하였다.
	조형	외형	부드럽게 손에 잡기 쉬운 형상으로, 옛 안경집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을 보호하고 휴대하기 위한 케이스 기능의 제품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오동나무 안경집(왼쪽)과 청색 어피(상어 껍질) 안경집(오른쪽)이다. 초기의 안경집은 주로 기능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견고한 나무가 많이 쓰였다. 피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등의 속을 파낸 후 옷칠이나 기름칠을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피 확보와 인간공학적 형상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재료 및 표면 처리, 색상 등에 따라 다양하다.	

활용 가능성	안경집, 패키지, 문구,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2
	품목명	대모, 우각 안경집 (Spectacle Cas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골각패(骨角貝)-대모·우각
	용도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는 가죽보다 종이(닥종이)로 만든 안경집이 많았다. 또한 안경테의 재료로 즐겨 사용된 대모는 안경집 소재로도 인기가 높았다.
	조형	외형	등근 타원형의 전형적이 형태이다. 이 안경집 중에는 매란국죽 사군자가 양각된 것도 있다. 매듭끈이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 보관 및 휴대를 위한 안경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모 안경집은 큰 거북의 등껍질을 불에 달궈 물렁해지면 쇠로 된 틀에 찍어내어 옆면을 부레폴로 붙여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피 확보와 인간공학적 형상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재료 및 표면 처리, 색상 등에 따라 다양하다.	

활용 가능성	안경집, 패키지, 문구, 신변 소품,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3
	품목명	지승 안경집 (Spectacle Cases of Paper)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지(紙)-한지
	용도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우리나라에는 가죽보다 종이로 된 안경집이 많다. 아마도 종이로 된 안경집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닥나무 한지는 질겨서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조형	외형	둥근 타원 모양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지승 공예 특유의 표면 질감이 색다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 보관 및 휴대 기능의 안경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한지를 가늘게 잘라 꼬아 엮은 것이다. 일반 닥종이로 만든 안경집은 나무 위에 종이를 바르고 옷칠을 하기도 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옛 안경의 전형적 형태이나, 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 새롭다. 동일한 외형에의 상이한 재료의 적용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게 한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문구류, 패키지, 시계,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4
	품목명	어피 안경집 (Spectacle Cas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피모(皮毛)-어피(상어 껍질)
	용도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안경집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어피 안경집으로, 중국에서도 어피 안경집이 가장 유행하였다. 여기서 어피란 상어 껍질을 말한다.
	조형	외형	상어 껍질을 숫돌에 갈아내고 난 뒤의 물방울무늬가 환상적이며, 투명한 껍질에 색을 칠해 붉은 색 어피, 흰색 어피, 청색 어피가 되었다. 중국에는 청색 어피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흰색 어피가 많으며, 붉은 색은 극히 드물다. 중국 안경집은 모양이 납작한데, 우리 것은 통통한 것이 특징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가장자리의 금속 띠장식은 튼튼하게 해주므로 멋과 실용성을 겸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상어 껍질은 비늘 때문에 매우 거칠지만 숫돌에 갈아내면 매끈하고 투명해지며, 여기에 색을 칠한다. 중국 안경집 속은 주로 나무로 제작되고 우리 것은 속을 종이로 제작한다. 가장자리에는 은이나 백동, 황동, 적동, 주석 등으로 띠를 둘러 장식을 하기도 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금속 장식은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패키지의 내구성 증대 역할을 겸하고 있다.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색상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문구류, 패키지, 시계,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5
	품목명	각종 타원형 안경집 (Spectacle Cas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한지, 피모(皮毛)-어피
	용도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서양의 복식은 주머니가 많아 안경집에 끈을 달 필요가 없었으나, 중국이나 우리의 전통 옷차림에는 안경을 휴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허리춤에 매달아야 했다. 한때 안경집 밑에 매듭을 다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런 풍습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조형	외형	타원형의 각종 안경집이다. 초기에는 피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등의 속을 파내고 옷칠이나 기름칠을 했다가, 발전한 것이 대추나무로 만든 안경집으로, 이 안경집에는 사군자, 십장생, 만(卍)자문, 연속 꽃무늬, 신선도, 화조, 포도 등 온갖 문양이 새겨졌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 보관 휴대 기능 및 장식적 기능의 안경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나무 위에 종이를 바르고 옷칠한 안경집, 청색 어피(상어 껍질) 안경집, 대추나무에 문양을 조각한 안경집 등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옆면이 살아있는 타원형 안경집으로, 색다른 멋을 자아낸다. 같은 외형이라도 표면 처리와 색상에 따라 다양화했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문구류, 패키지, 시계,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3-16
	품목명	안경집 (Spectacle Cases)
	분류	신변잡화 / 안경, 안경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사직(絲織), 지(紙)-한지, 금속(金屬)-놋쇠, 목재(木製)
	용도	안경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8/통천문화사), <옛 안경과 안경집> (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호사가들은 안경집 뚜껑과 몸체 부분에 십장생, 화조, 수복자 등을 수놓아 화려함을 더하였다.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는 수놓는 상공을 두어 안경집을 만들게 했는데, 이때 산호 구슬이나 유리 구슬을 실에 꿰어 수놓기도 했다. 또한 나전칠기로 만들기도 했고, 궁중 화원이 도안을 하고 조각사가 조각하여 주칠한 것도 있어, 왕족들도 안경집에 멋을 부려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것을 알 수 있다.
	조형	외형	타원형에서 정원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안경집이며, 대부분 매듭 장식으로 끈을 달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경 보관 휴대 기능 및 장식적 기능의 안경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견직물에 자수를 놓거나, 한지를 끈 후 엮고 나서 옷칠을 한 지승공예도 있고, 놋쇠로 튼튼하게 만든 것도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합리적인 보관 기능을 지니면서도, 휴대품으로서의 장식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 소품, 문구류, 패키지, 시계,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1
	품목명	까치 태극선(太極扇) (Taegeuk Fan)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길이 86cm
	재료	지(紙)-한지,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부채가 공예품으로 멋을 부리며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발달된 것은 종이 발명된 시대부터 시작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나무 한지는 질기고, 가볍고 수명이 길어 부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종이다. 또한 결이 잘 쪼개지고 질긴 대나무가 있어 견고하면서도 질기고, 가볍고, 우아한 부채를 만들어 왔다.
	조형	외형	부채의 면을 X자로 나눈 뒤 청색, 황색, 홍색 등으로 각각 색을 붙이고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넣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손잡이를 길게 하여 사용상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잘게 쪼갠 대나무 살과 한지를 접합하여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여러 모양의 부채 본을 미리 만들어 사용한 것은 생산 개념이 있으며, 표준화 개념도 엿볼 수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선면의 형상이 지극히 절제되어 있고, 손잡이 크기와의 비례가 파격적이다. 공예적이면서도 단순히 정리된 손잡이의 외형이 세련미를 더한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2
	품목명	통영 미선(尾扇), 세원선(細圓扇), 세미선(細尾扇) (Fans)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지(紙)-한지,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조동화 소장
	자료출처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부채가 공예품으로 멋을 부리며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발달된 것은 종이 발명된 시대부터 시작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닥나무 한지는 질기고, 가볍고 수명이 길어 부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종이다. 또한 결이 잘 쪼개지고 질긴 대나무가 있어 견고하면서도 질기고, 가볍고, 우아한 부채를 만들어 왔다.
	조형	외형	통영 미선(가운데) : 경남 통영에서 많이 만들어진 부채로, 부채살은 평범하나 자루의 조각이 특이하고 부채 면이 길쭉한 것이 특징이다. 세원선(왼쪽) : 가는 대오리를 총총하게 놓은 둥근 부채이다. 세미선(오른쪽) : 대오리를 가늘게 하여 총총하게 많이 놓고 선면 위 가운데가 조류나 어류의 꼬리를 본떠 파인 것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선면 외관 형상의 작은 변화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잘게 쪼갠 대나무 살과 한지를 접합하여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여러 모양의 부채 본을 미리 만들어 사용한 것은 생산 개념이 있으며, 표준화 개념도 엿볼 수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모노톤의 색상 적용(통영 미선, 세원선)이 다른 일반 부채와 차별화되어 있다. 외곽 라인의 미세한 변화가 전반적인 느낌을 다르게 한다(통영 미선, 세미선).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3
	품목명	쌍학혼선(雙鶴婚扇) (Fan for Wedding Ceremony)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사직(絲織)-비단천
	용도	혼례용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의식을 치를 때 쓰이는 용구로서의 부채를 의장선(儀杖扇)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혼례식에서 신부가 초례청에 나올 때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쓰던 것이 혼선(婚扇)이다.
	조형	외형	부채 면이 대개 붉은색의 바탕에 수를 놓은 것으로 그 형태는 원형이 많고 모란을 수놓은 것이 많지만 쌍학이나 봉황을 수놓은 것도 있다. 또 더러는 바닥천의 색깔이 홍색이 아닌 것도 있고 종이로 꽃 모양을 오려 붙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귀족과 서민 또는 지역의 풍습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의식(혼례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상징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의 부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목재 프레임에 수놓은 비단 천을 사용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원주와 직선의 가장 절제된 기하학적 형태의 외관이 특이하다. 반면에 공예적인 자수의 비주얼이 대조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루 끝 고리 장식이 전체 외관의 상징적 느낌으로 반복되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4
	품목명	대파초선(大芭蕉扇) (Sunshade Fan)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초製)-밀짚, 목제(木製)-대나무
	용도	햇볕가리기용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지붕이 없는 가마 가운데 평교자(平轎子)나 남여 등을 타고 갈 때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용구이다. 유물로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몽진할 때 바람이나 햇볕을 가려주곤 하던 당시의 영의정 유성룡(1542-1607년)이 사용했던 대파초선이 경북 안동에 남아 있다.
	조형	외형	파초의 잎처럼 생긴 큰 부채로, 자루도 부채 면 중앙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연결되어 내려온 모양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바람을 일으키는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그늘을 만드는 도구로 만들어졌다. 용도에 맞게 긴 손잡이가 채택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 자루에 밀짚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물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단순화한 디자인이 특이하다.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긴 자루는 조형적 특이성뿐만 아니라 넓은 선면을 받쳐 주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A4-5
	품목명	밭 파초선(芭蕉扇) (Sunshade Fan)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말기
	출토지	
	크기	가로 56cm, 세로 100cm
	재료	지(紙)-한지,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햇볕가리개용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서울 개인 소장
	자료출처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지붕이 없는 가마 가운데 평교자(平橋子)나 남여 등을 타고 갈 때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용구이다. 파초선은 매우 오래 된 부채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육조시대부터 문헌에 등장하며, <진서(晉書)>에 의하면 당시 명필이었던 왕희지가 파초선에 글씨를 써 주어 비싼 값에 날개 돌린 듯 팔렸다고 한다. 곧 4세기 이전에 파초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형	외형	전체 모양이 파초의 잎처럼 생긴 큰 부채이다. 부채살도 부채 면 위에서 중앙으로 내려온 기둥살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오며, 거기에 맞대어 살을 놓고 자루도 부채 면의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내려온 것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바람을 일으키는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그늘을 만드는 도구로 만들어졌다. 용도에 맞게 긴 손잡이가 채택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는 대오리를 발처럼 엮어 종이를 바르고 들기름을 먹여 대오리와 엮은 모양이 비치게 한 것이다. 자루도 대나무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물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단순화한 디자인이 특이하다.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긴 자루는 조형적 특이성뿐만 아니라 넓은 선면을 받쳐 주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튀지 않는 담담한 색조의 적용이 천연미(Natural Beauty)를 느끼게 한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6
	품목명	치미선(雉尾扇) (Fan for Honored Going of the King)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전체 길이 261.5cm, 부채 길이 90.5cm
	크기	
	재료	
	용도	의장용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궁중 유물(둘)>(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임금의 행차 때 주위의 시자들이 들고 따르는 의장구인 의선(儀扇)이다. 임금의 행차는 문무백관, 호화로운 기치(旗幟)와 의물(儀物)을 든 각종 의장병, 호위병으로 구성되며, 도끼, 창, 칼 등의 군사적인 요소가 큰 것과 상서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우산, 부채 등 통치자의 절대적인 위치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있다.
	조형	외형	자루의 길이가 2미터 가량 되는 대형 의선(儀扇)이다. 정형화되지 않은 외관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비주얼이 적용되었다. 중앙으로 곧게 뻗은 자루가 대조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임금의 행차 때 주위의 시자들이 들고 따르는 상징적 기능의 의장용 부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 위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 용도와 상징적 용도가 완전히 어우러져 새로운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7
	품목명	적단룡단선(赤單龍團扇) (Fan for Honored Going of the King)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전체 길이 253cm, 부채 길이 55cm
	재료	
	용도	의장용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궁중 유물(들)>(1995/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임금의 행차 때 주위의 시자들이 들고 따르는 의장구인 의선(儀扇)이다. 임금의 행차는 문무백관, 호화로운 기치(旗幟)와 의물(儀物)을 든 각종 의장병, 호위병으로 구성되며, 도끼, 창, 칼 등의 군사적인 요소가 큰 것과 상서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우산, 부채 등 통치자의 절대적인 위치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있다.
	조형	외형	자루의 길이가 2미터 가량 되는 대형 의선(儀扇)이다. 정원의 선면에 튀지 않게 장식을 하고 무장식의 간결한 자루를 중앙에 배치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임금의 행차 때 주위의 시자들이 들고 따르는 상징적 기능의 의장용 부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천 위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일반 용도와 상징적 용도가 완전히 어우러져 새로운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8
	품목명	윤선(輪扇) (Fan)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지름 38cm, 길이 54cm
	재료	지(紙)-한지,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윤선은 차바퀴처럼 둥근 부채로 단선에도 있고 접선에도 있다. 이 부채는 단선 윤선이다. 윤선과 관계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 5월조'에 "임금의 탄신일에 충청도 관찰사가 윤선을 진상하였으나 왕은 단선을 쓴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형	외형	바퀴 형상의 원형의 부채이다. 중앙과 테두리에 별색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햇볕을 가리는 일산(日傘)용의 기능이 주이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 살과 한지를 사용하여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원의 모티브로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현하였다. 기능과 형상의 일치를 볼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9
	품목명	지승 부채(紙繩扇) (Paper Woven Fan)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86cm
	재료	지(紙)-한지
	용도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윤선은 차바퀴처럼 둥근 부채로 단선에도 있고 접선에도 있다. 이 부채는 단선 윤선이다. 윤선과 관계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 5월조'에 "임금의 탄신일에 충청도 관찰사가 윤선을 진상하였으나 왕은 단선을 쓴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형	외형	바퀴 형상의 원형의 부채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햇볕을 가리기도 한 부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한지를 잘라 꼬아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원의 모티브로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현하였다. 기능과 형상의 일치를 볼 수 있다. 재료의 질감에서 오는 이미지가 동일 형상의 윤선과는 전혀 다르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10
	품목명	대륜선(大輪扇) (Sunshade Fan)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지름 90cm, 자루 길이 81cm
	재료	지(紙)-한지,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햇볕가리기개용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4/국립민속박물관),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윤선은 차바퀴처럼 둥근 부채로 단선에도 있고 접선에도 있다. 이 부채는 접선 윤선이다. 윤선과 관계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 5월조'에 "임금의 탄신일에 충청도 관찰사가 윤선을 진상하였으나 왕은 단선을 쓴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형	외형	크기가 큰 것은 대륜선, 변죽에 화각장식을 하였으면 화각 윤선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 부챗살의 디테일이 섬세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접었던 부채를 펴면 360도로 펼쳐져서 마치 차바퀴처럼 원을 이룬다. 이것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햇볕을 가리는 일산(日傘)용의 기능이 더 크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 살과 한지를 사용하여 수공으로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정원의 형상을 과감히 다른 색조로 양분하였다. 강하면서 섬세한 살이 방사선으로 배치되어 통일감을 이룬다. 주름과 살, 그리고 색상에서 경쾌하고 화사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조명기구, 용기류, 가구류, 사인 및 전시구조물 등의 환경 디자인,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11
	품목명	드림부채 (방아실 부채) (Fan for Work)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지(紙)-한지, 목재(木製)-대나무
	용도	부채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드림 부채 혹은 방아실 부채는 농가에서 곡식의 티끌을 날려보낼 때 사용하거나 방아를 찧을 때, 겨풀을 날려보낼 때 사용하던 부채이다. 베를 짤 때도 사용하던 주로 노동용 부채이다.
	조형	외형	넓직한 부챗살 5, 6개를 오리발처럼 엮어 길쭉하게 만들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농가에서 곡식의 티끌을 날려 보낼 때 사용하거나 방아를 찧을 때, 겨풀을 날려 보낼 때 사용하던 부채이다. 베를 짤 때도 사용하던 주로 노동용 부채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넓직한 부cot살 5, 6개를 오리발처럼 엮어서 길쭉하게 만들고 종이를 두껍게 발라 튼튼하게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처럼, 용도에 맞게 형상이 적용되었다. 손잡이 또한 작업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활용 가능성	도구, 공구류, 조명기구, 문구류, 사인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12
	품목명	부채집 (Black-lacquered fan case)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58.2cm, 지름 32.7cm
	재료	목재(木製), 금속(金屬)
	용도	부채집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옛 가구의 아름다움>(1996/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부채를 보관하는 함으로,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선조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형	외형	동근 몸 한쪽에 긴 자루가 달려 있으며, 전면에 두꺼운 흑칠이 되어 있다. 쇠장식은 국수물림 장식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부채를 보관하는 부채집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밑판과 측판은 국수물림 장식으로 고정시키고 윗판과 손잡이 뚜껑을 한 나무로 만들어 두 곳에 망두경첩을 달아 연결하였으며 손잡이 끝에는 고리를 달아 잠그도록 되어 있다. 전면에 두꺼운 흑칠이 되어 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내용물의 형상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징화, 콤팩트(Compact)화하였다. 간결하게 장식된 쇠 장식품이 액센트이며, 덮개를 여는 구조 또한 일직선 면(경첩 부분)을 적절히 정하여 합리적으로 디자인하였다.	

활용 가능성	패키지, 악기류, 문구류, 가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4-13
	품목명	향선추(香扇錘) (Fan Poise with Perfume Beads)
	분류	신변잡화 / 부채, 부채집
	시대	조선 (1730년대)
	출토지	
	크기	길이 41.5cm
	재료	
	용도	부채 장식 (선추)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신구>(1981/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전통 부채>(1994/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선추는 부채 밑 고리에 중심을 잡기 위해 매단 일종의 노리개이다. 선추는 원래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달 수 없었으나, 구한말 개화가 되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형	외형	청, 백, 적, 흑, 황 다섯 알의 향주(香珠)는 오행에서 풀이된 표시로, 청이 동, 백이 서, 적이 남, 흑이 북, 황이 중앙을 나타낸다. 덕담에서는 오천주(五千珠)를 장수의 상징으로 하여 여인들 장신구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남자들 부채 장식인 선추로도 사용되었다. 선추 끝에는 자주색 방울술이 달려 있어 한결 아름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부채 밑 고리에 중심을 잡기 위해 매단 일종의 노리개로, 장식적 기능과 발향 기능을 지녔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선추의 재료로는 온갖 보물인 호박, 은, 비취 등을 비롯해 정교하게 조각을 한 나무, 매듭 등이 사용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실제 사용 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훌륭히 조화시켰다. 다섯 구의 각기 다른 의미가 형상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생활용품, 신변잡화,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5-1
	품목명	지갑(紙匣) (Paper Pocketbook)
	분류	신변잡화 / 지갑, 주머니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39cm, 너비 19.5cm
	재료	지(紙)-한지
	용도	남자용 서류 지갑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중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옛 공예의 특성은 자연의 미, 실용의 미에 있다. 우리의 한지 공예는 가난한 사람의 손에서 생겨난 ‘장인의 공예’이며 생활을 위한 수공예이기 때문에 순박함과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조형	외형	실용적인 구조와 그에 따른 형상을 가졌다. 오래도록 사용해도 지루하지 않을 꾸밈없이 수수한 외관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남자들이 각종 서류나 증명서 따위를 넣고 휴대하여 다닐 때 널리 쓰였다. 내부는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서 실용성을 높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종이는 얇고 가벼운 재질로, 펼치고 접기가 쉽다. 종이를 여러 겹 두껍게 하여 만든 갑으로, 기름을 먹여 견실하게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잘 활용한 실용적 기능에 따른 간결한 디자인이다. 현대적 파일링(filing) 시스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사이즈의 변화에 따라 용도를 확장할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지갑류 및 가방, 신변잡화, 문구류, 기타. (가죽, PP 등 재료의 대체 가능)
--------	---

일반	분류번호	F5-2
	품목명	서류 지갑 (Paper Pocketbook)
	분류	신변잡화 / 지갑, 주머니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40×20×57cm
	재료	지(紙)-한지
	용도	남자용 서류 지갑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옛 공예의 특성은 자연의 미, 실용의 미에 있다. 우리의 한지 공예는 가난한 사람의 손에서 생겨난 ‘장인의 공예’이며 생활을 위한 수공예이기 때문에 순박함과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조형	외형	실용적인 구조와 그에 따른 형상을 가졌다. 오래도록 사용해도 지루하지 않을 꾸밈없이 수수한 외관이다. 크기를 작게 본다면 패션 소품으로서의 패션성을 느낄 수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남자들이 각종 서류나 증명서 따위를 넣고 휴대하여 다닐 때 쓰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종이는 얇고 가벼운 재질로, 펼치고 접기가 쉽다. 종이를 여러 겹 두껍게 하여 만든 갑으로, 옷칠이나 기름을 먹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재료의 특성을 잘 활용한 기능에 따른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여 손에 쥐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활용 가능성	지갑류 및 가방, 신변잡화, 문구류, 기타. (가죽, PP 등 재료의 대체 가능)
--------	---

일반	분류번호	F5-3
	품목명	장기알 주머니 (Chess Bag)
	분류	신변잡화 / 지갑, 주머니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28×25cm
	재료	지(紙)-한지
	용도	장기알 주머니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를 가늘게 꼰 노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이용한 이러한 지승 기법은 휴지나 파지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생겨난 조선시대 특유의 공예기법으로 우리 선조의 검소한 생활과 뛰어난 창의력, 응용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종이를 꼬아서 처음에는 단순히 문고리나 빨랫줄과 같은 끈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1800년대 이후 각종 기물의 형태로 제작, 사용되었다.
	조형	외형	마름모꼴의 망으로 이루어진 기다란 주머니로, 아래위에서 끈으로 오므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장기알을 담아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녔던 주머니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쪽을 꼬아서 끈을 만들어 기물을 엮는 지승공예법으로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용도에 적합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나, 전체 조형과 디테일이 아름답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가방,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5-4
	품목명	산가지 주머니 (Primitive Counting Sticks Bag)
	분류	신변잡화 / 지갑, 주머니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재료	지(紙)-한지
	용도	산가지 주머니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1983/온양민속박물관), <종이 공예 문화>(1996/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종이를 가늘게 끈 노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이용한 이러한 지승 기법은 휴지나 파지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생겨난 조선시대 특유의 공예기법으로 우리 선조의 검소한 생활과 뛰어난 창의력, 응용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종이를 꼬아서 처음에는 단순히 문고리나 빨랫줄과 같은 끈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1800년대 이후 각종 기물의 형태로 제작, 사용되었다.
	조형	외형	흡사 필통처럼 생긴 기다란 주머니로, 뚜껑이 덮이게 되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산가지(수효를 셈할 때 쓰던 물건으로, 대나 뼈 따위로 젓가락처럼 만듦)를 담아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녔던 주머니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쪽을 꼬아서 끈을 만들어 촘촘히 엮는 지승공예법으로 제작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인 패션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내용물 보관을 위하여 촘촘한 디테일이 적용되었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신변잡화,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1
	품목명	흑립(黑笠) (Hat)
	분류	신변잡화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지름 59cm, 높이 19.5cm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용도	모자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조선 정조 때 병조참판을 지낸 이익필이 쓰던 갓이다. 고종 때 입제(笠制)를 개편하면서 양태의 크기를 대폭 줄이기 전까지 크게 유행했던 커다란 갓이다. 흑립(갓)은 조선조 500년간 꾸준하게 전래되었으며,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할 정도로 큰 모자가 구경거리가 되어 그들의 여행기에 기록하고 있다.
	조형	외형	양태가 넓은 전형적인 갓의 형상이다. 대모(玳瑁)로 만든 갓끈이 원형대로 달려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외출이나 행사시 의관을 갖추어 사용할 때 사용하였으며, 신분 표시의 기능도 있다. 외관 색상에 따라 용도를 달리 한다. 붉은 옷칠을 한 주립(朱笠)은 무관 당상관의 군복인 융복 착용시 갖추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전공정이 수공으로 이루어지고, 죽사(竹絲)로 엮어 만든 다음 흑포(黑布)를 발라 입혔다. 마무리는 옷칠로 광택을 내었다. 옷칠은 광택뿐만 아니라 빗물 등 수분에도 저항력을 가진다. 갓끈은 대모(玳瑁)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아하고 화사한 윤곽선이 기품을 돋보이게 한다. 전세계 수많은 모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형태로 평가받는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다. 가로 세로 크기와 높이의 변화로 다양한 형상의 갓을 일관된 모티브로 디자인할 수 있다.	

활용 가능성	현대 디자인에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Product Identity) 적용에 대한 적절한 예로 활용될 수 있다. 제품 전반, 모자, 재질 느낌 활용,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2
	품목명	백립(白笠) (Hat)
	분류	신변잡화 / 관모, 갓집
	시대	조선(1863년)
	출토지	
	크기	높이 11cm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용도	모자
	지정사항	
	소장처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관모와 수식>(1993/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백립은 상중(喪中)에 쓰는 것으로 세종 때에는 작위고하를 막론하고 생원(生員), 생도(生徒), 서인(庶人)남자 모두 졸곡(卒哭) 후 백립으로 종상(終喪)하도록 하였다.
	조형	외형	양태가 좁고 굴곡이 져있다. 대나무나 옥 등 별도 재료의 사용 없이 평범한 갓끈이 달려 있다. 용도에 맞게 소박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상중(喪中) 또는 국상(國喪)시 착용하는 갓으로써, 기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상징적 용도로 쓰여졌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늘게 꼬인 죽사(竹絲)로 흑립의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베를 입힌 백색의 갓으로,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아하고 화사한 윤곽선이 기품을 돋보이게 한다. 전세계 수많은 모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형태로 평가받는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다. 가로 세로 크기와 높이의 변화로 다양한 형상의 갓을 일관된 모티브로 디자인할 수 있다.

활용 가능성	현대 디자인에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Product Identity) 적용에 대한 적절한 예로 활용될 수 있다. 제품 전반, 모자, 재질 느낌 활용,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3
	품목명	병거지 (Hats)
	분류	신변잡화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1890년, 1910년, 1850년)
	출토지	
	크기	지름 24.5cm, 지름 32cm, 지름 27.5cm
	재료	피모(皮毛)-패지털
	용도	모자
	지정사항	
	소장처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관모와 수식>(1993/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병거지는 하인배의 모자로, 조정에서는 사령(使令)이나 군노(軍奴)들이 쾌자(快子: 조끼 모양으로 뒷술기가 단에서 허리께까지 튀었고 길이가 두루마기처럼 김)에 병거지를 썼다. 병테기라고도 하는데 북방 호족으로부터 들어온 외래어에서 유래된 명칭일 것이다.
	조형	외형	재료 자체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다. 꼭대기에는 장식이 있고, 둘레에는 빨간 노끈으로 둘러매는 정도로 장식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하인배의 모자로, 병거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검은 무명끈을 양편에 달아 턱밑에서 매게 되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전립(氈笠)과 유사하나 조잡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모체에 패지털을 붙이고 안은 청색 무명으로 배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에서 말할 수 있는 캐주얼풍의 모자이다.	

활용 가능성	복고풍 패션 제품으로 직접 활용 가능.
--------	-----------------------

일 반	분류번호	F6-4
	품목명	방립(方笠) (Hat)
	분류	신변잡화류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지름 59cm, 높이 19.5cm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용도	모자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분 석	제품 배경		방립(方笠)은 고려 때부터 사용되던 것이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쓰임새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서리(胥吏) 계층만 착용하였으나, 임진란 후부터는 이들도 사용을 기피하여 점차 상인(喪人)의 외출용 쓰개로 변화했다.
	조형	외형	네 귀가 움푹 패이고 다른 부분은 둥그스름하게 돌출되어 사화판(四花瓣), 즉 네 개의 꽃잎 모양을 이루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안쪽에는 머리에 걸려 없도록 하는 둥근 테두리인 미사리가 턱에 매는 끈과 함께 부착돼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내면과 외면을 모두 대오리로 엮어 만들었으며, 내면의 대오리가 외면보다 더 넓적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적 모티브의 꽃 모양을 모자의 기능과 적절하게 융합하였다. 안쪽 테두리를 고정하는 매듭을 외부에 돌출시켜 소박한 장식적 기능을 갖게 한 재치가 보인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조명기구, 가정 생활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5
	품목명	갈모(葛帽) (Hat for Rain)
	분류	신변잡화류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1900년대)
	출토지	
	크기	높이 33cm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지(紙)-한지
	용도	모자
	지정사항	
	소장처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자료출처	<관모와 수식>(1993/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는 우장(雨裝) 중 하나이다. 일반인은 통상예복에 흑립을 쓰는데, 흑립이 비를 맞으면 모양이 일그러질 우려가 있어 흐린 날 외출시에는 갈모를 준비했다.
	조형	외형	갈모의 모양은 부챗살과 비슷해, 펼치면 원추형이고 접으면 합죽선과 같은 형상이 된다. 간결한 장식이 있는 끈이 갈모의 간결미를 더해 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는 우장(雨裝) 중 하나로, 접고 펼 수 있게 하여 편리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부챗살같이 잘게 참대살을 조립한 위에 한지를 배접한 후, 그 위에 들깨기름이나 콩기름을 바르고, 안에 끈을 달아매게 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 외형과 간결미를 볼 수 있다. 기능을 소화하면서 최대한 절제된 디자인으로 외관이 이루어졌다. 최소한의 끈 장식으로 패션미를 더했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전기 전자제품, 가정 생활용품, 조명기구,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6
	품목명	갓집 (Hat Case)
	분류	신변잡화류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37×39.7cm, 높이 13cm
	재료	지(紙)-한지
	용도	갓 보관함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한국의 종이문화>(1995/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갓을 보관하는 함으로서, 갓에 대한 당시 사용자의 애착을 보여주는 제품이다. 다양한 여러 형태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함이다.
	조형	외형	아래는 사각형으로, 위는 원통형으로 만든 갓집이다. 겉면에는 팔괘를, 네 귀에는 박쥐 문양을 종이로 오려 붙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양 옆면에는 주름을 두고 뒷면은 막힌 상태에서 앞면을 열고 갓을 넣을 수 있게 한 특이한 구조의 갓집이다. 딸기술이 달린 매듭 끈을 양끝의 뒷면과 중앙에 달린 고리에 연결하여 벽에 걸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물쇠로는 끈에 달린 ‘ㄷ’자형의 주석 장식을 이용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볍고, 질기며, 통풍성이 좋은 한지의 특성이 적절히 사용되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컴팩트한 패키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걸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관 장소의 효율성을 알 수 있고, 거슬리지 않는 전반적 패턴의 장식은 함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활용 가능성	일반 패키지, 시계류 등 생활용품, 가구류, 전기 전자제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7
	품목명	갓 끈(笠纓) (Hat Strings)
	분류	신변잡화류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후기
	출토지	
	크기	길이 58~73cm
	재료	
	용도	갓 끈
	지정사항	
	소장처	장숙환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미>(1988/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의 관모>(1988/은양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입영은 갓끈으로서 이는 갓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갓의 사치는 이 입영에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에 소요된 장식 재료로써 귀천과 계급을 가리기도 했다.
	조형	외형	주로 기하학적 형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료에 부합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디테일의 변화로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갓에 달린 장식용 끈으로, 포백(布帛)의 끈은 여름에 땀이 나므로 구슬갓끈으로 바뀌게 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갓끈의 재료는 산호, 호박, 명박(明珀), 유리, 대모, 수정, 청금석(靑金石) 등이 있었으며, 부모상을 벗고 종제(終制)에 마치지 않는 자는 흑초립에 검은 나무 갓끈을 달았다고 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을 반복하여 전체적인 장식미를 느낄 수 있게 한 디자인이다. 재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문구용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6-8
	품목명	갓솔 (Hat Brushes)
	분류	신변잡화류 / 관모, 갓집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길이 7~20.5cm
	재료	피모(皮毛)-말총, 골각패(骨角貝)-대모(玳瑁), 목제(木製)
	용도	갓을 청소하는 솔
	지정사항	
	소장처	온양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조선시대의 관모>(1988/온양민속박물관), <관모와 수식>(1993/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갓은 조선의 선비들이 위엄을 갖추는 중요한 도구로 귀중하게 취급되었기에 갓을 보관하는 갓집이나 청소 전용 솔 등이 부속물로 반드시 필요하였다.
	조형	외형	단순한 원통형과 부채형, 그리고 손잡이가 파도처럼 굽은 형 등 다양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갓의 올 사이에 낀 먼지 등의 때를 털어 내는 데 사용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솔은 주로 말총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나무나 대모(玳瑁)를 이용한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쓰임새에 따라 형상과 구조가 다르고, 특히 손잡이의 형태는 현대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측면의 인간공학적 고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활용 가능성	문구류, 생활용품, 연장 도구류,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7-1
	품목명	발막 (Shoes)
	분류	신변잡화 / 신발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피모(皮毛)-가죽
	용도	신발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우리문화 이웃문화>(1997/문학수첩)

분석	제품 배경		가죽으로 같이 만들었어도 맑은 날 나들이할 때 신는 신발을 발막이라 하고, 굵은 날 비가 올 때 신는 신발은 진신이다. 발막은 선비나 노인이 즐겨 신었는데, 보통의 발막은 아무런 장식이 없고 아주 무덤덤해서 기능 위주의 신발로 보이나 옛날 초상화에 묘사되거나 수의로 채택된 것으로 보아 격조 있는 신발로 평가되었던 유형이다.
	조형	외형	뒤축과 코에 웨맨 솔기가 없고 코끝이 납죽하며, 다른 색 가죽으로 무늬를 놓아 장식하거나 무늬 따라 하얗게 분을 칠하기도 하였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맑은 날 남자들의 나들이용 신발이다. 용도에 충실하게 기능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직하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가죽을 수공으로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적 캐주얼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다. 전면과 후면부에 뚜렷한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다. 가죽 재료의 자연색과 화려한 남색의 적용 등 조화 있는 색상 적용을 볼 수 있다.	

활용 가능성	복고풍 신발 및 캐주얼화에 직접 활용,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7-2
	품목명	등구미 신 (雪鞋) (Footwear)
	분류	신변잡화류 / 신발
	시대	
	출토지	
	크기	높이 25cm, 길이 32cm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신발
	지정사항	
	소장처	인병선 소장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짚문화>(1989/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눈이 많이 쌓인 산길에서는 물푸레나무의 가지를 둥글게 휘어 새끼와 짚으로 친친 감아 만든 설피를 신었고, 미끄러운 길에서는 등구미 신을 만들어 신었다. 등구미란 바닥을 둥글게 엮고 울을 곧바로 높이 올려 엮은, 어느 고장에서나 가장 널리 쓰이던 그릇의 일종인데, 등구미처럼 울을 높여 깊숙이 짜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조형	외형	모나지 않은 등그스름한 형상으로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재료에서 나오는 거친 디테일이 단순한 형상과 보완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눈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신은 신발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짚으로 엮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제작기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상이 특징이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독특한 형상에서 현대의 미니 부츠 개념을 볼 수 있다.	

활용 가능성	재료와 제작 기법의 활용에서 나온 형상 적용의 예이다. 캐주얼화, 패션 소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F7-3
	품목명	덧신 (Footwear)
	분류	신변잡화 / 신발
	시대	
	출토지	
	크기	
	재료	초제(草製)-짚
	용도	신발
	지정사항	
	소장처	인병선 소장
	자료출처	<한국 짚 문화>(1991/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제품 배경		짚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신발 중의 하나이다. 덧신(현대적 개념의 샌들) 개념으로 되어 있다.
	조형	외형	둥그스름한 전면부와 발목을 잡아 주는 연결 부위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뒤축 매듭이 튼튼해 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신고 벗기에 편리해 보이는 덧신이다. 둥그스름하게 막힌 전면부는 신발 외부로부터의 각종 장애를 피하고 착용감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짚으로 엮어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현대 유행에 뒤지지 않을, 영속성 있는 패션성을 느낄 수 있다. 엮은 구조가 형상과 무리없이 조화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현대 디자인의 충실한 법칙을 알 수 있게 한다.	

활용 가능성	현대 캐주얼화에 직접 활용,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F8-1
	품목명	등거리 (Bamboo Underwear)
	분류	신변잡화 / 기타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제(木製)-대나무
	용도	여름용 속옷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월간 매종>(1996. 7./가야미디어)

분 석	제품 배경		등거리는 배자(저고리에 덧입는 옷으로 마고자와 같으나 소매가 없음)나 조끼, 반비의(저고리 위에 입는 것과 동정이 없는 반팔 겹옷), 담호(벼슬아치의 예복 밑에 입는 조끼형으로 밑이 깊), 쾌자(등술을 길게 찢고 소매는 없는 군복)와 같은 종류의 옷으로,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여름용 속옷이다. 또 더위를 피하는 복식에는 잠방이(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짧은 바지. 시원한 소재로 만들어 팬티 대신 속옷으로 입음)가 있어 등거리에 잠방이를 받쳐입는 등걸잠방이 차림이 여름철 농사일에 필수였다.
	조형	외형	조끼의 형태로, 대개의 등거리는 깃은 달지 않고 소매는 짧거나 아주 없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머니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색상	대나무를 등글등글하게 엮은 것이 마치 크로키한 듯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통풍을 위해 무더운 여름에 입는 옷으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여름, 모시 적삼 밑에 받쳐입으면 옷이 직접 살에 닿지 않아 상쾌하고, 통기성이 뛰어나 옷과 살에 땀이 배지 않는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대나무의 시원한 기운을 전해 주는 산죽(山竹)으로 만든 것으로, 긴 대나무 그대로 날줄, 씨줄을 엮으면 광주리처럼 뻗뻗해지므로 짧게 자른 재료를 이어 입기 좋을 뿐 아니라 땀도 뚫어준다.
		제작기술	등거리 재료로는 대나무 이외에도 무명, 베, 등나무, 땡탕이(잔털이 난 새모래덩굴과의 풀) 따위를 썼는데 등나무로 엮은 것은 등등거리, 대나무는 대등거리라 불렀다. 각 지방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가늘게 잘 찢어지면서도 질긴, 섬유질의 성질이 많고 착용감도 좋은 재료를 한껏 살려 만들었다. 간혹 재료가 잘 엮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한 실이나 끈을 섞어, 쉽게 엮어지면서도 완성된 뒤에는 나뭇의 멋이 돋보이도록 했다.
특기			
디자인 특징		더위를 식히는 기능이 옷의 역할을 거스르지 않고 충족한 디자인이다. 재료의 특성을 살려 형상을 이루었고, 외관의 조형미 또한 뛰어난 기능, 구조, 조형의 세 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활용 가능성	패션, 생활용품, 가구, 침구류, 인테리어 소품, 기타.
--------	---------------------------------

G. 기타

1. 장식, 자물쇠
2. 창호
3. 벽돌

일반	분류번호	G1-1
	품목명	허리띠 경첩 (Hing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의 경첩
	지정사항	
	소장처	태정민속박물관
	자료출처	<韓國の家具裝飾>(1990/일본 平河出版社), <나의 지게자리>(1995/보주신문사),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가구의 쓰임에 따라 장식금구(裝飾金具)의 무늬도 달리 나타났다. 안방가구는 주로 봉황, 구름과 학, 나비, 물고기, 박쥐 등을 비롯해 모란, 국화, 수국, 매화 등 다양한 길상문양을 새기거나 투조(透彫)하였고, 사랑방가구에는 사군자를 비롯하여 칠보, 박쥐, 잉어, 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의 문자로 선비의 기품과 군자의 이상을 반영하였다.
	조형	외형	이름처럼 허리띠 같은 모양이다. 바탕에는 매화꽃 가지, 대나무와 바위, 소나무와 학 등을 선각(線刻)하였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저고리 모양이어서 저고리 경첩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경첩은 문판을 몸체에 잇대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로 여닫이문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장치이다.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쇠 조각을 맞물려서 기둥쇠에 말아 고정시키고, 기둥쇠가 회전함에 따라 문을 여닫게 하는 것이 경첩의 원리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문양과 입체감,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동양적 문양의 디테일이 조화되어 있다. 동서양, 고전과 현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 패션 소품, 가구, 인테리어 자재,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2
	품목명	장식 (Knob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 장식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장식이란 목공품 같은 생활용품을 제작할 때에 기능의 필요성에 의해 몸체에 부착되는 금속재의 장식을 통틀어 말한다. 장식이란 말은 금, 은, 동, 철, 백동 등 여러 금속 재료 가운데 주로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연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조형	외형	들쇠는 들쇠 받침 위에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강한 장식성이 배풀어진다. 이것은 꽃과 나비로 조화시켜 부착된 문귀 장식과 더불어 국화형 들쇠받침, 활형 들쇠 등으로 안정감을 이룬 장식들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공품의 위판이나 큰 가구류의 좌우 옆널에 부착되어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거나 서랍이나 문짝에 부착되어 잡아당길 수 있도록 장치된 손잡이를 통틀어 들쇠라고 한다. 이 들쇠는 들쇠 받침과 미적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들쇠가 닿는 부분에는 배꼽 장식이라는 광두정을 부착해 목재의 마모성에 대비하는 기능적 역할을 배려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들쇠의 형상이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우아한 곡선으로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모서리에는 목재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식을 사용, 내구성을 고려하였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 패션 소품, 가구, 인테리어 자재,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3
	품목명	들쇠 (Knob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함의 들쇠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출처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장식의 쓰임은 금속 제품은 물론 목제품, 죽제품, 지승 제품, 석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여졌으나 특히 목공품에 있어서의 장식은 기능과 심미적인 감각을 더하는 데 한몫을 한다. 이것은 종이 위에 주칠을 한 함에 꾸며진 들쇠이다. 사랑방가구는 자연스런 재질감인 나뭇결을 살리며, 여기에 최소의 장식성이 부여되는 주석 장식과 담백한 거명쇠 장식을 즐겨 사용하여 청렴한 선비의 정신 세계와 잘 어울리게 하였다.
	조형	외형	들쇠는 들쇠 받침 위에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강한 장식성이 배풀어진다. 화려한 꽃 장식이 투각되어 꾸며진 함에서 기하형의 단순한 사각 들쇠 받침과 활형 들쇠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공품의 윗판이나 큰 가구류의 좌우 옆널에 부착되어 손으로 잡아서 들어올리거나 서랍이나 문짝에 부착되어 잡아당길 수 있도록 장치된 손잡이를 통틀어 들쇠라고 한다. 이 들쇠는 들쇠 받침과 미적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들쇠가 닿는 부분에는 배꼽 장식이라는 광두정을 부착해 목재의 마모성에 대비하는 기능적 역할을 배려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우아한 라인으로 정리된 간결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기능을 고려한 세 개의 받침 장식과 조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 패션 소품, 가구, 인테리어 자재,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4
	품목명	탈고리들쇠 (Knobs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의 들쇠
	지정사항	
	소장처	태정민속박물관
	자료출처	<나의 지계자리>(1995/보주신문사), <장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장석의 형태와 그 안에 표현된 내용들은 상당히 다양하며, 서민들의 생활 감정과 장인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곧 자연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감정의 세계는 일상 생활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사실적 묘사에서부터 추상적 조형 언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장인들의 섬세한 미의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제작에서 장인적인 조형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조형	외형	하회탈의 모습을 응용한 형태이다. 코와 입과 눈이 뚜렷하게 투각되어 있다. 가운데 것은 좀더 실용에 맞게 추상화되었고, 밑의 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형태로 제일 초기의 것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공품의 윗판이나 큰 가구류의 좌우 옆널에 부착되어 손으로 잡아서 들어올리거나 서랍이나 문짝에 부착되어 잡아당길 수 있도록 장치된 손잡이를 통틀어 들쇠라고 한다. 이 들쇠는 들쇠 받침과 미적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들쇠가 닿는 부분에는 배꼽 장식이라는 광두정을 부착해 목재의 마모성에 대비하는 기능적 역할을 배려하고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체적인 대상을 상징적으로 훌륭하게 소화한 디자인이다. 캐릭터적 요소가 적절히 강조되어 이미지 연상을 가능케 한다.	

활용 가능성	캐릭터 상품, 신변잡화, 패션 소품,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5
	품목명	천도형 고리 (Knobs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의 들쇠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고리의 역사는 가장 오래된 장식의 형태로서 철기시대 이후 각종 기물에 부착되어 왔다. 환봉이나 각봉 등의 금속재를 구부려 만든 작은 손잡이를 고리라고 한다. 고리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큰 대문, 분합문, 창문, 각종 서랍, 목가구의 여닫이문, 자물쇠 앞바탕 위에 매달려지며 개폐 기능의 자연스런 형태로 고안되어 쓰여지고 있다.
	조형	외형	원형의 고리 받침 위에 배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천도(天桃)형 고리이다. 늪지 않음을 상징하는 천도형은 고리 장식에 많이 쓰였다. 들쇠에서와 같이 고리도 고리 받침 위에 배목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식성을 강조하여 조형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고리는 부착할 때에 구조상의 강화를 위하여 배목에 걸거나 사슬고리에 연결되거나 한다. 이것도 고리 받침 위에 배목과 함께 연결되어 기능과 장식성을 강조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구체적인 대상을 상징적으로 훌륭하게 소화한 디자인이다. 캐릭터적 요소가 적절히 강조되어 이미지 연상을 가능케 한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따뜻함을 준다.	

활용 가능성	캐릭터 상품, 신변잡화, 패션 소품, 비주얼 디자인,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6
	품목명	뺨침대 (Handle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주석
	용도	가구의 장식물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뺨침대란 위아래로 여닫는 목물(木物)의 중앙에 붙어 있는 긴 막대형의 금속을 말한다. 목공품의 구조나 크기에 따라 뺨침대는 길이와 두께를 달리 한다. 대체로 뺨침대에는 간단한 줄무늬를 새기거나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양을 장식한 것이 많으며, 길이에 따라 끝 부분에 화형, 물형 등으로 변화를 주며 입체적으로 장식 형태를 만들고 있다. 형태에 따라서 몽땅 뺨침대, 선 뺨침대, 꺾쇠형 뺨침대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조형	외형	주철이 된 함의 둥근 자물쇠 앞바탕에 장식된 뺨침대로, 기다란 막대 끝에 연꽃 장식이 있고, 연꽃 안에는 한 쌍의 동자상이 양각되어 있는 특색 있는 뺨침대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일반적으로 함이나 궤, 반닫이 등의 뚜껑이나 윗판에 붙여 문판과 연결되며, 여닫을 때 들쇠의 기능과 함께 자물통을 끼울 수 있도록 보조 역할도 한다. 뺨침대는 뚜껑을 걸쳐놓았을 때 뚜껑의 무게를 받쳐 주어 경첩에 무리가 오는 것을 막아 준다. 그러므로 반닫이와 같이 큰 문판에는 그 무게를 지탱하도록 넓고 두껍고 짧은 쇠붙이를 쓰며 작은 함이나 궤 등과 같이 뚜껑을 위로 여는 구조에는 가늘고 긴 뺨침대가 사용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주석제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문양과 입체감,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동양적 문양의 디테일이 조화되어 있다. 동서양, 고전과 현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함의 주철 색상이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더한다.	

활용 가능성	신변잡화, 패션 소품, 가구, 인테리어 자재, 조명기구,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7
	품목명	봉수선화형 광두정 (Nail)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의 보강, 장식물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석과 자물쇠>(1990/대원사), <나의 지게자리>(1995/보주신문사), <韓國의家具裝飾>(1990/일본 平河出版社)

분석	제품 배경		광두정이란 강목이라고도 하며, 못의 일종으로 시각적인 장식성과 구조적 기능의 보강 역할을 하는 장식이다. 장식적인 광두정은 일반적으로 반단의 전면에 부착되며 형태나 크기에 따른 공간 구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장식되고 있다. 광두정의 형태는 단순 소박한 것들이 보통이다. 달, 약과, 이화(梨花), 국화, 수선화 등이 주로 쓰였다.
	조형	외형	봉수선화형 광두정이다. 광두정은 가구 몸판에 부착되는 장식 중 입체감을 주는 유일한 금속장식이다. 미적으로는 허전한 공간을 일정한 방향과 크기로 연속성 있게 좌우, 상하로 대칭시켜 균형미있게 장식의 조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구조적으로는 목재의 전면에 나타나 있는 홈집이나 못자국을 감추어 준다. 또한 작은 목물이나 함 등의 바닥에 부착되어 밀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들쇠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내구성과 함께 들기에 편하도록 들쇠가 목물에 직접 닿는 부위에 부착되어 기능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이를 배꼽 장식이라 하며 들쇠 받침과 한 조가 되도록 같은 형으로 디자인되는 것이 보통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본질적으로 기능적인 제품이나, 캐릭터적 조형 요소를 훌륭히 접목하였다. 평면의 형상과 입체의 형상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어느 곳에 적용하든 다양한 조형미를 줄 수 있는 적응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신변감화, 액세서리, 가구 부품, 인테리어 자재, 캐릭터 상품, 기타.
--------	--

일 반	분류번호	G1-8
	품목명	기하형 감잡이, 귀장식 (Ornaments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의 보강, 장식물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 석	제품 배경		목가구에 있어 구조상의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의 보강을 위하여 부착시키는 장식이 감잡이와 귀잡이(귀장식)이다. 조선조의 목공품은 제작상 전면의 윗부분과 천판의 옆부분, 곧 가로맞춤은 사귀물림으로 하고 각 부재의 세로맞춤은 갑풀이나 민어풀을 사용하여 대못으로 고정하는 맞댄이음, 수문장이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감잡이와 귀잡이는 판과 기둥, 기둥과 기둥, 판과 판 등 짜임이나 접합 부위를 양면으로 튼튼히 잡아 기능의 보강을 하여, 목재의 경제성과 견고한 부착성, 모서리 마무리의 미관성 등을 모두 해결하게 된다.
	조형	외형	직선의 기하형으로 반복, 장식되었다. 디자인 기본 원리인 형태의 반복적인 조화가 시각적인 대칭을 이루어 안정감 있게 표현되었다. 가운데의 감잡이는 앞면에서 옆면으로 꺾였고, ‘ㄴ’자형의 귀잡이는 앞면에 평면적으로 붙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가구에 있어 구조상의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의 보강을 위하여 부착시키는 장식이 감잡이와 귀잡이(귀장식)로, 감잡이가 목물(木物)의 두 면을 ‘ㄱ’자형, ‘ㄴ’자형 등 입체적으로 그 구조를 보강하는 데 비하여 귀잡이는 평면적으로 부착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간결미가 있는 현대적인 이미지이다. 목재와의 대비에서 세련된 맛을 얻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가구 부품, 인테리어 자재, 옥외 시설물,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9
	품목명	통귀쌈 (Ornaments of Furnitur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가구의 보강, 장식물
	지정사항	
	소장처	태정민속박물관
	자료출처	<나의 지계자리>(1995/보주신문사), <장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목공물에서 3면이 모이는 귀통이 부분을 통째로 감싸주는 장식 으로, 모서리에 고깔을 씌운 것 같다 하여 일명 고깔 장식, 또는 귀싸개 장식이라 부른다.
	조형	외형	귀통이의 3면을 감싸주므로 고깔형이다. 문양과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목공물에서 3면이 모이는 귀통이 부분을 통째로 감싸주어 외부 의 물체가 목가구에 직접 닿거나 닿기 쉬움을 방지하며, 전체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보강 조치 장식을 겸하므로 입체적으로 제작되었다. 작은 목물인 경대, 빗집, 서류함 등에 사용되고 있 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대체로 3면이 펼친 그림으로 재단되어 한 면을 땀으로 고정시켰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문양과 입체 형상이 잘 조화된, 조형이 독특한 기능 제품이다. 입체 형상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며, 디테일이 변화되 어 있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신변감화, 액세서리, 가구 부품, 인테리어 자재, 조명 기구, 캐릭터 상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10
	품목명	봉수선화형 은혈 자물쇠 (Lock)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동합금(銅合金)
	용도	자물쇠
	지정사항	
	소장처	
	자료출처	<장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은혈 자물쇠는 자물쇠 자체가 가구에 붙어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되어 있는 불박이형 자물쇠의 일종으로, 자물통이 없이 자물쇠 장치가 감추어져 있거나 앞바탕 위에 열쇠 구멍만 보이도록 하여 잠글 수 있도록 한 숨은 자물쇠 형태를 말하며 일명 병어리 자물쇠라고도 한다.
	조형	외형	봉수선화형 은혈 자물쇠로 닫힌 상태와 열린 상태이다. 은혈 자물쇠의 형태로는 수선화형을 비롯해 달형, 국화형 등 단순한 형태나 보상화형, 등근형, 수파련형 등의 앞바탕 위에 장치되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뚜껑을 닫아 놓으면 단순한 장식물이고 뚜껑을 밀어 열면 자물쇠 구멍이 나오는 숨은 자물쇠이다. 보통 가구 전체 의장에서 단순 경쾌한 장식미를 돋보이도록 서랍이나 미닫이 문짝, 여닫이 문짝 위에 부착된다. 또한 문갑, 사방탁자, 서안 등의 문방 가구와 약장, 갑계수리, 경대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동과 주석의 합금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본질적으로 기능적인 제품이나, 캐릭터적 조형 요소를 훌륭히 접목하였다. 평면의 형상과 입체의 형상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어느 곳에 적용하든 다양한 조형미를 줄 수 있는 적응성이 뛰어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패션 소품, 신변잡화, 액세서리, 가구 부품, 인테리어 자재, 캐릭터 상품,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1-11
	품목명	대롱 자물쇠 (Lock)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철, 동합금(銅合金)
	용도	자물쇠
	지정사항	
	소장처	태정민속박물관
	자료출처	<나의 지계자리>(1995/보주신문사), <장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서 자물쇠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독립형 자물쇠이다. 이 형태는 단순한 조작 기능으로, 삼국시대 이후 계속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물쇠 장식은 기능 위주의 역할이 주목적이나, 그 형태와 크기가 목공품의 무게와 안정감을 더해 주므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조형	외형	외형이 ㄷ자 모양의 장방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런 일반형 자물쇠는 아주 작은 크기에서부터 20cm 이상의 큰 크기 까지 다양하며 또 모양도 차이가 있는데, 옆면이 대롱형이나 사각, 삼각, 오각 등으로 여러 모양을 하고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오른쪽 경자 부분에서 열쇠를 꽂아 밀어 넣으면 왼쪽 경자 머리 쇠에 부착되어 있는 쯤대와 속칭이 붙어 있는 ‘ㄷ’자형의 잠글쇠가 빠져 나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반단이, 장, 뒤주, 책장, 각종 함, 광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제나 주석으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성과 실용성에 바탕을 둔 간결한 디자인이다. 일체의 필요 없는 꾸밈이 없고, 합리적인 구조 자체가 현대적인 조형미를 풍기고 있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G1-12
	품목명	배꼽 자물쇠 (Lock)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금속(金屬)-철, 동합금(銅合金)
	용도	자물쇠
	지정사항	
	소장처	태정민속박물관
	자료출처	<나의 지계자리>(1995/보주신문사), <장석과 자물쇠>(1990/대원사)

분석	제품 배경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서 자물쇠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독립형 자물쇠이며, ㄷ자형 자물쇠의 일종이다. 이 형태는 단순한 조작 기능으로, 삼국시대 이후 계속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물쇠 장식은 기능 위주의 역할이 주목적이나, 그 형태와 크기가 목공품의 무게와 안정감을 더해 주므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조형	외형	외형이 'ㄷ'자 모양의 장방형의 일종으로, 몸통 앞면이 반구형으로 튀어나온 참외의 배꼽 모양이다. 이런 일반형 자물쇠는 아주 작은 크기에서부터 20cm 이상의 큰 크기까지 다양하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배꼽 자물쇠는 배꼽처럼 튀어나온 부위에 열쇠 구멍이 있어 원통형의 열쇠를 넣어 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반닫이, 장, 뒤주, 책장, 각종 함, 광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철제나 주석으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능성과 실용성에 바탕을 둔 간결한 디자인이다. 일체의 필요 없는 꾸밈이 없고, 합리적인 구조 자체가 현대적인 조형미를 풍기고 있다. 배꼽 부분의 간결한 반구 처리와 몸체면의 대비가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 반	분류번호	G1-13
	품목명	빗장걸이 (Nut of Gat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13cm, 길이 39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대문 빗장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개인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 석	제품 배경		여닫이 대문에는 문을 잠그고 열기 위한 빗장이 있다. 대문의 크기와 장소에 따라 빗장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빗장을 걸어놓기 위한 빗장걸이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인 막대 형식이 있는가 하면 거북형이나 물고기형의 빗장걸이가 있다. 거북형 빗장걸이는 가족의 장수와 길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택해졌다.
	조형	외형	초대형의 거북으로 대문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중심의 등줄기가 높으며 풍부한 몸체는 두껍고 넓다. 귀갑문양이 먹으로 그려져 있으며 목은 단순하게 깎아 상징적으로 면처리했다. 목과 등이 만나는 부분에는 마름모형의 사각무쇠장식을 박아 모서리를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도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대형 대문의 빗장걸이로, 좌측 거북의 꼬무니 부분에 중심부를 향해 긴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는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빗장을 고정시키는 막대(빗장둔테)의 구멍이며, 위에서 내려꽂게 되므로 거북이 거꾸로 매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북이 거꾸로 매달리도록 설치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가설이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로 깎아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이디어와 위트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구체적인 형상을 단순화한 캐릭터적인 기법이 뛰어나다. 단순미와 자연미가 독특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	------------------------------

일반	분류번호	G1-14
	품목명	빗장 (Nut of Gate)
	분류	기타 / 장식, 자물쇠
	시대	조선 (19세기)
	출토지	
	크기	높이 3.3cm, 길이 12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용도	대문 빗장걸이
	지정사항	
	소장처	박옥경 소장
	자료출처	<한국의 목공예>(1997/범우사)

분석	제품 배경		여닫이 대문에는 문을 잠그고 열기 위한 빗장이 있다. 대문의 크기와 장소에 따라 빗장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빗장을 걸어놓기 위한 빗장걸이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인 막대 형식이 있는가 하면 거북형이나 물고기형의 빗장걸이가 있다. 물고기는 재앙을 예방하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므로 가정의 출입구인 대문에 사용되는 빗장걸이로는 제격이다.
	조형	외형	두 개가 한 조를 이루는 대형 대문의 빗장걸이로, 물고기의 풍부한 몸체와 꼬리, 입, 지느러미, 눈 등이 극히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질성	대형 대문의 빗장걸이이다. 몸체 상단의 두 개의 구멍은 대문에 부착시 철못이 박혔던 자국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소나무로 깎아 만들었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이디어와 위트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구체적인 형상을 단순화한 캐릭터적인 기법이 뛰어나다. 단순미와 자연미가 독특한 디자인이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	------------------------------

일반	분류번호	G2-1
	품목명	송광사 하사당(下舍堂) 날살문과 띠살문 (Doors of Hasa-dang Hall of Songgwang-sa Temple)
	분류	기타 / 창호
	시대	조선 (15세기 초)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사찰의 문과 창문
	지정사항	
	소장처	전남 승주군 송광사
	자료출처	<꽃문>(1996/도서출판 미술문화), <한국의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송광사는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 서쪽에 있는 절로 우리나라 3보(三寶)사찰 중 승보(僧寶)사찰로 유명하다. 신라 말기 혜린선사가 창건,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사(定慧寺)라 칭하고 크게 중건하였다. 국보 3점에 보물이 11점이나 되는 많은 문화재가 있을 뿐 아니라 값진 사보(寺寶)가 즐비하며 박물관을 갖고 있다. 하사당은 3×3칸의 맞배주심포에, 15세기초까지 올라가는 오래되고 단출한 큰방으로 보물 263호이다.
	조형	외형	오뚝 선 길고 좁은 띠살무늬가, 양옆으로 낮고 넓은 듯한 날살무늬(바라지: 光窓)를 거느리고 있는 단출, 깔끔한 꾸밈새다. 살은 세로살인 날(經)살과 가로살인 씨(緯)살, 그리고 빗(斜)살로 나누어진다. 양쪽의 창은 날살만으로 짜여진 가장 초보적인 살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넓은데, 이는 파격의 묘이자 똑같은 것을 거듭하지 않는 예술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가운데 문은 날살에 띠처럼 가로살인 씨살을 위, 가운데, 아래로 나누어 지른 띠살문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문이란 말은 두루 걸쳐 쓰고 있는 한자말로, 울타리에 세워놓은 여닫이가 문이나 대문이고, 집체에 달린 여닫이는 호(戶), 그리고 집체의 바람벽 위쪽에 놓아 빛을 들어오게 하고 공기도 바꾸며 멀리 내다보기도 하는 문은 창(窓)이라 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못을 치지 않고 나무를 꿰어 맞춰 엮어 놓아 약하다 약한 감이 들지만 딱 짜여진 틀은 적지 아니 강한 힘을 갖는다. 문살 위에 창호지를 바르는데, 풀을 창호지 전체에 바르고 문살에 붙이면 종이와 풀이 마르면서 팽팽해진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간결하고 정선된 현대적인 구성미의 디자인이다. 제작 방법과 구조에서 오는 세심한 디테일이 정교한 완성미를 갖게 한다.	

활용 가능성	문, 창문 등의 건축 자재, 인테리어, 조명기구, 익스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2-2
	품목명	범어사 안심료 문 (숫대살문과 대밭) (Doors of Pomo-sa Temple)
	분류	기타 / 창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사찰의 문
	지정사항	
	소장처	부산 동래구 범어사
	자료출처	<꽃문>(1996/도서출판 미술문화), <한국의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범어사는 부산시 동래구 청룡동 금정산에 있는 절로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3보(三寶)사찰의 하나이다.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0여년을 폐허로 있다가 조선 선조 35년(1602)에 중건,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층단식 절이며, 문화재로는 대웅전(보물 434호), 삼층석탑(보물 250호) 등이 있다. 이것은 관조(觀照) 스님의 거처인 안심료(安心寮)의 문이다.
	조형	외형	밖에 대밭을 친 문의 안쪽으로, 대나무 잎이 햇살 사이로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 살은 서로 어긋나게 엮은 듯이 보이게 한 기본 엮음새인 숫대살로, 셈을 할 때 쓰던 산가지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 숫대살은 중국과 일본 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한국의 창살문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창호지를 안쪽에서 바른다. 이 창호지는 바깥이 어둡고 안이 환할 때 창살무늬가 그림자처럼 비쳐주는 역할을 한다. 또 바깥은 선과 선들로 이루어졌지만 안은 벽과 같은 면이 되어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 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못을 치지 않고 나무를 꿰어 맞춰 엮어놓아 약하디 약한 감이 들지만 꼭 짜여진 틀은 적지 아니 강한 힘을 갖는다. 문살 위에 창호지를 바르는데, 풀을 창호지 전체에 바르고 문살에 붙이면 종이와 풀이 마르면서 팽팽해진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고전적 문양이 반복되는 디자인으로, 문살 자체에서 고전미와 현대미를 느낄 수 있지만, 대밭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있는 효과가 독특하다.	

활용 가능성	문, 창문 등의 건축 자재, 인테리어, 조명기구, 익스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2-3
	품목명	범어사 나한전 어칸 문 (띠살과 빗살문) (Doors of Nahan-jon Hall of Pomo-sa Temple)
	분류	기타 / 창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사찰의 문
	지정사항	
	소장처	부산 동래구 범어사
	자료출처	<꽃문>(1996/도서출판 미술문화), <한국의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범어사는 부산시 동래구 청룡동 금정산에 있는 절로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3보(三寶)사찰의 하나이다.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0여년을 폐허로 있다가 조선 선조 35년(1602)에 중건,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층단식 질이며, 문화재로는 대웅전(보물 434호), 삼층석탑(보물 250호) 등이 있다. 이것은 범어사 나한전(羅漢殿) 어칸의 문이다.
	조형	외형	가장자리 둘레는 촘촘한 마름모무늬(빗살)이나, 가운데 부분은 따로 도드라진 울거미(틀)를 만들어 모로 누인 만(卍)자꼴의 무늬를 크게 놓아 맵시를 부렸다. 이 넓은 만자꼴 같은 무늬살은 둘레의 마름모무늬살에 돌보기를 댄 것과 같은 확대의 맛으로 보이도록 솜씨를 부린 것으로 매우 창의적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밖으로부터의 밝은 빛을 실내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창호지가 갖는 난반사의 성능은 실내의 조도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쪽에 바르는 창호지는 밖에서 보는 맛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내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못을 치지 않고 나무를 켜어 맞춰 엮어놓아 약하디 약한 감이 들지만 꼭 짜여진 틀은 적지 아니 강한 힘을 갖는다. 문살 위에 창호지를 바르는데, 풀을 창호지 전체에 바르고 문살에 붙이면 종이와 풀이 마르면서 팽팽해진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두 가지 다른 무늬를 대비해서 구성한 조형미가 뛰어나다. 전체적인 면 분할은 현대적이고 회화적이나, 각기 다른 입체감과 창호지의 그림자에서 독특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활용 가능성	문, 창문 등의 건축 자재, 인테리어, 조명기구, 익스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2-4
	품목명	무량사 극락전 어칸 꽃문 (소슬살문) (Floral Door of Kukrak-jon Hall of Muryang-sa Temple)
	분류	기타 / 창호
	시대	조선 (1627년)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사찰의 문
	지정사항	
	소장처	충남 부여군 무량사
	자료출처	<꽃문>(1996/도서출판 미술문화), <한국의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무량사는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만수산 기슭에 있다. 고려 때에 전성했던 이 절은 문무왕(661~680년)때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앞뜰에 있는 오층석탑(보물 185호)의 양식으로 미루어 백제 말기에 창건된 후 통일신라 중기에 중창되었다고 보는 설이 더 유력하다. 이 절의 법당인 극락전(보물 156호)은 5×4칸에 8작다포의 뚫린 2층집으로, 1627년쯤에 지은 우람하고 옛스러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조형	외형	소슬무늬살이란 세로살인 날살과 가로살인 씨살, 그리고 빗살 모두로 짜여진 것으로 한 점에서 8살이 만나 뻗어나는 복잡한, 화려한 꼴이 되며, 마름모, 세모, 네모를 크고 작게 만들어낸다. 소슬이란 ‘숫은’ 즉 ‘돌아낸’, ‘도드라진’의 뜻으로 때로는 그 위에 화려하게 꽃을 새기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집의 문에 있어서 몸체의 문, 즉 가운데 칸을 가장 잘 꾸미게 되는데, 대궐이면 임금이 앉은 앞(御間)이 되고 절이면 부처가 앉은 쪽이 되는 어칸(御間)은 꽃문(花門)인 ‘꽃지게’로 만들게 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못을 치지 않고 나무를 꿰어 맞춰 엮어 놓아 약하다 약한 감이 들지만 꼭 짜여진 틀은 적지 아니 강한 힘을 갖는다. 문살 위에 창호지를 바르는데, 풀을 창호지 전체에 바르고 문살에 붙이면 종이와 풀이 마르면서 팽팽해진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자연의 꽃무늬와 세모 모양의 문양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구성이 훌륭하다. 또한 각 살의 입체면이 기능적으로 만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조형미가 우수하다.	

활용 가능성	제품 전반.
--------	--------

일반	분류번호	G2-5
	품목명	범어사 팔상전 어칸 꽃문 (우물살꽃문) (Floral Door of P'alsang-jon Hall of Pomo-sa Temple)
	분류	기타 / 창호
	시대	조선 (1905년)
	출토지	
	크기	
	재료	목재(木製), 지(紙)
	용도	사찰의 문
	지정사항	
	소장처	부산 동래구 범어사
	자료출처	<꽃문>(1996/도서출판 미술문화), <한국의미-선/색/형>(1993/지식산업사)

분석	제품 배경		범어사는 부산시 동래구 청룡동 금정산에 있는 절로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3보(三寶)사찰의 하나이다.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0여년을 폐허로 있다가 조선 선조 35년(1602)에 중건,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층단식 절이며, 문화재로는 대웅전(보물 434호), 삼층석탑(보물 250호) 등이 있다. 팔상전은 대웅전 뒤에 있으며, 1905년쯤에 지어진 것이다.
	조형	외형	등을 살짝 공글린 네모(井字) 무늬살이지만 살이 서로 만나는 곳에 모두 매화꽃 같은 양증맞고 간결하며 깔끔한 네 앞의 흰 꽃송이가 활짝 피어나 있다. 꽃술은 노란빛이라 더욱 돋보인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집의 문에 있어서 몸채의 문, 즉 가운데 칸을 가장 잘 꾸미게 되는데, 대궐이면 임금이 앉은 앞(御間)이 되고 절이면 부처가 앉은 쪽이 되는 어칸(御間)은 꽃문(花門)인 '꽃지게'로 만들게 된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못을 치지 않고 나무를 꿰어 맞춰 엮어 놓아 약하디 약한 감이 들지만 꼭 짜여진 틀은 적지 아니 강한 힘을 갖는다. 문살 위에 창호지를 바르는데, 풀을 창호지 전체에 바르고 문살에 붙이면 종이와 풀이 마르면서 팽팽해진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질서 있는 장식적 효과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반복된 패턴으로 튀지 않는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 꽃무늬의 디테일이 섬세하다.	

활용 가능성	문, 창문 등의 건축 자재, 인테리어, 조명기구, 익스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2-6
	품목명	불발기(連窓門) (Door)
	분류	기타 / 창호
	시대	조선
	출토지	
	크기	높이 180cm, 너비 220cm
	재료	목재(木製)-소나무, 지(紙), 금속(金屬)-무쇠
	용도	방과 대청 사이 문
	지정사항	
	소장처	고도사 고미술전시관
	자료출처	주홍예술사업 http://www.artcity.co.kr/artbusiness/ <꽃문>(1996/도서출판 미술문화)

분석	제품 배경		일반집에서 흔히 방과 마루 사이에 달리는 불발기는 맹장지 문 중간에 따로 틀을 만들고 문살을 내는 것으로, 그 틀은 네모와 여섯모, 여덟모, 나아가 둥근 보름달(滿月)꼴로 만들고 속에다 갖가지 살무늬를 짠 것이 된다. 잘 지은 집의 방과 대청 사이에 다는 네짝 분합문에서 볼 수 있다.
	조형	외형	가장자리 두 짝은 셋으로 틀을 나눈 뒤 위아래에 빗살을 짜 넣고 가운데에는 우물(井)살을 놓았으며, 가운데 두 짝은 역시 셋으로 틀을 나눈 뒤 가운데에 다시 8모 문틀을 돌려놓았으며 살은 모두 빗살이고 8모울거미의 바깥 귀퉁이에도 빗살이 빠져나와 있다. 창은 채광 면적을 넓히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바깥쪽은 가늘고 안쪽으로 두터워지는 퇴밀이살을 썼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불발기는 채광과 보온, 그리고 꾸밈의 세 가지 효용을 다 만족시키는 장치로, 가운데 두 짝에 불발기를 두고 평소에 여닫이문으로 쓰다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양쪽으로 접어서 천장에 걸어 방을 틔운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못을 치지 않고 나무를 꿰어 맞춰 엮었으며, 창호지를 두껍게 발랐다. 중앙에 무쇠 문고리를 달았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공간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문이다. 기능적이면서도 드러나 보이는 외관의 고전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세련된 조형이다.	

활용 가능성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3-1
	품목명	문양전(文樣磚) (Bricks with Floral Design)
	분류	기타 / 벽돌
	시대	백제 (512년경)
	출토지	충남 공주시 무령왕릉
	크기	약 32×16cm, 두께 약 4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무덤의 벽돌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공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공주박물관>(1997/국립공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백제의 벽돌은 무덤에 쓰이는 무덤벽돌과 건물의 바닥이나 기단에 깔기 위한 간벽돌이 있다. 무덤벽돌은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의 것이 대표적인데, 특히 무령왕릉 축조에는 모두 28종류 이상의 다양한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사다리꼴과 네모난 벽돌의 한쪽 옆면에 연꽃무늬와 빗문살무늬 그리고 동진 무늬를 배치한 무늬벽돌들이다. 이처럼 대각선 교차점 위에 연꽃을 장식하는 양식의 벽돌은 공주의 송산리 6호분을 축조한 벽돌에서도 볼 수 있으며, 모두 백제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조형	외형	기다란 사각 면의 양끝에 융기된 선으로 장방형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역시 융기된 선으로 대각선을 치고 그 교차점에 6개 꽃잎의 연꽃 문양을 양각하였다. 이 구획의 사이에는 역시 융기된 선으로 사선의 격자무늬(斜格子文)가 쳐 있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무령왕릉의 널길이나 널방의 벽과 천장을 쌓기 위하여 제작된 벽돌이다. 벽돌을 쌓은 방법은 얇은 4개의 벽돌을 뒤어 포개는 길이모쌓기와 1개의 벽돌을 세워서 배열하는 작은모쌓기를 번갈아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기하학적인 문양과 사실적인 문양을 질서 있게 적용하였다.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일반 비율을 벗어나 차별화되어 있다.	

활용 가능성	건축 내외장재, 사인물, 옥외 시설물, 패키지, 기타.
--------	--------------------------------

일반	분류번호	G3-2
	품목명	문양전(文樣磚) (Bricks with Oblique Lines)
	분류	기타 / 벽돌
	시대	백제 (512년경)
	출토지	충남 공주시 무령왕릉
	크기	약 32×16cm, 두께 약 4cm
	재료	토제(土製)
	용도	무덤의 벽돌
	지정사항	
	소장처	국립공주박물관
	자료출처	<국립공주박물관>(1997/국립공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6/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술전집3>(1974/동화출판공사)

분석	제품 배경		백제의 벽돌은 무덤에 쓰이는 무덤벽돌과 건물의 바닥이나 기단에 깔기 위한 간벽돌이 있다. 무덤벽돌은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의 것이 대표적인데, 특히 무령왕릉 축조에는 모두 28종류 이상의 다양한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사다리꼴과 네모난 벽돌의 한쪽 옆면에 연꽃무늬와 빗문살무늬 그리고 동진 무늬를 배치한 무늬벽돌들로, 이같은 벽돌들은 모두 백제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조형	외형	기다란 사각 면에 용기된 선으로 네 개의 구획을 만들고, 각각의 구획 안에 역시 용기된 선으로 X자 형태의 사선 격자무늬(斜格子文)를 쳤다.
		색상	
		디테일	
		특기	
	기능	적절성	무령왕릉의 널길이나 널방의 벽과 천장을 쌓기 위하여 제작된 벽돌이다. 벽돌을 쌓은 방법은 얇은 4개의 벽돌을 누어 포개는 길이모쌓기와 1개의 벽돌을 세워서 배열하는 작은모쌓기를 번갈아 하였다.
		편의성	
		특기	
	제작	재료	토제(土製)이다.
		제작기술	
특기			
디자인 특징		연결성이 강한 기하학적인 문양이 현대적인 느낌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을 벗어나 차별화되어 있다. 디테일은 섬세하지 않으나 건축적인 장식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활용 가능성	건축 내외장재, 사인물, 옥외 시설물, 패키지, 기타.
--------	--------------------------------

제 3 장 조사 방법 및 내용

제 1 절 국내 조사

제 2 절 해외 조사

제 3 절 자료 출처 목록

제 1 절 국내 조사

1. 문헌 조사

가. 가구

- 이숙임, 이조시대의 실내장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58)
- 전소영, 조선조 장롱의 마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1994)
- 황봉익, 조선조시대 의(衣)걸이 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고문자, 조선조 문방가구의 의장 연구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 김경옥, 이조시대 사랑방가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2)
- 조선조 사랑방 가구에 나타난 비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양의숙, 제주도 퀘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2)
- 최경화, 조선조시대 경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손미자, 조선시대 죽재가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 유재선, 조선조 민예품에 나타난 실첩, 실상자의 조형적 특성,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김옥광, 천·종이를 사용한 조선시대의 가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 이원영, 조선조 주방용 가구와 목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나성희, 경남지역 반닫이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 허미영, 전라도 반닫이에 대한 고찰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윤근, 조선왕조시대의 반닫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7)
- 이예선, 조선조 반닫이의 의장요인에 대한 형태 분석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남경이, 조선조 반닫이의 현대화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신승우, 조선조 시대반상기의 형태와 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이정생, 조선후기의 소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조형미, 진유반상기와 스테인레스 스틸 식기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86)
 이경립, 도자제 반상기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2)
 윤영립, 현대식생활에 따른 도제 반상기 개발에 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7)
 임병문, 소반 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공혜원, 조각보 문양을 이용한 가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3)
 배만실, 이조 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1985)
 배만실,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대 출판부, 1993)
 옛 가구의 아름다움 (이화여대 박물관, 1996)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김삼대자, 빛깔있는 책들 159 -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5)
 정대영, 한국의 장 (동인방, 1998)
 나선화, 빛깔있는 책들 3 - 소반 (대원사, 1994)
 가마와 소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1986)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학교재)
 外

나. 문방구 · 담배용구 · 제례용구

박귀향, 조선조 벼루의 의장적 분석 연구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이임순, 조선시대 벼루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분석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6)
 이나미, 이조고비의 형태와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0)
 장인방, 금속제 연적형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6)
 오민애, 이조시대 도자연적에 관하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안석란, 이조후기의 연적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7)
 오세정, 조선조 후기 도자연적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1994)
 이정아, 섬유필통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4)

박영진, 명문도자필통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산업미술대학원, 석사
논문, 1985)
 조선시대필통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권도홍, 빛깔있는 책들 26 - 벼루 (대원사, 1994)
 이경노, 빛깔있는 책들 22 - 문방사우 (대원사, 1996)
 조선시대 문방기구 (국립민속박물관, 1992)
 옛 문방 문화전 (고도사, 1996)
 外

다. 생활소품

이명윤, 조선조 반질고리에 나타난 문양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8)
 이기상, 조선시대 인장함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여영, 조선조 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장보공, 조선조 종이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신철승, 조선조 등기형태를 이용한 가구디자인연구 - 등잔대를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논문, 1997)
 김준자, 한국 축대의 형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산업대학원, 1982)
 이상영, 조각보의 구성에 의한 현대자수의 조형적 표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박건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서의 켈트와 조각보 연구 (성신여대 조형대
학원, 석사논문, 1996)
 김성희, 조선조후기의 조각보에 대하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0)
 이종주, 조선시대 보자기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
사논문, 1997)
 Calendar 함 (삼성그룹, 1998)
 外

라. 기(器) 및 주방용구

이미영, 한국토기에 나타난 손잡이의 연구 (단국대 대학원, 1983)
 장동철, 한국 초기청자의 기형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
문, 1993)
 황종례, 청자의 소지와 유약의 실험적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1)
 정재목, 청자상감과 청동은입사무늬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85)
 유혜자, 현대 청자문양의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9)

김홍주, 고성주요 청자의 연원과 유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남미향, 고려청자의 상감문양장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이수연, 고려상감청자에 나타난 단문양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한석호, 고려상감청자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경희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김기희, 고려 상감청자 대접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조성희, 고려청자의 대접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김유경, 고려도자기 주전자에 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7)

육홍명, 고려시대 청자주전자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최건, 고려철회청자의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강순천, 고려시대 청자 매병의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서상문, 한국 매병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이광호, 고려청자 문양이 끼친 분청사기문양의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서은주, 고려백자의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6)

김재설, 고려백자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정명숙, 고려시대 상형청자와 조선시대 상형백자의 비교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송경희, 고려청자와 조선조백자의 병형의 비교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5)

이광호, 고려청자상감이 끼친 분청사기병문양의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강경숙, 이조 분청사기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4)

박천기, 조선조 분청사기 문양의 회화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권수령, 조선조 분청사기에 나타난 우문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박송우, 조선조 분청사기장군의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박광수, 조선조 분청사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8)

전혜진, 조선조 분청사기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전승창, 15세기 조선 분청사기·백자의 이행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홍순옥, 강릉지방 분청사기의 일 고찰 (관동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정희중, 분청사기 문양에 표출된 한국인의 조형의식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 홍찬효, 분청사기 문양의 상징성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윤인주,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나타난 회화성의 변용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우경미, 조선전기 분청사기의 새로운 기형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황성진, 분청사기에 나타난 어문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 장상철, 분청사기 박지문을 응용한 접시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전승창, 15세기 조선 분청사기·백자의 이행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장기훈, 조선시대 17세기 백자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최사은, 조선후기 백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 이영선, 조선조 청화백자에 나타난 식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 김기천, 조선조 청화백자에 나타난 동물 문양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
- 육재수, 초창기 청화 백자의 장식 Pattern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80)
- 이성심, 조선시대 청화백자 화조·충문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박정훈, 조선전기 청화백자에 나타난 도자화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장남원, 18세기 청화백자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최경화, 19세기 청화백자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장두일, 조선시대 청화백자 문양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신상재, 이조 청화백자문양화의 조형공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7)
- 이경희, 이조 청화백자의 특질한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3)
- 채효진, 조선 철회백자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 이광진, 조선조 백자제기의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홍정주, 조선왕조시대의 제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이기석, 도자제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2)
 여정화, 용기소지의 발색과 활용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안정숙, 용기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한애규, 용기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0)
 정병락, 한국 용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미정, 용기 형태를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숙명여대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4)
 신서정, 용기를 응용한 테이블웨어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이원영, 조선조 주방용구와 목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장영숙, 조선시대 식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9)
 이경득, 도자향로의 의장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조명상, 도자제 향로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7)
 최송희, 조선 후기 수저집에 대한 고찰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1)
 백제 금동 향로와 청왕명 석조 사리함 - 국립부여박물관 (통천문화사, 1995)
 한국 고대의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진홍섭, 한국미술전집3 - 토기 토우 와전 (동화출판공사, 1974)
 호림미술관 소장품선집-토기 (정보문화사, 1985)
 한국의 미 ⑤- 토기 (중앙일보사, 1996)
 한국의 미 ④- 청자 (중앙일보사, 1996)
 국보 5 - 청자-토기Ⅱ (예경산업사, 1986)
 국보 6 - 청자-토기Ⅱ (예경산업사, 1986)
 최순우, 한국미술전집9 - 고려도자 (동화출판공사, 1975)
 고려 도자명문 (국립중앙박물관, 1992)
 분청사기 명품집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한국의 미 ③- 분청사기 (중앙일보사, 1996)
 강경숙, 빛깔있는 책들 31 - 분청사기 (대원사, 1990)
 국보 15 - 백자-분청사기Ⅰ (예경산업사, 1986)
 한국의 미 ②- 백자 (중앙일보사, 1996)
 정양모, 한국미술전집10 - 이조도자 (동화출판공사, 1973)
 경주분원리 청화백자 (이대박물관, 1994)

백흠예, 청화백자연구(1) (제일문화사, 1987)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도자기명품도록 (고려대학교 박물관)
정양모, 옹기 (대원사, 1995)
김길성, 다식 떡살 문양 (태양사, 1989)
外

마. 도구

배영동, 호미에 관한 일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7)
이승진, 재래농기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박호석, 동·서양 쟁기의 기원과 발전 (충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8)
김복태, 조선조 목공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농업박물관도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88)
박대순, 빛깔있는 책들 17 - 농기구 (대원사, 1995)
김광산, 한국농기구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농업박물관 이야기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연장 (전통공예공구) (연세대학교 박물관, 1984)
外

바. 신변잡화

박영진, 한국삼국시대 금속장신구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0)
구미혜, 삼국시대 경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마경임, 조선후기의 서민여성 장식에 대한 고찰 (수도여자사범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5)
이순자, 옛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장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1)
안귀숙, 조선후기 뒤꽂이에 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박애신, 우리나라 전통빚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전두선, 한국 여성용 금속제 머리빚에 관한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5)
이정미, 현대귀걸이의 디자인 개발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김성현, 요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2)
이세진, 우리나라 노리개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1983)
정성복, 우리나라 노리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1)

진명숙, 조선시대 노리개에 반영된 여성의 가치관 고찰 (숙대 대학원, 1983)

이은숙, 조선시대의 노리개에 관한 연구- 노리개에 나타난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신동숙, 노리개고- 삼작노리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방인도, 한국 삼작노리개고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59)

양재선, 도자노리개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석사논문, 1997)

최봉현, 도자노리개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김세환, 한국 노리개의 조형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용정순, 도자노리개 주체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2)

김순배, 도자노리개 주체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6)

박정예,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왕춘옥, 한국현대 노리개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박나정, 비너를 응용한 브로치 디자인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최순자, 장신구의 세계 (예경, 1995)

한국의 장신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1)

한국의 미- 의상, 장신구, 보자기 (국립중앙박물관, 1988)

석주선, 장신구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96)

석주선, 관모와 수식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93)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민속박물관, 1988)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69 - 옛 안경과 안경집 (대원사, 1995)

전상운,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 (월간시계사, 1994)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3 - 전통부채 (대원사, 1994)

최상수, 한국부채의 연구 (정동출판사, 1981)

한국의 부채 (연세대학교 박물관, 1995)

박만인, 우리나라 나막신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1983)

外

사. 공통

오경순, 한국 매듭과 서양 매듭의 현대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78)

성락륜, 한국불화에 나타난 매듭의 고찰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박종근, 한국 도검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1988)

조유진, 조선조 금속상감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81)

전용주, 조선조시대의 자물쇠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3)

전재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웅진출판, 1991)

이어령, 한국인의 손.한국인의 마음 (디자인하우스, 1994)

최종민외,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장경희 외 다수,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199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최성자, 한국의 미 - 선택형 (지식산업사, 199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1991)

김용태, 옛 살림 옛 문화 이야기 - 마음으로 보는 민속문화유산 (대경출판, 1997)

신영훈, 우리문화 이웃문화 (문학수첩, 1997)

김만희, 민속도록 -한국민속화자료총서 1.2.3.4 (상미사, 1985)

김태영, 문화재대관 (대학당, 1991)

유용태, 강원의 美 (강원일보사, 1993)

이경희, KOREAN CULTURE

ART TREASURES OF SEOUL

KOREAN FOLK & ART CRAFT (1987)

KOREAN FOLK MUSEUM (1994)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풍속도 (서문당, 1993)

한국의 아름다움 (국립중앙박물관, 1988)

진홍섭, 국보 5공예 (예경산업사, 1985)

진홍섭, 국보 (9) 공예 I . II (예경산업사, 1986)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한국의 전통공예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1994)

한국전통공예미술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진홍섭, 국보(5) 공예 (웅진출판사, 1992)

국보 10 - 공예II (예경산업사, 1986)

김중태, 한국수공예미술 (예경산업사, 1990)

한순자, 소박한 향토미의 왕골공예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1995)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6)

경주이야기 (국립경주박물관, 1991)
 국립진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2)
 국립광주박물관 (통천박물관, 1990)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1990)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1997)
 국립청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6)
 국립민속박물관 (신유, 1996)
 국립대구박물관 (통천문화사, 1996)
 국립광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4)
 박물관이야기 - 국립대구박물관 (통천문화사, 1997)
 박물관이야기 - 국립광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2)
 박물관이야기 - 국립광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6)
 박물관 전시 유물 이야기 -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1995)
 한국의 선·원사토기 (국립중앙박물관, 199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한국의 청동기 문화 (범어사, 1995)
 한국미술 5000년 (국립중앙박물관, 1984)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96)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96)
 성균관대학교 박물관도록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983)
 경희대학교 박물관도록 (경희대학교박물관, 1986)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집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다보성고미술 (다보성고미술관, 1996)

이명희, 빛깔있는 책들 168 - 궁중 유물(돌) (대원사, 1996)
 조선왕조유물도록 (한국문화보호재단, 1993)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2)
 궁중유물도록 (문화공보부, 문화관리국, 1989)

김원용, 한국미술전집1 - 원시미술 (동화출판공사, 1973)
 김기웅, 빛깔있는 책들 125 - 고분 유물 (대원사, 1995)
 범어사,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1992)
 윤경렬, 신라의 아름다움 (동국출판사, 1985)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신라문화전도록 (충남대학교 박물관, 1986)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정화 - 입사공예 (국립중앙박물관, 1997)
 국보 1 - 고분금속 I (예경산업사, 1986)
 국보 2 - 고분금속 II (예경산업사, 1986)
 진흥섭, 한국미술전집8 - 금속공예 (동화출판공사, 1974)

한국의 미 23 - 금속공예 (중앙일보사, 1981)
주홍섭, 한국금속공예 (일지사)
이난영, 한국 고대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이호관, 한국의 금속공예 (문예출판사, 1997)
홍정실, 빛깔있는 책들 2 - 유기 (대원사, 1994)

목공소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1)
목공예명품도록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上, 下 (열화당, 1996)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 (범우사, 1997)
한국의 미 24- 목칠공예 (중앙일보사, 1996)
최순우, 정양모, 한국미술전집13 - 목칠공예 (동화출판공사, 1974)
한국 칠기 200년 (신유, 1989)
옛 문방문화전 (고도사, 1996)

한솔종이박물관 이야기 (한솔종이박물관, 1997)
한국의 종이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5)
임영주, 빛깔있는 책들 187 - 종이 공예 문화 (대원사, 1996)
오색한지공예 (한림출판사, 1995)

김창문, 韓國の家具裝飾 (일본 平河出版社, 1990)
김창문, 나의 지계자리 (태정민속박물관, 1995)
홍정실, 빛깔있는 책들 33 - 장식과 자물쇠 (대원사, 1996)

한국 짚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1)
인병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 (현암사, 1995)
인병선, 빛깔있는 책들 1 - 짚문화 (대원사, 1997)
짚제품 특별전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

이상일, 한국의 장승 (열화당, 1985)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5)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5)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5)

문-이경재 사진집 (열화당, 1995)
관조스님, 꽃문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6)

한국과학 문화재단, 우리의 과학문화재 (도서출판 서해문집, 1997)
한국의 도량형 (국립민속박물관, 1997)

옛날물건종합전 (고도사, 1995)
 서울올림픽기념 서울시민 소장 문화재전
 제6회 서울시민 소장 문화재전
 개관10주년기념 기증자료전시회 (광주민속박물관, 1997)
 '95광주비엔날레 고미술특별기획전
 Historical Museum of Mongchon Fortress (서울특별시)
 해외소장한국문화재 일본/유럽/미국/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93)

전승공예대전 17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2)
 한국공예가회 편, 한국공예 (미진사, 1985)
 한국전통기능보존협회, 한국전통공예전 (고려서적, 198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작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서울시전통공예명인초대전 (서울시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출품 도록 (3권)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1976-1978)
 해외토산품도록 (6권)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1974-1979)
 국내개발토산품도록 (6권)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1974-1979)
 제품 및 포장디자인 도록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1976)

광복5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국자수의 아름다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매듭 TRADITIONAL KNOTS (가나아트, 1992)
 김랑한, 우리나라 매듭 (도서출판 진화, 1989)
 한국매듭작품전 (한국매듭연구회, 1994)

신상재, 한국인의 생활문양 (1987)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2 꽃 (1987)
 한국문양도록 (2권)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1976-1977)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 (디자인하우스)
 월간 라벨르 (Labelle) (중앙일보사)
 월간 메종 (가야미디어)
 월간 노블레스
 대한항공 기내지 (Morning Calm)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내지 (아시아나항공)
 外

2. 박물관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총 10만여 종의 문화재 전시. 웹 사이트에서는 대표적인 소장 유물에 대한 3차원 영상과 설명자료 등 소개.

<http://www.museum.go.kr/>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시대 및 선사시대의 유물과 안압지 출토 유물 전시.

<http://www.museum.go.kr/~kyoungju>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도 지방의 각종 유물 및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 유물 1천여 점 전시.

<http://www.museum.go.kr/~kongju>

<http://kitel.co.kr/~sunghoon>

국립광주박물관

호남 지역의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각 시대 유물 및 신안해저유물 전시.

<http://www.museum.go.kr/~kwangju>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지역의 각종 유물 전시.

<http://www.museum.go.kr/~kimhae>

국립대구박물관

각종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

<http://www.museum.go.kr/~taegu>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유적지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전시.

<http://www.museum.go.kr/~puyo>

<http://kitel.co.kr/~sunghoon>

국립전주박물관

민속자료 및 전라북도 지방의 전통문화 전시. 농기구와 목기 제작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상세함.

<http://www.museum.go.kr/~chonju>

국립진주박물관
가야시대 및 임진왜란 문물 등 소장.
<http://www.museum.go.kr/~chinju>

국립청주박물관
각 시대 문화재 및 청주 지방과 밀접한 고인쇄 문화재 전시.

창녕박물관
창녕 지방의 각종 유물 전시. 특히 고분 유물이 많으며, 웹 사이트에서 사진 자료와 함께 다양하게 소개.
<http://gun.changnyong.kyongnam.kr/chang26.htm>

경기도립박물관
경기도 지방의 각종 문화 유물 전시.

광주시립박물관
호남 지방의 각종 민속자료 전시.

인천시립박물관
토기, 도자기, 금속제품 및 각종 고미술품 전시.

국립민속박물관
우리 민족의 풍습 및 생활도구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 및 재현.
<http://www.skc.co.kr/museum/folklore/index.html>

온양민속박물관
우리나라 민속품 및 생활사에 대한 다양한 전시. 14,000여 점에 달하는 일반 생활용구가 다양함.

궁중유물박물관
조선왕조의 유물 및 유품 전시.
<http://www.skc.co.kr/museum/palace/index.html>

호암미술관
선사시대 유물에서 현대미술품까지 15,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국보와 보물이 100여 점에 달함. 웹 사이트에서는 대표적인 소장품에 대해 상세히 소개.
<http://www.hoammuseum.or.kr>

태평양박물관

각종 화장용기와 화장품 제조용구, 장신구 등 여성 생활용품 1500여 점 보유.

<http://www.skc.co.kr/museum/pacific/index.html>

호림박물관

도자기류 500여 점 전시.

<http://www.skc.co.kr/museum/horim/index.html>

한솔종이박물관

종이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종이로 만든 각종 생활용품 전시.

<http://www.hansol.co.kr/korean/museum/kpapermuseum.html>

짚.풀 생활사 박물관

짚과 풀로 만든 각종 생활용품 전시.

<http://www.skc.co.kr/museum/life/index.html>

한국자수박물관

3천여 점의 자수품 및 고전의상류 등 규방 생활용품 전시.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jasu/index.html>

고려대학교박물관

대학 박물관의 효시로, 10만여 점의 풍부한 유물들 전시. 비교적 다양한 민속자료 보유.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korea/index.html>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 지역의 고분 출토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사진 자료 소개.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고전 의상류 및 각종 장신구, 관모 등 전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박물관

고대에서 근대까지 각종 유물 전시. 대표적인 소장품은 웹 사이트에서 상세 소개.

<http://www.cataegu.ac.kr/museum>

동아대학교박물관

국보와 보물급을 비롯해 다양한 유물 전시, 웹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유물 소개.

<http://www.donga.ac.kr/museum>

서울대학교 박물관

다양한 출토 유물 전시.

<http://www.snu.ac.kr/home/b/bg/bg.htm>

승실대학교박물관

고대에서 근대까지 각종 유물 전시. 대표적인 소장품은 웹 사이트에서 상세 소개.

<http://www.soongsil.ac.kr/bakmulgwan/bakmulgwan.html>

연세대학교 박물관

각종 유물 및 근대 생활용품 전시.

<http://lis.yonsei.ac.kr/museum>

영남대학교 박물관

신라, 가야 문화의 각종 자료 전시.

<http://www.yeungnam.ac.kr/attorg/220/hindex.html>

울산대학교 박물관

각종 유물 전시.

<http://www.ulsan.ac.kr/~museu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조선시대 가구류 및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전시.

<http://museum.ewha.ac.kr>

전통공예관

조선시대 말부터 현재까지 가구, 장신구 등 공예품 전시.

농업박물관

우리나라 농기구들을 상세히 전시.

안동민속박물관

각종 민속자료 전시.

태정민속박물관

조선시대 가구장식 및 생활필수품 전시. 20만여 점에 달하는 조선 가구 장식을 비롯하여 자물쇠 2,000점, 바가지 1,000점, 기타 도구들 전시.

대관령박물관

선사시대부터의 민속유물 및 강원도 지방의 각종 생활용구 전시.

충주박물관

민속류 등 1,500여 점 전시.

한독의약박물관

한국 고대 의약품에서부터 근대 의약품 자료 및 약품 전시.

참소리축음기오디오 박물관

축음기 오디오 등 105점 전시.

통신박물관

우리나라 초기 전화기를 비롯한 역사적인 각종 통신기기 전시.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우리나라 민속자료를 축소 재현, 소개.

한국민속촌

전통 가옥과 특색 있는 각종 민속품 전시.

청구박물관

민속품류 및 농기구류 전시.

外

3. 관련 웹 사이트 조사

문화재관리국

우리나라의 문화재 소개 및 각 국립박물관 연결.

<http://www.ocp.go.kr>

National Treasure of Korea

우리나라의 국보를 사진과 국영문으로 자세히 소개.

<http://firefox.postech.ac.kr/treasure>

Korea Insights

우리나라 전통 및 민속에 대한 분야별 소개.

<http://www.korea.insights.co.kr>

강원도와 강원문화

강원도의 문화 및 민속 소개.

<http://myrinae.hallym.ac.kr/kangwon.html>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경주

경주의 지역 소개 및 문화재 소개.

<http://www.dacom.co.kr/~jhsl>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중앙일보에서 개최한 고려시대의 국보전 소개.

<http://www.joongang.co.k/korea/kl.htmlr>

안동 하회마을

하회마을의 고건축 문화 및 민속 소개.

<http://anu.andong.ac.kr/tour/hahui/hahui.html>

통도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인 통도사 소개.

<http://namgaram.gsnu.ac.kr/~tong>

(사)대구경북종합정보센터-가상박물관

각종 박물관 소개 및 링크.

<http://gic.kyungpook.ac.kr/vl/museum.htm>

한국의 고 목가구

우리나라의 고가구에 대한 설명 및 대표적인 가구 소개.

<http://www.skc.co.kr/museum/mokgagu/index.html>

한국의 옛 가구

우리나라 옛 가구의 분류 및 대표적인 가구들 소개.

http://uniweb.unitel.co.kr:8085/pub/menu_main.html?rid=108

Korean Pottery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를 시대순으로 소개하고, 현대 작가들의 재현 작품 소개.

<http://www.koreafolkart.com>

한지박물관

한지 공예 작품 및 유물 소개.

<http://www.kornet.nm.kr/hanna1>

한국의 美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공예품 소개.

<http://my.netian.com/~jesesoft>

사이버 박물관

각종 박물관 소개 및 링크.

<http://bora.dacom.co.kr/~warmm>

아트서울

국내외 현대미술과 고미술 소개 및 골동품 판매.

<http://www.artseoul.net/artplaza/antique>

주홍예술사업

고도사 등 대표적인 고미술 화랑과 연계, 소장품 소개.

<http://www.artcity.co.kr/artbusiness/>

일본 속의 한국 문화재

일본의 교토, 나라, 오사카 지역의 박물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유물 소개.

<http://www.ccnews.co.kr/remains/kyoto/>

外

제 2 절 해외 조사

1. 문헌 조사

Metropolitan Museum of Art Recent Acquisitions ; A Selection 1986
L'Ennaisance de Arts Les Champs de la Sculpture 1996
Sachio Yoshioka The Splendor of Kosode 1990
Christiane Blass DDR Souvenirs 1994
Eric Knowles Miller's Royal Memorabilia 1994
Brigham Young University RAMSES II 1985
A Vallardi Guide Miller di Antiquariato Victoriana 1992
Jacques Damase Porcelaines Faiences 1992
Peggy Ann Osborne Button Button 1993
Birthe Koustrup Motifs Indiens 1992
Kate Dooner A Century of Handbags 1993
H. Edward Kim Korea Beyond the Hills 1985
호암갤러리 프랑스유리예술100년전 1986
호암갤러리 아르누보유리작품전 1984
外

2. 박물관 조사

가. 미국

국립 박물관

The Smithsonian Institution
<http://www.si.edu/newstart.htm>

일반 박물관

Michael C. Carlos Museum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http://www.cc.emory.edu/CARLOS/carlos.html>

Harvard University Art Museums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http://www.artmuseums.harvard.edu/Sackler_Pages/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http://www.dia.org>

디자인 박물관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Smithsonian Institution

1967년, 스미소니언 재단의 한 부분으로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분야는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이다.

<http://www.si.edu/ndm/home/home.html>

The Chicago Athenaeum:

The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건축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산업디자인, 도시계획 등 모든 디자인 분야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굿 디자인'의 가치와 디자인이 인간의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한차원 높이는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http://www.chi-athenaeum.org>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oMA)

1926년, 동시대의 시각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상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 20세기 예술 작품들은 물론, 천여 점이 넘는 드로잉과 60점의 건축 모델, 3천 여점이 넘는 오브제, 4천 여점이 넘는 그래픽 디자인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http://www.moma.org>

나. 영국

국립 박물관

The British Museum

<http://www.british-museum.ac.uk>

디자인 박물관

Design Museum

1989년 런던에 세워진 디자인 전문 박물관으로, 컬렉션 갤러리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품들이 테마별로 전시되며, 리뷰 갤러리에서는 국제적이며 동시대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볼 수 있다.

Tel: +44-171-403-6933 Fax: +44-171-378-6540

http://www.southwark.gov.uk/tourism/attractions/design_museum/

Crafts Council

현대 공예의 장려를 위한 국립 기관으로, 공예 전시장, 픽처 라이브러리, 포토 스토어, 자료 도서관, 갤러리 샵 등으로 구성돼 있다.

<http://www.craftscouncil.org.uk>

London Transport Museum

런던에 소재한 자동차 박물관.

Tel: +44-171-379-6344

The Corning Museum of Glass

뉴욕 소재, 유리 관련 전문 박물관이다.

<http://www.pennynet.org/glmuseum/corningm.htm>

The National Plastics Center & Museum

1992년 매사추세츠 레오마스터시에 세워진 비영리 플라스틱 기관으로, 관련 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npcm.plastics.com>

다. 독일

국립 박물관

German Historical Museum

<http://www.dhm.de/>

디자인 박물관

Vitra Design Museum

1989년에 오픈한 가구 전문 박물관으로 2천개 이상의 세계적이며 역사적인 가구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지의 순회 전시 및 가구 도서관,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http://www.vitra.com/vdm/>

Kunstgewerbemuseum (Museum of Decorative Arts)

중세 유럽부터 현대까지 예술, 공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베를린 소재 장식 미술 박물관으로, 특히 중세 유물이 불 만하다.

<http://expedia.msn.com/wg/places/Germany/Berlin/A10011018.htm#>

라. 프랑스

국립 박물관

Louvre Museum

<http://mistral.culture.fr/louvre/louvre.htm>

디자인 박물관

Centre Georges Pompidou, MNAM/CCI

1969년, 산업디자인 센터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 조지 폼피두 센터로 이관되었다. CCI (Industrial Design Center)와 MNAM (National Modern Art Museum)의 결합은 디자인 및 건축 전시의 원동력으로, 150여 개의 디자인 관련 전시를 주관해 왔다.

Tel: +33-1-4478-1233 Fax: +33-1-4478-1207

<http://www.cnac-gp.fr/english/museum/mnam-cci.html>

Musée des Arts Décoratifs

가구, 드로잉, 금속공예, 자기, 유리, 텍스타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30,0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파리 소재.

Tel: +33-1-4260-3214 Fax: +33-1-4260-3852

Musée Baccarat

유명 향수 회사, 디자이너, 예술가들의 역사적, 문화적, 현대적으로 가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탈 제품들을 모아놓은 파리의 사설 박물관.

Tel: +33-1-4770-6430

Musée de Radio - France

라디오와 TV의 역사 박물관. 파리 소재.

Tel: +33-1-4230-2180

Musée National des Techniques

(National Museum of Technology)

기계, 모델, 공구, 드로잉, 자료 등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립 박물관.

Tel: +33-1-4027-2220

마. 이탈리아

국립 박물관

Cimitero Monumentale di Milano

<http://nerve.itim.mi.cnr.it/>

디자인 박물관

Biblioteca Civica del Mobile e Dell'Arredamento

(Civic Furniture and Decor Library)

디자인 학교 및 제조업체들의 기금으로 조성된, 가구, 패션 디자인 분야
자료관으로 Lissone 소재.

Tel: +39-39-7397281

Collezione Alessi

알레시(Alessi) 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디자인 박물관으로, Crusinallo
소재.

Tel: +39-323-6511

Museo Degli Argenti Contemporanei

(Contemporary Silverware Collection)

은세공품 전문 박물관으로 Sartitana 소재.

Tel: +39-384-800804

Museo Dell'Arredo Contemporaneo

(Museum of Contemporary Furnishings)

가구 및 조명 전문 박물관으로 Russi 소재.

Tel: +39-544-419299

Museo Dell'Automoblie Carlo Biscaretti di Ruffia

(Carlo Biscaretti di Ruffia Automobile Museum)

세계 최대 자동차 관련 박물관 중의 하나로, 토리노 소재.

Tel: +39-11-677666

Museo Della Ceramica

(Ceramic Museum)

이탈리아 도자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도자기 박물관.

Tel: +39-323-666530

바. 스위스

국립 박물관

Schweizerisches Landesmuseum (Swiss Museum)

<http://www.museum.dom.pl/nm>

디자인 박물관

Museum für Gestaltung Zurich

(The Zurich Museum of Design)

디자인 전분야를 망라하는 박물관으로, 컬렉션과 주제별 전시, 출판, 뮤지엄 샵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Tel: +41-1-446-2211

Fax: +41-1-446-2233

http://abelnsz.hgkz.ch/museum/m_hot.engl.html

Musee de l'Horlogerie

제네바 소재 시계박물관

Verkehrshaus der Schweiz

루체른 소재 스위스 교통박물관

사. 핀란드

국립 박물관

The National Museum of Finland

http://www.helsinki.fi/~arlarl_www/museot/kmuseo.html

디자인 박물관

Design Museum Finland

(Museum of Applied Arts)

헬싱키 소재 디자인 전문 박물관.

<http://www.finnishdesign.fi/museums/nayttelyt/ttm97.html>

Helsinki Fiskars Museum

세계적인 공구회사인 휘스카스사가 1897년 헬싱키에 설립한 박물관으로 각종 생활도구와 금속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http://www.fiskars.fi/village/buildings/ftalo23e.htm>

아. 노르웨이

국립 박물관

The Norwegian Emigrant Museum
<http://www.hamarnett.no/emigrantmuseum/>

디자인 박물관

The Museum of Applied Art, Oslo
(Kunstindustrimuseet i Oslo, KIM)
1876년에 설립되어 노르웨이 및 전세계적인 공예, 디자인 관련 컬렉션 35,000점을 전시하고 있는 오늘날로 소재 박물관.
Tel: +47-22-20-3578 Fax: +47-22-11-3971

The Museum of Applied Art, Bergen
(Vestladske Kunstindustrimuseum, VK)
1987년 베르겐에 설립되어 공예,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관련 전시를 하고 있으며, 중국 전시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Tel: +47-55-32-5208 Fax: +47-55-31-7455

The Museum of Applied Art, Trondheim
(Nordenfjeldke Kunstindustrimuseum, NK)
트론헤임에 소재한 이 박물관은 현대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이룬다.
Tel: +47-73-52-1311 Fax: +47-73-53-5111

Hadeland Glass Museum
(Hadeland Glassmuseum)
18세기 중엽부터 현대까지 노르웨이 유리 제품 전시.
Tel: +47-61-01-1000

자. 덴마크

국립 박물관

The National Museum of Denmark
<http://www.natmus.min.dk/PP/PPhistgb.htm>

디자인 박물관

Danish Museum of Decorative Art
(Det Danske Kunstindustimuseum)

디자인, 공예, 장식미술 등 각 분야에 걸쳐 현대 가구, 세라믹, 유리, 산업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은, 보석류 등의 덴마크 디자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디자인 박물관이다.

<http://www.kulturenet.dk/homes/dkm>

Glasmuseum

덴마크의 유리공예가 Finn Lyndgaard에 의해 설립된 사립박물관이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유리공예가들로부터 기증받거나 대여한 2,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Ebeloft 소개.

<http://www.glass.dk/info/info.html>

차. 일본

국립 박물관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http://www.rekikaku.ac.jp>

Kyoto National Museum

한국문화재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검색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다양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http://www.kyohaku.go.jp>

디자인 박물관

International Design Center, Nagoya, Design Museum

나고야 디자인 센터 빌딩에 개설된 디자인 박물관으로, 실제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각종 디자인 자료들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으며, 주제별 이벤트나 전시를 기획한다.

<http://www.idcnagoy.co.jp/idcn/5/e/pege5-2.html>

Axis gallery

도쿄 중심가 룩본기에 자리한 액세스 디자인 박물관은 ‘디자인이 있는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디자인 전시와 쇼핑공간이 함께 하는 이색적인 박물관이다.

http://www.axisnc.co.jp/English_f/E_top.html

카. 대만

국립 박물관

The National Palace Museum
<http://www.npm.gov.tw/english>

타. 중국

국립 박물관

The Palace Museum (古宮博物園)
<http://www.net.edu.cn/beijing/palace.html>

Beijing Art Museum
<http://www.com/beijing/tour/museum/wanshou/index.html>

파. 기타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http://www.icom.org/vlmp/>

Stanford University (CoOL)
<http://palimpsest.stanford.edu/>

Illinois State Museum
<http://www.museum.state.il.us/>

University of Reading
<http://www.cs.reading.ac.uk/museum>

Museums in Canada
<http://www.chin.gc.ca/Museums>
外

3. 관련 웹 사이트 조사

Period and Style for Designers

미국 Tulane 대학 휴 레스터(Hugh Lester) 교수의 '디자이너를 위한 시대와 스타일 (Period and Style for Designers) 강의에 사용된 내용으로, 역사 속 시대의 주요 문화가 건축물과, 장식물, 가구 등의 문화 유물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탐구하며, 각 시대별 문화 사조별 이미지들을

현대의 디자이너들이 참고할 수 있다.

<http://www.tulane.edu/lester/text/lester.html>

Historical Gallery

<http://gallery.sjsu.edu/>

미국 산호세주립대학교 (San Jose State University)의 School of Art and Design에서 개설한 웹 갤러리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하여 유형별, 장소별, 시대별, 스타일별로 찾아볼 수 있으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사진 자료가 유용하다.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n Taiwan

중국 전통 문화재의 분야별 설명 및 사진 소개.

<http://www.gio.gov.tw/info/culture/culture.html>

Sezione Turismo

이탈리아 조각상을 시대별로 검색해 볼수 있는 사이트.

http://www.thais.it/scultura/default_uk.htm

Dolce Vita

이탈리아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 트렌드, 재료, 역사, 인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홈 페이지.

<http://www.dolcevita.com/design/>

“Masterworks: Italian Design, 1960-1994”

뉴욕의 The Bard Graduate Center for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에서 개설한, 이탈리아 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홈 페이지.

<http://www.designwave.com/e.scape/bard.html>

Furniture · meubles · mobili · muebles · möbel

가구 산업, 역사, 디자인에 관한 정보 제공 홈 페이지.

<http://www.iserv.net/~plucas/>

Swissart Network

스위스 예술 관련 정보 제공

<http://www.swissart.ch/>

外

제 3 절 자료 출처 목록

1. 서적

-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96)
- 2) 한국의 아름다움 / 옷, 장신구, 보자기 (국립중앙박물관, 1988)
- 3) 한국의 선·원사토기 (국립중앙박물관, 1993)
- 4)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1989)
- 5)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1990)
- 6)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1997)
- 7)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1988)
- 8) 한국 짚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1)
- 9) 한국의 종이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5)
- 10)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96)
- 11)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96)
- 12)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민속박물관, 1988)
- 13) 옛 가구의 아름다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6)
- 14) 목공소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1)
- 15) 한국의 장신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1)
- 16) 목공예명품도록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 17) 성균관대학교 박물관도록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983)
- 18) 가마와 소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1986)
- 19) 경희대학교 박물관도록 (경희대학교박물관, 1986)
- 20) 석주선, 장신구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96)
- 21) 석주선, 관모와 수식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93)
- 22) 농업박물관 이야기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23) 한솔종이박물관 이야기 (한솔종이박물관, 1997)
- 24) 김창문, 나의 지계자리 (태정민속박물관, 1995)
- 25) 국보 1 - 고분금속 I (예경산업사, 1986)
- 26) 국보 2 - 고분금속 II (예경산업사, 1986)
- 27) 국보 5 - 청자-토기 I (예경산업사, 1986)
- 28) 국보 6 - 청자-토기 II (예경산업사, 1986)
- 29) 국보 10 - 공예 II (예경산업사, 1986)
- 30) 국보 15 - 백자-분청사기 I (예경산업사, 1986)
- 31) 김원용, 한국미술전집1 - 원시미술 (동화출판공사, 1973)
- 32) 진홍섭, 한국미술전집3 - 토기 도우 와전 (동화출판공사, 1974)
- 33) 진홍섭, 한국미술전집8 - 금속공예 (동화출판공사, 1974)
- 34) 최순우, 한국미술전집9 - 고려도자 (동화출판공사, 1975)
- 35) 정양모, 한국미술전집10 - 이조도자 (동화출판공사, 1973)

- 36) 최순우, 정양모, 한국미술전집13 - 목칠공예 (동화출판공사, 1974)
- 37) 한국의 미 5 - 토기 (중앙일보사, 1981)
- 38) 한국의 미 23 - 금속공예 (중앙일보사, 1981)
- 39) 인병선, 빛깔있는 책들 1 - 짚문화 (대원사, 1997)
- 40) 홍정실, 빛깔있는 책들 2 - 유기 (대원사, 1994)
- 41) 나선화, 빛깔있는 책들 3 - 소반 (대원사, 1994)
- 42)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3 - 전통부채 (대원사, 1994)
- 43) 박대순, 빛깔있는 책들 17 - 농기구 (대원사, 1995)
- 44) 이겸노, 빛깔있는 책들 22 - 문방사우 (대원사, 1996)
- 45) 권도홍, 빛깔있는 책들 26 - 벼루 (대원사, 1994)
- 46) 강경숙, 빛깔있는 책들 31 - 분청사기 (대원사, 1990)
- 47) 홍정실, 빛깔있는 책들 33 - 장식과 자물쇠 (대원사, 1996)
- 48) 김기웅, 빛깔있는 책들 125 - 고분 유물 (대원사, 1995)
- 49) 김삼대자, 빛깔있는 책들 159 -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5)
- 50) 이명희, 빛깔있는 책들 168 - 궁중 유물(돌) (대원사, 1996)
- 51)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69 - 옛 안경과 안경집 (대원사, 1995)
- 52) 임영주, 빛깔있는 책들 187 - 종이 공예 문화 (대원사, 1996)
- 53)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上, 下 (열화당, 1996)
- 54)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 (범우사, 1997)
- 55) 정대영, 한국의 장 (동인방, 1998)
- 56) 옛 문방문화전 (고도사, 1996)
- 57) 한국의 전통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 58) 최성자, 韓國의 美 선/색/형 (지식산업사, 1995)
- 59) 신영훈, 우리문화 이웃문화 (문학수첩, 1997)
- 60) 전상운,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 (월간시계사, 1994)
- 61) 한국과학 문화재단, 우리의 과학문화재 (도서출판 서해문집, 1997)
- 62) 관조스님, 꽃문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6)
- 63) 인병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 (현암사, 1995)
- 64) 김창문, 韓國の家具裝飾 (일본 平河出版社, 1990)
- 65)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학고재)
- 66)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 67)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정화 - 입사공예 (국립중앙박물관, 1997)
- 68) 연장 (전통공예공구) (연세대학교 박물관, 1984)
- 69) 짚제품 특별전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
- 70) 서울올림픽기념 서울시민 소장 문화재전
- 71) 제6회 서울시민 소장 문화재전
- 72) 개관10주년기념 기증자료전시회 (광주민속박물관, 1997)
- 73) 월간 매종(Maison) (가야미디어, 1996. 7월호, 8월호)
- 74) Calendar 함 (삼성그룹, 1998)

2. 논문

- 1) 유재선 조선조 민예품에 나타난 실첩, 실상자의 조형적 특성, (이화여대 대학원, 1984)
- 2) 이숙임, 이조시대의 실내장식 (이화여대 대학원, 1958)
- 3) 손미자, 조선시대 죽재가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79)
- 4) 김경옥, 이조시대 사랑방가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1972)
- 5) 이원영, 조선조 주방용 가구와 목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1)
- 6) 김옥광, 천·종이를 사용한 조선시대의 가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2)
- 7) 여영, 조선조 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1985)
- 8) 최사은, 조선 후기 백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 9) 조유진, 조선조 금속상감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81)

3. 웹 사이트

- 1)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2) 국립부여박물관
<http://www.museum.go.kr/~puyo>
<http://kitel.co.kr/~sunghoon>
- 3) 호암미술관
<http://www.hoammuseum.or.kr>
- 4) 창녕박물관
<http://gun.changnyong.kyongnam.kr/chang26.htm>
- 5) 한국자수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jasu/index.html>
- 6) 고려대학교박물관
<http://korea.insights.co.kr/korean/museum/korea/index.html>
- 7) 경북대학교박물관
<http://gic.kyungpook.ac.kr/vl/museums/>
- 8) 동아대학교박물관
<http://www.donga.ac.kr/museum>

- 9)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박물관
<http://www.cataegu.ac.kr/museum>
- 10) National Treasure of Korea
<http://firefox.postech.ac.kr/treasure>
- 11) 아트서울
<http://www.artseoul.net/artplaza/antique>
- 12) 주흥예술사업
<http://www.artcity.co.kr/artbusiness/>
- 13) Kyoto National Museum
<http://www.kyohaku.go.jp>
- 14) 일본속의 한국 문화재,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Koryo Museum)
<http://www.ccnews.co.kr/remains/kyoto/>

부록 사진 자료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 개발 보고서이다.
2. 이 연구 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기반기술사업의 연구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이 보고서는 연구용이므로,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별도로 활용코자 할 때는 자료출처에 명기된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산업자
원부에서 시행한 산
업디자인기반기술개
발사업의 디자인연구
개발 보고서입니다.

아니고 원배미국의 수공업과 기계공업에 비교하여 농업 생산과 임업 생산은 원배미국의 수공업과 기계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